

제 10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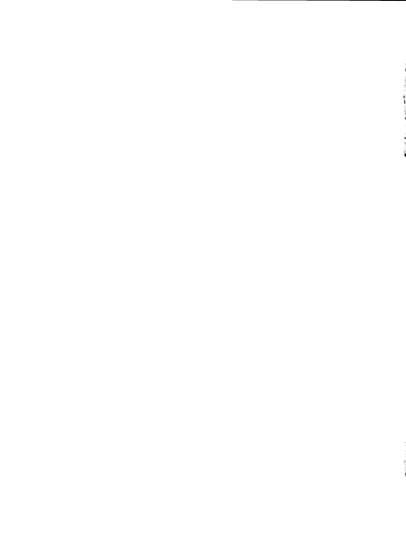
2006 정기총회 자료집

일시 : 2005년 1월 17일(화) 오후4시-7시

장소 : 장충동 분도빌딩 5층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제 10 차

2006 정기총회 자료집

일시 : 2005년 1월 17일(화) 오후4시-7시

장소 : 장충동 분도빌딩 5층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목 차

■ 회순	
■ 대표인사	5
■ 이길현숙 권 이사장 격려사	7
I. 2005 사업보고 및 평가	
1. 사업총괄평가	11
2. 사업보고	
1) 한반도평화센터	15
2) 갈등해결센터	35
3) 일상평화센터	78
4) 회원참여센터	85
5) 국제연대위원회	92
6) 한국여성평화연구원	106
7) 정보사업	111
8) 연대사업	113
3. 사업별 활동일지	124
■ 회계 사업 감사보고서	131
II. 2006 사업계획안	
1. 사업방향	135
2. 사업계획	
1) 한반도평화센터	139
2) 갈등해결센터	141
3) 일상평화센터	147
4) 회원참여센터	148
5) 한국여성평화연구원	150
6) 정보사업	150
7) 10주년기념사업위원회	152
3. 월별 사업계획표	154
<부록 >	
■ 정관 및 운영규정	157
■ 조직구성표	165
■ 남북관계기본발전법 시민단체안	166
■ 설명서	174
■ 평화여성회 발간자료 목록	215
■ 연공보도 모음	216
■ 제13회 시민인권상 수상	

대표인사

2006년 한 해가 회원 모든 분에게 더욱더 평화로운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05년에 평화여성회 활동목표는 “분단 60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여성평화·통일운동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평화여성회는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해피공동행사준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남측위원회 여성본부’의 결성을 주도하였습니다.

북측에서도 여성분과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남북 여성간의 상설연대조직을 구성하는 역사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어 6.15 5주년 남북공동행사, 광복60주년 8.15인종공동행사 시 남북여성연대모임, 9월 ‘2005남북여성통일행사’ 등을 개최하며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를 위해 수많은 남북간의 실무접촉과 남측 여성본부 내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였습니다.

6.15공동위와 여성본부의 결성은 통일에 관심을 갖는 제계층을 망라하여 민간통일운동의 구실을 다시 세우고, 단절된 남북 당국 간의관계 복원, 북핵문제를 둘러싼 4차 6자 회담의 재개, 한반도의 위기국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나아가 남북여성교류를 정제화하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실현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의제를 개발하여 통일,외교,안보분야, 남북 관련 법,제도에 점목하는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9.19공동성명의 ‘한반도평화체제구축논의’를 위해 여성의 역할을 모색하였습니다. 한반도부적합등예방과 평화를 위해 ‘무장간통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PAC)’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동북아지역대회, GPPAC지역대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한국여성과 시민사회의 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려내었습니다.

갈등해결프로그램은 보다 더 전문화되어 여러 사회영역에 확장되어졌으며, 평화시위문화형성을 위한 노력은 이라크전쟁반대, 파병철폐, 평택기지이전반대 등의 행사를 통해 표현되었습니다. 여성평화운동사를 발간하는 긴 작업과정에서 여성평화운동의 담론형성이 얼마나 절박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면서도 여력이 없어서, 미처 깨닫지 못해 하지 못한 일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 하신 회원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여하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2006년의 시민운동의 주요테마는 사회 양극화해소와 한반도 평화입니다.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 등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희망의 대안과 우리안의 피해적인 이남대결과 갈등의 소모적인 양상을 넘어 한반도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희망의 대안이 요청됩니다.

올해는 북한위조지폐 논란, 북한인권 등을 통해 가속화되는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으로 북미간의 긴장과 5차6자회담의 지연 등 여러 가지 정세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북핵문제 진전과 함께 남북관계는 병행, 발전할 것이 예상됩니다. 여성의 눈으로 남북교류협력의 확대, 남북대화의 제도화, 국제연대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며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여성회의 2006년 사업방향을 '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 여성평화운동의 역량 강화'로 세웁니다.

시민사회에서 불고 있는 성찰과 혁신의 바람은 우리 조직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정부가 전개하고 있는 혁신운동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의 혁신이 시급함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목표의 진정성, 여성평화운동의 담론과 의제 및 실현에 있어서 현재 우리의 여건, 현실적 역량과 성실성, 자기 자신에게서 출발하는 지극한 자기 성찰, 비전의 재생산, 열정과 상상력, 서로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예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변성과 혁신이 있어야겠습니다.

여성평화행동의 정신적, 이론적 근거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활동 방식과 시스템 연구, 자율과 통합의 경영마인드, 여성평화인력의 재생산과 확대 등 총체적 점검과 새로운 설계, 이는 바로 내년인 2007년에 10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이자 책임입니다. 향후 10년의 평화여성회 운동비전 형성에 책임의식을 갖고 우리 모두 마음을 열어 여성평화운동에 주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05년에는 분단60년을 맞이하여 유난히 일도 많았고, 실무력은 부족하여 사무처 활동가들, 운영위원들께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사님, 회원들의 격려와 돌봄의 우정을 많이 느끼며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올해도 든실한 평화의 우정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06년 1월17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김숙임, 심영희, 김정수

격려사

이길현숙(평화여성회 전 이사장)

사랑하는 평화여성회 가족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어 많이 반갑습니다.
2006년에도 건강하시고 가슴 속에 키워온 개인적 희망들을
다 잘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또 다시 새해 앞에 섰습니다.
새해는 개인이나 단체나를 묻지 않고 누구에게나 고른 기회로 다가온다는 점에서
저전히 희망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희망 속에 평화의 그림을 그려넣고 통합의 노래를 불러내기 위해
가슴 가득 넘치는 정열과 역사에 대한 애정으로
또 한 해를 설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한 쪽으로 세상을 평화로 바꾸고
다른 한쪽으로 우리를 새 사람들로 빚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보면
2006년도 맘 땀속에서 흘러가게 되겠지요.

꿈을 흘리고 또 흘려도 땅의 결과는
눈에 감히지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다고
우리는 허망해하고 실망하고 허탈해 할지도 모릅니다.

나의 스승 중에 김재준 목사님이 계셨지요.
그교를 업으로 하는 그분의 제자들은 늘 불평했습니다.
부러워 설교를 해도 교인들의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분은 말씀했지요.
"나뭇잎에 물을 주면 어떻더냐?
물을 찾는 즉시 물은 다 빠져 내리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시루의 증은 증이름도 변해서 시루를 하나 가득 채우지 않더
냐?

늘 허당해 보이는 평화운동도 콩나물에 물주듯이 하다 보면
어느 날 이 땅에 평화의 꽃이 하나 가득 피어있지 않겠어요?
힘없이 보이는 꾸준한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허약해 보이는 우리의 꿈과 목소리를 함께 모으다 보면
우리의 꿈과 희망은 현실이 되어 있지 않겠어요?

지난 한해 우리 평화여성회 가족 모두의 몸짓은
아름다웠었습니다.
힘이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선택에도 우리 가족 여러분은
화해를 만들어내고
관용을 만들어 내고
웃음을 만들어 내고
더불어 사는 길을 만들어 내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평화여성회 가족 여러분
아자, 자, 자, 자.

끝

정기총회 순서

1 부 : 여는마당 (오후 4:00-5:00)

(사회: 김정수 공동대표)

‘여성평화운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강연

강사: 심 영 희 (평화여성회 공동대표)

2부 : 정기총회(오후 5:00)

사회: 최선희 사무처장

평화영상		
인사말씀	_____	공동대표
격려사	_____	이김현숙/대한적십자사 부총재
성수보고	_____	사무처장/최선희
개회선언	_____	의장/김숙임 상임대표
회순제대	_____	의장
전 회의록 승인	_____	서기
사업감사보고	_____	감사/이정희
2005년도 사업보고 및 승인	_____	사무처장/최선희
회계감사보고	_____	감사/한국영
2005년도 회계결산보고 및 승인	_____	회계
임원선출	_____	
선출임원 인사	_____	
2006년 사업계획안 보고 및 승인	_____	사무처장/최선희
2006년도 예산안 보고와 승인	_____	회계
모범회원 시상	_____	의장
회의록 발음	_____	서기
폐회 선언	_____	의장

3부: 식사와 덕담나누기(사회: 최선희 사무처장)

2005년도 사업평가

..... ■ 2005년 총괄평가

..... ■ 2005년 사업 평가

..... ■ 2005년 사업별 활동일지

I. 2005사업보고 및 평가

1. 사업총괄평가

사업목표 : “분단 60년을 맞이하여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여성평화·통일운동을 강화하자”

2005년은 남북분단 60주년과 미국의 부시행정부 2기 출범,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을 맞이하여 남북관계의 비약적 진전, 북미관계의 무침, 변화하는 한미동맹을 둘러싸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가 중심적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제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의 지평을 연 역동적인 한 해였다.

평화여성회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인 2005년의 주요 사업방향으로 “분단 60년을 맞이하여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여성평화·통일운동을 강화하자”라는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이를 위해 ‘한반도의 무력감등 및 분쟁예방과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여성의 통일노력을 적극화한다’, ‘여성평화운동의 정치성과 담론을 형성한다’, 그리고 ‘분단 60년을 맞이하여 여성주의 평화문화화를 확산하고, 여성평화·통일운동을 질적, 양적으로 강화한다’라는 주요사업방향을 수립하였다. 이같은 주요사업방향은 아래의 사업목표들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1) 남북분단 60년 극복을 위한 한반도평화·통일운동 전개

본회는 2005년 민간통일운동의 중심체인 ‘6.15실천을위한 남북해외공동사업행사준비위원회 남측 여성본부’(이하 ‘여성본부’) 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남측의 55개 다양한 여성단체가 통일운동을 위해 참여하고 있는 여성본부에 공동대표, 공동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으로 참여하여 6.15 공동행사(평양)와 8.15 민족대축전(서울)의 남북여성상봉행사와 9월에 평양에서 열린 ‘2005 남북여성통일행사’를 성사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 위 행사에 평화여성회 회원들도 다수가 참여하여 남북여성교류를 주도하는 전통과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평양에서 열린 ‘2005 남북여성통일행사’는 분단 60년 만에 100여명의 남측의 여성들이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하여 북측의 여성들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미래를 함께 설계한 역사적 행사였다. 이를 통해 본회의 참석회원과 남측의 여성들은 북측사회와 여성들을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향후 남과 북의 평화로운 상생

과 통일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요청되는 상호이해와 수용, 인내의 필요성, 이를 위한 북한사회와 북한여성에 대한 이해 및 통일교육의 활성화라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한편, 2005년 한 해 동안 북핵문제는 남북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강대국이 포함된 6자회담을 통해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 평화여성회는 2월에 있었던 북핵보유발언 전후로 시민사회와 평화단체들과의 연대모임과 토론회 개최,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였고, 9.19 공동선언 이후에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여성평화운동의 과제를 '2006평화통일정책 전망을 위한 여성전문가포럼-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 여성'을 통해서 모색하였다. 이 포럼을 통하여 주제에 대한 일정한 정책의제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체계적인 여성평화운동의 의제개발, 정책제안, 실천 확대 등의 과제를 가지고 있다.

평화여성회는 2005년 '한반도의 무력감동 및 분쟁예방과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노력을 '무력감동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PAC) 과정에 대한 적극적이고 주도적 참여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였다. 한반도의 평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동북아의 평화 및 냉전구조해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GPPAC 과정에서 본회는 동북아지역대회, GPPAC 뉴욕대회 성사를 위해 동북아지역 발의자(Regional Initiator)와 GPPAC Korea의 연락책임(Focal Point)의 역할을 담당하여 한국여성과 시민사회의 노력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내고 동북아시아 시민사회의 평화협력을 위한 기초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국제연대 중심으로 진행되는 GPPAC 외제의 시민사회와 여성운동으로의 확산 및 홍보를 통해 국내운동의 과제로 뿌리내리는 차원까지 진전시키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향후 한반도 무력감동예방과 평화실현을 위한 국제연대 외제의 국내적 전개를 위한 소통과 확산이라는 과제를 남기게 되었다.

변화하는 한미동맹의 성격과 이에 따른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으로의 대규모 이전은 시민사회와 평화운동, 평택지역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본회는 평등한 한미관계의 수립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수립에 저해되는 주한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시민·민중운동에 지속적으로 연대해왔다. 그럼에도 한미동맹의 변화와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여성평화운동의 의제개발과 실천적 과제를 시민사회와 여성운동에 확산시켜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2) 여성평화운동의 담론 및 정책개발

본회는 2005년 한해 여성평화운동의 담론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한국여성평화운동사'를 기획·발간(2006년 1월)하였다. 이로써 여성들의 통일, 평화군축, 남북 여성교류, 반전반핵, 여성인권, 법·제도적 정책대안형성, 평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

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평화운동의 흐름과 현재를 조망함으로써 여성평화운동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여성주의적 평화운동의 담론생산과 이에 근거한 여성평화운동의 실천을 확산해야 할 것이 요청된다.

한편, 본회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평화동일의 제도적 장치를 위한 ‘남북관계발전 기본법’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법안은 2005년에는 채택되지는 못했으나 향후 국회에서 채택되도록 함 통일평화운동의 과제가 남겨져 있으며 이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과 양성평등의 통일의 원칙과 과정을 반영시켜야 할 것이 요구된다.

(3)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본회는 갈등해결센터와 일상평화센터를 통해 여성주의적 평화감수성과 비폭력 평화주의의 가치와 내용을 교육과 심성훈련을 통해 보다 다양하게 학교와 지역, 시민사회에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갈등해결프로그램은 학교에서의 평화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뿐 아니라 공공갈등영역, 지역갈등·분쟁에 대한 조정훈련 등 다양한 영역과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평화심성을 문화적 차원에서 개발한 평화퍼포먼스를 통해 비폭력평화주의의 사회화를 새롭게 시도하여 평화문화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또한 이라크와범반대국민행동등의 지속적인 참여에 있어서 기존의 집회 방식을 벗어나 고 김선일씨 추모집회, 신디 새한과의 연대행사 등에서 시도한 평화명상, 평화꽃등단기 등 여성과 평화의 시각이 반영된 평화집회문화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여 이를 대중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본회가 군대 내 인권상황의 개선과 군사주의 문화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군 음부즈만제도’ 도입 역시 정부의 ‘범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제안되어 군대문화개혁을 위한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본회의 갈등해결·평화교육, 평화퍼포먼스와 평화적 집회문화, 군사주의 문화에 대한 대안 제시 등은 이제 시민사회의 평화페러다임으로 전환되어 비폭력 평화주의의 대중화로 확산시켜야 할 것이 요청된다.

(4) 여성평화운동의 인적, 물적 인프라 확대

본회는 2005년 한 해 동안 갈등해결센터의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일상평화센터의 평화심성단 등의 도입을 통해 회원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참여의 기반을 쌓고 있다. 또한 서울과 지역에서 개최한 여성통일학교, 금강산 통일기행 등 여성통일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대중에게 여성평화통일운동을 확산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아울러 여성평화 웹진발행, 홈페이지 개선 등으로 사이버 여성평화운동의 지평도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과 성과는 평화여성회 회원 확대와 회원 개개인의 평화역량 강화를 위한 일상적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지속가능한 여성평화운동의 주체역량을 형성하여 시민사회에서 평화운동을 평

확인시켜야하는 과제로 남겨져 있다.

전체로서 2005년 한 해 평화여성회는 남북여성교류와 여성통일운동,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 여성의 관점에서 평화체제 형성, 갈등해결교육의 확산과 군사주의문화 극복과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새로운 실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주의적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운동은 시의적절한 성명서발표와 집회참여 토론회 개최, 대중교육과 제도화를 위한 정책대안 제시 등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주의적 통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시민사회에서의 주도력 의제개발과 대안과 정책의 제시, 그리고 전략과 담론생산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를 노정했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활동 역시 회원들의 평화역량과 조직의 내적 강화로 전환시키지 못했던 점이 있다. 이를 위해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의제개발과 직접적 평화행동과 평화교육의 확산을 통한 평화문화의 정착, 이를 위한 여성주의 평화운동의 담론생산과 전문적 정책대안제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여성평화운동 주체 역량의 강화가 평화여성회의 활동을 통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2. 사업보고

2-1.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 정경만)

1. 2005년 사업방향

2005년은 6·15공동선언 발표 5돐, 조국 광복 60돐을 맞아 전쟁을 반대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며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다.

특히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반도에서 긴장과 전쟁 위험은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핵문제 해결과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해 세가지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한반도 내에서 남북한 사이에 평화공존의 틀을 형성하기 위해 여성들의 교류협력, 통일노력을 강화한다. 둘째, 한반도 전쟁 위험은 미국의 북한정책을 포함한 한반도 정책과 연결되어 있는 바, 한반도 정책을 포함한 미국의 정책에 대응한다. 셋째, 북한의 핵문제, 일본의 군사화와 중국의 군비 증대 등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형성을 위해 이 지역의 시민사회와 평화공존을 위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따라서 2005년 한반도평화센터의 사업방향은 1) 여성의 통일운동 참여 및 강화, 2) 미국의 한반도 정책 대응 및 군축 노력, 3)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 동북아 시민사회와 연대하는 것이다.

한반도평화센터의 사업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정에서 여성참여(Women's Participation), 분단상황에서 여성의 인권보호(Protection of women), 한반도 전쟁예방(Prevention of conflict)을 위한 활동이 될 것이다.

2. 2005년 사업목표

- 1) 615공동선언 5년과 분단 60년을 맞이하여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상황에 맞도록 여성의 통일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강화한다.
- 2) 남북여성교류사업을 지속, 강화하여 남북화해와 협력에 기여한다.
- 3) 미국의 한반도 정책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군축과 평화과정에서 여성들이 적극 참여할 수 방안을 모색한다.

- 4)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정책생산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여성전문가를 발굴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여성전문가, 활동가, 원로 네트워크를 추구한다.
- 5)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실현을 위해 동북아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한다.

3. 2005년 사업계획

1) 여성의 통일노력 참여 및 강화

분단60년, 6·15공동선언 5주년을 맞이하여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화하고, 6·15실현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추진위원회 여성본부 활동에도 적극 결합한다.

- ① 6·15 5주년, 남북여성교류의 평가와 전망 토론회 개최 (2-3월)
- ② 남북여성통일행사 공동 기획 및 참여(상반기 예정)
- ③ 여성본부 대공동일사업 공동기획 및 참여 (6월-8월 초중순)
- ④ 여성평화, 통일관련 고양지 제작

2) 미국의 한반도 정책 대응 및 군축 노력

- ①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 집행을 위한 활동-여성, 평화와 안보 관련하여 군축과 평화과정에 여성의 참여 증진
- ② 군축과 젠더, 현안대응을 위한 토론회 및 국정감사활동
 - 젠더와 군축활동과 관련되어 제기되는 주요 주제 -누가 군축의 행위자인가, 어떻게 젠더 경제성을 형성할 것인가, 젠더 관계, 젠더 불평등이 정치와 정책을 어떻게 형성하는가 -를 고려하며 현안에 대응한다.
 - 이 활동들은 장기적으로 국방, 안보, 외교정책에서 있어서 우리의 경험이 가치적이고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누가 정책결정과정에 접근하는지, 안보, 평화 관련 정책결정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과 우선성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과 연결될 것이다.
- ③ '반전평화여성행동'을 통한 사안별 공동행동 조직과 공동실현

3)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실현을 위한 동북아 시민사회와 연대

한반도 평화,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동북아의 평화 및 냉전구조 해체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무력갈등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PAC) 동북아 지역대회를 통해 한반도 평화형성을 위한 한국여성과 시민사회의 노력을 적극 알려내며, 동북아시민사회와 협력률을 모색한다.

4. 2005년 사업내용

1) 한반도평화센터 스터디

(참여 : 김숙임, 김현희, 안정애, 전은주, 정경란, 조영희, 최선희)

주제 : 미국의 신군사전략, 주한미군재배치와 한미동맹, 한미상호방위조약 등

도서 : <주한미군>,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관측기 >, 한울출판사

가. 일시 및 장소

- (1) 1차 : 3월 8일 (화) 오전10시, 사무실
- (2) 2차 : 3월 15일(화) 오전10시30분, 사무실
- (3) 3차 : 3월 29일(화) 오전10시30분, 사무실
- (4) 4차 : 4월 12일(화) 오전11시, 사무실
- (5) 5차 : 4월 26일(화) 오전10시30분, 사무실
- (6) 6차 : 5월 3일(화) 오전10시30분, 사무실
- (7) 7차 : 5월17일(화) 오전10시30분, 사무실
- (8) 8차 : 5월24일(화) 오전10시30분, 사무실

나. 사업평가

가) 성과 : 미국의 신 군사전략을 이해하고 여성평화과제를 찾기 위해 한반도평화센터내에 세미나실을 진행하였다.

나) 한계

한반도평화센터의 실무자의 부재 이후 615 여성본부의 연대사업의 업무비중 등으로 인해 지속화 하지 못했으며 이는 애초 세미나를 통해서 여성평화과제를 도출하는데 한계로 드러났다.

다) 과제

한반도평화센터내의 내적역량을 강화하고 성과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세미나 등과 같은 소모임이 있어야 한다. 과제별로 주한미군재배치 문제, 북한여성이해 등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2) 광복60주년, 6.15 공동선언 5주년 기념 여성평화통일 심포지엄 “여성, 통일을 말하다”

가. 일시 : 2005년 5월 10일(화) 오후2시~6시

나. 장소 : 한국여성개발원 2층 국제회의실

다. 후원 : 여성부 /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평화공동행사남측준비위원회 여성본부

라. 참가자 : 평화, 통일분야 단체회원 및 활동가, 학자, 정부관계자, 일반시민 등

마. 프로그램

사회: 정경란(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 인사말 : 심영희 평화여성회 대표

- 발표와 지정토론: 각 1인

① 여성이 꿈꾸는 통일, 무엇인가?

: 정현택(6.15공동선언실천을위한남북해외공동행사남측준비위원회 여성본부 상임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 윤정숙 (한국여성민우회 이사)

② 남북여성교류, 새로운 전환을 위하여

: 김숙임 (6.15공동선언실천을위한남북해외공동행사남측준비위원회 여성본부 공동대표, 평화여성회 상임대표)

: 윤덕희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

③ 생활세계 속의 여성통일운동

: 장영경 (부산여성회 부회장)

: 전진숙 (광주여성민우회 사무처장)

- 분야별 토론 (5분) : 다양한 여성부문 및 관련처의 전문가가 발표자 입장을 논평하거나 통일관련 입장이나 제언 발표

① 통일부: 고정민 남북교류협력국장

② 여성부: 양종수 헬프지원과장

③ 국회의원: 유승희 의원

④ 통일연대 여성위원회: 손미희 부여성위원장

⑤ 한국여성외교화연합: 고미경 국장

⑥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이문숙 총무

⑦ 세계평화여성연합: 최영선 사무총장

- 전체 토론(60-90분) : 청중을 포함한 전체

나. 사업평가

가) 성과

① 분단 60주년, 6.15 5주년이라는 상황에 맞게 여성들이 통일을 위한 과제 찾기와 비전모색을 위해 마련된 ‘여성, 통일을 말하다’의 심포지엄은 시의 적절하였다.

② 여성운동가, 지역운동가, 평화운동가, 통일운동가 등 현장에서 일하는 다양한

활동가들과 통일부, 여성부 정부관계자, 국회의원 등이 모여서 여성통일운동의 실질적인 과제를 모색하고 남북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여성들이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될 과제를 연치오, 정부, 국회가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다.

나) 과제

① 정부관계자와 활동가들과 논의한 내용들이 1회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보다 발전적으로 논의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2) 움직이는 여성통일학교

가. 일시 : 2005년 6월28일 ~ 7월12일, 매주(화), 저녁 7시 ~ 9시

나. 장소 : 서울 장충동 분도빌딩 5층

다. 프로그램 (서울)

1강 북한 여성의 정치참여 - 6/28(화)

오유석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원 연구교수)

2강 변화하는 북한 여성의 삶 -7.1경제개선조치이후 - 7/5(화)

박현선 (고려대 북한학과 겸임교수)

3강 남북여성교류와 평화통일 - 7/12(화)

김숙임 (평화여성회 상임대표)

프로그램 (지방) :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충북여성민우회 (8/24, 8/26)

1강 변화하는 북한여성의 삶

구수미 (경남대 구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2강 남북여성교류와 평화통일 : 김숙임(평화여성회 상임대표)

정경란(평화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소장)

라. 사업평가

가) 성과

- ① 남북여성통일행사를 앞두고 진행된 ‘움직이는 여성통일학교’를 통해 북측사회 및 북측여성에 대하여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 ② 참가자 대부분이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이중 참여자들의 몇 명은 평화여성회의 회원가입을 하였기에 조직 확대에 일정 기여하였다.
- ③ 서울뿐 아니라 충북지역, 대구경북지역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 하였으며 약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 ④ 서울과 지역 간의 운동의 거리를 좁히고 함께 여성통일운동의 과제를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지역의 수장자 중에 몇 명은 이후 진행된 여성평화통일기행에 함께 참여하여 향후 서울과 지역 간의 통일운동에 있어서 연대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나) 한계

- ① 서울 참가자 중의 여러 명이 후속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인 여성평화통일운동의 과제에 대해 공부하기를 원하였으나 남북여성통일행사 준비의 실무집중과 실무인력의 부족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다) 과제

- ①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할 경우 이후 참가자들을 위한 세미나 등 후속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이 함께 논의가 되어야 하며 실무부족 등 다른 업무집중으로 인하여 여의치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3) 금강산에서 열리는 여성통일골든벨

가. 일시 : 2005년 11월10일(목) - 11월12일(토) 나. 장소 : 금강산

다. 참석 : 평화여성회 회원, 여성평화운동에 관심있는 일반인 약 40여명

라. 프로그램

날짜	시간	프로그램명	장소
11월10일(목)	07:30	모임	서강문화회관 앞
	08:00 ~ 14:30	차안에서 - 평화의 인사 - 여성평화통일교육 (남북여성교류, DMZ외)	
	14:30 ~ 17:30	고성도학/출입국 심사	
	17:50 ~ 18:30	숙소 CHECK IN	금강산 펜션타운
	18:30 ~ 19:30	저녁식사	
	19:30 ~ 21:00	온천욕 또는 쇼핑	
	21:00 ~	조별모임(평화 퍼포먼스 만들기)	
11월11일(금)	06:30	아침식사	
	08:20 ~ 14:30	금강산(구룡연 관광코스) 산행 및 점심	
	14:30 ~ 16:20	삼일포에서 평화명상	
	16:30 ~ 16:00	교역관람	
	18:00 ~ 19:00	저녁식사	
	19:00 ~ 22:00	여성통일골든벨을 울려라- (평화퍼포먼스/평화미술/골든벨)	해금강 호텔 강당

11월12일(토)	06:30	아침식사	
	08:20 ~ 12:00	만물상 관광	
	12:00 ~ 13:00	점심식사	
	13:30 ~	온경각 출발	
	14:00 ~	북측 출입사무소 도착/수속	
	15:00 ~	남측 출입사무소 도착/수속	
	15:30 ~	서울로	

마. 평가

가) 성과

① 약 40여명의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직업 (여행가, 칼럼니스트, 기자, 사회운동가, 소설가, 직장인, 학생)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참여하여 통일운동은 몇몇 사람들만의 관심과 준비가 아닌 여럿이서 함께 다양한 빛깔로 통일로 만들어 가는 것임을 몸으로 체화하고 돌아오는 기회가 되었다.

② 이동 중 차량 내 교육을 통해 남북여성통일교류의 역사의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여성통일골든벨행사를 통해 북한여성 및 북측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③ 이번 행사프로그램을 통해 적지 않은 참여자들이 후속 스터디 모임을 원하게 되었으며 향후 스터디 모임을 수월하게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나) 한계 및 과제

① 40여명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지속적인 연계 내용이 없어서 일회적인 참여에 머물게 되었다. 평화여성회의 회원확보 및 후속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모임에 대하여 프로그램 기획 때부터 고민되고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② 평화여성회의 회원들이 아닌 일반인들의 참가가 그 어느 때 보다는 많았는데 회원확보가 쉽지 않았다. 평화여성회의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일반인들의 참가 기회원으로 확보하여 내부 역량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연대사업

1) 6.15남측준비위 여성본부

(1) 회의

1/28(금) 오후 5시	615 남측준비위 여성본부(준) 집행위원회, 민화협
1/31(월) 낮 12시	615 남측준비위 여성본부 발족,운영위원회,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2/28(월)~3/1(화)	남북실무협의, 금강산
3/2(수) 4시	615 남측준비위 여성본부 2차 집행위원회, 백주년기념관
3/3(목)~5(토)	615 남북해외공준위 1차 대표자회의, 금강산
3/10(목)	615 공준위 부문의회의
3/22(화)오후3시30 오후5시	615 남측준비위 여성본부 집행위원장단 회의 615 남측준비위 여성본부 대표단, 집행위 연석회의,KNCC 사무실
3/30(수) 오후3시	615 남측준비위 여성본부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평화여성회
4/20(수) 오후1시	615 남측준비위 여성본부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여성연합
4/26-28	남북실무접촉, 금강산
5/2(월) 오후2시 오후3시	615 남측준비위 여성본부 집행위원장단회의 615 남측준비위 여성본부 집행위원회 회의
5/6(금) 오전10시	615 남측준비위 여성본부 대표단, 집행위원장 회의
5/26(목) 오전10시	615 남측준비위 여성본부 공동대표, 공동집행위원장, 집행위원 정책토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의실
5/26(목) 낮 12시	615 남측준비위 여성본부 공동대표 및 공동집행위원장 연석회의, 여성단체연합 회의실
5/31(화) 오후2시	615 남측준비위 여성본부 2차 운영위원회, 한국여성사회교육원
6/8 (화) 오후2시	615 남측준비위 비상 공동대표자회의,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1층 회의실
6/9 (목) 오전10시	615 남측준비위 여성본부 긴급 집행위원회, 평화여성회
6/14(화)~6/17(금)	615 통일대추전, 평양 (6.15 남측준비위 여성본부 8명 참가)
6/22(수) 오후2시	615 남측준비위 여성본부 긴급 집행위원회, 평화여성회
6/28(화) 오후2시	615 남측준비위 여성본부 대표자회의, 노래나무 카페
7/1 (금) 오후5시	615 남측준비위 여성본부 대표자, 집행위원장단 긴급회의, 평화여성회

7/6 (화) 오전8시	615 남측준비위 여성본부 공동대표자단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느티나무 카페
7/6 (화)	환영논평 발표 : “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의 복 영유아 지원예산 300억원 책정을 환영한다”
7/15(금)오전10시30	615 남측준비위 여성본부 공동대표자 공동집행위원장 집행위 회의, 평화여성회
8/2(화) 오전 10시	615 남측준비위 여성본부 공동대표자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평화여성회
8/8일(월)오후 2시	615 남측준비위 여성본부 공동대표단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평화여성회
8/11(목)오전10시30	615 남측준비위 여성본부 공동대표단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평화여성회
8/14(일)-8/17(수)	8.15 민족대추전, 서울
8/16(화)오전9시30	8.15 남북해의 여성연대모임,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 2층
8/29(월) 오후6시	6.15 남측준비위 여성본부 공동대표단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바다공원
8/30(월) 오후4시	6.15 남측준비위 여성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집행위원회 회의, 평화여성회
9/5(월) 오후4시	6.15 남측준비위 여성본부 공동대표단 공동집행위원장 실무 집행위 긴급회의, 평화여성회
9/6(화) - 9/9(금)	2005 남북여성통일행사를 위한 실무회의, 615 공준위 사무실
9/10(토)- 9/14(수)	2005 남북여성통일행사, 평양/묘향산
9/28(수) 낮12시	6.15 남측준비위 여성본부 공동대표단 공동집행위원장 집행위 회의, 평화여성회
10/6(목) 낮12시,	615 남측준비위 여성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집행위 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10/12(수) 오후4시	2005 남북여성통일행사 전체정가회의,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 4층
12/6 (화) 오후4시	6.15 남측준비위 여성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집행위 회의

2) 남북여성교류

(1) 내용

- ① 2005남북여성통일행사 사업추진에 초점을 맞춰 남북여성교류를 진행
- ② 6.15행사과 8.15 남북해의여성연대모임을 통해 남북해의 여성 사이 연대 확인

③ 남측의 다양한 여성들이 남북여성공동행사에 참여하도록 추구

(2) 사업내용

가. 제1차 실무접촉

가) 일시: 2월 27일-28일, 장소: 금강산

나) 전체참석자: 615 공동위 발족식 준비 실무접촉 참가 남측20여명, 북측 20여명

다) 여성실무접촉: 남- 정경란, 손미희 집행위원장

북- 리영희(조선민주여성동맹 부위원장), 박영희(민화협 과장)

라) 내용: 3.8여성대회 남북여성평화선언문 남측안 북측 전달 및 북측 입장 개진
남북여성행사 논의

나. 615 남북해의공동위원회 발족식 여성부문 만남

가) 일시: 3월 3일/ 3월 4일, 장소: 금강산

나) 여성부문 참석자: 남측10명, 북측 7명

남: 정현백, 김숙일, 윤금순, 정경란, 손미희, 박수현

북: 리영희, 전영애, 박영희, 장금숙, 서옥선, 유순복, 좌철숙

해의: 오복자, 박소은(유립준비위 부위원장)

배석: 이정미(부산통일연대 여성회장), 이강실(통일연대 전북여성대표)

다) 내용:

3월 3일 1차 모임: 발족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남북여성의 입장
개진

북측: 빨리 발족식을 개최하자.

남측: 남북해의 구성과 관련하여 더 논의필요.

3월 4일 2차 모임: 3.8여성대회 남북여성평화선언문과 관련한 의견 논의

북측: 북측에 대해 위협을 하고 있는 미국 반대 포함 요구

남측: 어느 일국에 대한 내용 보다는 포괄적으로 서술

이견으로 3.8여성선언문 발표 취소

남북여성행사 더 협의하자.

다. 제2차 남북여성실무접촉

가) 일시: 4월 26일-28일, 나) 장소: 금강산

다) 전체참석자: 615 통일대촉진 준비 실무접촉 남측33명, 북측 30여명, 해의 1명

라) 여성실무접촉: 남- 정경란, 손미희 집행위원장, 북- 박영희, 좌철숙 참석

마) 내용:

① 남측 여성본부, 북측 상황공유 및 점검

북 여성분과위원회 구성 축하 및 사업계획 등 공유

15명 위원, 위원장: 박순희, 부위원장: 리영희, 김경옥

② 2005 남북여성통일행사 일정, 지원문제 등 논의

북측이 남북여성행사 7월경에 행사할 것을 제의해 오고 남측이 동의, 구체적인 행사내용은 향후 논의하기로 하고 의향서는 문안문제로 합의되지 못함.

③ 남북여성대표자회의 관련 논의

- 기구의 위상과 내용: 남북의 주요 사업, 활동사항이나 실천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다음 단계의 사업을 계획, 결정하는 단위.

- 시기: 독자적 모임/ 615 815 등 민족공동행사 시 모임

④ 6.15 공동행사 여성부분 모임

장소: 평양

북측은 여성부분 행사는 상봉모임, 여명청사 방문, 좌담회로 하고 남측은 남북여성대표자회의, 청사방문, 어린이축하공연, 남북해외대표 인사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토대로 남북여성상봉모임은 여명청사방문, 남북여성대표자회의, 남북해외대표 인사, 어린이축하공연 등으로 구성하기로 논의하였다.

라. 6.15 공동행사 여성부분모임

가) 일시: 6월 15일 2시-4시

나) 장소: 조선민주여성동맹(이하 여맹) 청사

다) 참가자:

- * 남측: 정현백 여성본부 상임대표
- 김숙임 여성본부 공동대표
- 윤금순 여성본부 공동대표
- 정경란 여성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손미희 여성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조순태 여성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신기하 세계평화여성연합 통일문화분과위원장
- 전정훈 전국여자대학생협의회
- 이정이 부산여연 고문

- * 북측: 박순희 조선민주여성동맹 위원장, 615 북측 여성분과위원회 위원장
- 리영희 여맹 부위원장
- 노성실 여맹 평양시 위원장
- 전명예 인민봉사총국 부국장

장금숙 대동강 피복공장 지배인
 리현주 김정숙 탁아소 소장
 박영희 민화협 여성부 과장
 오명희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관리소장
 서옥선 민화협 여성부 과장
 박철숙 여맹 중앙위

• 해외

일본: 임소자 (제일조선민주여성동맹 대표), 한계순(한국민주여성회),
 이춘자(한국민주여성회 오오사카 고문),
 중국: 병민련 재중여맹위원, 연길시 지부장, 안미자(재중총연합 무녀회장)
 미국: 조명지(평화를 사랑하는 여성들 대표),
 김은숙(중남부연합회 사무국장)
 독일 1명

① 여성분문 모임

남북해외 대표자 인사 및 소개
 장소: 여맹 사무실
 박순희 위원장 여맹 소개 및 북측 인사 소개
 정현백 상임대표 남측 단체 소개 및 남측 인사 소개
 해외 각자 소개
 남북해외 활동 소개
 선물 전달

② 여맹 축하공연

여맹 문예소조원과 유치원생의 축하공연

③ 남북여성통일행사 관련 실무논의

남측: 정경란, 손미희 북측: 박영희
 - 7월경에 남북여성통일행사 개최 합의 의향서 작성.
 - 우리민족끼리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백두산 참관과 남북여성들의
 통일행사 진행
 - 큰 일이 없는 한 남측에서 정한 날짜로 준비하고 진행하자.
 - 실무접촉을 통해 구체적인 논의하기로 하다.

가) 일시: 7월 12일-13일, 장소: 개성 자남산여관

나) 전체참가자: 615 민족통일축전 준비 실무집속 참가 남측33명, 북측16명, 해외1명

다) 여성실무집속: 남- 정경란, 손미희 집행위원장

북- 박영희, 곽철숙

라) 내용:

① 남북여성통일행사 협의

일시: 9월 1일-10일사이 3박4일(북측) 또는 4박5일(남측)

행사장소: 평양, 백두산, 묘향산

행사:

북측제안: 남북여성대표자회의 없이 연대모임을 하자.

-남북여성행사 축하사, 남북주제발표(615, 민족공조, 반전평화), 결의문,

축하공연

-여성관련 기관 방문 - 박아소, 산원, 백두산 또는 묘향산

남측제안: 남북여성대표자회의와 토론회는 꼭 포함해야 한다.

② 북 지원관련 의향서 채택

남북여성통일행사를 위해 지원종목 전달한다는 의향서 작성 및 채택

바. '2005 남북여성통일행사' 지원 물품 인도 인수식

가) 일시: 8월5일, 장소: 개성

나) 참석자: 남측: 한국열, 윤금순, 조순태(615 남측위 여성본부 공동대표)

정경란, 손미희, 조영숙, 정혜선(공동집행위원장)

북측: 박영희, 이영숙

다) 내용: - '2005 남북여성통일행사' 지원물품 25인승 버스 2대와 음향설비 전달

- 백두산 삼지연 공항 아스팔트 공사를 이유로 9월초로 연기된 남북여성통일행사 날짜와 관련 협의

북측: 삼지연 공항 아스팔트 공사가 끝나는 대로 행사 개최 예정

남측: 아스팔트 공사가 안 끝나더라도 9월10일 이전에 행사 개최 요청

사. 815 남북해외여성연대모임

가) 일시: 8월16일(화) 나) 장소: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 2층

다) 참석자:

남측 정현택 615 남측준비위 여성본부 상임대표를 포함하여 100명

북측 7명

김경옥 북측준비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부위원장

전영애 북측준비위원회 위원
 장금숙 북측준비위원회 위원
 박영희 북측준비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위원
 김선설 북측준비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위원
 서옥선 북측준비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위원
 박철숙 북측준비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위원

<해외측 참석자> 16명

① 일본 8명

료자분 615 공동위원회 일본지역 대표위원
 조국평화통일협회 부회장
 김지영 615 공동위원회 일본지역 대표위원
 615 해외본부 대표위원
 재일한국민주여성회 회장

신구강 재일한국민주여성회 사무국
 신분남 615 공동위원회 일본지역 위원
 권경애 615 공동위원회 일본지역 위원
 김영생 615 공동위원회 일본지역 위원
 안병옥 615 공동위원회 일본지역 위원
 권영숙 615 공동위원회 일본지역 위원

② 미주 2명

조명지 615 공동위원회 미주지역 공동위원장
 평화를 사랑하는 여성들 대표
 이희영 615 공동위원회 미주지역 공동부위원장

③ 중국 2명

리순남 조청련 여맹부위원장
 김영우 조청련 여맹위원

④ 유럽 4명

오복자 615 유럽 공동위원회 공동대표
 민주노동당 유럽위원회 위원장
 권옥선 615 유럽공동위원회 위원
 전 간호협회 베를린지역 회장
 신유자 재독일동포협회, 제유럽 범민련 중앙위원
 김순환 615 유럽공동위원회 자문위원

⑤ 호주 1명

다) 행사내용

1부 815 남북해외여성연대모임

- 사회: 윤금순(6.15 남측준비위원회 여성본부 공동대표)
- 환영사(정현택 6.15 남측준비위원회 여성본부 상임대표)
- 참가단체 및 참가자 소개(사회자)
- 영상물 상영(615 남측위 여성본부 참가단체 통일·평화 활동 영상물)
- 주제발표: 북측대표 발표 (김경옥 6.15 북측준비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부위원장)
남측대표 발표 (한국염 6.15 남측준비위원회 여성본부 공동대표)
북측 대표 발표 장금숙 6.15 북측준비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위원
- 민족통일선언 낭독
조순태 6.15 남측준비위원회 여성본부 공동대표
박영희 615 북측위 여성분과위 위원
로차분 615 공동위원회 일본지역 대표위원

2부: 환영 문화 공연

- 사회: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고려하나합창단 공연/예쁜아이들 공연/ 안혜경 공연/ 전여대협(다함예 노래)

아. 제3차 남북여성실무접촉

- 가) 일시: 9월2~3일, 장소: 개성
- 나) 참가자: 남측 한국염 (6.15남측준비위여성본부 공동대표),
경경란, 손미희(공동집행위원장)
북측 박영희, 서옥선, 좌철숙 (6.15북측준비위 여성분과위 위원)
- 다) 내용 남북여성통일행사 날짜 9월10일~14일로 확정 및 구체적인 프로그램 합의

자. 2005 남북여성통일행사

- 가) 일시: 9월10일(토) ~9월14일(수) 나) 장소: 평양, 묘향산
- 다) 주최: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 여성본부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북측준비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 라) 참가자: 남측 100명
북측: 6.15 북측위 여성분과위, 여맹, 민화협 300명 이상 참여
- 마) 내용

□ 조선민주여성동맹 청사 방문 및 환영공연(9.10)

① 남북여성대표자 인사 및 소개

장소: 여맹 청사 사무실

참가자:

남측: 정현택 여성본부 상임대표
김숙임 여성본부 공동대표
한국명 여성본부 공동대표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이연자 원불교 천지보은회 대표
조배숙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김영숙 한나라당 국회의원
안명옥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경란 여성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손미희 여성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정혜선 여성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북측: 박순희 조선민주여성동맹 위원장, 615 북측 여성분과위원회 위원장
리명희 여맹 부위원장
김정옥 여맹 부위원장
노성실 여맹 평양시 위원장
전영애 인민봉사총국 부국장
장금숙 대동강 피복공장 지배인
리현주 김정숙 탁아소 소장
박영희 민화협 여성부 과장
오명희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관리소장
서육선 민화협 여성부 과장
박철숙 여맹 중앙위

② 환영공연

장소: 여성회관

참가자: 남측 100명 참가

북측 여맹 문예소조원 환영공연 및 500여명 여맹원 환영

□ 묘향산 국제친선관람관 및 묘향산 등반(9.11)

□ '6.15 공동선언 실천과 반전평화를 위한 남북여성통일연단(9.12)

사회: 남측의 한국팀 (6.15남측준비위 여성본부 공동대표)

북측의 김정옥 (6.15북측준비위 여성분과위 부위원장)

기본연설: 정현택(6.15남측준비위 여성본부 상임대표)

박순희(6.15북측준비위 여성분과위 위원장)

보충연설: 김숙임(6.15남측준비위 여성본부 공동대표)

장금숙 (북측준비위 여성분과위원)

공동결의문 낭독: 고윤지(한국여성단체협의회 통일위원장, 민회협 여성위원장)

리동희(여맹 선전부장)

□ 여성 및 교육 관련 시설 참관: 평양산원, 창광유치원, 모란봉제1중학교, 만경대
소년인민문화궁전, 수예연구소 등 참관(9.12-13)

□ 북측 문화시설 참관: 주체사상탑, 만경대, 개신교 등

차. 제4차 남북여성성무접촉

가) 일시: 2005년 12월 9일~11일 장소: 중국 심양 철보산 호텔

나) 전체참석자: 남측 42명, 북측 19명, 해외측 26명, 총 87명

○ 남북여성 만남

일시: 2005년 12월 10일 저녁 10시

장소: 철보산 호텔 커피숍

○ 논의내용:

남측: - 2005 행사에 대한 북측 여성의 평가를 들었고, 평양에서 여성관련 시설
을 많이 방문해 북측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고 북측여성들이 행사를 준비
하느라고 수고한 것 감사를 표시했다.

- TV는 가능하면 빨리 제공.

- 2006년 계획 정보 공유 요망.

북측: - 2005남북여성행사에 대한 평가는 진행 중이며 남북여성들의 행사에 대한
평가를 물어왔다. 행사에 참가했던 국회의원들의 반응이 어떤지, 그 때 아꼈던 여
성들은 괜찮은지 안부를 물었다.

- 남북여성본부에서 지원하기로 한 TV 설치 문의.

- 내년 2월에 각 분과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이 나올 예정.

(3) 남북여성교류 사업평가

가. 성과

- ① 평화여성회는 615 남북준비위원회 여성본부의 공동대표, 공동집행위원장,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며 6.15 공동행사(평양)와 8.15 민족대축전(서울)에서 열린 남북여성상봉행사와 9월에 평양에서 열린 '2005 남북여성통일행사'를 성사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
- ② 8.15 민족통일대축전 및 남북해외여성통일연단, 2005남북여성통일행사에 평화여성회 회원들도 다수가 참여하여 남북여성교류를 주도하는 전통과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평양에서 열린 '2005 남북여성통일행사'는 분단 60년 만에 100여명의 남측의 여성들이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하여 북측의 여성들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미래를 함께 설계한 역사적 행사로 이를 통해 본회의 참석회원들을 남측의 여성들은 북측사회와 여성들을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 ③ 6.15 5주년, 광복 60주년을 맞아 2005 남북여성통일행사, 615 남북해외여성부문모임, 815남북해외여성연대모임, 남북실무접촉 등 어느 해보다 남북교류가 활성화하여 6.15공동선언 실천과 통일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증진을 이끌어 내었다.
- ④ 전쟁반대와 평화의 주체로서 역량 강화
남북여성회의 뜻과 지혜를 모아 어떠한 전쟁도 반대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겠다는 남북여성의 의지를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 ⑤ 남북화해와 상호이해
남북 여성의 만남과 북측 시선 참관을 통해 북측 여성과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 및 관심 제공 하였고 북측여성 역시 남측 여성의 관심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⑥ 2005 남북통일행사는 분단이후 최초로 남측 여성 100명이 평양을 방문해 남북여성의 교류협력 의지 확인했고, 8.15 남북해외여성연대모임을 통해 남북해외여성의 연대를 확인하였다.
- ⑦ 남측의 다양한 여성들이 남북여성공동행사 참여해 상호이해
- ⑧ 남북교류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

나. 한계 및 과제

- ① 남과 북의 평화로운 상생과 통일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요청되는 상호이해와 수용, 인내의 필요성, 이를 위한 북한사회와 북한여성에 대한 이해 및 통일교육의 활성화라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 ②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남북여성통일행사 일정 합의가 늦어지는 등 남북공동행사에 대한 상호이해와 준비가 필요하다.

⑥ 남북이 논의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일방의 요구에 대해 대응하는 문제와 상호 체제와 문화에 대한 이해 절실하다.

⑦ 남북이 논의했던 남북여성대표자회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⑧ 남북행사의 내용의 유사성을 벗어나는 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논의 필요하다.

⑨ 남북실무접촉 담당자의 협상 기술의 증진을 위한 논의구조 활성화와 교육 필요하다.

⑩ 남북여성교류 방식 개발

- 단기, 중장기 사업 개발

- 다양한 남북교류방식 개발

- 북측여성비 남북사회와 다양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남측에서 여성통일행사 실시

- 한편보다는 남북공동의 참가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보다 많은 여성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조건형성

⑪ 남북교류 충분한 준비 필요

행사의 성사보다 행사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와 준비를 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

⑫ 남북관계의 급속한 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 논의가 있는 객관적 정세 속에서 교류의 파트너인 남측 여성본부와 북측 여성분과위원회가 상호 입장과 행동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뢰하는 파트너십을 향을 수 있도록 인내심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⑬ 기존의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다양성 속에서도 남북여성공동의 이익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의 확장과 의사소통 강화가 필요하다.

- 북측과 남측의 의사소통의 강화를 위해 상호단합 확대

- 남남 대화 강화

⑭ 남북여성행사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남북여성통일행사 일정협의(9월 3일)가 늦어져 참가자 조직, 행사준비 등 촉박한 시간과 실무력의 요인으로 △사전교육 부족 △참가자 전체 소개 △참가자 프로그램(남북여성통일연단 등) 공유 △참가자 토론 및 총화 프로그램 개발 등 참가자들을 배려한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했다.

6. 총평

1) '여성의 통일운동 참여 및 강화'와 관련하여

- 평화여성회가 6.15 여성본부에서 간사단체와 같은 역할을 맡아 한반도평화센터가 6.15 여성본부의 사업과 남북여성교류의 실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따라서 본 센터의 활동은 여성들의 통일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통일과정에서 여성의 입장을 제시하기 위한 활동에 기여했다.

- 평화여성회의 통일관련 프로젝트 실시, 2005남북여성통일행사 등 615 여성본부 사업 진행은 북한 사회와 여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남북여성의 화해, 협력, 공존을 위한 관점, 이론, 방법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여성통일운동의 정립을 위해 여성통일운동 논의틀(framework) 형성이 필요하다.

- 통일관련 프로젝트와 남북행사에 참여하고 남북화해협력과 통일문제에 관심이 있는 여성들을 조직화할 수 있는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2) '미국의 한반도 정책 대응 및 군축 노력'과 관련하여

- 6.15 여성본부 간사단체의 역할 지원에 한반도평화센터 사업이 집중되어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평택미군기지 문제, 국방개혁안 대응 등 주요 평화이슈에 대한 정책논의와 활동이 미약했다.

- "센터와 평화" 세미나는 시도는 좋았으나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세미나 실시와 입장 정리, 평화행동을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한반도평화센터의 전담 실무담당자가 없고 센터 내부 논의구조를 만들어 가지 못함으로써 평화 관련 정책논의와 대응이 어려웠다.

3)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실현을 위한 동북아 시민사회와 연대'와 관련하여

국제연대 GPPAC 활동 평가 참조

2-2 갈등해결센터

(소장 : 박수선)

1. 2005년 사업 목표

- 갈등의 평화적 해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한다.
- 학교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다양한 갈등해결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 갈등해결센터의 활동 강화를 위한 기반으로서 회원 확보에 힘쓴다.
- 사회갈등 예방과 평화적 해결을 위한 활동 기반을 넓힌다.
- 갈등해결의 적용 영역을 넓힐 수 있는, 특히 통일과정에서 갈등해결의 의미 및 실천의 영역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여 질적 내용의 확대에 힘쓴다.

2. 2005년 주요사업 방향

2003, 2004년은 활동을 통해 경험을 쌓고,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면 2005년은 그간의 활동의 성과와 의미를 알리고, 다지는 활동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즉 그간 진행된 내용의 사례정리와 평가를 통해 제도문화적으로 갈등해결의 내용을 확산할 수 있는 자료화 작업에 힘쓴다.

3. 조직

1. 운영위원회/갈등해결센터 사업 전반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의사결정구조

(1) 당면적 운영위원(센터 장 박수선, 팀장 조영희(청소년교육팀),

본부 사무처장 최선희)

(2) 일반 운영위원(김학목, 박인혜, 이재영, 여해숙, 최안진경, 최정현진(서기))

2) 연구원 모임/강사트레이닝, 사회갈등조정연구 등 논의 및 사업 진행

김학목, 이재영, 최정현진

3) 청소년교육팀/청소년 교육 관련 사업 논의 및 진행

조영희(팀장), 박인혜, 여해숙, 최안진경, 최정현진, 이현주, 김보경, 유정은, 김영진, 이덕경, 박홍나미, 안향숙, 김재근, 박경옥, 임선복

4) 사회갈등분석팀/사회갈등 분석 및 갈등해결 관련 학습

김선희, 김영진, 김재근, 박재근, 박홍나미, 이덕경, 이항진, 이현주, 조영희, 박수선

- 5) 월례회/센터 회원 모두 참여하는 소통의 장, 회원 스스로 진행하는 교육의 장
매월 1회 센터 전체 회원 참여 모임

4. 회의 및 모임

1) 월례회 및 회원 MT

(1) 1차 월례회: 2월 21일 6시 30분 여성평화의집 교육장

가. 주제: 한탄강댐 갈등조정과정에 대하여, 2005년 갈등해결센터 사업계획 공유

나. 참석: 강종근, 박재근, 여혜숙, 박수선, 조영희, 최호진

(2) 2차 월례회: 3월 30일(강사트레이닝 강과와 함께 진행)

가. 주제: 갈등해결 법, 제도 이해

나. 참석: 강종근, 박재근, 여혜숙, 박수선, 조영희, 김보정, 유정은, 김학묵, 이재명,
이현주

(3) 3차 월례회: 7월 20일(수) 오후 6시 30분(영등포 성문밖교회)

가. 주제: 애니어그램(이상학 회원 진행)

나. 참석: 김선혜, 김영진, 조영희, 박홍나미, 이덕경, 이현주, 안향숙, 신운순, 최선
희, 박인혜, 나연수, 이성자, 여혜숙, 이상학, 안홍철, 김보정, 박수선

(4) 4차 월례회(회원 MT) : 8월 26, 27일 재부도

가. 참석: 김영진, 조영희, 박홍나미, 이덕경, 이현주, 여혜숙, 이상학, 안홍철, 이항
진, 김재근, 임선복, 박수선

(5) 5차 월례회 및 송년회: 12월 16일 평화여성회 교육장

가. 주제: 2005년 평가 및 2006년 사업계획 공유, 송년회

나. 참석: 김선혜, 김영진, 나연수, 박재근, 박수선, 안홍철, 이재명, 이항진, 이현주,
조영희

2) 운영위원회

(1) 1차: 1월 20일(목) 오후 5시

(2) 2차: 3월 11일(금) 오후 5시

(3) 3차: 6월 1일(수) 오후 4시 30분

(4) 4차: 6월 29일(수) 오후 6시

(5) 5차: 11월 25일(금) 오후 2시

(6) 6차: 12월 19일(월) 오후 4시

3) 청소년교육팀

(팀장: 조영희, 팀원: 김보정, 김영진, 김재근, 김학묵, 박인혜, 박재근, 박홍나미, 안

함숙, 여혜숙, 이덕경, 이상학, 이현주, 임선복, 조영희, 최안전경, 최경현진)

- (1) 1차 회의: 1월 20일(목) 오후 3시: 청소년캠프 평가, 05 청소년교육팀 사업계획 검토 및 세부계획안 논의
- (2) 2차 회의: 2월 3일(목) 오후 6시: 학교 조직 홍보결과 공유 및 계획논의, 교안 검토, 소책자 기획초안, 캠프기획초안, 홈페이지 기획초안 논의
- (3) 3차 회의: 2월 21일 오후 4시: 표준교안 논의
- (4) 4차 회의: 3월 2일(수) 오후 2시: 교안논의(방화중, 언저초 검토), 청소년 캠프 세부기획안 논의
- (5) 5차 회의: 2005년 3월 11일(금) 오후 3시: 각학교 최종교안 논의, 통일교육협의회 실행계획안 검토, 기타 논의중인 신록, 구일 중 등에 대한 논의
- (6) 6차 회의: 4월 8일(금) 오후 2시: 교안워크샵, 학교별 교안 공유 및 토론, 3기 수료생 참관계획, 교육결과 정리를 위한 양식안 점검
- (7) 7차 회의: 4월 25일(월) 오후 4시: 교육진행 중간점검, 캠프기획안 논의, 프로그램 디자인 강의진행 관련 논의, 참관계획 관련, 청소년개발원 연구 관련 논의
- (8) 8차 회의: 6월 1일(수) 오후 2시: 움직이는 학교 진행관련 논의
- (9) 9차 회의: 6월 7일(화) 오후 7시: 3기 수료생들의 활동전망 마련을 위한 후속모임
- (10) 10차 회의: 2005년 6월 27일(월) 오후 7시: 청소년리더십 캠프, 움직이는 학교, 청소년교육팀 운영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모으기, DMZ내 초등학교 대상 평화학교 운영여부
- (11) 11차 회의: 8월 19일(금), 오후 6시: 캠프 평가 등
- (12) 12차 회의: 11월 11일(금), 오후 3시: 사업평가
- (13) 13차 회의: 12월 1일(목), 오후 3시: 2006년 사업계획 및 팀장 선출

4) 사회갈등분석팀

(팀원: 김선혜, 김영진, 김재근, 박재근, 박홍나미, 이덕경, 이항진, 이현주, 조영희, 박수선)

- (1) 1차: 4월 22일 오후 6시 30분-갈등영향 분석 학습
- (2) 2차: 5월 18일 오후 7시 30분-환경분쟁연구소 진행중인 서울국립병원 재건축 관련 갈등영향분석 내용 논의
- (3) 3차: 6월 1일 오후 7시-갈등영향분석 논의
- (4) 4차: 6월 21일 오후 7시-갈등영향분석 논의 및 앞으로 활동 방향/학습 내용
- (5) 5차: 7월 6일 오후 7시-여주 골프장 건설 관련 갈등 공유
- (6) 6차: 7월 27(수) 오후 7시-여주 골프장 건설 갈등 관련 해결방안 모색, 향후 모

임일정 및 방향성에 대한 논의, 개별 연구과제 논의

(7) 7차: 8월 24일(수) 오후 7시- 부천시 춘의동 화장장 건립, 향후 모임일정 및 방향성에 대한 논의

(8) 8차: 9월 7일(수) 오후 7시-강독: Conflict, chapter 2-5

(9) 9차: 9월 29일(목) 오후 7시- 수원시, 서초구 화장장 사례

(10) 10차: 10월 4일(화) 오후 7시-여주 골프장 관련 논의, 강독 "Conflict" Ch.6 상황

(11) 11차: 10월 18일(화) 오후 7시-서초구 화장장 갈등 논의, 강독 Conflict

(12) 12차: 11월 1일(화) 오후 7시-강독 Conflict

(13) 13차: 11월 11일(금) 오후 7시-강독 Conflict

(14) 14차: 12월 7일(수) 오후 7시-2005년 사회갈등분석팀 평가, 사업계획, 강독 내용 종합토론

5) 청소년리더십캠프 진행팀

가. 일정 : 6/1(수), 6/17(금), 7/7(목), 7/13(수), 7/18(월), 7/21(목), 7/29(금)

나. 구성 : 김학목, 박인혜, 여해숙, 이현주, 조영희

다. 주요 내용: 리더십 캠프 진행 관련 준비

6) 교재개발간담

가. 일정 : 8/29(월), 9/12(월), 9/26(월), 10/4(화), 10/18(화), 10/23(일), 10/28(금), 11/7(월)

나. 구성 : 김영진, 여해숙, 유정은, 이덕경, 이현주, 조영희

다. 주요 내용: 청소년대상 갈등해결교육 교안집 개발간을 위한 교안 연구 및 발간 준비

7) 지역워크숍 준비팀

(김학목, 이재형, 조영희, 여해숙, 최경현진, 이현주, 박수선)

(1) 1차: 6월 1일(수) 7시: 전체 프로그램 기획, 간담회 준비

(2) 2차: 7월 14일(목) 6시: 지역워크숍 홍보 및 참가자 조직 방안(광주지역)

(3) 3차: 8월 22일(월) 4시: 광주지역 워크숍 참가자 조직방안 및 계획

(4) 4차: 9월 29일(목) 오후 5시: 부산 워크숍 준비

(5) 5차: 11월 30일(수) 오후 2시: 광주 2차 워크숍 준비

5. 주요 사업

1) 대상별 주요 사업

(1) 공적 교육 기관에서의 교사대상 갈등해결 교육

- ① 수업방법개선연구회(중부교육청 등록 교사단체) '행복한 학교 운영을 위한 갈등 해소 방법의 실제(30시간 연수)

일시: 2005년 1월 24-28일

진행 참가: 이재영, 김학복, 조영희, 박수선

- ② 서울시 교육청 주최 학생부장 교사 대상 '갈등해결과 도래중재' 연수(30시간)

일시: 7월 25-29일

진행 참가: 이재영, 조영희, 박수선

- ③ 우리교육, 세계평화축전(경기도) 주최 '비폭력 평화도래이닝 교사 연수'

일시: 8월 2-3일

진행 참가: 조영희, 박수선

- ④ 서울시교육연수원 주최 중등학교장 리더십 연수 중 4시간

일시: 11월 1-9일

진행 참가: 박수선

- ⑤ 기타 교사대상 강좌

- 우리교육 주최 초등교사대상 '교실내의 갈등해결'(여혜숙 진행)
- 미성초등학교 교사 대상(여혜숙 진행)
- 전교조 남부초등지회 3회(2시간씩) 강좌 '평화적 갈등해결'(여혜숙 진행)
- 전교조 초등지회 수련회, '평화적 갈등해결 이해'(3시간, 조영희 진행)
- 대길초등학교 교수학습 연구회 교사 대상, '갈등해결과 평화'(2시간, 조영희 진행)
- 경남전교조 여성위원회 수련회, '평화적 갈등해결'(2시간, 박수선 진행)

(2) 지역 NGO 활동가 대상 갈등해결, 조정 훈련

-지역갈등, 사회갈등의 중심이 된 지역 중심으로 NGO활동가 및 여론주도층 대상으로 갈등의 평화적 해결, 조정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004년 전북지역 활동가대상 프로그램에 이어 2005년에는 부산 경상권 지역에서 개최

-모집 및 행정상 준비는 지역 단체에서 맡도록 하고, 갈등해결센터는 프로그램 내용 지원

-행자부 등 관련 기관 프로젝트 지원 모색

①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갈등해결워크숍 주요 진행 내용

가. 지역간담회

-광주전남지역: 7월 5일(여성민주회 주관)

-부산경남지역: 7월 21일 : 울산(울산여성회 주관), 부산(부산여성회 주관)

나. 1차 기초 워크숍

-부산경남지역: 10월 6(목)-8(토) 2박3일

부산여성회, 울산여성회, 부산민노당 등 활동가 18명 참가.

김학묵, 이재영, 여혜숙, 조영희, 박수선, 김선헌, 이현주 진행

-광주전남지역: 10월 20(목)-22(토) 2박3일

광주참교육학부모회, 지방자치경영연구원 등 활동가 14명 참가.

김학묵, 이재영, 여혜숙, 조영희, 박수선, 이현주 진행

다. 2차 심화 워크숍

-부산경남지역: 11월 3(목)-4(금)일(1박2일)

-광주전남지역: 12월 9(금)-10(토)일(1박2일)

라. 프로그램

* 아래 표 참조

워크숍 세부 계획(1차)

일자	시간	강의명	진행자
10월 6일 (목)	13:00 -15:00	등록 1강: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희망 나누기 (Community Building) 전체 교육과 프로그램 목표 및 일정 소개, 진행규칙 강하기	박수선
	15:00 -18:00	2강: 갈등해결 이해하기-평화적 갈등해결의 기초 (갈등개념, 갈등대응유형, 원인)	이재영
	18:00 - 19:30	저녁식사	
	19:30 - 21:30	3강: 갈등분석1 -갈등분석의 기초(분석을 왜 하는가? 다양한 분석방법 이해)	김학묵
10월 7일 (금)	09:00 -09:30	어제 프로그램 평가	이현주
	09:30 -11:00	4강: 갈등분석2-갈등분석 사례 실습	조영희
	11:00 -12:00	5강: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1 대화(의사소통)/듣기와 말하기, 관찰하기	여혜숙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15:00	대화(의사소통)/듣기와 말하기, 관찰하기	여혜숙
	15:00 -17:00	6강: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2 Problem Solving, 의사결정 방법	조영희
	17:00 -18:00	7강: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3 지역갈등 개입 사례 나누기, 조정자의 역할, 조정 원칙과 과정	박수선
	18:00 -19:00	저녁식사	
	19:00 -22:00	지역갈등 개입 사례 나누기, 조정자의 역할, 조정 원칙과 과정	박수선
10월 8일 (토)	09:00 -11:00	8강: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4 중재실습	박수선
	11:00 -12:00	9강: 모둠 나누기와 지역 갈등 사례 조사 계획 세우기 및 발표	박수선
	12:00 - 13:00	전체 평가 및 앞으로의 계획, 프로그램 평가	박수선

지역사회 통합과 갈등해결을 위한 2차 워크숍 일정

일자	시간	세부 내용	진행
11월 3일 (목)	10:00 -12:00	1강 : 1차 워크숍 이후 변화와 실천 나누기 (Community Building) 프로그램 목표 및 일정 소개, 복습	여려숙
	12:00 -13:00	점심	
	13:00 -16:00	2강 : 조정권택세우기, 조정실습	박수현
	16:10 -18:00	3강 : 갈등예방을 위한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들 소개	조영희
	18:00 -19:30	저녁	
	19:30 -21:30	4강 : 갈등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향상 기술 심화 훈련 1 (듣기, 말하기, 공감하기 등)	최원진
11월 4일 (금)	09:00 -10:30	5강: 갈등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향상 기술 심화 훈련 2 - 분노 조절	최원진
	10:30 -12:30	6강 : 갈등해결의 여러 방법, 구조 Dialogue, Problemsolving Workshop 소개	김학묵
	12:30 -14:00	점심	
	14:00 -16:00	7강 :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 해결권택세우기, 프로세스 디자인	김학묵
	16:00 -18:00	8강 : 갈등해결 과정 실습 - 지역 갈등 사례	공동
	18:00 -19:00	저녁	
	19:00 -20:00	9강 : 갈등해결 방법의 적용 가능성, 앞으로의 계획	박수현
	20:00 -21:00	평가	박수현

마. 성과와 과제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갈등해결워크숍은 참여와 절차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특히 민주적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존중과 책임의 시민의식을 고양할 수 있다는 생각의 토대에서 출발하였다. 2004년 전국지역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두 번째로 2005년에는 부산경남권, 광주전남권 두 곳에서 진행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조직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광주전남권의 경우는 주권단체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처음 광주여성민우회에서 조직하려던 것을 참교육학부모회와 지방자치경영연구원에서 공동주관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정이 연기되는 등 혼란이 있었을 뿐더러 참가자 조직이 매우 어려워 본래의 취지였던 '지역사회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갈등의 해결능력을 키우는 목적'을 '조직운영과 일상의 갈등해결 능력 키우기'로 그 목적을 전환하게 되기도 하였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당연히해도 2박3일, 1박2일 일정의 두 차례의 빡빡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나 성과에 대해 인정하고, 자신과 지역사회의 변화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성과를 낳았지만, 참여자 조직 자체의 어려움으로 인한 다양한 활동가들의 참여를 만들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내지는 못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공사다방한 활동 중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참여 자체를 포기하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가) 성과

- ① 지역 주요 단체 관련 인사의 갈등해결 방법 워크숍 직접 참여와 대안적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한 공감
 - 부산경남권, 광주호남권 지역 사회 갈등의 평화적 해결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평화적 갈등해결 방법 및 그 의의에 공감함으로써 이들 참가자들이 이후 지역 사회 갈등의 평화적 해결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 ② 사업 이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평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참가자들이 이번 사업 내용인 '평화적 갈등해결 방법'을 지역사회 갈등은 물론 개인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좋은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사업 진행 및 결과에 대해서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남

③ 이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 의지 확보

- 워크숍이 끝난 이후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지역사회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대상 교육과 강사트레이닝 과정을 계획할 구체적 계획을 세움(광주전남권)

나) 한계

- 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주요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2박 3일 숙박 워크숍 기간 중 각 단체 임원 및 활동가로 있는 참가자들 일부가 소속 단체, 기관의 업무상 이유로 갑작스럽게 워크숍에 계속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워크숍의 효과를 떨어뜨린 경우가 있었다.
- ② 지역에서 참가자를 조직하는 주관단체 선정의 어려움과 워크숍 진행에 적절한 시설 선정 등 서울에 위치한 본 단체가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는 행정적으로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 ③ 워크숍 주제인 지역 갈등현안 다루기가 본 사업의 주요 주제 중 하나로 진행자들이 지역 갈등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했으나 지역의 크고 작은 여러 갈등 현안들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해당 지역 갈등 현안에 대한 더 많은 사전 조사와 이해를 위한 작업이 요구된다.

다) 과제

① 평화적 갈등해결의 의미,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노력

2002년부터 갈등해결 관련한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해왔지만, 중앙 중심이고 특히 지역에서는 '갈등해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2박3일 기초, 1박 2일 심화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가 신청을 하는 데에는 강력한 동기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워크숍 내용과 의미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하므로 참가자를 모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프로그램 나아가 평화문화 형성의 구체적 방법과 관점이 확산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 차원으로 '갈등해결과 평화'의 화두와 내용이 많이 홍보되어야 한다.

② 지역사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고려가 필요

올해는 두 지역의 워크숍을 진행하다보니 참가자들의 차이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지역의 문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부산경남권 지역의 활동가들은 자기표현이 적극적이고, 광주전남권 활동가들은 자기표현이 강해서 같은 내용을 진행함에도 각각의 진행방식에 따른 반응은 매우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다 실정에 맞게, 참가자들의 적응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와 풍토, 지역 사정에 대한 고려와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야 그 대상에 적절한 사례와 강의의 초점을 맞

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프로그램이 더욱 세밀화 되어야 한다.

③ 활동에 연결될 수 있도록 평화여성회 조직력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할 필요
1, 2차 워크숍을 끝내고 나면 적용은 지역단위에서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것을 기대하는데,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직접적이고 장기적인 조력이 필요하다.

2004년 전북지역의 경우 ‘(가칭)전북지역갈등해결센터’ 구성의 움직임이 있었고, 활동기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학습과 지역에 사례적용을 위한 모색을 했었다. 그러나 기본적인 활동의 영역에 밀려 하반기가 되면서는 모임이 지속성을 갖지 못한 사례가 있다. 2005년에도 두 지역에서 워크숍을 진행했지만, 그 후속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하지 못했다. 이 워크숍이 지역사회에 적용되고, 또 살아나기 위해서는 후속모임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과 재교육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3) 청소년 대상 갈등해결, 평화 교육

① 학교 갈등해결교육(CA, 토래중재반 운영) : 총 8개 학교

- 초등학교 : 두산초CA, 수택초CA, 연지초 CA, 연지초 방과후교실
- 중학교 : 방화중CA, 덕원중CA, 신목중CA
- 고등학교 : 덕원여고CA

	학교명	수업형태	담당교사	진행	일정	일자
1	두산초등학교	CA //25명	송미숙	어해숙 (김영진 이덕경)	주1회, 목, 매회1시간	3/17, 3/24, 3/31, 4/7, 4/14, 4/21, 4/28, 5/12, 5/19, 5/26, 6/2, 6/9, 6/16, 6/23, 6/30, 7/7, 7/14, 9/1, 9/8, 9/15, 9/22, 9/29, 10/6, 10/13, 10/20, 10/27, 11/3, 11/10, 11/17, 11/24, 12/1, 12/8(총33회)
2	수택초등학교	CA //36명	김보경	어해숙	주 1 회, 토, 매회1시간 (총10회)	4/9, 4/16, 4/30, 5/7, 5/14, 5/21, 6/4, 6/11, 6/18, 7/2
3	연지초등학교	CA //16명	김영미	어해숙	주1회, 화, 매회1시간	3/15, 3/22, 3/29, 4/12, 4/19, 4/26, 5/3, 5/10, 5/17, 5/24,

						5/31, 6/7, 9/6, 9/13, 9/27, 10/4, 10/18, 10/25, 11/1, 11/8, 11/15, 11/22 (총23회)
4	연지초등학교	방과후교실 15명	김영미	박인혜 여혜숙	주1회, 화, 매회1시간	3/22, 3/29, 4/12, 4/19, 4/26, 5/3, 5/10, 5/17, 5/24, 5/31, 6/7, 6/14, 9/6, 9/13, 9/27, 10/4, 10/18, 10/25, 11/1, 11/8, 11/15, 11/22 (총23회)
5	방화중학교	CA 14명	-	이현주 최정현진	월1회, 토, 매회3시간	3/19, 4/16, 5/21, 6/18, 7/16, 9/24, 10/15, 11/19 (총8회)
6	덕원중학교	CA 24명	김윤민	이현주 조영희	월1회, 토, 매회3시간	4/2, 5/7, 6/4, 7/2, 9/3, 10/8 (총6회)
7	신목중학교	CA 26명	하윤영	조영희	격주1회, 목, 매회2시간	3/24, 4/7, 4/21, 5/19, 6/2, 6/16, 6/30, 7/14, 9/1, 9/5, 9/29, 10/13, 10/27, 11/10 (총14회)
8	덕원여자고등학교	CA 32명	김민자	김학묵 조영희	월1회, 토, 매회3시간	4/16, 5/21, 6/11, 7/9, 9/10, 11/12 (총6회)

ㄱ. 수업내용: 2개 학교만 적시, 나머지 생략

ㄴ) 방화중학교 CA

일자	주제	목표	내용
3월 19일	○마음열기 ○갈등해결과 또래 관계 소개하기	○ 친근감을 높인다. ○ 1년 동안의 CA반 운영에 대한 계획을 세워본다. ○ 평화적 갈등해결과 또래 관계에 대해 알아본다.	박꽃기 평화다/아니다(평화개념 이해하기) 분단의 피해 이해하기 갈등 그림 그리기(갈등 이해하기) 낙타 문제(갈등 소개하기) 기대과 희망 나누고, 목표 설정하기 역할 정하기(Team building)
4월 16일	○갈등해결방법과 갈등대응유형	○ 갈등의 원인과 종류를 알고 표출된 갈등 이면에는 원인이 있음을 인식한다. ○ 갈등상황에서 모두가 승자가 되는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음을 이해한다. ○ 자신의 갈등대응유형을 이해하	사광고백제임(마음열기) 지난차사복습 갈등나무(갈등의 원인과 종류) 손등을 뉘어봐(갈등이 생기는 과정, 양방이 원하는 바를 평화롭게 얻을 수 있음) 갈등대응유형조사(각자의 갈등대응

		고 다양한 해결방법에 대해 인식한다.	유형 알기, 각 유형별 특징 알기) 이럴 때 나는(갈등 내용 유형은 각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고, 미리 갈등 상황에 대한 대비)
5월 21일	○합리적 의사소통	○ 의사소통의 절차를 이해한다. ○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도움이 되는 듣기와 말하는 방법을 연습한다.	두개의 원(듣기와 중요성) 렛속말 전달하기(적극적 듣기와 의사소통의 절차 이해하기) 나전담법(자기표현 익히기) 좋은 대화 나쁜 대화(대화연습)
6월 18일	○입장과 심의과 협상	○갈등 상황 이면에 들어난 입장 속에 설익이 존재함을 알고 찾을 수 있다. ○갈등 상황에 대한 평화롭고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	사과카드역할극(서로가 원하는 것을 알기 위해 "왜"질문의 필요성) 오렌지 분쟁(입장과 설익의 개념) 시나리오로 입장과 설익 찾아보기 소협상(실습을 통해 서로 만족할만한 과정, 결과도출)
7월 16일	○분노 다루기	○ 분노의 원인과 자극을 구별한다. ○ 분노를 폭력적으로 표현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분노 단추와 두명(분노의 자극과 원인 구별) 소방관 놀이(분노를 조절하는 방법 찾기) 분노를 온전히 표현하기(폭력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불에 기름하는 방법으로 분노를 표현해보기)
9월 10일	○중재의 기초 그림그리기	○갈등의 평화적 해결방법의 하나인 중재의 개념과 원칙을 익힌다. ○중재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생각해보는다. ○중재의 각 단계를 기초적으로 이해하고 실습의 토대를 만든다.	중재 개념 설명(평화적 갈등 해결 방법의 한가지로서 중재의 기초적인 개념을 설명) 친구 마음 물어주기(중재과정에서 마음읽기를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 알아봄) 중재자 그림 그리기(중재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 그려봄) 조별로 중재의 단계 발표(중재과정)
10월 13일	○중재실습1 -듣기와 말하기, 바꾸어 말하기 연습 -쟁점규명, 아이디어 모으기	○갈등을 해결하는 단계에서의 듣기와 말하기에 이해를 높인다. ○갈등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이면의 욕구를 찾고, 쟁점을 규명한다. ○쟁점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모으는 훈련을 한다. ○의사결정과정구조를 이해한다.	바꾸어 말하기 - 관찰과 평가를 구분하기 - 느낌과 생각을 구분하기 - 수단, 방법과 욕구를 구분하기 - 강요가 아닌 부탁하기 네 사람이 손을 모아(중재과정에서 협동심) 무엇이 문제일지(갈등, 분단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쟁점 찾아보기)

			생수병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 까?(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아이디어 모으는 훈련) 합의안 만들기(의사결정과정훈련)
11월 19일	○중재실습2 -중재 전반 실습 ○평가와 마 무리	○또래 중재 전반에 대한 실습을 한다. ○1년 동안의 CA 활동을 돌아보 고 평가한다	중재 전반을 실습(시나리오를 가지고 중재 역할극) 산오르기(CA 활동을 정리) 통일시대의 각오와 전망 나누기 심타래 던지기

나. 연지초등학교 방과후교실

일자	주 제	목 표	내 용
3월 22일	○마음열기 및 강의 소개	○이 수업이 학생 스스로 참여하 는 수업임을 알게 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방과 후 수업내용과 목표 안내
3월 29일	○갈등개념 이해 하기	○연극 놀이를 통해 갈등의 원인 을 파악해 본다.	내가 보는 나, 남이 보는 나 공부는 왜하니? 나 때문에? 남 때문에?
4월 12일	○갈등의 종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다양한 종류를 알아 본다.	갈등 지뢰 찾기
4월 19일	○갈등해결방법	○갈등의 해결방법이 경쟁적, 복력적인 것만이 아닌 다양한 방법을 찾게 한다.	서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 팔세름 놀이
4월 26일	○똑같이 생각합 까? 다르게 생각 할까?	○생활 속에서 갈등발생의 원인 알아보고 호감과 공존에 대해 익 혀본다.	타물렛 만들기 놀이 - 말없이 행 동 이어가보기
5월 3일	○이야기풀어놓 기	○다양한 의사결정 방법을 배우 는 과정에서 필요한 태도를 익히 게 한다.	의사결정에 필요한 브레인스토밍 익히기
5월 10일	○중재란 무엇일 까?	○갈등의 정확적 해결과정을 익 히는 과정으로서 중재의 원칙과 방법을 익힌다.	공인중개사 놀이 (중재의 원칙과 방법 이해하기)
5월 17일	○문제가려내기	○중재과정을 통해 문제의 핵심 을 규명한다.	- 엇속말 놀이, 말 바꾸기 놀이 - 생결 규명하기
5월 24일	○대화란 무엇일 까?	○대화를 올바르게 하기 위한 요 건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육하원칙놀이 - 단어를 보고 표 현해보는 재현극놀이
5월 31일	○의사소통	○일방적 복력적인 의사소통과 평화적 의사소통에 대해 알아본 다.	갈등을 만드는 대사, 상대를 이해 하는 대사

6월 7일	○나도 소중, 남편도 소중	○대화과정에서 의사존중이란 어떤 것인지 알아본다.	만청하기 놀이
6월 14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의사존중과정을 통해 합리적 의견을 합의하게 한다.	의사존중의 제원곡 만들고 공연하기
9월 6일	○뒤집어 생각해 보기	경쟁적 사회에서 조장하는 폭력 문화의 실태를 알게 한다.	거꾸로 가는 세상 - 느리게 달리기
9월 13일	○내육구가 될까?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내면의 욕구를 찾아보게 한다.	분노조절 - 욕망의 무지개 놀이
9월 27일	○내똥과 남똥은	○부정적 메시지와 긍정적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듣는 훈련을 해본다.	- 칭찬하기 비난하기 - 왕따 역할극 놀이
10월 4일	○중재실습1	○포레끼리의 갈등 시나리오를 찾고 중재과정을 실천하게 한다.	갈등대니저 놀이
10월 8일	○중재실습2	○중재의 핵심은 편견에 있지 않고 갈등 당사자의 욕구를 찾는 데 있음을 알게 한다.	왜? 놀이
10월 25일	○단계별 중재 훈련1	○중재과정에서 갈등상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갖는 훈련을 하게 한다.	갈등상대에게 거는 주문의 글쓰기
11월 1일	○단계별 중재훈련2	○중재 과정을 통해 정화적 협상 과정을 맛보게 한다.	갈등과 협상에 대해 연극으로 꾸미기
11월 8일	○협상이란?	○협상의 과정을 통해 공존의식의 중요성을 익히게 한다.	마술가게 놀이 - 원하는대로 가져 가보기
11월 15일	○차이와 차별	○올바른 협상을 위해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함을 일러 준다.	변신놀이 -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성 인정하기
11월 22일	○다르지만 같아요	○평화로운 삶을 위해 협동적 공존의 자세가 필요함을 일러 준다.	색깔논쟁 놀이 - 통일 인형극 비다오감상 후 역할놀이 해보기
11월 29일	○세상과 함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자만이 아닌 우리가 함께 협력 있음을 익히고, 더불어 사는 삶의 기쁨을 깨닫게 한다.	연관성놀이 - '나' 개인이 살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알아 보기

② 움직이는 '갈등해결과 평화' 학교 운영: 총20개 반 운영

구분	학교명	반명	인원	일자	요일	차시	시 간	담당교사	주진행	보조진행
1	구일중학교	1학년 4반	35	05/6/9	목	1차시	09:00-09:45(1교시)	황영희	여혜숙	박나미
			35	05/6/16	목	2차시	09:00-09:45(1교시)	황영희	여혜숙	박나미
			35	05/6/23	목	3차시	09:00-09:45(1교시)	황영희	여혜숙	박나미
			35	05/6/30	목	4차시	09:00-09:45(1교시)	황영희	여혜숙	박나미
2	구일중학교	1학년 2반	34	05/6/15	수	1차시	09:00-09:45(1교시)	황영희	조영희	이덕경
			34	05/6/22	수	2차시	09:00-09:45(1교시)	황영희	조영희	이덕경
			34	05/6/29	수	3차시	09:00-09:45(1교시)	황영희	조영희	이덕경
			34	05/7/6	수	4차시	09:00-09:45(1교시)	황영희	조영희	이덕경
3	구일중학교	1학년 3반	35	05/6/15	수	1차시	09:55-10:40(2교시)	황영희	조영희	이덕경
			35	05/6/22	수	2차시	09:55-10:40(2교시)	황영희	조영희	이덕경
			35	05/6/29	수	3차시	09:55-10:40(2교시)	황영희	조영희	이덕경
			35	05/7/6	수	4차시	09:55-10:40(2교시)	황영희	조영희	이덕경
4	연치초등학교	방과후교실	15	05/6/21	화	1차시	15:00-16:00(방과후)	김영미	박인혜	김영진
			15	05/6/28	화	2차시	15:00-16:00(방과후)	김영미	박인혜	김영진
			15	05/7/5	화	3차시	15:00-16:00(방과후)	김영미	박인혜	김영진
			15	05/7/12	화	4차시	15:00-16:00(방과후)	김영미	박인혜	김영진
5	두산초 1	CA반	24	05/6/16	목	1차시	13:50-14:30(CA)	송미숙	여혜숙	박경옥
			24	05/6/23	목	2차시	13:50-14:30(CA)	송미숙	여혜숙	박경옥
			24	05/6/30	목	3차시	13:50-14:30(CA)	송미숙	여혜숙	박경옥
			24	05/7/7	목	4차시	13:50-14:30(CA)	송미숙	여혜숙	박경옥
6	공진초등학교	4학년 1반	25	05/7/12	화	1차시	10:40-12:20(3,4교시)	황혜신	최현진	임선복
			25	05/7/13	수	2차시	10:40-12:20(3,4교시)	황혜신	최현진	임선복
7	공진초등학교	4학년 2반	25	05/7/4	월	1차시	10:40-12:20(3,4교시)	황혜신	박인혜	임선복
			25	05/7/11	월	2차시	10:40-12:20(3,4교시)	황혜신	박인혜	임선복
8	공진초등학교	4학년 3반	25	05/7/8	금	1차시	10:40-12:20(3,4교시)	황혜신	박인혜	김재근
			25	05/7/15	금	2차시	10:40-12:20(3,4교시)	황혜신	박인혜	김재근
9	덕원중	CA반	10	05/7/19	화	1차시	15:30-17:30(CA)	김용인	여혜숙	박경옥
			10	05/7/21	목	2차시	15:30-17:30(CA)	김용인	여혜숙	박경옥

10	대길초 등교	2학년 7반	30	05/9/5	월	1차시	10:50-12:20(3,4교시)	김은경	박인혜	이덕경
			30	05/9/12	월	2차시	10:50-12:20(3,4교시)	김은경	박인혜	이덕경
11	두산초 등교	5학년 1반	32	05/9/30	금	1차시	10:40-12:10(3,4교시)	박정경	이현주	김영진
			32	05/10/1	토	2차시	10:40-12:10(3,4교시)	박정경	이현주	김영진
12	강위초 등교	5학년 8반	36	05/10/13	목	1차시	9:00-10:30(1,2교시)	김혜원	박인혜	김선혜
			36	05/10/20	목	2차시	9:00-10:30(1,2교시)	김혜원	박인혜	김선혜
13	강위초 등교	4학년 9반	35	05/10/13	목	1차시	10:40-12:10(3,4교시)	김현설	박인혜	김선혜
			35	05/10/20	목	2차시	10:40-12:10(3,4교시)	김현설	박인혜	김선혜
14	동구로 초등교	6학년 7반	35	05/9/26	월	1차시	10:00-11:20(2,3교시)	김미숙	여해숙	이덕경
			35	05/9/30	금	2차시	10:00-11:20(2,3교시)	김미숙	여해숙	이덕경
15	동구로 초등교	6학년 3반	34	05/10/5	수	1차시	9:00-10:30(1,2교시)	김민식	여해숙	김영진
			34	05/10/12	수	2차시	9:00-10:30(1,2교시)	김민식	여해숙	김영진
16	미성초 등교	6학년 9반	30	05/10/26	수	1차시	9:50-11:20(2,3교시)	서진영	여해숙	이덕경
			30	05/10/28	금	2차시	9:50-11:20(2,3교시)	서진영	여해숙	이덕경
17	문교초 등교	6학년 3반	32	05/10/4	화	1차시	10:00-11:20(2,3교시)	김영혜	여해숙	이덕경
			32	05/10/11	화	2차시	10:00-11:20(2,3교시)	김영혜	여해숙	이덕경
18	수송중 (특수 반)	2학년	10	05/10/10	월	1차시	15:20-16:50(CA)	안정숙	박인혜	김영진
			5	05/10/17	월	2차시	15:20-16:51(CA)	안정숙	박인혜	김영진
19	수송중 (특수 반)	2학년	13	05/10/24	월	3차시	15:20-16:52(CA)	안정숙	박인혜	김영진
			8	05/10/31	월	4차시	15:20-16:53(CA)	안정숙	박인혜	김영진
20	금곡여 고	1학년 2반	36	05/10/16	수	1차시	15:10-17:00(7,8교시)	김태진	이현주	박나미
			36	05/10/18	금	2차시	8:25-10:15(1,2교시)	김태진	이현주	박나미

7. 수업내용 : 2개 학교만 적시, 나머지 생략

가) 초등학교 예시 프로그램

일시	주 제	목 표	내 용
7/4	갈등이란 무엇인가(갈등개념)	○갈등에 대해 이해한다. ○갈등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생긴다는 것을 알게 한다. ○갈등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음을 알게 한다.	○나를 닮은 동물을 찾아 그려본 후 발표 ○다양한 그림(10개 이상)을 보여준 후 좋은 느낌과 다른 느낌에 스티커 붙이기
7/8	갈등이 왜 생기는가(갈등원인)	○갈등 왜 발생하는지 이해한다.	○도입만 있는 사례에 이야기 만들어 보기 ○도입부의 이야기를 가지고 뒷이야기 만들어보기
7/15	갈등해결 방법	○갈등과 폭력에 대해 이해하고, 평화적 갈등해결 방법을 갖게 한다. ○갈등 해결은 그때그때 다를 수 있음을 이해 시킨다.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느끼는 평화의 상태와 폭력적 상태가 어떠한지 줄서보기 ○“이럴때 어떻게”
7/15	갈등의 평화적 해결	○협동적 협상으로 둘 다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게 한다. ○갈등의 평화적 해결이 왜 좋은지 알게 한다.	○‘손등을 닦아봐’ ○둘다 이익이 되는 방법 찾기

나) 중등학교 예시 프로그램

일시	주 제	목 표	내 용
6/15	평화와 갈등 기본개념 이해	○평화는 사회구조적이고 관점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갈등 대응방식은 선택 가능하다.	○이러크 소년 시나리오로 평화 줄세우기 ○갈등지도 그리기
6/22	갈등상황의 다양한 해결방법	○갈등에 대한 자신의 일반적인 대응유형을 적문화해본다. ○다양한 해결방법이 있고 그 각각의 장 단점을 알게 한다.	○갈등유형조사지 ○이럴때 어떻게
6/29	문제해결방법	○갈등해결을 위한 원인 찾기 과정을 이해한다. ○관계와 자신의 이익을 둘 다 만	○시나리오 역할극 - 컴퓨터를 끌러싼 엄마와 아들의 갈등

		죽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의 변화를 모색해본다.	○양파분석-대안극
7/6	문제해결방법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해 갈등기의 중요성을 알게한다.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대화 방법을 익힌다.	○렛속말 놀이 ○나는_____일 때 _____라고 느껴.

③ 청소년평화리더십 캠프

ㄱ. 2005년 1차 청소년평화리더십캠프(겨울방학)

ㄱ) 일시 : 1월 7일(금) ~ 9일, 2박 3일

ㄴ) 장소 : 수유리 원불교 청소년수련원

ㄷ) 참가 : 청소년 김지희 등 15명

ㄹ) 진행자 : 박수선 외, 강사진 6명(김학목, 여해숙, 이현주, 조영희, 최안진경, 최정현진)

ㅁ) 프로그램 :

일자	시간	주제	내용	진행
1월7일 (금)	11:30-12:00	등록		
	12:00-13:00	점심식사		
	13:00-13:10	모두 환영합니다		박수선
	13:10-14:50	여는마당	모두소개, 기대과 희망나누기, 진행규칙정하기	여해숙
	14:50-15:00	휴식		
	15:00-17:00	함께 뛰우는 평화	평화이해	김학목
	17:00-17:10	휴식		
	17:10-18:00	영상속의 평화읽기	영상물 시청, 이야기 나눔	최안진경
	18:00-19:00	저녁식사		
	19:00-19:50	갈등다루기 I	갈등의 개념과 관점, 종류 이해하기, 나의 갈등대응유형 알아보기	김학목
1월8일 (토)	19:50-20:00	휴식		
	20:00-21:00	갈등다루기 II	진짜 원하는 것 찾기, 갈등 분석방법 익히기	김학목
	08:00-09:00	아침식사		
	09:00-09:30	어제와 오늘 둘러보기		이현주
	09:30-10:50	창의적 문제해결 I	의사결정의 여러 가지 방법 이해하기, 협상의 원칙과 방법 익히기	김학목
	10:50-11:00	휴식		

1월9일 (일)	11:00-12:00	창의적 문제해결 II	협상실습	김학목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자연과의 만남	보물찾기, 오리갈기, 풀넘기	최정현진
	15:00-16:30	듣기와 말하기 I	적극적 듣기, 말전달하기, 나전달법, 소통의 장애 찾기, 가시배기	최정현진
	16:30-16:40	휴식		
	16:40-18:00	듣기와 말하기 II	바꾸어 말하기, 부정적 메시지 듣기, 합리적 의사소통 방법 익히기	최정현진
	18:00-19:00	저녁식사		
	19:00-19:50	토대중재 I	중재의 원칙과 방법 익히기	여해숙
	19:50-20:00	휴식		
	20:00-21:00	토대중재 II	중재의 과정 이해하기	조영희
	21:00-22:00	별을리며	도란도란 조별모임	최정현진
	08:00-09:00	아침식사		
	09:00-09:30	어제와 오늘 둘러보기		이현주
	09:30-10:50	토대중재 III	중재자의 역할과 기술 익히기	조영희
	10:50-11:00	휴식		
	11:00-12:00	토대중재 IV	중재실습	조영희
	12:00-13:00	점심식사		
	13:00-14:20	평화리더 세팅하기	평화리더로서 나의자원, 나의역량, 나의준비, 나의목표 찾기	최정현진
	14:20-14:30	휴식		
	14:30-15:00	우리가 만난 평화	영상을 시청	최안진경
	15:00-15:50	더 넓게 여는 마당	소감나누기, 평화나누 기르기	조영희
	15:50-16:00	새로운 출발 마당	수료증 전달, 기념촬영	박수선

ㄴ. 2005년 2차 청소년평화리더십캠프(어름캠프)

ㄱ) 일시 : 월 22일(금) ~ 7월 24일(일), 파주 흥원연수원

ㄴ) 장소 : 파주 흥원연수원

ㄷ) 참가 : 청소년 고마음 등 31명 신청, 29명 참가(2명 질병으로 불참)

ㄹ) 진행자 : 박수선 소장, 강사진 5명(김학목, 박인해, 여해숙, 이현주, 조영희), 3기 강사트레이닝 수료자 2명(박홍나미, 안향숙), 자원봉사자 4명(성공회대 사회과학부 1년, 남2, 여2), 청소년개발원 3명(최창숙, 박정배, 지원간사)

미) 프로그램 :

일자	시간	주제	내용	진행
7월22일 (금)	12:00-13:00	도학 및 김경 여는 마당	등록, 방배정 안사, 소개, 사전설문작업	조영희
	13:00-15:00	갈등해결과 토래중 재판?	토래중재란 무엇인가? 프로그램의 내용과 목표 공유하기, 진행규칙 정하기	여혜숙
	15:00-17:00	갈등이해 I	갈등의 개념, 원인과 종류 이해	김학묵
	17:00-18:00	함께 때우는 평화	평화 개념과 관련, 갈등해결과 예방을 위 한 평화감수성 훈련	박명숙
	18:00-19:00	저녁식사		
	19:00-21:00	갈등이해 II	갈등해결을 위한 관점, 원인과 선입견, 차이차별, 분단된 한국에서의 평화적 갈 등해결 이해하기	조영희
	21:00-22:00	영상을 시청	영상으로 알아보는 통일	박명숙
7월23일 (토)	08:00-09:00	아침식사 및 산책		
	09:00-10:30	토래중재 I	중재의 원칙과 방법 이해	조영희
	10:30-12:30	갈등분석	갈등분석의 원칙과 방법, 적용(권하는 것, 관심사 찾기, 태도 행동이해하기)	김학묵
	12:30-13:30	점심식사		
	13:30-15:30	의사소통 I(듣기)	적극적 듣기, 의사소통의 쉼터 이해하기, 일반원칙 이해하기	여혜숙
	15:30-16:30	의사소통 II(말하기)	나 전달, 가시배기, 강령강령 마주하기, 마 꾸어말하기	조영희
	16:30-18:00	자연에서 일제하기	자연과 화나되고, 친구와 하나되고	박정태
	18:00-19:00	저녁식사		
	19:00-21:00	의사결정방법	의사결정의 여러 가지 방법 이해하기	김학묵
	21:00-23:00	별을 헤매	아리송이	박정태
7월24일 (일)	08:00-09:00	아침식사 및 산책		
	09:00-10:00	토래중재 II	중재자의 자세 및 기술	김학묵
	10:00-12:00	토래중재 III	토래중재의 적용 및 삶습	조영희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평화리대 써잇찾기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청소년들의 자기 전망 찾기, 평화리대로서의 나의 미래 찾 기	박명숙
	15:00-	닫는 마당	수요증 수여, 해산식 및 출발	박수선

④ 학생대상 외부 교육 프로그램 진행

ㄱ. 서울여중 간부수련회, '갈등해결과 또래중재'

- 일시 : 10월 15일(트) 오후 1시 30분 ~ 6시, 4시간 30분
- 진행 : 김학묵, 여혜숙, 이재영, 조영희

ㄴ. 평화여성회 방문한 강남중학교 학생 대상, '평화적 갈등해결의 이해'

- 일시 및 장소 : 9월 14일(수), 평화여성회 교육장
- 진행 : 여혜숙

ㄷ. 서울YMCA 한일대학생 평화순례단 80명 대상, '공존과 평화'

- 일시 및 장소 : 8월 8일(월), 오후 1시~6시, 5시간, 이천 청강문화산업대학
- 진행 : 여혜숙, 조영희

ㄹ. 전국YMCA연맹 청소년국제평화캠프 50명 대상, '갈등해결과 평화'(3시간)

- 일시 및 장소 : 12월 21일(수), 오후 2시 ~ 5시, 3시간, 조치원 고려대 서캠퍼스
- 진행 : 김학묵, 여혜숙, 조영희

ㄴ. 성북수련관 '평화적 갈등해결' 프로그램 운영

- 일시 : 11월 26일(토) ~ 12월 17일(토), 주1회, 매회2시간, 총4회 8시간
- 진행 : 여혜숙

가. 청소년 교육 사업 평가

총평

사업계획과 목표에 비추어 소재자 발간, 통일교육 교안연구, 국내외 청소년 평화문화 조사 및 교류는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그 외 사업은 충실히 진행하였다.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청소년대상 평화교육을 통해 우리 회가 진행하는 갈등해결교육을 홍보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학교에서의 평화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평화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또한 활동의 과정에 새로운 인력을 훈련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청소년교육 진행장사를 다수 배출하였다. 그러나 평화교육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과 교육진행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모형개발의 필요성, 보다 충분하고 안정적인 인력개발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가) 성과

① 지속교육, 움직이는 학교, 청소년 캠프 등을 운영하여 대상, 기간, 내용, 방식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교안의 개발과 교안제발간으로 성과가 이어지게 되었다.

② 청소년교육팀의 활동은 우리 회가 진행하는 갈등해결과 평화교육에 대한 홍보요

과를 거두었으며 학교에서의 평화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다.

③ 청소년 대상 평화리더십 캠프를 통해 평화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알리는데 기여하게 되었다.

나) 한계

① 연령대의 차이에 따른 적합한 언어와 활동이 부족하며, 교육진행 결과 성취도를 평가하는 척도가 부족하였다.

② 여전히 인력과 재정적 부족함을 충분히 극복하지 못하였다.

③ 교육을 진행한 이후, 대상자들을 위한 후속모임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다) 과제

① 연령대별 교재개발과 성취도를 측정할 도구개발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② 진행장사를 위한 후속모임의 조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③ 재정확보와 홍보방식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4) 제3기 강사 트레이닝(회원 확보 및 갈등해결 교육 확대)

가. 강좌 내용 및 방식

기초, 심화, 실습 3단계로 나누어 진행

○ 1단계: 기초-평화적 갈등해결의 이론 및 방법에 대한 기초적 이해(2박 3일 워크숍 진행)

기초 프로그램 개요	○ 일자 : 2005년 3월 18(금) - 20(일)		
	○ 장소 : 우이동 봉도청소년수련원		
구분	○ 참석 : 김선혜, 김영진, 김진영, 김재근, 나연수, 박경옥, 박대순, 박홍나미, 박혜옥, 서은지, 성미영, 안홍철, 안향숙, 엄두용, 이구경숙, 이덕경, 이상학, 이성자, 이향진, 임선복, 임혜영, 정미경(기초 22명 참석, 심화 20명 참석)		
	시간	강의명	강사
3월 18일 (금)	14:00 - 16:00	1강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입문 -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희망 나누기	박수현
	16:00 - 18:00	2강 갈등해결 이해하기 - 평화적 갈등해결의 기초	이재영
	18:00 - 19:00	제석식사	
	19:00 - 21:00	3강 갈등분석1 - 분석을 해 하는가? 다양한 분석방법 이해 갈등분석 실습	김학옥
3월 19일	09:00 - 12:00	4강 갈등분석 2	조영희

(토)		- 갈등분석 실습	
	12:00 - 3:00	점심식사	
	13:00 -16:00	5강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1 - 대화(의사소통)/듣기와 말하기 기초	이혜숙
	16:00 -18:00	6강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2 - Problem Solving, 의사결정 방법	이재명
	18:00 -19:00	저녁식사	
3월 20일 (일)	19:00 -21:00	7강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3 - 조정자의 역할, 조정 원칙과 과정	박수선
	09:00 -12:00	8강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4 - 조정자의 역할, 조정(mediation) 원칙과 과정 II	박수선
	12:00 -13:00	점심식사	
	13:00- 15:00	9강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6 - 조정실습	박수선
	15:00- 16:00	전체 평가 및 앞으로의 계획 프로그램 평가	박수선

○ 2단계: 심화-기초에서 전반적인 틀에 대해 이해한 것을 각 부분마다 심화 학습 및 훈련 (주 2회 3시간씩 11강좌)

심화 프로그램 개요		○ 일자및회수 : 2006년 3월 28(월) - 5월 2일(월) 오후6시 - 9시, 매회3시간 적 11회 ○ 장소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교육장		
구분	주제	내용	강사	
1차	3/28(월)	갈등해결과 평화교육의 필요성과 평화교육의 한 내용으로서의 갈등해결 교육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한다.	박수선	
2차	3/30(수)	갈등해결의 법, 제도 이 사회의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법, 제도적 모색을 살펴본다.	박수선	
3차	4/4(월)	갈등의 원인 분석의 여러 사례를 가지고 분석과 전략세우기에 대해 실습 김학목	방법 한다.	
4차	4/6(수)	갈등해결의 방법-합리적 의사결정 방법 다양한 의사결정방법, 상황과 내용에 맞는 효과적인 의사결정방법을 익힌다.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식에 대해 조영희 이해하고, 실습을 통해 창의적 대안능력을 키운다.	
5차	4/11(월)	기본적 기술인 의사소통 기법1/듣기와 효과적 듣기와 말하기 방법을 훈련한다.	최현진	
6차	4/13(수)	기본적 기술인 의사소통 기법2/문제를 해결하는 말하기 실습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말하는 법'을 훈련한다.	최현진	
7차	4/18(월)	분노조절 화가 나는 이유, 화가 났을 때의 행동 등을 객관화하고,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에 대해 배우고, 모색해본다.	여혜숙	
8차	4/27(수)	편견 다루기 서로 다른 차이가 고정관념, 편견 등을 통해 차별화되는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편견과 강한 감정을 다루는 법을 훈련한다.	조영희	
9차	4/20(수)	갈등해결의 방법-협상 협상의 원칙과 방법을 이해하고, 실습을 통해 자신의 목표, 타인의 목표를 이해하고 서로 만	박수선	

			측할 수 있는 협동적 협상을 배운다.	
10차	4/25(월)	갈등 해결의 방법-조정	조정 의 원칙과 방법을 이해하고 실습한다.	박수선
11차	5/2(일)	관계의 회복/ 화해와 치유	문제해결뿐 아니라 관계의 회복과 근본적 치유 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비폭력적 사회변화에 대한 전망을 해본다.	이재영

- 3단계: 적용-앞에서 이해하고 훈련한 것들을 실제 청소년 대상의 진행자로서
진행 실습 및 평가, 교안 만들기, 참관 실습(3시간씩 2강좌, 참관실습, 실습
워크숍)

적용 프로그램 개요		○ 일자및회수 : 2005년 3월 28(월) - 5월 2일(일) 오후6시 - 9시, 대회3시간 씩 11회 ○ 장소 : 평화불만드는여성회 교육장		
구분		주제	내용	강사
1차	5/4(수)	갈등해결교육 전 행 방법론	평화의 가치, 기술, 태도의 내용을 함양시키는 평 화, 갈등해결 교육의 교육방법론에 대해 이해한다. 2003-4년 진행된 학교 창의지향과 CA반 등에서 진행되었던 갈등해결 교육의 사례를 듣는다.	박수선
2차	5/9(월)	어린이 청소년 대상 갈등해결교 육 프로그램 디 자인과 진행방법	“갈등해결과 평화” 수업의 전체 프로그램을 디자 인해보고, 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의 원칙 등을 검토한다.	박수선
3차	5/11(수)	참관실습	1차 참관 수업 및 분석평가	조영희
4차	5/16(월)	참관실습	2차 참관 수업 및 분석평가	박수선
5차	5/21(토)	실습워크숍	수업교안 만들기 및 시연 : 그동안 배운 내용을 기초로 수업의 구체적 교안을 만들고, 프리젠테이 션 실습을 통해 평가, 수업 진행능력을 높인다.	박수선
6차	5/21(토)	실습워크숍		박수선
7차	5/28(토)	실습워크숍		박수선
8차	5/28(토)	실습워크숍		조영희
9차	6/4(토)	실습워크숍		박수선
	6/4(토)	수료식	평가 및 전망 나누기	

나. 평가

가) 목표에 부합된 프로그램이었는가?

‘갈등해결과 평화’ 강사트레이닝은 1차적으로 청소년대상 ‘갈등해결과 평화’ 진행자를 양성하기 위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으로서 목표, 크게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과정으로서의 평화를 이해하고, 평화능력 향상을 통한 평화문화 형성이 있다.

2003년 1기 2004년 2기를 진행하는 가운데 가장 큰 문제의식으로 느꼈던 것은 모집의 어려움이었다. 모집이 어려운 이유는 ‘갈등해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 낮고, 인지도도 낮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3기 모집과정은 참여 희망자의 숫자는 늘었지만 현재 ‘갈등해결’ 관련 장기 프로그램이 한국사회에서는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강사가 되겠다’는 의지가 주요하지 않더라도 갈등해결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목적으로 참여하는 참가자들도 일부 있어서 ‘강사트레이닝’이 참가자 공통의 목표로 되지 못한 점이 있다.

그러나 기초 워크숍만 참석하겠다는 의지로 출발했지만, 적용단계까지 추가로 참여한 참가자가 2명 있었고, 갈등해결에 대한 관심으로 출발했으나 적용단계의 실습을 거치면서 청소년 대상 갈등해결과 평화 교육의 진행자로서 의지를 갖게 하고 또 활동하도록 동기부여를 한 점 들을 보아 프로그램의 질적 구성을 어떻게 높이는가에 따라 동기와 상관없이 참가자들의 의지를 촉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기초 이해, 심화과정, 그리고 참여자 스스로 교안을 만들고, 식언하는 적용 훈련은 ‘강사트레이닝’의 목적을 지향하는 실천적 구조로 목표를 어느 정도는 달성하였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강사 양성’의 목적 외에 교육 후 강사로서 활동하지는 않더라도 평화문화 형성의 개인 주체로서 자신의 삶, 자신의 일터, 관계에서 관계능력 향상과 평화적,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게 한다는 목적은 그 실천에 대한 속제는 남아 있더라도 개인의 변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의지의 표현으로 볼 때 이 측면에서도 교육의 목표를 실현하였다고 생각된다.

나) 참가자들의 참여도와 변화

평화교육의 과정가 “어떻게 개인적, 개인간, 공동체, 국가, 지역적, 세계적 차원의 폭력과 갈등의 근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통합적 인식), 평화의 태도와 가치관을 동시에 태양할 수 있도록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어떻게 개인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를 함께 추구할 것인가?”라고 할 때, 평화를 말할 때, 평화적 갈등해결을 이야기할 때, 그 말하는 방식과 내용, 즉 형식과 내용이 일치되는 교육자, 진행자의 준비가 되었을 때 실현되기가 더욱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프로그램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 즉 진

행방식에 대해 더욱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 프로그램은 강사의 일방적인 강의 형식이 아니라 진행자와 참여자가 함께 만드는 쌍방향성 진행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갈등해결의 이론, 법 제도의 이해, 분쟁지역 평화교육 사례 등 강의 형식도 일부 진행되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주제와 관련한 참여자들의 토론, 그림그리기, 모둠별 활동, 역할극, 실습 등 참여자들의 생각과 관점을 끌어내고, 전체적으로 함께 나눔으로써 차이와 다양성을 발견하고, 의견을 조율하며 합의를 만들어가는 방식, 경험을 통해 태도와 가치관의 변화를 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처음 이 진행방식에 대해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참가자들도 일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지식 중심이 아니라 경험과 실습을 통한 참여자 스스로 결론을 도출해내는 진행방식은 ‘갈등해결과 평화’ 수업의 개인에 대한 효과뿐 아니라 스스로 참여하면서 진행기술을 익히는 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적용단계에서 교환실습에서 보여준 진행자들의 여유있는 진행과 참가자 중심의 진행기법을 구사할 수 있었던 것을 볼 때 진행기술과 관련하여 따로 교육 시간을 6시간 배정하였지만 전 과정에서 진행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던 결과라고 생각된다.

각각의 참가자들은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다양한 고민과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개인의 갈등해결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당사자로서 그 목표달성을 위해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 조직내 갈등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관심, 강사가 되기 위한 욕구 등등 개인에 따라 다양한 목표를 세우고 참여하였다. 관심있는 주제도 다르고, 영역도 다르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도, 관점도, 가치관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갈등해결과 평화’라는 큰 주제로 각각의 그림을 그려가게 된 것이다.

그러나 80여 시간의 프로그램을 마치고 자신의 변화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함께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반갑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만나고 활동하고 싶다’는 것과 ‘교육 기간 중 어떤 변화를 이루었고, 앞으로 변화할 노력할 것’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평화에 대한 지향이나 개인간,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출발이 타자 또는 대상의 변화가 아니라 자신의 변화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참가자들이 교육과정을 통해 이해하고 노력하려는 의지를 갖게 된 것에 대한 평가는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교육의 효과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다) 활동과의 연결

이 프로그램은 직접적으로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의 활동가들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80시간의 장기 프로그램이지만, 이 프로그램 자체로서 완

성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이 ‘갈등해결과 평화’ 강사로서 수료 후 조직에서 함께 활동하도록 하는 대역으로서 역할을 한다.

프로그램 수료 후 참가자를 19명 중 10명이 현재 평화여성회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움직이는 ‘갈등해결과 평화’ 학교> 진행에 보조진행자로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그 외 수료자들은 센터의 관련 소모임 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다. 과제

가) 전문강사로써의 명확한 자기 모습 만들기

트레이너를 위한 트레이너로서 강사 양성이라는 전문 강사로써 그 목표를 분명히 하는 장치를 더욱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해마다 갈등, 갈등해결, 평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2001년부터 시작된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사업이 많아 알려짐에 따라 ‘강사트레이닝’에 대한 관심도와 접근성이 높아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강사트레이닝’에 대한 참여의지보다는 ‘갈등해결과 평화 이해’를 위한 접근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진행과정에서 참가자들간 이해와 욕구의 차이는 여러 어려움을 낳기도 했다.

참여자 의 숫자 때문에 ‘강사로서 훈련’이 주요한 목표가 아니더라도 참가신청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강사트레이닝으로서 자기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의사와 조건이 가능할 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궁극적으로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가 확대에 더 기여할 것이다.

나) 장소, 비용 등 제척한 교육 여건 만들기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시여성발전기금에서 지원을 받아 참가비가 다른 해에 비해 저렴했다. 참가율을 높인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평화문화 확산과 평화적 갈등해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전문적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참여기회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참가비는 시작 지점에서 기회비용을 낼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프로그램은 내용뿐 아니라 공간 등 형식도 참여자들의 교육 열의를 좌우하는 조건이 된다. 숙박 프로그램은 봉도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했는데, 시설의 입지, 넉넉한 공간, 맛있는 식사 등은 교육의 흡수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그런데 강화를 진행했던 평화여성회 교육장은 인원에 비해 좁아서 다양한 형태의 책상배열, 진행 내용에 맞는 구조를 적절히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강의장소에 대한 불만도 꽤 있었고, 또한 대회 주제와 걸맞는 구조(책상 배열, 형식)를 적절하게 구사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여 교육의 효과를 충분히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교육장소, 비용 등 내용 외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요소들에 대해 더 많은 고려와 참가자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 활동에의 연결 기반 강화

강사트레이닝을 마치고 난 후 참가자들은 곧장 <용직이는 ‘갈등해결과 평화’ 학교>에 보조교사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을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수료자 중 절반이 활동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었다. 개인의 실원 영역도 중요하지만 트레이너를 위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인 만큼 교육과정에서 형성된 능력을 바로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이 있다는 것은 교육 진행과정의 역동성을 높이고, 의지를 곧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

아직 평화여성회 외에는 ‘갈등해결과 평화’의 주제로 학교 안팎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 및 조직이 없고, 또 일반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적용 영역을 찾아나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궁극적인 지향인 평화문화 형성을 위해 장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참가자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5) 지역 학부모 강사트레이닝(공동사업)

과천 학부모 조직인 학교평화만들기, 한국아나렛티스트센터와 공동으로 과천의 학부모 대상 ‘지역내 학교 평화교육 강사 양성 훈련’ 진행.

가. 기초교육 프로그램

횟수	분류	주제	강사	내용
1차 4/20	평화적 갈등해결에 대한 이론	갈등해결의 이해	이재영	갈등에 대한 이해와 원인분석 - 갈등의 발생과 원인에 대한 이해 - 갈등을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
2차 4/27		갈등대응 유형	이재영	개인의 갈등 대응 유형을 통한 대응 유형 비교 갈등 대응 유형 점검표 작성 각 유형별 장·단점 파악 및 토의
3차 5/4		갈등분석	김학묵	갈등분석의 의미와 기능 이해 갈등분석 실습을 통한 방법 숙지
4차 5/11	평화적 갈등해결의	의사소통 - 1	여희숙	원활한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관계 이해 갈등해결의 방법으로서의 의사소통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기법
5차 5/18	기본적 기법	의사소통 - 2	최현진	비폭력 의사소통(NVC)에 대한 이해 비폭력 의사소통 실습
6차 5/25		분노조절/ 권견다루기	조영희	화가 나는 이유, 분노상의 행동 이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여러 방법 모색 고정관념, 편견이 차별화되는 과정 이해 편견과 강한 감정을 다루는 법을 훈련 갈등해결의 기법 배우가 조절을 중심으로
7차 6/1	평화적 갈등해결의 방법-중재	조정(중재)이론	박수선	조정 기능과 단계 이해 구조적 조정 단계 실습
8차 6/8		조정(중재)실습	박수선	조정실습을 통한 조정의 단계 습득 실질적인 실습을 통한 배우고 느낀점 공유
9차 6/15	학교폭력과 평화교육	폭력과 평화	이재영	폭력과 평화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향상 폭력의 발생원인에 대한 고찰 평화의 개념 정리
10차 6/22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응	지역 교사	학교폭력의 현주소 학교폭력의 발생원인과 구조적 문제점 보편적 학교폭력의 대응양식
11차 6/29		평화교육의 이론과 방법	이재영	평화교육의 의미와 필요성 평화교육의 방법론 평화교육의 예
12차 7/6		평화교육의 적용 사례	이화영/ 김미경	과천 지역에서 시도되었던 평화교육 사례 평화교육의 적용가능성 평화교육 확대의 한계와 장애요소
13차 7/13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평화교육	유은향/ 박향희	자원봉사의 의미와 가치 자원봉사를 활용한 평화교육
14차 7/20	정리	평가 및 수료식	하정	전체 평가 및 적용에 대한 토의 수료증 증정

나. 심화교육 프로그램

횟수	분류	주제	강사	내용
1차	갈등분석 훈련	갈등분석 기법	이재영	다양한 갈등분석 기법 실습을 통한 이해 조정을 위한 기초훈련
2차	조정훈련	조정과정 훈련 I	이재영	1단계: 도입 (기본규칙 만들기 등) 2단계: 입장나누기 (바꿔말하기, 가시배기 등)
3차		조정과정 훈련 II	이재영	3단계: 쟁점파악 (요약, 정리 등) 4단계: 문제해결책 모색 (브레인스토밍 등) 5단계: 해결책 합의 (합의문 작성 등)
4차		조정 실습 I	박수선	역할극을 통한 조정과정 익히기
5차		조정 실습 II	박수선	역할극을 통한 조정과정 익히기
6차	비폭력 의사소통 훈련	분노다루기	최현진	비폭력대화로 분노를 온전히 표현하기
7차		공감하기 I	최현진	공감에 대한 이해 -공감이란? vs 공감이 아닌 것?
8차		공감하기 II	최현진	비폭력대화를 통해 상대를 공감하는 훈련
9차		감사하기 일상의 적용	최현진	비폭력대화로 감사표현하기 일상생활에서 비폭력대화 적용하기
10차	평화교육 교안실습	교안시연 및 평가 I	학평 이재영	팀별 평화교육 교안검토와 시연 평가 및 발전방향 검토
11차		교안시연 및 평가 II	학평 이재영	팀별 평화교육 교안검토와 시연 평가 및 발전방향 검토
12차	수료식	평가 및 수료	학평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평가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 및 방법

다. 성과 및 과제

이 프로그램은 학교의 문화와 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제 학교에서 평화교육을 진행할 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특히 과천이라는 특성의 지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즉 평화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갈등해결, 평화교육이 적용, 확산될 수 있기 위해서는 훈련 후 실천이 중요한데, 특정 지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으로서 지역사회에서 특히 학교 교육과 문화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평화, 갈등해결교육을 진행하면서 지역사회의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나간다는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중앙에서의 강사트레이닝을 통한 학교 평화문화 형성에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지역의 문화를 변화시켜나간다는 직접적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관련 단체와 평화여성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조직, 재원 마련을 지역에서 하고, 평화여성회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형태) 새로운 시도로, 앞으로 전문 프로그램 지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와 모색이 더욱 필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강사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일시적인 프로그램 진행이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배출된 강사들이 지속적으로 훈련받고 경험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지역의 주최 조직과 연대를 강화해 나갈 때 갈등해결, 평화교육이 더욱 확산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평화적 갈등해결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선전활동

- (1) 홈페이지 구축 및 안정화: 갈등해결센터 홈페이지 새로 구축, 갈등해결의 문화적 확산을 위한 선전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홈페이지 www.peacex.org 구축, 계속적으로 내용보완 및 관리의 체계화 필요함.

- (2) 갈등해결센터 브로셔 제작: 갈등해결센터의 활동을 소개, 안내할 수 있는 브로셔 제작하여 활동을 알리면서 갈등해결의 문화적 확산에 힘쓴다./2006년 초 발행 예정

- (3) 각 프로그램별 자료 정리, 소책자 발간과 영상자료 개발.

- 청소년을 위한 갈등해결교육 교안집 개발
- 청소년교육과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워크숍 관련한 교육 홍보 자료(ppt) 제작.
- 영상자료 개발: 청소년리더십 캠프 영상자료 제작(회안진경 회원 촬영, 편집).

- (4) 성과 및 과제: 갈등해결센터의 독자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센터의 다양한 교육과 관련한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고, 선

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자료 개발을 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한편 관리가 아직은 체계적이지 못해 단순 정보를 교류하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교육 등 프로그램 진행뿐 아니라 그 내용과 성과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알려내고, 사회적으로 인식을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선전활동이 요구된다.

3) 제도적 접근을 위한 사업

(1) 갈등해결 제도 구축을 위한 연구작업 참여

- ① 청소년개발원 연구작업 ‘청소년 갈등해결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에 청소년교육프로그램 내용 및 분석과정 참여.(조영희, 여해숙, 김보정, 하윤영, 이경혜 등)
- ② 인문과학연구회 주관 갈등관련 연구사업 ‘민간인프라구축 방안 연구’ 작업에 참여(박수선, 김학목)
- ③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공갈등 관리 이론과 기법’ 연구작업 참여. 공공갈등과 조정 내용 정리, 발간.(김학목, 김선혜, 조영희, 박명숙, 이재영, 박수선 참여)

(2) 국내외 청소년 평화문화 소개 및 교류

- ① 기고활동:
 -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발간 ‘국제이해교육’ 2005년 가을호에 학교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소개(조영희)
 - 에듀피아에 평화교육 소개(여해숙)
- ② 연대활동: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 ㄱ. 학교폭력근절을위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전문가 좌담회
 - ㄱ) 일시: 3월 14일(월) 오후 4시
 - ㄴ) 장소: 홍사단 강당
 - ㄷ) 내용: 일진회와 학교폭력 해소방안
 - ㄴ. 학교폭력근절을위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토론회
 - ㄱ) 일시: 3월 35일(금) 오후 2시
 - ㄴ) 장소: 홍사단 강당
 - ㄷ) 내용: 학교폭력문제, 이렇게 풀자
 - ㄷ. 학교폭력근절을위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1차 워크숍
 - ㄱ) 일시: 4월 28일(목) 오후 5:30
 - ㄴ) 장소: 홍사단 강당
 - ㄷ) 내용: 학교폭력 피해 학생·가족 지원 대책
 - ㄹ. 학교폭력근절을위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2차 워크숍

ㄱ) 일시 : 5월 28일(토) 2:30

ㄴ) 장소 : 홍사단

ㄷ) 내용 : 학생들의 눈으로 바라본 학교폭력

ㄴ. 학교폭력근절을위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3차 워크숍

ㄱ) 일시 : 6월 24일(금) 오후4:30

ㄴ) 장소 : 평화불만드는여성회 교육장

ㄷ) 내용 : 학교폭력예방교육에 대한 비판적 검토

③ GPPAC 한국위원회 보고서에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내용 수록.

(3) 학교 평화, 갈등해결교육의 필요성 및 공공교육화를 위한 열린 대화(도론회) 개최
(하반기중)

2005년도에 진행하지 못했음. 2006년 1월 24일 예정.

가. 성과와 과제

제도적 접근을 위한 사업으로 2005년은 특히 타 기관과의 연구작업과 연대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국가적으로 '갈등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관리, 갈등해결 관련한 법 제도 마련과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심과 영역이 창출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 속에서 그간 갈등해결 교육과 관련 연구작업들을 지속해 온 갈등해결센터가 민간 영역으로서 그간의 경험과 성과를 국가적인 제도와 관련한 연구 및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센터 사업을 활발히 진행해 온 것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좀더 사회적으로 공인받는 갈등예방 및 해결, 교육 전문가 집단으로서 자기자리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확산과 제도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홍보 및 활동이 더욱 필요하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강사 및 활동가들의 재훈련 등을 통해 질적 성장을 더욱 도모해야 할 것이다.

4) 조직 강화 및 확대

가. 2005년도 계획

-그간 교육참가자들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노력

-사회갈등분석, 해결방안(문화, 제도) 연구 작업 팀 구성 및 활동

-회원 재교육/월례회

월례회의 질적 강화, 외부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육 진행자들의 재교육 확대 지원

-전문강사를 형성, 강화

청소년교육뿐 아니라 일반 주부 대상, 공무원 대상 등 다양한 층을 대상으로 교육

진행할 수 있도록 강사풀을 형성하고, 각 대상별 교육 내용을 전문화할 수 있도록 함/재교육과 훈련, 내부 매뉴얼 작업 등

나. 성과 및 과제

- ① 2005년에는 사회갈등분석팀을 새로 구성, 활동하였다. 2005년에는 주로 관련 학습과 분석 연습을 중심으로 '대응'의 틀로서 역할을 했으나, 그것을 기초로 2006년에는 실천적 틀로서 역할할 것으로 기대된다.
- ② 강사프레이닝, 지역워크숍 등 센터 진행사업에 기존 회원들이 참여하면서 재교육의 기회를 갖기는 하였으나, 집중적이고 독자적인 재교육, 재훈련의 틀은 마련하지 못하였다.
- ③ 2005년에는 공무원, 주부 등 다양한 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면서 교육의 경험은 확대되었으나 각 대상에 맞는 내부 매뉴얼 작업은 청소년 대상 외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5년의 경험을 기초로 대상별 교육을 세분화, 전문화할 수 있는 단위별 훈련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5) 연대

(1) 국제연대: 국제비폭력평화세력(Nonviolent Peace Force International), Center for Nonviolent Communication(NVC) 등 갈등예방, 해결 관련 국제단체와의 연대

(2) 국내 연대: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가. 회의 : 3/14, 3/21, 4/4, 4/18, 4/28, 5/3, 5/13, 5/21, 5/28, 6/3, 6/15, 7/6, 7/14, 8/10, 8/24, 9/5, 10/11, 10/26

나. 구성 : (조명희 갈등해결센터 청소년교육팀장 참가)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전교조, 인권운동사랑방, 평화인권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문화연대, 흥사단 등

6) 그 외 교육 프로그램 참여

(1) 공무원 대상 교육: 법무연수원, 건설교통인재개발원, 중앙공무원교육원, 행정자치인력개발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등에서 갈등관리 교육 진행.

(2) 타 단체 및 기관: 환경운동연합, 서울여성전환회, 고양여성민우회, 경남여성회, 충남여성정책개발원, 통일교육협의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YMCA연맹, 기독교장로회청년연합회, 안산의제21 등에서 갈등해결 관련 교육 진행.

(3) 여성 대상 교육: 광명문화원(8주차), 광명교육연대(의사소통 12주 프로그램) 무천 여성센터(8회차) 등

6. 총평

2005년은 센터의 조직적 기반과 사업의 안정화, 대외적으로 갈등해결센터의 인지도를 넓히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였다.

조직적 차원에서는 2003년부터 열심히 청소년 교육 관련 활동을 해온 청소년교육팀에 대하여 사회관등분석팀이 구성되었다. 청소년교육팀은 3기 강사드레이닝 참가자로 그 숫자가 확대되었으며 자율적 단위로 확실히 자리매김을 하였다.

사업적 측면에서는 강사드레이닝은 3기를 진행하면서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자기 자리를 잡았고, 내용의 측면 역시 보완, 강화되었으며, 지난해에 이은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갈등해결워크숍'은 광주전남, 부산경남 지역으로 확대 진행되었다. 특히 청소년개발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의 연구 작업에 참여하면서 센터의 그간 활동의 경험과 연구를 사회적으로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한 점은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가 갈등해결 교육, 연구 역량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05년에는 2004년에 이어 그간의 활동에 힘입어 평화적 갈등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으로 외부 강의요청이나 외부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의 기회가 더욱 확장되었고, 특히 지역조직이 주최한 강사드레이닝에 프로그램을 지원한 것은 사회 실천의 새로운 경험을 갖게 되었으며 앞으로 전문 프로그램 기획 운영 집단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갈등해결센터는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육 및 다양한 대상, 계층으로 문화적 접근을 확대하고 사회관등 역망과 해결을 위한 활동기반을 넓히기 위해 사업목표로 설정했던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잘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2005년 '분단 60년을 맞이하여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여성평화·통일운동을 강화하자'는 평화여성회의 전체 사업방향에 맞춘 구체적 접근은 미흡했다. 통일교육에 갈등해결, 평화교육의 접목 등 계획했던 일들은 일상사업에 밀려 진행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7. 활동 일지

- 1/7(금)~1/9(일) 청소년평화리더십 캠프, 봉도수련원
- 1/20(목) p3~ 청소년교육팀 1차 회의, 박수선 소장 사무실
- 1/20(목) p5~ 갈등해결센터 1차 운영위원회, 박수선 소장 사무실
- 1/24(월)~28일(금) 수업방법개선연구회 주최 연수, '행복한 학교운영을 위한 갈등 해소 방법의 실제' 김학묵, 박수선, 이재영, 조영희
- 1/28(금) 전교조 초등지회 교사 40명 대상, 대전 평화장, 조영희
- 2/3(목) p6~ 청소년교육팀 2차 회의, 박수선 소장 사무실
- 2/21(월) p3~ 청소년교육팀 3차 회의, 박수선 소장 사무실
- 2/21(월) p6:30~ 갈등해결센터 1차 월례회의
- 2/27(일) 환경운동연합 수련회 참가자 90여명, 의사결정과 의사소통 관련 교육, 김학묵, 박수선, 이재영, 조영희
- 3/2(수) p3 청소년교육팀 4차 회의
- 3/11(금) p3 청소년교육팀 5차 회의
- 3/11(금) p5 갈등해결센터 2차 운영위원회
- 3/14(월) p4 학교폭력근절을위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전문가 좌담회
- 3/16(수) p10 정실현 갈등해소센터(준) 팔죽기념 세미나, 박수선 토론자로 참여
- 3/18(금)~20(일) 제3기 갈등해결과 평화 강사드래이닝 숙박교육
- 3/21(월) p5 학교폭력근절을위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공청회 및 기자회견, 홍사단, 조영희
- 3/23(수) p6 한국청소년개발원 프로그램개발팀 회의, 교총회관 10층, 박수선, 여혜숙, 조영희
- 3/23(수)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센터 상담원 대상 '조정 방법 및 기술' 교육(3시간 박수선)
- 3/24(목) 형자부자세인력개발원 지방공무원 대상 '갈등해결의 이해' 교육(3시간 박수선)
- 3/25(금) p2 학교폭력근절을위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토론회
- 3/26-27(토-일) 경남여성회 주최 소통과 비전을 위한 지역여성캠프중 갈등해결 관련 교육 진행, 박수선
- 3/29(화) 법무연수원 청소년교정직 대상 '갈등해결의 이해' 교육(2시간 박수선)
- 3/29(화) 수원여성회 어린이집 학부모 대상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교육(3시간 여혜숙)
- 3/29(화) a11 학교폭력근절을위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기자회견, 정부청사 후문 앞, 김정수

- 3/30-4/1(목-금) 통일교육협의회 주최 활동가 갈등해결워크숍 진행, 김학목, 박수선, 이재영, 조영희
- 3/30(수) p7 갈등해결센터 2차 월례회의
- 4/4(월) p4 학교폭력근절을위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회의, 홍사단, 조영희
- 4/6, 7(수, 목) 건교부인재개발원 주최 공무원대상 갈등관리과정에서 교육 진행, 3시간 2회, 박수선
- 4/8(금) 서울여성의전화 주최 지역여성교육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교육, 2시간, 박수선
- 4/8(금) p3 청소년교육팀 6차 회의
- 4/8(금) p1 한국청소년개발원 프로그램개발팀 회의, 평화여성회 교육장
- 4/15(금) p4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정책전문위원회, 박수선
- 4/18(월) 학교폭력근절을위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회의
- 4/22(금) p6 사회갈등분석팀 1차 회의
- 4/25(월) p4 청소년교육팀 7차 회의
- 4/28(목) p5:30 학교폭력근절을위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1차 워크숍
- 5/3(화) p3 학교폭력근절을위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회의
- 5/6(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주최 ‘참여적 의사결정방법 포럼’ 토론자로 참여, 박수선
- 5/12(목) 강서양원여성의전화 주최 지역여성교육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교육, 2시간, 여혜숙
- 5/13(금) p5:30 학교폭력근절을위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회의
- 5/17(화) 노원여성성의전화(준) 지역여성교육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교육, 2시간 조영희
- 5/18(수) p6 한국청소년개발원 교안개발팀 회의, 유네스코 청소년회관 미즈센터
- 5/18(수) p7:30 사회갈등분석팀 2차 회의
- 5/19(목)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주최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 6시간, 최정현진, 여혜숙
- 5/20(금) 평화누락 주최 ‘NVC’, 최정현진
- 5/21(토) p5:30 학교폭력근절을위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회의
- 5/25(수)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주최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 ‘갈등과 중재’, 3시간, 조영희
- 5/27(금) 평화누락 주최 ‘의사소통’, 여혜숙
- 5/28(토) p2:30 학교폭력근절을위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2차 워크숍
- 6/1(수) p2 청소년교육팀 8차 회의
- 6/1(수) p4:30 갈등해결센터 3차 운영위원회

- 6/1(수) p7 사회갈등분석팀 3차 회의
- 6/3(금) p430 학교폭력근절을위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회의
- 6/7(화) p1 캠프진행팀 1차 회의
- 6/7(화) p7 청소년교육팀 9차 회의
- 6/7(화) 건설교통인재개발원 갈등관리과정 진행, 6시간, 박수선
- 6/8(수) 과천 지역 내 학교 평화교육을 위한 강사 트레이닝 워크숍-화, 편견다루기
진행, 조영희
- 6/8(수) 교육복지연구원 주최 여성통일아카데미에서 '평화적 갈등해결' 진행, 3시간
박수선
- 6/15(수) p4 학교폭력근절을위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회의
- 6/15(수) 전남공무원교육원 공무원 대상 갈등관리과정 '갈등해결의 이해' 교육, 3시
간 박수선
- 6/17(금) p2 캠프진행팀 2차 회의
- 6/21(화) p7 사회갈등분석팀 4차 회의
- 6/22(수) 대진초등학교 교사 대상 갈등해결 이해 교육, 조영희
- 6/22(수) p6 한국청소년개발원 교재개발팀 회의
- 6/24(금) p430 학교폭력근절을위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3차 워크숍
- 6/24(금) 장여우연익문제연구소 '조직갈등과 합리적 의사소통', 3시간, 조영희
- 6/25(토) YMCA 주최 '동터모트 평화워크캠프' 준비캠프에 '평화와 갈등해결' 진행,
3시간 박수선
- 6/27(월) p7 청소년교육팀 10차 회의
- 6/29(수) p6 갈등해결센터 4차 운영위원회
- 7/5(화) 지역갈등해소를 위한 갈등해결워크숍 광주전남지역 간담회, 김학묵, 박수선
- 7/6(수) p4 학교폭력근절을위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회의
- 7/6(수) p7 사회갈등분석팀 5차 회의
- 7/7(목) p330 캠프진행팀 3차 회의
- 7/13(수) p5 캠프진행팀 4차 회의
- 7/14(목) p530 학교폭력근절을위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회의
- 7/15(금) a10 도봉환경교실 주최 활동가 대상 갈등해결교육, 3시간 박수선
- 7/16(토) a10 도봉환경교실 주최 활동가 대상 갈등해결교육, 3시간 박수선
- 7/18(월) p1 캠프진행팀 5차 회의
- 7/20(수) p6 갈등해결센터 3차 월례회의
- 7/20(수) a10 과천 학평 주최 지역내 학교 평화교육을 위한 강사트레이닝 수료식,
이재명, 박수선
- 7/21(목) a10 캠프진행팀 6차 회의

- 7/22(금) 평화통일대우시민연대 주최 '통일교육 강사교육'에서 '갈등해결교육' 진행, 2시간, 박수선
- 7/25(월)~29(금) 서울시 교육청 주최 학생부장 교사대상 연수, 갈등해결과 미래준비, 박수선, 이재영, 조영희
- 7/27(수) p7 사회갈등분석팀 6차 회의
- 7/29(금) p6:30 캠프진행팀 7차 회의
- 8/2(화)~8/3(수) 우리교육, 세계평화축전 주최, '비폭력 평화트레이닝 교사연수', 박수선, 조영희
- 8/8(월) 한국YMCA연맹 주최 한일대학생평화순례단 캠프에서 '평화교육' 강의, 4시간 조영희, 여혜숙
- 8/10(수) p4 학교폭력근절을위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회의
- 8/16(화) 기독교청년회 주최 2005 기청 청년예수 축제 열린 강와 '갈등해결' 강의, 여혜숙
- 8/19(금) p6:30 청소년교육팀 11차 회의
- 8/21(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최 2005년민주문화공동체여름캠프 초등생 대상 평화감수성 키르기 진행, 여혜숙
- 8/23(화) 군포시민포럼 월례모임에서 '지역사회 갈등 이해' 강의, 2시간 박수선
- 8/24(수) p2 학교폭력근절을위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회의
- 8/24(수) p7 사회갈등분석팀 7차 회의
- 8/26(금)~27(토) 갈등해결센터 3차 월례회의 및 회원 MT
- 8/29(월) p3 교안개발간담 1차 회의
- 9/5(월) p5 학교폭력근절을위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회의
- 9/5(월) 광명문화원 학부모 대상 갈등해결과 평화 교육, 매주 2시간씩 총 8회, 여혜숙, 조영희
- 9/6-9/28 무현여성센터 주최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교육, 2시간씩 8회차, 박수선
- 9/7(수) p7 사회갈등분석팀 8차 회의
- 9/8(목) 광명평생학습원 학부모 대상 비폭력대화 교육, 매주 2시간씩 총 12회, 여혜숙
- 9/9(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관리전문가양성프로그램에서 조정 진행, 김학묵, 김선혜, 이재영, 조영희, 박수선
- 9/11, 12(일, 월) 대구중앙교회 주최 갈등해결 프로그램에서 의사소통 교육, 여혜숙
- 9/12(월) p2 교안개발간담 2차 회의
- 9/14(수) 미성초등학교 교사대상 갈등해결 교육, 2시간, 여혜숙
- 9/23(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관리정책전문위원회, 박수선
- 9/26(월) p2 교안개발간담 3차 회의

- 9/29(수) p7 사회갈등분석팀 9차 회의
- 9/30(금) 의료생협 갈등해결교육, 2시간 30분, 여혜숙
- 10/4(화) p5 교안개발간담 4차 회의
- 10/4(화) p7 사회갈등분석팀 10차 회의
- 10/5(수) a10 과천 학평 강사트레이닝, 조정 교육, 박수선
- 10/6(목)~8(토) 지역갈등해소를 위한 갈등해결워크숍 부산경남지역 1차 워크숍
- 10/11(화) p2 학교폭력근절을위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회의
- 10/13(목) 카톨릭대학교 주관 부천여성자치학교 갈등해결과 대화 교육, 2시간 박수선
- 10/15(토) 서울여중 간부학생 대상 '또래중재 훈련', 4시간 30분, 김학묵, 이재영, 여혜숙, 조영희 진행
- 10/17(월) 국가청렴위원회 주최 '갈등해결' 교육, 2시간, 박수선
- 10/18(화) p6 교안개발간담 5차 회의
- 10/18(화) p7 사회갈등분석팀 11차 회의
- 10/20(목)~22(토) 지역갈등해소를 위한 갈등해결워크숍 광주전남지역 1차 워크숍
- 10/23(일) p2 교안개발간담 6차 회의
- 10/26(수) p4 학교폭력근절을위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회의
- 10/27(목) 고양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주최 집단프로그램, 갈등해결과 분노조절 교육, 2시간, 박수선
- 10/28(금) p4 교안개발간담 7차 회의
- 11/1(화) p7 사회갈등분석팀 12차 회의
- 11/1(화)~9(수) 서울시교육연수원 주최 중등학교장 리더십 연수, 박수선
- 11/3(목)~4(금) 지역갈등해소를 위한 갈등해결워크숍 부산경남지역 2차 워크숍
- 11/7(일) p3 교안개발간담 8차 회의
- 11/11(금) p2 청소년교육팀 12차 회의
- 11/11(금) p7 사회갈등분석팀 13차 회의
- 11/15(화) p2 보건인력개발원 갈등해결 교육, 2시간, 박수선
- 11/17(목) p2 고충처리위원회 갈등관리교육, 2시간, 박수선
- 11/25(금) p2 갈등해결센터 5차 운영위원회
- 11/30(목) p2 지역워크숍 기획회의
- 12/2(금) 천안사회복지협의회, 자원활동가 대상 교육 '갈등해결', 2시간, 박수선
- 12/5(일) (재)서울여성 자원활동가 교육, 2.5시간, 박수선
- 12/7(수) p7 사회갈등분석팀 14차 회의
- 12/9(금)~10(토) 지역갈등해소를 위한 갈등해결워크숍 광주전남지역 2차 워크숍
- 12/12(일) p6 한국청소년개발원 교재개발팀 회의, 방동

12/15(목) 폭력없는사회만들기충남지역협의회 주의 토론회, 토론회자로 참여, 박수선
 12/16(금) p6 갈등해결센터 5차 월례회의 및 송년회
 12/19(일) p4 갈등해결센터 6차 운영위원회
 12/21(수) p7 사회갈등분석팀 15차 회의

2-3 일상평화센터

(소장 : 김정수)

1. 2005년 사업방향

일상의 평화센터에서는 여성주의와 비폭력 평화주의의 가치와 철학을 평화심성과 평화교육 프로그램으로 외화한다. 구체적으로 여성주의 평화감수성의 내용을 개발한다. 또한 비폭력 평화심성의 내면화와 평화감수성의 사회적 평화행동과 실천으로의 소통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비폭력 평화문화의 인식, 내용, 실천을 확산한다. 아울러 평화심성훈련과 여성평화아카데미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확대를 모색한다.

2. 사업계획

1) 평화심성팀

- 평화심성팀장: 문명녀(노을)
- 평화심성팀: 김현숙(가인), 김형진(나비), 김현희(무지개), 박여정(작은 숲분), 오상남, 이나호(몽송아), 장정화(별), 황순명(솔바람), 김정수(푸른 고래)

(1) 월례모임

평화심성팀의 자발적 참여와 요구를 담아내는 모임으로 평화의 가치, 평화심성, 평화감수성, 평화문화 등에 대한 일상의 실천을 모색함으로써 평화심성팀의 정체성을 강화시킨다.

- 일상과 평화, 문화와 평화, 수행, 평상/영성과 사회적 평화의 접목
- 동양의 평화사상, 여성주의 평화감수성, 비폭력평화주의에 대한 학습
- 비폭력실천 영상물 시청
- 함께 하는 실천과 평화순례

(2) 제4차 평화심성훈련

비폭력 평화주의 혹은 우리 삶의 분단을 극복하는 평화심성 훈련 등을 통해 평화 여성회 회원과 평화단체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여성주의와 비폭력 평화주의의 감수성을 확산하고 평화심성을 내면화하여 평화실천의 능력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2) 여성평화아카데미

주제: 여성평화운동의 다양한 주제, 내용, 과제 혹은 분단 60년 극복을 위한 여성

평화운동의 과제를 평화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진행: '여성평화아카데미' 실행을 위한 '여성평화교육' 자문모임을 구성하고 추후 '여성평화교육팀'으로 발전시킨다.

3) 평화교육 프로그램

시의적절하게 평화교육의 과제를 모색해 보는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예: '여성평화교육 포럼', '여성운동 원로들에게 듣는 평화이야기' 등

3. 사업내용: 평화심성팀

- 평화심성팀장 : 문명녀

- 평화심성팀원 : 김현숙, 김현진, 김현희, 남경자, 박애경, 문명녀, 오상남, 이낙호, 장정화, 최선희, 황순영, 김정수

1) 월례모임

(1) 1차 월례모임

가. 일시 : 2005년 2월23일(수) 오후6시

나. 장소 : 여성교회

다. 참석 : 문명녀(팀장), 김현숙, 김현진, 박애경, 윤민상, 장정화, 황순영, 김정수

라. 주제 : '문화담론과 평화' - 이문숙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2) 2차 월례모임

가. 일시 : 2005년 3월22일(화) 오후6시

나. 장소 : 평화여성회

다. 참석 : 문명녀(팀장), 김현진, 김현희, 김혜진, 박애경, 장정화, 최선희, 김정수

라. 주제 : '여성주의 평화갑수성' - 발제 : 장정화

마. 내용

- 여성주의에서 평화운동의 이론적 근거: 군사주의(militarism)/인권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여성주의적 평화운동을 한다는 것/여성운동과 평화운동간의 갈등지점

(3) 3차 월례모임

가. 일시 : 4월19일(화) 오후 6시

나. 평화여성회

다. 참석 : 김현숙, 김현진, 김현희, 문명녀, 오상남, 이낙호, 장정화, 최선희, 황순영, 김정수

라. 내용 : 평화마술 배우기: "폭력을 평화로 바꾸자 --"

다. 과제 : 향후 다양한 평화마술을 응용하여 익힐 필요가 있다.

(4) 4차 월례모임

가. 일시 : 5월24일(화) 오후 6시

나. 장소 : 평화여성회 교육장

다. 참석 : 김현숙, 김현진, 김현희, 박예경, 문명녀, 이낙호, 이승헌, 장정화,
최선희, 황순영, 김정수

라. 내용 : 왕언니들의 수다마당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왕언니 박예경, 이낙호, 황순영님의 지나온 삶의 여
정의 이야기, 생활 속에서 이뤄가는 평화이야기들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5) 5차 월례모임

가. 일시 : 6월21일(화) 오후 6시

나. 장소 : 이낙호 선생님 덕

다. 참석 : 김현숙, 김현진, 김현희, 박예경, 문명녀, 이낙호, 장정화, 황순영, 김정수

라. 내용 : “평화로운 마음은 건강한 몸에서 나온다”, 평화심성과 건강한 몸의 관
계에 대한 의견과 경험 나누기

(6) 6차 월례모임

가. 일시 : 7월19일(화) 오후 6시

나. 장소 : 황순영 선생님 덕

다. 참석 : 김현숙, 김현진, 김현희, 박예경, 문명녀, 오영주, 이낙호, 장정화,
최선희, 황순영, 김정수, 최광기

- 사업평가

성과 및 과제

2) 평화드라마 모임

가. 일시 : 3월부터 8월까지 월1회 모임: 평화드라마 기획 및 대본준비

9월부터 11월까지 주1회 모임: 평화드라마 소품준비 및 실연연습

나. 참석 : 김현숙, 김현진, 김현희, 김혜진, 문명녀, 박예경, 오상남, 장정화,
황순영, 김정수

다. 프로그램 내용

<줄거리>

조용한 세상에 전쟁이 터진다. 폭력과 차별, 고통과 상처가 난무한다. 이때, 정의의 여신 '칼리'는 어긋난 정의를 바로잡고자 세상에 온다. 정의의 칼로 절서를 어지럽힌 가해자들을 처단한다. 나아가 칼리는 고통 속에 신음하는 피해자들에게 멸치 일이나 저항하라며 격려한다. 칼리와 함께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을 압박한다. 하지만, 사법천지는 피투성이고, 이제 가해자들도 고통스러워 한다.

이 같은 세상의 고통에 귀 기울이는 자비의 여신 '관음'은 인간에 대한 연민으로 세상에 온다. 관음의 손길로 인간의 고통은 어루만져지고 그들은 서서히 치유하고 회복한다. 그 힘으로 인간들은 자신들이 만들었던 폭력의 벽들을 하나둘씩 부순다. 평화는 서로 다름의 존중 속에서 이루어지듯, 무지개(다양성 상징)속에서 여신과 인간은 모두 함께 평화의 춤을 춘다.

<Plot>

Scene 1: 시간: 2분, 등장인물: 4명의 중생

소품: 옷(일상복)

내용 및 컨셉: 출주는 중생(평화, 노동, 사랑의 형상화)

음악: '밝고 명랑함'-이루마, '러브 테터'

Scene 2: 시간: 3분, 등장인물: 4명의 중생(가해자와 피해자)

소품: 옷(폭력과 전쟁형상화), 조끼와 상자

내용 및 컨셉: 폭력적으로 썩우는 중생(춤) → 순차적으로 폭력과 전쟁을 드러내는 조끼를 입는다>벽쌓는 가해자/주변으로 쫓겨나는 피해자 (인간 속에 내재된 싸움과 폭력의 표출)

음악: '전쟁을 형상화'-영화 '지옥의 묵시록'중 바그너의 바퀴벌레의 기행 영화 '플러툼' 테마음악

Scene 3: 시간: 2분, 등장인물: 5명(칼리, 가해자2, 피해자2)

소품: 칼리옷, 칼, 해골목거리, 쇠창살, 머플러, 두개골, 붉은 천, 종이 등

내용 및 컨셉: 칼리 등장> 칼리 독무> 가해자 처단> 숨이하는 칼리 복수와 보복: 가해자 보복과 피해자의 고통(고통과 후회, 파괴)

음악: 두렵고 음산함- 바흐, '토카타와 푸가' d단조 BWV 565

Scene 4: 시간: 2분, 등장인물: 5명(칼리, 가해자2, 피해자2)

소품: Scene 3과 동일

내용 및 컨셉: 중생의 고통을 해답는 칼리(해답음)

음악: '정적'-베도렌의 '운명교향곡' 중

Scene 5: 시간: 2분, 등장인물: 6명(관음, 칼리, 가해자2, 피해자2)

소품: 감로수, 꽃, 관음의상

내용 및 컨셉: 시 읊으며 등장하는 관음-> 꽃과 감로수를 뿌림->기뻐하는 중생
(자비, 배려, 나눔)

음악: '잔잔함'- 영화 '미션' 중 '가브리엘의 오보에'

관음이 읽은 달라이라마의 시

"우주가 머무는 한

중생이 있는 한

그때까지 나 역시 머물 것이네

그리하여 세상의 번뇌(폭력)를 쫓아 버리겠네..."

Scene 6: 시간 3분, 등장인물: 6명(관음, 칼리, 가해자2, 피해자2)

소품: 흰옷과 화관

내용 및 컨셉: 흰옷으로 갈아입는 중생-> 관음을 관찰하는 칼리-> 해골목거리
끊기, 칼 내려놓음 (치유, 회복, 기쁨)

음악: '신바람과 평화'- 현미의 '사라방드'

Scene 7: 시간: 2분, 등장인물: 6명 전원

소품: 무지개 천

내용 및 컨셉: 전원이 함께 벼슬 무너뜨림-> 무지개천 등장-> 다함께 춤

음악: 평화와 생명- 양방언, 'Prince of Jeju'

<참여>

기획: 김현진, 김현숙, 장정화, 김현희, 김정수

극본: 장정화,

음악: 장정화,

소품: 김현진, 김정수, 장정화, 김현희, 김현숙, 김혜진

공연: 김현숙, 장정화, 김현희, 문명녀, 황순영, 오상남, 김혜진

연기지도: 이승현

<공연>

(1) 금강산에서 열리는 여성들의 통일꿈든벨

일시: 2005년 11월 11일(금)

장소: 금강산 해금강 호텔 2층 강당

공연: 문명녀, 황순열, 오상남, 김현숙, 장정화, 김혜진, 김현희

(2) 평화여성회 후원의 밤 행사

일시: 2005년 12월 1일(목)

장소: 신촌 아르데온

공연: 문명녀, 황순열, 오상남, 김현숙, 장정화, 김현희

4. 사업평가

1) 평화심성팀 월례모임

월례모임의 방향으로 문화적 담론에 근거한 평화심성형성이란 방향을 수립하여 초기에는 실행하였으나 월례모임이 진행되면서 그 방향성이 일관되지 못하였다. 또한 평화드라마가 평화심성팀 활동의 주요사업이 되면서 월례모임 역시 평화드라마 기획과 대본준비 등으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향후 일관성 있는 주제나 이슈를 설정하여 회원들이 주제가 되는 평화심성 학습으로 전환시킬 것이 요청된다. 논의되는 자료도 학습 자원의 목적이 되기 보다는 평화심성팀의 활동 내용에 대한 이론적 혹은 담론 차원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평화심성팀원이 고민하고 궁극해 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발굴하여 외부강사에 의존하기 보다는 스스로 학습의 주체가 되어 필요한 자료를 찾아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여 여성주의 평화운동과 문화적 차원의 평화심성 담론 형성, 평화심성의 사회화에 대한 기반을 제시하는 이론적 토대를 위한 학습과 월례모임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2) 평화드라마 평가 및 과제

- 사람들 앞에서 직접 공연함으로써 자신감이 생겼다. 평화퍼포먼스에 대한 기대와 계획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며 시작이 반이라는 것을 느꼈다. 다양한 시위에서 공연해도 좋을 것 같다.
- 퍼포먼스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 커다란 성과이다. 팀원들이 원하는 것을 해봄으로써 팀의 사업적 전망을 갖는데 좋은 기여를 했다. 개인적 참여 역시 적극적이고 의미있는 경험이었다. 앞으로 발전시켜서 팀의 주된 사업으로 하면 좋겠다. 장트를 다양하게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다. 프로젝트로 구상하여 사업성을 가지고 세련된 행사로 만들면 좋겠다. 또한 퍼포먼스를 통해 평화여성회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 전문가를 초대하여 내부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끌어내고 개인의 재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팀이 할 수 있는 내용을 병상

과 함께 몸과 마음을 평화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전문가가 스스로 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월례모임을 통해 필요한 학습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좋을 듯..

- 이번 퍼포먼스를 통해 음악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클래식과 명상음악에 대한 학습을 하면 좋겠다. 또한 평화음악을 다양하게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평화퍼포먼스를 위한 소품 준비 역시 모두 참여하는 것이 좋았다. 소품준비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여러 장면에 각기 다른 소품과 음악을 준비하여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퍼포먼스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 평화퍼포먼스를 위해 많은 시간을 기울였다. 수차례의 기획회의 및 소품준비, 10회 이상의 실연준비 등 많은 노력과 시간을 기울인 것과 그에 대한 성과에 대해 평가가 필요하다. 즉 비전문가들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으로서 가지는 성과와 자부심에도 의미를 두어야 하겠으나 기울인 시간과 노력만큼 경제적 성과나 질적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다음에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리라 본다.

- 내년에는 올해의 것을 기본으로 하여 이야기를 덧붙이고 내용을 구체화하면 좋겠다. 추상적 평가가 아닌 우리가 원하는 것, 일상 속에서 찾아낸 평화의 이야기, 회원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주는 쉽고도 대중적인 평화이야기를 퍼포먼스 속에서 녹여낼 때 회원화대까지 연결될 것이다.

5. 총평

1) 평화심성팀

정기적 월례모임을 통해 평화심성과 평화감수성 개발을 위해 문화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는 '평화퍼포먼스'를 통해 구체화되어 동양적 여신상을 통해 갈등, 분쟁, 폭력의 상황을 정의의 수렵과 더불어 돌봄과 배려, 이를 통한 화해와 치유라는 평화문화의 내용을 회원들의 공동참여를 통해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평화심성의 사회화를 문화적 매개물을 통해 가시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이 과정에서 평화심성팀의 결속과 평화여성회의 회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게 되었다.

한편, 제4차 평화심성훈련은 재정사정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2006년에는 가능한 조건 속에서 훈련프로그램을 재개해야 할 과제를 지닌다.

2) 여성평화아카데미와 평화교육 프로그램

2005년 사업으로 계획하였으나 재정과 실무인력의 부족으로 수행하지 못했다. 2006년에는 평화여성회 회원들의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하여 여성평화아카데미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2-4 회원참여센터

(소장 : 최선희)

1. 2005년 사업방향

회원의 지속적인 참여 및 회원확대를 이루어 나가며 회원들의 다양한 참여의 장을 마련한다. 지속적인 후원유지 및 회비증대 노력을 기울여 회원 회비에 의해서 운영되는 건강한 재정구조를 점차 확대시켜 나가며, 또한 후원사업을 통하여 재정마련을 도모한다.

2. 2005년 사업목표

① 회원으로서의 정체성 및 자부심을 키워간다.

신입회원 한마당, 전체 회원한마당 행사 등을 통하여 회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여성평화운동에 기여하도록 자부심을 키워간다.

② 여성평화운동에 대한 이해와 실천의 장을 마련한다.

내년은 분단 60주년을 맞이하여 한반도의 평화과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평화여성회에서도 주요사업의 하나가 될 것이다. 대중화를 위하여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분단의 상황을 알려내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여성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실천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③ 평화운동의 소모임을 마련한다.

일반인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평화 활동의 장을 발굴하여 다양한 소모임을 만들고 이를 통하여 평화 운동의 주체가 되어가도록 한다.

④ 회원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한다.

년 2회 회원확대 집중 선포기간을 선포하여 새로운 회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회원회비에 의한 재정자립도를 높여가도록 한다.

⑤ 평화여성회의 활동내용을 대내외적으로 알려내고 회원들의 소식을 담아낸다. 정보와 자료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여성평화운동 소식지를 만들어 여성평화운동의 소식을 대내외적으로 알려낸다.

⑥ 안정적인 재정마련을 위해 재정사업을 기획하고 마련한다.

3. 2005년 사업계획

1) 회원사업팀

팀원 : 문명녀, 송소희

(1) 사업방향

회원의 지속적인 참여 및 회원확대를 이루어 나가며 회원들의 다양한 참여의 장을 마련해 간다.

(2) 사업내용

① 회원 소모임 마련 : 회원들의 관심을 파악하여 회원 소모임을 만들어 내고 회원들의 다양한 활동의 자발적인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 예: 내용을 평화롭게 하는 차와 음식.)

②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또는 격월에 산행이나 또는 여러 경치 좋은 곳을 방문하여 회원들간의 친목을 다진다.

③ 회원확대 사업 : 년 2회 정도 회원확대 집중기간을 정하여 상근자, 임원, 회원 모두 회원확대의 분위기를 주어 회원확대의 성과를 가져오도록 한다.

④ 회원의 지속적인 관리

회원관리 DB 작업, 전화, 이메일 등을 이용한 지속적인 회원관리를 한다. 신입회원들에게는 축하카드 및 대월 해당되는 달에 생일을 맞이한 회원들에게 축하카드를 발송하고 매년1회 생일카드를 발송한다.

⑤ 신입회원 교육

년 2회 신입회원 한마당을 개최하여 평화여성회의 회원으로서의 정체성 부여 및 지속적인 여성평화운동의 후원, 활동의 동기부여를 마련한다.

⑥ 회원 한마당 : 년 1회 회원한마당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여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여성평화운동의 인적 인프라를 갖추어 나가도록 한다.

2) 회지팀

팀장 : 홍승희

팀원 : 김현희, 박수선, 장정화, 최선희

(1) 사업방향

자료와 정보로서의 가치가 큰 여성평화운동 소식을 담아내어 년 4회 회지를 제작하여 각 단체 및 평화여성회 회원들에게 발송한다.

(2) 사업내용

회지에는 평화이슈, 일상에서 평화를 만들어 가는 활동내용, 국제평화운동 소식 회원소식등 읽을거리가 풍부한 내용으로 평화여성회 회지가 년 4회 계간지 형태로 발행한다.

3) 재정사업

재정사업은 평화여성회 전채사업으로 가져가되 주무 부서를 회원참여센터로 하기로 하다.

(1) 사업방향

안정적인 재정마련을 위해 재정사업을 기획하고 마련한다.

(2) 사업내용

- 년 1회 또는 2회 정도 평화여성회를 위한 후원행사 등을 진행한다.
- 비 정기적으로 글, 또는 한과판대 등을 통해 재정확보에 도움을 꾀하도록 한다.

4. 사업내용

1) 회지팀

팀장 : 홍승희 팀원 : 김현희, 박수선, 장정화, 최선희

(1) 회의 : 2005년 3월9일(수)

(2) 소식지 발간

2005년 첫 번째 발간

가. 통권 제 21호, 발행 : 2005년 5월31일 / 발행부수 800부

* 아래 표 참조

목 지	내 용	글쓴이
대표인사	출범 10년을 준비하는 지금은 성찰의 시간 살아 있는 동안 꼭 해야 할 일, 여성평화운동 평화여성회 여러분께	김숙임 심영희 김경수
이야기마당 1	부모님 권유로 가게 된 청소년 평화리다식 캠프가 준 선물	김관식
이야기마당 2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에서 사람 사랑의 실천법 하나를 배우다	김면선
이야기마당 3	오래 간직하고 싶은 소중한 인연 만든 마지막 방학	윤정아
특집 :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우리의 과제	615 선언이후의 여성들의 움직임 장삼이사들의 “내가 생각하는 통일은..”	김숙임
이야기 마당 4	창출동을 떠나 새로운 동지에서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다	최선희
이야기 마당 4	비폭력 저항의 길- War Resisters International (WRI) 활동	허란
시사초점	전환기의 한미동맹, 여성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정경란
시	독도의 전을	홍승희
민족 없는 민족주의자에게 바란다	민족주의 좋다 그러나 편의적으로 휘두르지는 말자	홍승희
여성과 이슈	호주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은광 순
대중문화 속에 나타난 평화 읽기	아무도 모른다..., 정말?	이인미
지구촌 평화이야기	회의와 희망을 함께 품게 한 5박6일 -GPAPAC 동경회의를 다녀와서	안정애
쉬어가는 페이지	배에서 사는 어느 노인과의 대화	
겨울 회원 소개	갈등해결센터의 대표강사 여태숙	조영희
신임회원 인터뷰	노무사의 새로운 영역, 분쟁조정에 관심 갖다보니...	김현희
알림과 나눔		

(3) 사업평가

가) 성과

2005년도에는 여성과 평화의 주제 범위를 보다 넓혀 내용의 다양화를 꾀했으며 일반인들의 ‘통일에 대한 바람’등의 기사 등 일반인들이 읽기 쉬운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나) 과제

년 4회 발간을 목표로 하였으나 실무인력의 부족, 타 업무의 과다, 예산부족 등으로 인하여 1회 밖에 발간하지 못하였다. 올해 새롭게 시작된 웹진을 고려하여 년 4회 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2회 정도의 소식지 발행이 필요하다.

2) 회원사업팀

팀원 : 문명녀, 송소희

(1) 2005년도 신입회원 가입명단 (45명 가입)

박희진(주부), 장효순(영어강사), 배현주(부산장신대학교수), 강경관(프리랜서 기자), 정영일(시민의신문 기자), 장주석(직장인), 박인아(직장인), 박인옥(교육운동가), 이선경(직장인), 김재근(대학원생), 윤정아(대학생), 김민선(대학생), 이성자(주부), 원은숙(직장인), 박혜옥(주부), 박홍나미(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고양시대표), 나연수(서울홍원초교교사) 김영진(주부), 이상학(영등포산업선교회 활동가), 안향숙(주부), 임선복(주부), 서은지(한국아나벨티스트 활동가), 정지윤(주부), 이향진(여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김지아(주부), 오광진(홍사단 활동가), 구희숙(안동교회 목사), 김은영(시민운동가), 김미옥(서울시립청소년 성문화센터 활동가), 박종하(대학원생), 채수민(시민운동가), 이현준(목사), 민정숙(인터넷 가입), 김혜자(시인), 박은경(공무원), 김남형(직장인), 성마경(주부), 김정아(주부), 양민호(점사), 정신희(인터넷가입), 구수미(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박혜숙(강남중학교 교사), 이경애(민주평통 여성위원회 간사), 남경자(주부), 이숙진(서울대, 이대 강사), 윤정선(시민운동가), 박경희(인터넷 가입)

(2) 2005년도 평화서포터즈 가입명단

박인혜 (한국여성외교전화연합), 부윤경(삼성전무)

(3) 사업평가(성과 및 과제)

- ① 약 50여명이 신입회원 및 평화서포터즈로 가입하였다.
- ② 직년과 마찬가지로 신입회원의 분포도가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직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③ 올해 새롭게 시작한 평화서포터즈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전략과 기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 ④ 전체회원 571명 회원회비 납부 회원 250여명 내외로 약 43%에 머물고 있다. 회원회비 미납회원들로 하여금 회비를 납부하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⑤ 회원관리를 위해서는 후원회원과 일반회원 등으로 회원구분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회원들에 대한 직업, 연령, 성별, 관심사, 회비 등 회원에 따른 종합적인 분석도가 있어야 한다.

3) 재정사업

(1) 평화여성회 아홉 번 째 프로젝트 “우리, 평화를 노래하자 ~”

가. 목적 : 여성평화운동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한다.

나. 일시 : 2004년 12월1일 (목) 오후 6시 30분 ~ 9시

라. 장소 : 신촌 아트레온 토즈 13층

다. 프로그램 내용 및 순서

사회자 : 김정수, 김엘리

제 1부 : 본행사 - 평화의 인사 및 축하, 평화여성회 활동소개

제 2부 : 작은 열린음악회 “우리 평화를 노래하자 ~”

꽃꽃기/평화퍼포먼스/미술/예쁜아이들/선명나게 놀자

(2) 사업평가(성과 및 과제)

① 티켓판매

예초 계획한 티켓판매 목표액에 많이 못미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티켓을 판매 하는데 있어서 적극성을 발휘하지 않은 구성원 전체의 책임일수 있으나 전반적인 경기후퇴와 지속적인 후원의 밤 개최로 티켓판매가 수월치 않은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후원의 밤 행사시 수익을 보다 많이 창출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며 재정에 있어서 후원의 밤 행사에 수익에 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기 보다는 회원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마련이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티켓판매를 위해 대표, 이사, 운영위, 사무처가 함께 책임의식을 가지고 판매를 할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티켓판매 가능한 곳을 영역별 (회원/단체/국회의원/사회인사/기타...)로 구분하여 서로 역할을 맡아 적극적으로 판매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장소관련 (장소/데코레이션/음향/조명)

작년과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하다 보니 전보다는 수월하게 일을 준비하고 진행 할수 있었다.

전체 데코레이션은 반전평화의 의지와 메시지를 담은 무지개색의 평화의 물결은 화사하고 여성, 평화의 이미지에 맞았다. 음향기기는 잘 작동되었다. 프로그램에 맞게 음향 및 조명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자원활동가를 배치한 것이 공간 중간 막힘이 없이 분위기에 맞게 음향, 조명이 진행될 수 있었다.

③ 행사 프로그램

행사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간결하면서도 무리없이 진행되었다. 유명면역인이나 저명인사에 의존하지 않고 주변에서 소박하게 평화를 노래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예산으로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사회자들의 호응이 잘 맞고 평화여성회의 정체성을 잘 드러냄으로 인하여 후원의 밤 행사를 돋보이게 하였으며 회원들이 준비한 평화퍼포먼스 등 열린음악회를 통하여 여성평화운동을 감성적으로 알릴 수 있었다.

④ 자원봉사 조직

무대장식보조, 자리배치, 안내, 바자회 물품판매 등 여러 명의 자원 활동가들의 협조로 후원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⑤ 바자회 물품

올해는 특히 바자회기증품이 다양하였다. 태극공예장식, 도서, 옷, 가방, 장신구 등 여러 회원들의 자발적 기증으로 후원행사의 재정마련에 보탬이 되었으며 또한 참여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어 즐거운 장마당이 되었다.

5. 총평

회원참여센터의 역할과 임무가 회원의 정체성과 참여를 높이고 안정적인 재정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었는데 최소한의 유지에 그친 한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원인으로는 사무처장이 센터소장을 겸임하면서 여타의 다른 현안에 비해 관심이 적어 될 수밖에 없었고 특히 담당실무자가 다른 영역에 배치되면서 회원관리, 회지발행 등이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편 프로젝트 제출의 기회조차 다른 센터 우선배려 속에서 가능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위축된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재정의 뒷받침 없는,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는 조직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는 자명한 현실을 통감하며 회원참여센터의 역할과 임무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 역점을 두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5 국제연대위원회

1. 2005년 사업내용

1) GPPAC 관련 연대활동

* 평화여성회는 GPPAC동북아 발의단체 및 GPPAC Korea Focal Point로 활동.

* GPPAC 동북아발의자: 심영희 대표

GPPAC 동북아 관련 사항을 GPPAC 동북아시아무국인 피스보트와 협조하여 의견 조정.

* GPPAC 한국 포럼 포인트: 정경란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 GPPAC 한국위원회 회의 조정

- GPPAC 동북아지역 사무국 피스보트와 GPPAC 한국위원회 단체들과 정보 공유 및 한국의 입장 동북아시아무국에 전달 및 조정

- 지역대회 및 세계대회 한국측 준비 및 실무 진행

1-1) GPPAC Korea 회의

(1) GPPAC 동북아지역대회 준비모임

일시: 1월 20일

장소: 참여연대

참가자: 심영희, 정경란, 안정애

내용: GPPAC 동북아 지역대회 일정 확인

그룹별 대회내용 점검

보도자료 일정 및 제정 정리

(2) GPPAC 세계대회 준비모임

① 1차 모임

일시: 5월 12일

장소: 평화여성회

참가자: 심영희, 정경란

② 2차 모임

일시: 2005년 7월 4일 12시-2시

장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회의실

참석자: 심영희, 정경란(평화여성회), 정주진, 안경아(평화포럼), 박정은(참여연대)

내용: - gppac 세계 대회 관련 보고-참가자 질정

세계행동외제 연명 단체 확인

GPPAC 뉴욕대회 프로그램 공유

- 평화헌법 집회 및 광고 논의

(3) GPPAC Korea 결산대회

일시: 2005년 9월 15일 오후 3시

장소: 참여연대 회의실

참석자: 김도혜, 박정은, 안경아, 이미화, 이정운, 이재영, 이현우, 정경란, 정주진
회의 내용

① 한국 활동보고서 건

- 한국 활동보고서는 그동안의 활동과 결과물을 총 정리하여 제작하기로 함.
- 각 단체의 인대를 위한 네트워크 자료로서 활용함.
- GAPPAC 한국위원회의 활동과 각 행동외제의 홍보를 위한 보고서는 추후에 별도로 논의하여 제작하기로 함.

② GAPPAC 한국위원회의 평가와 향후 계획

○ 긍정적 측면

- 평화와 분쟁갈등예방과 관련한 지역적 네트워크 형성.
- 동북아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교류.
- 한국 시민사회 단체의 갈등예방과 관련된 활동 보고서 작성.
- 동북아지역의 행동외제 선정.
- 세계적으로 갈등분쟁 예방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제고.
- 중간급 실무자 중심의 참여.

○ 부정적 측면

- 국내외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의외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함.
- 동북아 의제와 세계외제의 차이로 인하여 공유할 의제가 부족했음.

- 일부 초기 참가자들의 관심이 저조하게 됨.
- 국제회의를 준비하는 준비체로서 조직의 대생적 한계 때문에 운영상 효율성이 떨어짐.
- 국내 각 단체의 연대와 각 단체의 참여가 미흡하고 외제별 활동이 부진해짐.
- 한국위원회의 정책적 논의 부족과 방향성에 대한 고민의 부족
- 행동의제 홍보의 부족

○ 향후 방향과 과제

- “2005갈등·분쟁예방 국제회의 한국위원회”는 2005년 9월 15일자로 공식 해산함.
- 동북아 차원의 네트워크 들은 지속적으로 유지됨.
- 한국의 네트워크는 새로운 조직과 단위로 재구성 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추후 일정은 open시켜 놓기로 함. 즉 동북아 이슈에 대한 네트워크 구성은 새로운 조직으로 다시 제안하기로 함.

○ 향후 활동에 대한 제안 및 과제

- 사안별 네트워크 구성
- 일본 위원회 측과 평화헌법에 대한 공동대응
- 연례적 동북아 지역 모임의 참여
- cp-all 네트워크의 유지

(4) 새로운 GPPAC 관련 회의

가. 일시: 2005년 12월 30일 오전 9시30분

나. 장소: 참여연대 회의실

다. 참가자: 심영희, 정경란(평화여성회), 이재영(한국아나렘티스트센터), 이기호, 안경아(평화포럼), 박성용(청년평화센터 부름), 박정은(참여연대), 이미화(비폭력평화물결), 장익수(통일문화교육원, 아태교육원)

라. 내용: GPPAC 국제진행 상황 공유, GPPAC 동북아지역대회 금강산에서 개최 제안 보고, 국내연대와 국제연대를 논의하는 느슨한 네트워크 구성 합의

(5) 새로운 평화네트워크 회의

가. 일시: 2006년 1월 13일 오후 2시

나. 장소: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회의실

다. 참가자: 정경란(평화여성회), 이재영(한국아나렘티스트센터), 이기호(평화포럼),

박성용(청년평화센터 푸름), 박정은(참여연대), 비록력평화불결 1인, 장익수(통일문화교육원, 아태교육원), 이수효(평화박물관추진위), 김승국(평화만들기)

라. 내용: 새로운 평화네트워크의 운영방식, 국내단체의 GPPAC이나 TRANSEND 참여문제, 평화단체 워크숍 등 논의

1-2) GPPAC 국제회의

(1) <2005 갈등·분쟁 예방을 위한 동북아시아대회>

가. 일 시 : 2005년 2월 1일(화) - 2월 4일(금)

나. 장 소 : 유엔대학(일본, 도쿄 소재)

다. 주 최 : 일본 퍼스보트(동북아 지역 발의자)

라. 참가자 : (한국측) 10개 단체 15인

마. 주요 논의 내용

* 동북아 행동 의제(Northeast Asia Action Agenda)

제1주제: 평화공존(Peaceful Coexistence)

- 군축을 통한 동북아 평화공존시스템 구축

제2주제: 평화적 개입(Peaceful Engagement)

- 분쟁지역 및 잠재적 위험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협력 강화

제3주제: 평화문화(Culture of Peace)

- 인권보호, 정의수호, 다양성인정이 보장되는 사회 확립

제4주제: 평화를 위한 경제(Economy for Peace)

- 지속가능한 경제와 경제정의 실현

* 6자회담과 중국-대만 양안관계 토론

(2) <무장갈등예방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 세계대회>

가. 일 시 : 2005년 7월 19일(화)~ 7월21일(목)

나. 장 소 : 유엔 뉴욕 본부(미국, 뉴욕 소재)

다. 주 최 : 무장갈등예방을 위한 지구적 파트너십

라. 참가자: 심영희, 정경란(평화여성회), 양미강(아시아의 평화와 역사교과서연대), 정주진(평화활동가), 이현숙(대한적십자사 부총재), 장점돌(일본군"위안부"생존자), 최기자(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전쟁과 여성인권센터 연구원)

① GPPAC 국제회의 기간 중 동북아 관련 행사

7월 18일

등록

12:05 pm GPPAC 동북아 지역회의 및 기자회견(장소: UN Church Center 2F)

1:30-6:00 PM 역사교과서 행사 토론회

장소: 뉴욕 콜롬비아대학

주제: From History Conflict to Trust Building: A Discussion Meeting on
Japan's New History Textbooks
(양미강 아시아의 평화와 역사교과서연대 집행위원장 발표)

7월 19일 (화) 세계대회 첫째날 1 (8am - 6pm)

10:00-13:00 개막식

2:30-5:45

* 신뢰형성을 위한 기제로서 평화헌법과 평화헌장
(Peace Constitution and peace charters as mechanism for confidence
building) 피스보트

7월 20일(수): Global Conference Day 2 (9am - 6pm)

10:00-1:00 아시아, 태평양 패널:

이현숙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동북아시아의 화해와 평화건설-한국 시
각에서 발표

2:30-5:45

* 동북아시아에서 핵대결 예방하기 (Preventing nuclear confrontation in
Northeast Asia) 정경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발표
* Historical Reconciliation and Peace Education 3:45-5:15
양미강 아시아의 평화와 역사교과서연대 집행위원장 발표

7월 21일(목): Global Conference Day 3 (9am - 6pm)

10:00-13:00 전쟁시기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폭력 예방하기

(Preven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sexual violence in war)

심영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발표, 강점돌 정신대 할머니
증언/정주진 평화활동가 번역

6:00-8:00 Korea Society에서 강점돌 할머니 증언

② 6자회담관련 공동성명서 작성 및 배포

동북아 시민사회단체 대표 공동성명서 "6자회담에 보내는 동북아시아민사회의 요구" 채택과 보도자료 배포 및 6자회담 정부에 성명서 보냄.

③ 한국정부 group of friends로서 활동

한국정부는 동북아시아 정부 중에서 유일하게 group of friends로서 활동하고 있다. group of friends는 무장갈등 예방을 위해 유엔, 국제기구, 정부, 시민사회 단체 사이에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할 것을 추구하는 gppac 과정과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정부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현재 group of friends는 정부간 모임으로 현재 20여개국 정부가 참여하고 있다. GPPAC 한국위원회는 한국정부가 Group of friends가 되기를 바라며 동북아시아위원회에 이와 관련한 정보를 보냈고 협조를 요청했다. 유엔 한국대표부는 2005년 2월 뉴욕에서 열린 GPPAC 설명회에 제1서기가 참석했다. 세계대회에 참가하기 전(7월 15일)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대사에게 세계대회 초청장을 발송했다.

④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차석대사와 면담

7월 19일 심영희 (gppac 동북아 지역발의자, 평화여성회 공동대표), 이현숙(대한적십자사 부총재), 요시오카 (gppac 동북아 지역발의자, 피스보트 대표)는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신갑수 차석대사와 모임을 갖고 한국정부가 Group of friends가 되 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뉴욕대회 기간중에 열릴 동북아지역행사에 유엔대표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다.

⑤ GPPAC 국제회의 follow-up 관련 논의

1. 동북아시아예방네트워크(Northeast Asian Prevention Initiative) 구성 의

- GPPAC 동북아시아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참가단체들은 평화헌법 공동행동 문제, 동북아예방네트워크(Northeast Asian Prevention Initiative) 구성, 시민사회 6자회담 등을 논의했다.
- 동북아시아의 분쟁예방과 평화형성을 위해 platform으로서 활동
- 홈페이지를 만들어 이메일 정책토론
- 1년에 한번씩 피스보트를 타고 선상에서 동북아지역회의 개최

1. 시민사회 6자회담 서울 개최를 제안해서 국내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베이징과 둥고 쪽에서 고려해 보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ㄷ. 유엔 총회에서 UN peacebuilding commission 설립 촉구 요청

GPPAC 국제운영위원회는 9일코 예정된 유엔총회에서 UN peacebuilding commission 설립이 결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로비하기로 결정하다. (요시오 카 지역발의자 국제운영위 참가후 보고) 한국정부와 동북아시아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로비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ㄹ. 평화헌법 관련 활동

2005년 2월 동경에서 열린 GPPAC 동북아시아 지역대회에서 평화헌법 관련 공동행동을 할 것을 결정하였다. 7월 뉴욕에서 열린 GPPAC 국제회의에서 다시 GPPAC 동북아시아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Global Article 9 Campaign에 결합해 평화헌법 관련 행동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1-3) GPPAC 관련 활동

(1) 동북아시아대위원회 평화팀과 면담

가. 일시: 2005년 3월 23일 수요일 10:15-11:10

나. 장소: 동북아시아대위원회

다. 참석자: 엄종식 국장, 김충환 과장(동북아시아대위원회 평화팀), 정경란(공동 포렌 포인트)

라. 논의내용:

- GPPAC 동북아위원회 구성 및 서울 포렌포인트 상황 보고 및 자료 제공
- 동경 동북아대회 설명
- 동북아시아대위원회에 대한 제안

(2) 일본 GPPAC 회원 사사모토 준과 모임

가. 일시: 5월 30일

나. 장소: 평화여성회

다. 참가자: 정경란, 이태호, 사사모토 준

라. 내용: 일본 평화헌법 신문 광고 제안 및 공동행동 논의

(3) GPPAC 일본 "GPPAC 세계대회 보고 대회" 참가

가. 일시: 9월 21일 수요일 7시

나. 장소: 일본 동경 도시마구민센터

다. 참가자: 정경란

라. 내용: 뉴욕대회 보고-마나기

마. 제널 토론: 기미지마, 정경란, 캐시
글로벌 9조 캠페인 보고
유엔대회관련 보고

* 사전모임

참가자: 요시오카, 아키라, 리카, 마나기(GPPAC 일본), 정경란
0 GPPAC 한국 상황 정보 공유 및 GPPAC 동북아네트워크 논의

참가자: 요시오카, 사사모토(GPPAC 일본), 다가다 켄(World Peace Now 관계자이
며 53평화헌법수호대회 조직위원, 허용하(지 말라!헌법개악 시민연락회의), 정경란 등
0 11월 3일 평화헌법 행동 논의

(4) GPPAC 동북아 발의단체 피스보트와 만남 보고

가. 일시: 2005년 11월 23일 2시 30분-5시

나. 장소: 을지로 코업 레지던스 호텔 저퍼숍

다. 참가자: 심영희, 정경란(평화여성회), 요시오카 타츠야, 마리, 조진혜(피스보트)

라. 내용:

GPPAC 국제적인 차원에서 진행과정 보고

GPPAC 동북아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문제

GPPAC NEWS 2005 October과 평화헌법 관련 언론보도 전달

(5) 일본 평화헌법 관련 활동

일본 헌법9조 개악에 반대하는 한일 시민단체 공동행동: 평화여성회 간사단체 활동

① 일본 헌법 9조 개악 반대하는 신문광고 게재(한겨레 신문 8월 15일자)

신문광고 동참한 단체

한국: 2005 갈등분쟁예방국제회의 한국위원회(GPPAC Korea), (사)개혁자들, 녹색연합, 동북아평화연대, 비폭력평화물결, 민주사회를위한헌법수호모임,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민족문화작가회의,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평화나눔센터,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박물관추진위, 평화시민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포럼, 한국아나뎀티스트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전화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일본: GPPAC Japan, Peace Boat, 일본국제법률가협회, Peace & Green Boat

② 일본 헌법 9조 개악 반대하는 기자회견

일시: 8월 18일

장소: 일본대사관 앞

참가: 정경란(사회), 최선희, 김현희

참가단체

한국: 2005 갈등분쟁예방국제회의 한국위원회(GPPAC Korea), (사)개혁자들, 녹색연합, 동북아평화연대, 비폭력평화물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민족문화작가회의,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영동포산업선교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평화나눔센터,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박물관추진위, 평화시민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포럼, 한국아나뎃티스트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일본: GPPAC Japan, Peace Boat, 일본국제법률가협회, Peace & Green Boat

③ 일본 헌법9조 개악에 반대하는 한일 시민단체 공동행동

일시: 11월 2일 -3일

장소: “일본 평화헌법 개악 움직임과 한일시민사회의 과제” 토론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대용터(11월 2일), 11.3. 일본 헌법 공포일 한일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일본대사관 앞(11월 3일)

내용: “일본 평화헌법 개악 움직임과 한일시민사회의 과제” 토론회와 11.3. 일본 헌법 공포일 한일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을 한국의 “일본평화헌법개정저지를 위한 한일공동행동 한국위원회”와 일본의 “11.3 헌법 집회 실행 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참가단체:

한국: 일본평화헌법개정저지를 위한 한일공동행동 한국위원회, (사)개혁자들, 동북아평화연대, 비폭력평화물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박물관추진위, 평화시민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포럼, 한국아나뎃티스트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민중연대, 통일연대, 여성환경연대, 민족화합운동연합, Asian Wide Campaign Korea

일본: 11.3 헌법 집회 실행 위원회, 기독교 신자 평화 네트워크, 헌법을 사랑하는 여성네트워크, 헌법을 살리는 모임, 고교생 반전 행동 네트워크, GPPAC Japan,

VAWW-NET Japan, 종교자 평화 네트워크, 전국노동 조합 연혁협의회, 피스보트, 제민 부인 민주 클럽, 평화 헌법 21세기 모임, 메타이슨다이문화회, 용서말라! 헌법개약 시민 연대회

(6) GPPAC 성명서 발표

GPPAC 한국위원회 · 동북아위원회 명의

일본역사왜곡 해결을 위한 동아시아 시민단체 국제연대 성명서(2005년 4월 5일)

(7) GPPAC 한국위원회 보고서 발간

2004년 GPPAC 한국위원회의 발족이후 나온 성명서, 한국보고서, GPPAC동북아의제, GPPAC세계행동의제, 보도자료, 참가기 등을 담은 보고서 출간

(8)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 보고서 작성

정경란 한반도평화센터 소장이 한국여성재단의 새남프로젝트인 “갈등분쟁 해결을 위한 여성과 글로벌평화 리더쉽만들기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무제: 2005년 UN 국제회의: 무력갈등분쟁예방을 위한 시민사회와 여성의 역할” 보고서 작성

(9) GPPAC 활동 평가

- 평화여성회가 GPPAC 동북아지역발의단체로서 GPPAC 동북아시아무국인 피스보트와 의견을 조율하고, 한국여성재단의 새남프로젝트를 시행해 GPPAC 동북아대회와 세계대회 참가자를 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어서 여성들이 국제행사 참가를 통해 평화, 안보, 갈등예방에 대한 여성의 목소리를 내고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등 글로벌 여성리더십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 GPPAC 한국 포럼 포인트로서 국내 회의 조정, 동북아시아 사무국 피스보트와 GPPAC 한국위원회 단체들과 의견 조정, 지역대회 및 세계대회 한국측 준비 및 실무 진행을 통해 GPPAC한국위원회의 운영에 기여했다.

- GPPAC을 통해 동북아시아사회네트워크를 모색하고, 동북아행동의제를 작성해 향후 동북아평화정착을 위한 방향과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활동보고서(영문) 중 남북여성교류, 북핵문제 해결 국제연대를 작성해 한국여성의 활동을 국제적으로 알렸다. 이 보고서는 동북아지역행동제의의 부록으로 수록되어 GPPAC동북아지역대회와 GPPAC세계대회에서 배포되었다.

- GPPAC을 통해 국내 평화단체 사이의 국제연대에 대한 논의를 향상시켰다.

- GPPAC 동북아지역대회 및 세계대회를 통해 북핵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등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 실무담당이 없는 상태에서 GPPAC 한국 포럼포인트 역할을 한반도평화센터 소장이 하므로써 국제연대 방향성과 정책 개발 보다는 실무에 치중해 국제연대의 내용을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 국제연대를 위한 실무구조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국제연대를 해야한다.
- 국제연대 관련 주제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2) Peace and Green Boat 참여(심영희 공동대표)

가. 주 최: 한국 환경재단, 일본 Peaceboat

나. 기 간: 2005년 8월 18일(목)~8월 29일(월) - 11박12일

다. 방문지: 인천-단통-상해-오키나와-나가사키

라. 참가자: 한국인 250여명, 일본인 200여명 총 450여명.

마. 크루즈 취지: 환경재단은 광복 60주년을 맞이하여 일본의 대표적인 NPO Peace Boat와 함께 'Peace and Green Boat' 프로그램으로 동경-부산-인천-단통-상해-오키나와-나가사키를 잇는 대 항해를 기획하였다. 이 사업은 동북아의 아픈 역사를 되돌아 볼과 동시에 한,중,일 3국의 화해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뜻 깊은 계기를 만들려는 것이었다.

바. 심영희 공동대표 활동: 심영희 공동대표는 이 항해에 "게스트"로 참여하여 선내 프로그램에서 발표와 토론에 참여 및 기항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1) 선내 프로그램.

① 공동기획 - 한국과 북한, 일본과 북한

북한을 바라보는 한국과 일본의 시점을 확인하고, 두 나라가 협력하여 인도적으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탈북자 지원, 남북교류 사업 등)

주최: 한국 환경재단, 일본 Peaceboat 공동주최

일 시: 2005년 8월 21일(일) 14:00 ~15:30

심영희 발표내용: 대북지원의 성과와 과제

② GPPAC 소개

GPPAC 동북아시아협의회 소개, GPPAC 글로벌 회의 소개 등

주최: 일본 Peaceboat

일시: 2005년 8월 21일 (일) 16:00-18:00

심영희 발표내용: GPPAC 동북아시아 행동의제 소개

③ 동북아 비핵지대화

주최: 일본 Peaceboat

일시: 2005년 8월 26일 (금)

심영희발표내용: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평화적 핵이용권

④ 일본의 평화헌법 9조 토론회

주최: 일본 Peaceboat

일시: 2005년 8월 24일?

심영희: 토론에 참여

(2) 기항지 프로그램.

① 단둥의 압록강 단교에서 북한을 바라보았다.

② 상해에서는 남경으로 가서 손문기념관인 중산릉과 남경대학살기념관을 참관하고 당시 피해자의 증언을 들었다.

③ 오키나와에서는 미군기지의 마을 요미탄 손, 비극의 집단자살이 일어났던 치리치리가마, 가네다 공군기지, “오키나와의 전쟁” 그림이 있는 미술관등을 방문했다.

④ 나가사키에서는 핵폭탄 피해자의 증언을 듣고, 평화공원을 방문하고 평화박물관을 관람하였다.

마. 평가

가) 성과

① 기항지 프로그램의 현장방문을 통해 한 중 일 관계의 역사적 현장을 돌아봄으로써 과거를 되돌아보고 역사적 화해를 하고 동북아 평화의 미래를 열어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② 선내 프로그램을 통해 한중일 3국의 지도자, 전문가, 활동가, 시민들이 만나 함께 발표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국제교류와 네트워크를 다질 수 있었다.

③ 한국, 중국, 일본의 전문가, NGO 리더들이 만남으로써 국제연대를 다지고 우리 NGO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나) 과제

① 언어의 장벽으로 생각보다 새로운 외국인을 사귀기가 쉽지 않았다.

② 한국 측에 평화 분야 전문가의 참여가 많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겠다.

3) 2005 NGO 해외 연수 참가(평화여성회 참여자: 심영희 공동대표)

가. 주 최: 중앙일보시민사회연구소

나. 후 원: 삼성전자

다. 기 간: 2005년 6월 5일(일)~6월 14일(화)·9박10일

라. 방문지: 중국(북경, 천진, 상해, 소주, 항주)

마. 참가자: 국내 주요시민단체(NGO) 대표급 인사 15명, 주최측 등 총 20명 규모

바. 연수취지: 중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탐방을 통해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중국 사회를 살펴보고 한국의 발전을 위해 과연 우리 시민사회가 무엇을 준비할 실천해야 할 것인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사. 연수의 성과 및 과제

- ①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여러 면을 보고 역동하는 중국의 힘을 느끼고 NGO가 할일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 ② 특히 미리 준비된 다양한 현장방문과 설명, 그리고 한국인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중국의 여러 부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방문함으로써 자부심과 함께 이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었다.
- ③ 그 중에서도 북경대학의 시민사회연구소와의 만남을 통해 앞으로 한국과 중국의 NGO들의 교류를 위한 관계를 다졌다. 또한 상해의 YWCA와의 만남을 통해 중국여성단체의 현황을 볼 수 있었다.
- ④ 참여한 NGO들끼리의 토론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네트워크를 다질 수 있었다.
- ⑤ 다양한 일로 시간에 쪼들려 여유가 없는 NGO리더들에게 좋은 관광과 휴식의 시간을 제공하였다.
- ⑥ 중국의 농촌이나 문제 지역보다는 도시지역, 대기업, 등 좋은 면들을 주로 보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편파적 이해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기초지식이 없는 참여자들에게는 너무나 주마간산이라 같은 것을 보고도 서로간에 이해가 달랐다. 연수이전에 미리 방문지에 대해 공부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 ⑦ 방문지가 주로 대기업, 국가기관 등이었고 중국의 NGO 및 여성 NGO와의 만남이 부족한 것이 아쉬웠다. 앞으로는 NGO와의 만남을 많이 주선하면 좋겠다.

4) 기타 연대

(1) 일본여성시대회 참석

가. 일시: 2005년 7월 22일~25일

나. 장소: 일본 이바라키현 조꾸바대학

다. 참석: 김정수 공동대표

라. 내용: 일본어머니대회에 김정수 공동대표가 참석하여 “평화헌법 수호를 위한 한일여성연대”의 다양한 활동(전체집회 참석 연설, 심포지움 발제, 신일본여성회 방문 시 실무자와의 간담회 등)을 소개함.

신일본여성회는 평화헌법수호를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9월 ‘남북여성통일행사’를 축하하는 연대사를 보내, 자표집에 실기도 하였다.

(2) 카린 리(Karin Lee)와 간담회

가. 일시: 11월 2일 오후 2시

나. 장소: 평화여성회 교육장

다. 참가자: 김숙임, 김정수, 정경란, 최선희, 김현희 등 20명

라. 내용: 미국의 전국입법친우위원회(FCNL) 카린 리(Karin Lee)와 평화활동가 존 페퍼(John Feffer)는 “6자회담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북미관계의 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미국 내오론의 상황, 핵문제에 대한 인식, 인권에 대한 입장 등을 발표하고 참가자의 질문에 응답하였다.

(3) 밥 윙(Bob Wing)과 간담회

가. 일시: 11월 14일

나. 장소: 평화여성회

다. 참가자: 정경란, 김현희, 박성준, 시민의 신문 기자

내용: 미국의 <평화와 정의를 위한 연대>(United for Peace and Justice) 지도자 밥 윙(Bob Wing)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 반대운동, 미국 정당의 이라크 정책에 대한 입장, 미국 용병의 실태와 평화운동단체 등을 소개하고 국내단체와 연대를 모색했다.

(4) 오키나와 평화연수

가. 일시: 2005년 12월15일(목)~12월20일(화)

나. 장소: 오키나와 (나하시, 헤노코, 후텐마기지, 기노완시,

다. 참가자: 최선희, 김현희, 송소희, 김현숙, 이경아, 이운희 (평화여성회, 평화와 통일을여는사람들,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라. 내용: 오키나와는 미군기지 반환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곳이다. 참가자 6명은 여성재단 지원으로 오키나와의 비폭력 평화운동을 배우고 연대를 모색하고자 가게 되었으며 오키나와의 한일민중연대, 평화시민연학회, 전쟁반대여성행동등 여러 단체 활동가들을 만나며 이들의 운동 철학과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미군기지 이전반대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헤노코, 기노완 시장과의 간담회, 미군기지를 방문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가데나학습정, 평화공원 등을 방문 하였다.

2-6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 심영희)

<조직구성>

이사장: 김운옥

이 사: 심영희, 장남석, 김은실, 김현미, 안진, 양현아, 이소희, 이정옥, 정진성

원 장: 심영희

연구원: 김엘리, 김정수, 박현선, 안정애, 이선미, 이화진, 임운택, 최기자

1. 2005년 사업 방향

국내 여성평화운동을 주도하는 평화여성회의 Think-Tank로서 활동 정책개발과, 기초 이론 생산 활동에 주력 하며, 연구활동이 광범위한 영향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다. 특히 올해에는 조직이 안정되었으므로 평화여성회의 중요 이슈 관련 해당부서와 결합하여 실용적인 정책개발에 힘쓰도록 한다.

2. 2005년 사업목표

- 1) 여성 평화, 통일 운동의 이론 정립과 확산을 위한 연구 활동 전개
- 2) 평화여성회의 중요 이슈 관련, 해당부서와 결합하여 실용적인 정책개발에 노력 경주
- 3)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진행
- 4) 여성 평화, 통일 전문 연구 인력 양성, 확보 인력 풀 구성

3. 2005년 사업계획

- 1) 한국여성평화운동사 발간 (한국여성재단 프로젝트)
- 2)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평화세미나 진행
- 3) 정기 이사회개회
- 4) 여성과 평화 5호 발간
- 5) 여성 평화·통일 운동의 정책생산을 위한 연구 활동 전개

4. 주요사업

1) 한국여성평화운동사 발간사업

(1) 기획 및 편집회의

(2)한국여성평화운동 세미나 (총 3회)

① 1차 세미나

- 일시: 7월 11일, 월, 늦은 7시 30분
- 장소: 평화여성회 사무실
- 진행: 심영희
- 주제: 각 사례별 한국여성평화운동
- 발제: 김헬리, 김숙임

② 2차 세미나

- 일시: 9월 26일, 월, 늦은 7시 30분
- 장소: 평화여성회 사무실
- 진행: 심영희
- 주제: 민족주의, 안보와 여성인권의 딜레마
- 발제: 최윤정, 조영주, 안정애

③ 3차 세미나

- 일시: 10월 26일, 수, 늦은 8시
- 장소: 평화여성회 사무실
- 진행: 심영희
- 주제: 통일운동과 평화운동의 관계
- 발제: 정현백, 김정수

(3) 심포지움 개최

가. 기획 회의 2회

나. 심포지움 개최

- 가) 일시: 2005년 12월 27일 화, 오후 3시-6시
- 나) 장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층 교육관
- 다) 제목: 새롭게 읽는 한국여성평화운동, 흐름과 과제
- 라) 순서
 - 진행과 인사말: 심영희
 - 1부 : 통일·군사·여성인권
 - 발표 1 여성통일운동사/정현백
 - 발표 2 남북여성교류/김숙임

발표 3 여성들이 하는 군속과 반전운동/김열리

발표 4 여성인권과 평화운동/최윤정, 조영주

토론자 : 윤영은, 오김숙이

-2부 : 정책·교육·국제연대

발표 5 법, 제도, 정책 개선을 위한 여성평화운동/안정애

발표 6 여성평화교육과 평화문화운동/김정수

발표 7 국제연대활동/정경란, 고유경

발표 8 여성평화운동 흐름과 쟁점/심영희

토론자: 차인순, 이대훈

(4) 한국여성평화운동사 발간

책 내용:

① 여성평화운동 흐름과 쟁점/심영희

② 여성통일운동사/정현백

③ 남북여성교류/김숙임

④ 여성들이 하는 군속과 반전운동/김열리

⑤ 국제연대활동/정경란, 고유경

⑥ 여성인권과 평화운동/최윤정, 조영주

⑦ 법, 제도, 정책 개선을 위한 여성평화운동/안정애

⑧ 여성평화교육과 평화문화운동/김정수

출판사: 한울

발간예정일: 2006. 1월말

2) 여성과 평화 5호 기획

(1) 기획 및 편집회의 일정

7/6(수) [여성과 평화 5호] 기획회의

7/11(월) 편집회의 결과 사무처와 조율 오후6시, <여성과평화 편집,프로젝트 기획회의>

11/15 여성과 평화 5호 원고 마감

(2) 여성과 평화 5호 기획안

2005. 7.6. 수 기획회의 및 7.11. 평여 사무처 회의 조정안

시사와 초점

- ① 광복 60주년 기념 6.15 및 8.15 대화: 김숙임 또는 정경란
- ② GPPAC 동북아 / 세계화와: 정주진
- ③ 세계여성학대회에 “한반도의 통일과 여성의 역할” 세션 참가: 안정애
- ④ 평화와 환경을 위한 항해: 심명희
- ⑤ 일본 평화헌법 9조: 김정수
- ⑥ 북경 + 10: 조영숙 또는 정현백

광복60주년 특집

여성과 군대

- 여군의 사회적 지위: 권인숙 (명지대 교수)
- 군가산정제 폐지 입법안: 최명숙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우리 몸속에 침윤된 군사주의적 담론과 의식: 김엘리 (정화여성회 정책위원)

평화교육과 평화운동

- 갈등해결선다: 박수현
- 일상평화선다: 화 다스림: 강정화
- 팔레스타인 평화운동: 임명선

연구논단:

- 일본의 여성평화운동: 김해옥 (일본 리프레이칸대 박사과정)
- 북한이탈여성: 박현선 (고려대 북한학과 겸임교수)
- 일본헌법 9조: 이경주 (인하대 법학과 교수)

3) 제9차 세계여성학대회 세션 구성 및 참여

- 가. 일시: 2005년 6월 20-24일
- 나. 장소: 이화여대, 연세대, 서강대 등
- 다. 발표: 2004. 6. 23
- 라. Panel Topic: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 and Role of Women”
- 마. 위치

- ① 평화통일에 여성이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다. 여성의 역할이 숨어 있었다. 이것을 밝힐 필요 있다.
- ② 사례로서 한국과 독일에서의 여성의 역할, 여성평화운동의 역할을 살펴보고
- ③ 앞으로의 과제와 여성의 기여, 역할을 모색한다.

마. 발표주제 및 발표자:

① Korean 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 and the Role of Women
(Young-Hee Shim)

분단상황/여성평화운동의 역할, 사례, 기여/앞으로의 과제

② Women's Role in German Unification and Its Implication for Korea
(Woontaek Lim)

분단 독일의 상황/여성의 역할/통일 이후의 상황/ 한국에 주는 함의

③ US Militarism in Korea and Role of Women (Ahn Jeong-Ae)

여성관련 피해 사례/여성운동 사례/앞으로의 방향

4) 총평 및 과제

(1) 한국여성평화운동사 발간을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2005. 12. 27. 3-6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 숙원사업인 '한국여성평화운동사 발간을 위해 한국여성재단의 사업비 지원을 받아 기획 편집 및 집필 작업을 마무리하여 현재 출판사에서 작업중이며 곧 발간예정이다.

(3) 여성과 평화 5호는 기획 후 집필자들의 사정으로 원고가 지연되어 발간이 늦어지고 있다.

(4) 2005년 6월 개최예정 세계 여성학대회 Session참가

(5) 아쉬운 점은 담당 실무자의 퇴사로 실무활동이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여 이사회가 개최되지 못했고, 내부 세미나도 참여자가 소수였으며, 여성과 평화 5호 발간이 지연되었고, 여성평화운동사도 자원봉사에 의해 일이 진행되었다는 점 등이다.

2-7 정보사업

1. 2005년 사업내용

1) 주요 활동보고

- 06/03(금) 단체소개 약도 페이지 만들기
- 06/08(수) 움직이는 여성통일학교 팝업창 게시 400*400px
평택미군기지 배너 달기
- 07/01(금) 관리자들만 볼 수 있는 페이지 만들기
- 07/04(월) 조직도 페이지 다시 만들기
- 07/01(금) 움직이는갈등해결과정화학교 팝업창 게시 320*400px
- 07-08 여성평화뉴스레터(준비 1호) 발간
- 09/09(금) 2005남북여성통일행사 팝업 창 게시 500*335px
- 09 여성평화뉴스레터(준비 2호) 발간
- 10/26(수) 갈등해결 워크숍 팝업 창 게시 500*350px
- 10/26(수) 단체소개 페이지 다시 만들기
- 11 여성평화뉴스레터(준비 3호) 발간
- 11/23(수) 평화여성회 후원회 팝업 창 게시 320*400px
- 11/23(수) 평화여성회 후원회 파일 만들기
- 11/25(금) 일본평화헌법개악예란한 긴급토론회 팝업 창 게시 500*545px
- 12/21(수) 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여성 포럼 팝업 창 게시 500*680px
- 12/21(수) 청소년을위한 갈등해결교육 교안집 팝업 창 게시 450*370px
- 12/23(금) 여성평화운동사 심포지엄 팝업창 게시
- 12/23(금) 여성평화운동사 심포지엄 안내 페이지

2) 센터별 팝업/배너 게시 빈도

* 아래 표 참조

구 분	행 태	번 도	건 명
공 통	참여	1	평화여성회 후원회 참여 등 한기회 참여금
한반도평화센터	참여	3	움직이는 여성통일학교 2005남북여성통일행사 여성평화운동사 심포지엄 참여금
강동해결센터	참여	3	움직이는강동해결과평화학교 강동해결 워크숍 참여 등 강동해결교안자료집
국제협력위원회	참여	2	일본평화헌법제약에관한 긴급토론회 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여성 포럼
언 대	대너	1	평화미군기지확장 반대
계	참여	9	
	대너	1	

3) 총평

정보실무 인력의 확보로 홈페이지 정리 및 평화웹진 준비호 3회 발간, 참여 계 시를 통한 사업 홍보 등을 활성화 하였다. 사이버를 통한 운동의 중요성을 감안할 여성평화운동의 이해를 높여내기 위한 홈페이지 활성화, 평화웹진의 정기적인 발행 은 그 기초 토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료의 업데이트와 평화웹진 외 고정적인 필진과 기자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어 시급한 노력이 필요하다.

2-8 연대사업

1) 이우정평화상위원회

- ‘이우정평화상’은 평화운동과 인권운동, 민주화와 통일운동의 선구자였던 고 이우정선생님의 정신을 기리고자 제정된 상이다.
- ‘이우정평화상’은 전쟁과 분쟁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한 여성, 분단극복을 위해 노력한 여성, 앞으로의 활동 가능성이 많은 젊은 여성 및 여성단체를 수상자로 하며, 상금은 이우정평화상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이우정평화상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 중 20인 내외의 운영위원을 선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우정평화상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1) 제 1회 이우정평화상 시상식 “수상자 : 두레방 유영님 원장”

일시: 2005년 5월 30일(월) 오후 6시 장소: 한국기독교교회관 대강당

순서: 사회: 유원균(운영위원, 한빛교회)

1부 추모와 강연

인사말씀 _____ 김운옥(이우정평화상운영위원장)

추모사 _____ 이현숙(대한적십자사 부총재)

추모노래 _____ 한국신학대학여동문회

“평화의 아침을 여는이”

강연 _____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군사주의와 여성의 평화 및 일본군 위안부와 기지촌 여성”

2부 시상식

선정결과 _____ 정현백(운영위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시상 _____ 김운옥 (이우정평화상운영위원장)

축사 _____ 이정희(기장여신도회 회장)

영상물상영 _____ 두레방 그리고 유영님 원장

수상소감 _____ 유영님(두레방 원장)

3부 권교와 식사

(2) 활동일지

- 1/17(월) 이우정평화상 집행위원회
- 5/17(화) 이우정평화상 심사위원회
- 5/30(일) 이우정평화상 시상식
- 9/26(월) 이우정평화상 운영위원회
- 10/17(월) 이우정평화상운영위원회

2) 한국여성단체연합 통일평화위원회

소속단체: wmp, 부산여성회, 울산여성회, 대구여성회, 수원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천주교여성공동체, 대전여민회, 여성사회교육원, 경남여성단체연합,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등

(1) 활동내용:

- ① 통평위 회의 (3회)
- ② 여성통일포럼: 6자회담 이후 한반도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여성통일운동의 과제
- ③ 6.15 공권위 여성본부(여성연합은 여성본부의 상임대표, 집행위원장, 집행위원으로 활동)
- ④ 6.15공동행사, 8.15 민족대축전, 남북여성통일행사(평양) 등 공동개최 및 참석
- ⑤ 5.24, 세계여성행진, 6.15, 8.15 등 시기별, 이슈별 논평 혹은 성명서 발표

(2) 현황

- ① 여성통평위는 현재 지역여성운동단체가 주로 참석하고 있음
- ② 소속단체의 활동은 주로 통일운동 중심의 지역운동 차원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
- ③ 여성연합이 공식으로 표명하고 있는 “평화를 통한 통일”운동보다는 “통일을 통한 평화”라는 차원에서 각 소속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어 통일/평화 주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음.
- ④ 따라서, <통일운동의 대중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남남대화를 통해 통일에 대한 이견 조정> 등의 활동이 부족했고, 이념적 지향이 다양한 남측 사회단체 내에 통일과 평화에 대한 소통을 일상화하고 의견을 통합하고 조율하는 일이 요구됨>(이상 ‘통평위 평가’에서 인용).
- ⑤ 통평위 역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문제, 폭력 관련된 6자회담 대응 등 평화통일정책에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관점과 여성주의적 시각을 견지하고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남북여성의 공동의 의제를 개발하고, 보다 심화된 교류의 내용과 방식, 교류의 원칙과 방향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음

⑤ 평화여성회는 통령위 위원장으로 참여

⑦ 과제: wmp의 운동과제의 여성연합으로의 확대,

여언 통령위 운동에 평화운동적 관점의 확산

여성연합 운동 전체에 평화운동의 영역 확대

3) 이라크파병반대배상 국민행동

(1) 활동일지

1/20 전쟁과 학살 주범 부시 취임 규탄대회

1/30 재헌의회 선거 실시

3/16 재헌의회(275석) 개회

3/14~20 3.20 이라크 반전평화 주간

3/14 3.20 이라크 반전평화 주간맞이 기자회견

3/16 이라크 침공 2주년에 즈음한 토론회 : 이라크 전쟁 이후의 세계, 한국사회

3/17 여성의 눈으로 본 이라크 그리고 한국- 이라크 여성, 윤단

3/17~18 3.20 이라크반전평화주간 반전영화제 : "평화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

3/18 영상상영: "꽃을 든 분쟁지역의 여성들"

3/19 평화난장

3/20 이라크 침략 2년 규탄 국제반전행동

3/21 이라크 노동운동가와의 대화

4/15 한국사회포럼 테마토론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한국반전평화운동"

6/15 파병연장 발언 규탄과 진상공개 촉구 기자회견

6/18 이라크 종전과 자이툰 철군을 위한 평화난장

6/20故김선일 1주기 추모 반전평화주간 선포 및 자이툰부대 철수촉구 기자회견

6/20故김선일씨 1주기 추모 반전평화주간 강연회 "점령, 저항 : 이라크는 어디로?"

6/23~25故김선일 1주기 추모 촛불집회

6/23 터키 이스탄불에서 이라크 국제전범재판

6/26故김선일 1주기 반전행동 집회

8/2 자이툰 파병 1년에 즈음한 철수촉구 기자회견

8/23 테러와 이슬람에 관한 왜곡된 시선 토론회

9/21 하반기 파병연장 반대투쟁을 위한 기자회견

9/24 이라크 점령종식을 위한 3대파병국(한, 미, 영) 공동행동

10/13 국회 동의없이 국군 해외파병 추진하는 'PKO법' 폐기촉구 기자회견

- 10/20 파병반대국민행동 전원회의
- 10/13 PKO범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 11/2 파병제연장 반대기자회견
- 11/24 무지개꽃등으로 밝히는 평화문화제 개회
- 11/28 파병제연장 반대를 위한 의원·시민사회단체 대표 조찬간담회
- 11/29 파병반대국민행동 운영위원회
- 12/6 파병제연장 반대 기자회견
 - 임종인, 유승희 이라크 현지 답사 보고대회
 - 파병제연장반대 자료집과 참반의견 배포

(2) 총평

미국은 아직도 이라크를 점령하고 있고 파병된 한국군은 아르빌에 주둔 중이다. 다소 주춤해진 반전평화운동은 3.20 국제반전공동행동, 김선일 추모1주기, 9. 24 국제공동행동, 이라크점령 종식을 위한 3대파병국 공동행동, 파병제연장 규탄집회 등의 굵직한 집회를 개최하면서 반전평화의 활동을 지속시켰고, 이라크 전사자의 어머니 신디시현의 반전시위를 지지하는 연대춧불행사, 반전평화주간 김선일 추모 1주기 여성행동의 날, 무지개 꽃등으로 밝히는 반전평화 행사 등을 기획 진행하면서 보다 유연해진 그리고 감성에 호소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평화여성회는 기획단회의 운영위원회, 각종 집회의 사회 및 강연을 통해 반전평화의 의지를 전달 하였고 기고 및 여타의 글을 통하여 이라크 점령의 부당성과 한국군파병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항상 반전평화의 기초와 함께 하면서도 천편일률적인 구호에 과몰입 수 있는 한사람 한사람의 감성을 드러내고자 노력한 한 해 이기도 했다. 향후 보다 전문성을 배가시킨 반전평화운동의 여성과제를 도출하고 풀어나가는 과제를 안고 있다.

4)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1) 활동일지

- 2/17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준) 전체 집행책임자 회의
- 2/22 범대위 결성 대표자회의
- 2/24 평성 대보통행사
- 3/5 1차 범국민대회 참가
- 3/17 국무총리 면담요구 기자회견
- 3/18 평성대책위와 간담회
- 3/30 국무총리 면담촉구 기자회견

- 4/5 생명과 평화의 땅 식목행사
- 4/8 용산협정, LPP개정안 위한 청구소송 및 기자회견
- 4/15~17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 못자리 농활
- 4/17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결의대회(오후2시/ 도두2리)
- 5/8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결의대회
- 6/4 범대위 집중실천 및 평택시민문화제
- 6/9 스탠스폭격기 즉각 철수 촉구 기자회견
- 6/15 강제토지수용전면거부 기자회견
- 6/17 평성주민과 친선 체육대회 및 단합대회
- 6/24 허위공문서 작성 국방부장관 고발 및 기자회견
- 6/27 평화문 평성주민 300일 촛불 문화제
- 7/10 710평화대행진 개최 참가
- 7/13 710평화대행진 관련 경찰청 규탄 긴급 기자회견
- 7/15 710평화대행진 경찰폭력 피해자 증언 기자회견
- 8/9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정태춘 박은옥 거리콘서트 시작
(10월 23일까지 매주 화요일 진행.)
- 8/12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결의대회 진행
- 8/17 대추초등학교 슬루영이 도서관 개관식 및 기자회견
- 8/26 국방부 대추초등학교 주민설명회 규탄투쟁 및 연행자 석방투쟁
- 8/27 대추초등학교 지키기 평화난장 참가
- 9/3 주민촛불 1주년 문화제 개최
- 9/23 서울지역 집중실천
- 9/27 대추초등학교 출입금지 가처분 공판 대응 결의대회
- 9/30~10/23 가을 걷이 범대위 농활
- 10/12 범대위 대표단 및 집행간부 농활
- 10/23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결의대회
- 10/25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평화문 거리 콘서트 마지막회 참가
- 10/29 평택미군기지확장 반대! 강제토지수용 즉각 철회! 평택역 농성돌입
- 11/3 평택미군기지확장관련 국회토론회 진행
- 11/15 국방부 앞 강제토지수용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진행
- 11/26 평택시민 촛불문화제 진행
- 12/ 9 1211평화대행진 대중적 성사와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진행
- 12/11 2차 평화대행진 진행
- 12/22 강제토지수용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진행

12/24 평택역 촛불 100일 행사 진행

12/31 평택역 농성장 정리 및 대추리 송년촛불행사 참가

(2) 총 평

평택미군기지확장 저지를 목표는 1) 평택주민의 생존권을 수호하는 운동 2)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를 수호하는 운동 3)주한미군 야대기동군화에 과열구를 내는 운동의 의의를 갖고 있다.

주한미군의 평택 재배치는 주한미군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한다는 의의도 갖고 있어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한미관계에도 중대한 변화를 불러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미군기지 확장 및 건설은 무력에 의한 평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명확한 것이며 기지확대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확대한다는 면에서도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었다.

평화여성회는 주한미군 및 한미관계에 대한 세비나를 진행하면서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법국민대책위 집행위에 결합하였고 진행과정에서의 비폭력평화운동의 필요성과 참여를 통한 연대를 지향하였다. 못자리농활, 710평화대행진, 평택지랄이, 12.10 2차 평화대행진등에 결합하면서 연대를 지속하였다. 이 활동의 과정에서 여성의 독자적인 활동과 목소리는 다소 부진하였으며 평화여성회 회원들과 다른 여성단체들에게 일상적인 소식과 활동을 공유 하는데 는 미흡하였다고 평가 할 수 있었다.

5) 민족화해협력연대회의

5/4(수) 민화협 여성위

10/21-22 민화협 공동의장 수련회

6/2(목) 민화협집행위원회

7/20(수) 민화협여성위원회

9/28(수) 민화협 상임의장단회의

11/29(화) 민화협 여성위원회

12/13(화) 민화협 계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민화협 여성위 소속단체: 여연, 여협, YWCA, 교회여성연합회, 세계평화여성연합, 거대하나합창단, 통일안보여성회, 녹색어머니회, 천도교여성회, 평화여성회, 민우회, 여전, 한민족통일여성중앙협회, 한국여성지도자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대한어머니중앙연합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행주치마운동, 대한주부클럽 의 25개 단체

(1) 활동내용

- 정기회의 3회
- 남북여성교류관련 참여(여성본부 집행위원, 6.15, 8.15, 남북여성통일행사 등)
- 8.15 광복60주년 여성통일선언(815명 여성 한겨레신문)
- 북 지원방안 논의중
- 평화여성회는 공동대표가(김정수) 여성연합 통일평화위원장 자격으로 민화협여성위의 공동위원장을 맡아 여성위원회, 집행위원회 회의, 공동의장단 회의 등에 참여하고 있음

(2) 현황과 과제

- 많은 수의 여성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형식적 참여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통일평화관련 여성단체들이 적극적인 편이다.
- 공준위 여성본부에 공동대표나 집행위원장 자격으로 참여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남북여성통일행사에 소극적 참여로 나타남
- 민화협 여성단체들이 판단하기에 6.15공준위 여성본부가 판단하기에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특히 중보 및 보수여성들의 지도력이 발휘되지 못한 데 대한 평가가 있다.
- 민화협 여성위원회는 소속단체를 아우를 수 있는 남남대화 차원의 여성적 주제를 발굴하여 논의를 활성화 시키고 직능별 여성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성통일운동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6) 615공준위 시민단체연대 활동

- 1/13(목) 615공동선언실천을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추진위원회 시민단체 간담회
- 1/20(목)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추진위원회참여를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최선회)
- 3/9(수) 한반도 평화실현과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회의
- 3/15(화) 6.15공동선언실천을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추진본부 시민단체 회의
- 3/31(목) 6.15공동선언실천을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추진위 시민단체회의
- 4/22(금)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시민단체환경정화회의
- 7/6(수) 615환경평화문화회의
- 7/19(화) 6자회담관련 시민평화단체회의
- 4/7(목) 6.15공동선언실천을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추진위 시민단체회의
- 6/9(목) 6.15 환경평화분과 내부간담회
- 8/9(화) 6자회담 평가 간담회 (참여연대)
- 8/9(화) 615시민환경분과 회의

(1) 소속단체: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전국YMCA연맹, 민연련, 문화연대, 평화네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청년연합회, 녹색연합

(2) 활동내용: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내 공동집행위원장(김재남: 녹색연합사무처장), 사무처의 협동처장(이태호:참여연대)을 맡으면서 민화협,통일연대, 종단, 민간채등의 4대축을 형성하였다.

(3) 평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시민,환경, 평화단체들이 민간통일운동에 적극 결합하기로 하여 구성된 연대활동으로 아직까지 정확한 명칭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그동안 615통일대축전, 815반쪽대축전 행사 등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다소 소극적이었던 평화통일운동에 대한 관심과 활동을 증폭시키는 한해가 되었다. 평화여성회는 여성평화통일운동의 전문단체로서 시민단체들이 평화통일영역에 대한 의제를 고민하고 확장시켜낼 수 있도록 지원 지지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결합한 한해였다.

정체적인 모임으로 발전하고 있지는 않으나 시민, 환경, 평화단체들의 결합력을 높여내는데 일조하고 있으며 이후 평화통일과제를 풀어가는데 중요한 역할과 임무가 요구되고 있어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논의와 그에 대한 활동이 과제로 남아있다.

7) 정부 위원회 활동

(1) 통일부 사회문화교류분과 정책자문위원회

1월21일 도라산역 - 금강산 실무집족으로 참석 못 함.

4월15일 오산 공군 작전사령부, 수원 제10전투비행단 방문 및 정책자문회의

2005 업무추진계획, 1/4분기 추진실적 및 2/4분기 계획 검토

8월9일 통일부 대회의실, 제15차 장관급 회담 합의사항 추진현황 발표, 평가, 제16차 장관급회담 사회문화분야 의제개발 및 토론, 사회문화교류진흥법 내용 검토

10월25-27일 평양 방문 및 정책회의 -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 청와대 모임으로 참석 못함.

12월22일 국무위원 식당, 2005년 사회문화교류 평가 및 2006년 추진방향

(2) 통일부 혁신위원회

9월30일 통일부 대회의실, 2005년 상반기 혁신과제 추진현황 보고, 하반기 혁신과제 추진 방향 토론

(3) 국방부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

가. 활동일정과 구성

○ 활동기간: 2005년 7월22일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 발족식 - 10월27일 대통령 보고

○ 발족배경: GP총기사고 이후 병영문화의 개선대책 방안의 필요성에 따라 대통령의 지시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됨.

○ 대책위원 구성: 민간위원 8명: 학제,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예비역 정부위원 6명: 교육인적자원부,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병무청, 청소년위원회, 국방차관보, 국방부 인사국장

공동위원장- 국방부장관, 민간대표(MBC 논설위원 정상모)

실무지원단: 45명 현역, 민간전문가, 예비역 장병 등

○ 진행과정: 소위원회에서 선정한 과제를 대책위원회에서 발표, 토론, 결정(다수결이 아닌 합의 원칙)하는 방식으로 3개월간 갑론을박하며 진행됨. 현장부대방문, 부대 모범사례 발표 등을 겸함.

5개 소위 구성: 대책위원회+실무지원단

소위원회: 병영생활, 자기계발, 복무환경개선, 사고예방, 복무제도

○ 부대방문 및 사병면담: 방문지, 육군 1사단 GP, GOP, 공군 별첨산 R/S, 해군 2함대 해군 821기지사장, 해병대 2사단, 육군 17사단(306보병대대) - 사고예방 소위의 중점 확인사항은 장병인권 보장 실태진단, 사고예방활동, 대책추진현황 등임.

나. 활동내용

○ 소위원회 별로 과제를 선정하여 대책위에 상정

실무지원단에서 개발해 온 과제를 검토하며 수정, 보완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었음.

군사음부즈만(김숙일 발표), 대체복무제도 개편(한홍구 발표) 등은 새로운 과제로 논의, 발표하여 천,반의 평행한 논란 가운데 뜨거운 쟁점들로서 '민간전문가에 의한 군 인권보장기구 설치'는 정책과제로, 대체복무제는 미합의도출과제 등으로 정리되었으며, 실무지원단과 해당소위에서 제시한 군 가산점 제도입 부분은 정책과제로 제시하였으나 많은 논란 가운데 미합의도출과제로 정리하였음.

○ 군 음부즈만(보고서에서 4장병인권보장의 '민간전문가에 의한 군 인권보장기구 설치'로 표현)제도는 제3자 민간인 통제하의 군 외부의 인권감독기구: 국회 내 위원회 또는 대통령직속 특별위원회 형태 설치-존재하는 것만으로 인권의 조기예방시스템, 외부적 압력과 통제 기능을 함(국방부 병사 설문통계 69.6%가 필요성) - 별첨 '군 음부즈만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

위의 제안한 의견은 대통령 보고서와 이후 출간된 국방부 책자에서 아래와 같이 표현됨.

『21세기 강군 육성을 위한 선진병영문화 VISION』

4. 장병인권보장

4.3. 민간전문가에 의한

* 장병 인권보장 민간참여에 대한 반·군간 공감대 형성

* 군 인권보장기구 연구위원회 운영('06전반기)

- 군 외부에 음부즈만 설치, 군 내부에 인권위원회 설치 등 군 인권보장을 위한 총체적 방안 도출

○ 시민단체대표로서 입장

평화단체의 민간전문위원으로서 국방비를 크게 증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병의 인권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노력하였음.

정병제 하에서 군 음부즈만과 대체복무제 도입이 군 인권과 사고예방에 있어 가장 효과적이고 구조적 접근이라고 봄. 타 계층의 인권을 고려하고 인권의 사회통합을 위해 군가산점 제도입은 반대하였음.

다. 활동의 한계와 성과

○ 국방개혁안과 군구조개혁의 한계, 병력감축의 구조적 한계(군비축소와 구조적 문제), 국방비증강의 문제, 정부의 한시적 위원회, 활동단체와 정보 자료 공유의 문제로 논의 한계, 입장 차이로 인한 문제 등으로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 있다.

이를 보고서 후기로 담아서 표현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른 군사적 긴장완화 등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금번 위원회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전향적으로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

○ 대통령 보고 시 군 음부즈만제도도입과 대체복무제에 관한 의견 개진에 대해 긍정적인 대통령의 입장을 공유하였다. 그 자리에는 국방부 장관, 안보보좌관, 3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 등과 열린우리당 병영문화개선 대책위원장인 김영자 의원이 배석한 만큼 이후 미치는 영향력도 클 수 있다.

라. 활동후기와 후속전망

○ 평화단체, 여성단체의 대표로서 예민한 사안(국방비 증액, 군과 관련된 여성문제 등)이 걸려 있는 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 국방부에 민간단체 대표가 전문위원으로 참여하여 정책의제 만들기는 이번이 처음임. 역사적 의미가 있음. 향후 국방부 정책에도 통일부 정책에 민간참여의 활성화와 혁신차임

적극적인 민간의 참여로 국방의 거버넌스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국방개혁의 한계로 인한 참여의 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함.

○ 이 후 정부의 후속은 국방개혁추진위원회 병영문화 개선팀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임.

병영문화개선 과제에 대한 민간단체의 독자적인 대응 방안과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해당부처와의 논의도 요구됨.

(4)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관리정책전문위원회

박수선 갈등해결센터 소장, 전문위원회 회의, 갈등관리포럼 준비회의 및 포럼에서 토론자로 참여.

갈등관리전문가양성 교재개발 및 교육에 '조정팀'으로 갈등해결센터 활동가(김학묵, 김선훈, 박명숙, 조영희, 박수선) 참여.

(5) 국무조정실 갈등관리지원센터준비단 참여(2. 28~4. 21)

박수선 갈등해결센터 소장이 공공기관의 갈등관리를 위한 법률안 내용의 갈등관리지원센터의 구성과 활동 내용에 대해 준비하는 회의를 4회 진행, 참여.

3. 사업별 활동일지

< 이사회 >

- 1/11 이사회
- 6/27 이사회

<운영위원회>

- 2/15 2005년도 제 1차 운영위원회
- 3/15 2005년도 제 2차 운영위원회
- 5/6 2005년도 제 3차 운영위원회
- 7/4 2005년도 제 4차 운영위원회
- 8/5 - 6 운영위원회 MT
- 9/6 2005년도 제 5차 운영위원회
- 11/7 2005년도 제 6차 운영위원회

<교육 및 강의 >

- 4/9 경희대사이버대NGO학과 평화여성회및 활동소개 강의
- 5/21 경희대사이버대 페스티벌 NGO학과 평화관련 전시
- 5/31 춘천교대 '평화교육'특강
- 6/1 교육복지문화연구원 경기도 제2청사 여성대상교육
- 8/11 부천시민연합 여성위원회 강의
- 9/14 강남중학교 본회방문 및 교육
- 10/19 한국여성지도자연합회 여성NGO대학 강의(인권과 평화단체 소개)
- 11/2 대구여성회- 여성의 눈으로 본 인권과 평화 강의-
- 11/29 미래마당 발표

<남북관계개선 활동>

- 4/15 통일부 통일정책자문회의 참석 및 한미연합사동 방문
- 8/4 개성관광 개발계획 세미나 참석
- 9/1 남북기본합의서 국회비준동의와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내부 정책 간담회
- 9/7 남북관계기본법 관련회의
- 9/30 통일부 혁신위원회
- 10/7 정통사 토론회 참석

10/28 남북경협상설사무소 개설 축하개성방문

10/28 광복60주년 종합포럼 (전주)

<북핵관련활동>

1/21 NSC간담회

1/26 NSC와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1/26 SPI시민사회단체 간담회

4/4 김별발안규탄 기자회견

4/6 크스트피힐대사 초청토론회 - 패널 정경란소장 참여

4/8 동북아'균형론자'를 다시생각한다 - 토론회

4/20 북핵관련토론회 - 점령책임자 및 정책담당자

6/2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발표를 위한 사전논의

6/8 기자회견 -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시민사회의 입장발표

7/6 북한핵, 이란핵과 부시행정부의 핵정책

7/25 6자회담에 즈음하여 미국의 정책전환을 촉구하는 시민평화단체기자회견

12/13 평화여성회 여성전문가포럼-한반도평화체제 구축과 여성-

<군인권및 병영문화개선활동>

7/5 군인권토론회

7/22 청소년문화와 병영문화 YMCA주최

8/9 통일부 사회문화교류정책자문위원회

8/30-31 병영문화개선위원회 GP, GOP 현장 방문

8/30 군측관련 세미나간담회 (참여연대, 평통사, 평너

9/15 국방개혁안 검토 간담회(평통사, 평화네트, 참여연대, 평화여성회)

9/22 16차 국방관련 NGO포럼

10/19 오정복 병역거부 기자회견

<교육지원활동>

3/15~18 시민운동가를 위한 미디어교육

3/29 전시장전지위권 환수와 한미연합사해체에 관한 워크숍

4/14-16 한국사회포럼

4/29-30 주한미대사관주최 '한미관계와 한반도평화' 워크숍 참석

4/28-30 문성지씨의 평화교육을 위한 세미나

6/5~14 시민단체 중국연수

7/7-9 여성재단 리더심화연

- 8/3 상서한국대회 - 기독교인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나눔
- 8/10-13 제 1기 여성운동아카데미 강좌
- 10/13-14 양성평등교육 심화과정
- 11/14-18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해결교육

<평화헌법 지지활동>

- 7/22~25 일본 신여성회 초청 - 일본어머니대회 초청 평화헌법 관련 활동
- 8/3 일본 야스쿠니신사 20만명 참여 규탄 기자회견
- 8/18 평화헌법 관련기자회견
- 10/11 평화헌법 9조 지지 한일공동집회 준비 간담회
- 11/2 평화헌법토론회
- 11/3 평화헌법 기자회견
- 11/2 평화헌법토론회

<평화관련활동>

- 6/1 유연사관련 모임
- 4월~6월 분쟁지역 평화배움터 논의
- 7/27 '7.27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 참석
- 9/2 세계생명문화포럼 - 생명운동과 여성주의
- 11/26 전쟁기념관 평화의 눈으로 다시보기 - 답사
- 11/26 강경란 - 팔레스타인 분리장벽을 생각한다

<시민인권상 수상>

- 9/23 시민인권상 수상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타 국제연대활동>

- 3/21 히카루 카사하라 (아시아평화연대 운영위원)본회 방문
- 6/17 일본 '전야' 편집장 방문
- 6/22 일본 가나가와 네트워크 본회 사무실 방문
- 7/3 Peace X Peace의 Elana Rozenman 만남
- 8/29 일본변호사및 시민단체 방문
- 6/23 신시아인로 초청 간담회 - 평화여성회 교육
- 11/1 미국베이커 로비단체 AFSC 카런 리 초청간담회
- 6자회담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북미관계 전망 -
- 11/3 북한 인권국제세미나

<기타국내연대활동>

- 1/24 국가보안법 폐지 촛불집회
- 1/28 민노당 창립5주년 기념식 참석
- 3/9 여전사무실 개소식
- 3/11 한겨레통일문화상-현대아산 수상 축하 참석
- 3/29 학교폭력관련 기자회견
- 4/8 여연 사무실 이전식 참석
- 4/18 정대협 기자회견
- 4/22 동북아 평화와 한중일 협력 토론회 - 민화협 주최
- 4/22 최만자선생님 여성 삶과 신학 출판기념회
- 4/25 통일교육협의회 이사회
- 4/28 공공기관의 감동관리에 관한 기본 법률안 공청회
- 4/28 학교폭력 1차 워크숍- 피해자 대책
- 6/3 현대아산심재원 부사장과 간담회
- 6/8 통일교육협의회 이사회
- 6/12 미선이 효선이 3주기 행사
- 6/16 기독교민회 김들이
- 6/16 한국여성의 전화 연합 후원의 밤
- 6/16 여성환경연대 후원의 밤
- 6/20-23 세계여성학대회 부스 설치 및 홍보활동
- 6/22 한국의 여성운동에 대한 이해 -세계여성학대회 참가자 초청
- 여성평화의 집 - 공동주관
- 6/30 아시아 NGO센터 후원의밤
- 7/4 World March 참여
- 7/11 통일교육협의회 TFT회의 참여
- 7/27 '평화박물관후원의밤'행사참여
- 8/10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세계연대의 날 - 정대협
- 8/29 '미군트럭에 의한 故 김명자씨 사건'에 대한 재판권 포기 기자회견
- 8/30 합리적절차와 사회적합의를 통한 핵폐기장문제해결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선언
- 9/7 참여연대 후원의 밤
- 9/9 함께하는 시민행동 후원의 밤
- 9/28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후원의 밤

9/28	환경운동연합 후원의 밤
10/5	통일교육협의회 후원의 밤
10/6	코리아포커스 개소식
10/4	경찰청 인권비전선포식에 대한 기자회견 및 피해자 증언대회
10/6	핵폐기장관련 주민투표의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
10/18	평화박물관 이사회
10/19	어연후원의 밤 행사 - 성균관대600주년 기념관
10/25	2006아시아여성평화포럼 축하
10/31	경대협 창립15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11/1	통일뉴스 후원의 밤
11/21	한반도평화주간 선포 기자회견
11/22	민주평통 토론회
11/23	민주평통기획위원회
11/25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캠페인 참여
11/25	여성인권중앙센터 개소식
11/29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 면담
12/1	아홉 번째 프로젝트 / 평화여성회 후원의 밤
12/5	정대협후원의 밤

<기타활동>

10/10	K-TV 한반도평화재에 대한 인터뷰
11/24	K-TV -20인의 국민대통령에게 듣는다

2005년 감사보고

2005년 사업감사 보고

1. 본회가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벌인 사업을 감사한 결과, 한반도 평화센터, 갈등해결센터, 일상평화센터, 회원참여센터,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이 “분단 60년을 맞이하여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여성평화-통일운동을 강화하자”라는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2005년 목표에 맞게 계획한 사업을 활발하게 펼쳤습니다.

2. 특히 6.15실천을 위한 남북해와공동사업행사 준비위원회 남측 여성본부를 꾸리고 2005 남북여성통일행사를 연 것, 지역에서도 여성통일교육을 열어 여성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인 것, 이라크 파병반대운동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을 개발한 것, 학교와 지역사회의 갈등을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게끔 하는 교육사업이 폭넓게 진행된 것, 무장갈등예방을 위한 전지구적 파트너십 네트워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평화운동의 깊이를 더하는데 기여한 것, 여성과 평화에 대하여 깊이 있는 연구와 출판사업을 계속한 것은 본회의 뜻과 회원들의 바람에 맞고 본회 활동의 질을 높이는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3. 한편, 남북여성들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류의 질을 더 높이려면 서로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신뢰가 더 깊게 이루어지고 널리 퍼져 연대로 나아가야 하고, 통일을 현실의 문제로 바라본다면 본회가 북측 여성들과 이해와 신뢰를 넓히는 데 힘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라크 파병문제에 대한 본회의 활동은 한국군 철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고 철수시키기 위한 행동을 구상하고 실천하기보다는 파병 반대 입장을 선언하고 반전 감성을 퍼뜨리는데 머무르는 한계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갈등해결교육과 일상평화사업이 회원들과 교육에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분단과 해외파병이라는 우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힘을 주고 방법을 만들어내며 본회의 활동력을 높이는 데서 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4. 앞으로도 본회 사무처와 각 센터가 맡은 일을 꾸준히 해나가면서 지난 해의 부족한 점을 채우고 회원들의 힘을 모은다면, 여성의 힘으로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내는 본회의 목적이 더 잘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해 마음을 모아 본회를 키워오신 임원들과 사무처,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2006년 1월 12일

감사 이 정 회

2005년 회계감사보고서

한국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경영계획과 실적회계, 자금의 운용(예산
집행)으로서 수입지출결산서, 동결은 잔차분 간격 이월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또한 감사에서 제기한 사실들을 완전히 이해한 정도 등이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회계상 및 기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음을 밝힙니다.
이는 회계 수입지출상의 문제라기보다 회계 회계원칙에 따른 문제점으로 서술하여
바랍니다.

1. 연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수입과 지출이 있고, 연세 수입, 지출이 예산과
차이가 없어 다음 항목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연 세입과 연 세출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2. 예산 편성시 일부 계정을 잘 세입이 한다고 명시하였는데 이는 사무비에 도입하여
비중매개 보완하여 있거나 일부에 상기의 지출의 비무중매개로 인정하여 있고
국문 정가매개 교육용매개, 행사준비에 등 항목을 세입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유연적으로 예산 항목계정이 너무 반영됩니다.
3. 인공조각 아닌 회계 단계를 이상 것으로서 회계 일부는 자금 집행에 원인과 리스크
도 상정하고 있으나, 회계 대상으로 회계식을 받아 적을 수행되는 자금이 전액
다. 일부에서 쓴 것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에 쓴 것은 감사하는 것임으로
회계의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에는 세입회계장과 회계가 있어야 합니다.

2005년 1월 12일

감사 관 <



2006년도 사업계획

..... ■ 사업방향

..... ■ 사업계획

II 2006년도 사업계획안

1. 전체사업방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여성평화운동역량 강화

2006년 한 해는 정부차원에서 남북관계와 민간차원에서의 통일운동의 진전, 북핵문제와 북한인권 등을 둘러싼 북미관계의 긴장고조와 부침, 한미동맹의 성격변화와 평화미군기지 확장 및 이전에 대한 시민사회의 저항이 예상된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6자회담의 지속과 동북아 시민사회의 연대 등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의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질 것이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와 평화운동의 적극적 대응이 요청된다.

특히 지난해 9월 제4차 6자회담에서 제시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여성평화운동의 구체적 정책의제를 개발하고 실천과제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평화여성회가 그동안 전개해온 다양한 영역의 여성평화운동의 주제들을 통합하고 소통시킴으로써 구체화시켜야 할 것이다.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여성평화운동의 주제적 역량을 확보하여 여성주의적 평화운동의 담론생산과 성인제적 관점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이를 여성평화운동의 대중적 실천으로 이끌어 내어야 한다. 또한 평화체제의 구조화를 보다 근원적 차원에서 가능하게 하는 비폭력 평화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갈등해결교육과 평화감수성의 사회적 소풍의 확대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아울러 2007년 창립 10주년을 준비하는 한 해로 2006년은 다양한 차원에서 여성평화운동의 미래와 비전을 수립하는 정책토론이 요청된다. '여성의 눈으로 만들어가는 평화로운 한반도의 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토론을 통해 평화여성회의 10년의 역사와 현재를 평가·진단하고 향후 20년을 향한 토대를 쌓는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논의 활성화로 평화여성회의 일상적 활동을 강화하고 시민사회에 여성평화운동의 패러다임과 가치, 전략과 담론, 실천을 제시하는 한 해로 이끌자.

1) 사업목표

(1) 여성주의적 관점의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며, 여성들의 평화로운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주제이다. 따라서 비폭력 평화주의가 실현되는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위해 요구되는 구체적 의제들, 법·제도의 개선, 평화협정 체결, 군비축소, 평등한 한미관계 수립 및 평화로운 동북아 질서형성을 위한 국제연대 및 여성네트워킹 형성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다양한 영역에 대한 여성평화주의를 개발하여 정책을 제시하고여론화하며 지속가능한 평화체제를 실현을 위한 사회적 행동을 전개한다.

(2) 여성평화운동의 의제개발과 확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여성들은 통일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여성의 이해가 반영된 평화통일사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회가 전개해 온 여성주의적 통일정책과 제도 및 법률적 기반형성을 위한 정책제안을 지속한다. 이는 확대되는 남북의 사회, 문화, 민간교류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남북여성교류의 안정적 지속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따라서 평화여성회는 관련 의제의 전문성 확보 및 인력개발과 10주년 준비를 위한 정책토론회, 내부세미나 진행 등을 통해 여성평화의 주제적 역할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3) 여성평화운동 담론생산

여성들이 그리는 한반도 평화체제는 기존의 국가안보·군사안보 중심의 안보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새로운 안보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본회는 핵의 논리와 폭력에 기반한 군사주의를 극복하는 인간안보와 공동안보에 대한 대안적 패러다임과 함께 여성들의 일상의 평화와 안전까지도 보장되는 여성안보 패러다임을 위한 여성평화운동의 담론을 생산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회원들을 포함한 여성·시민사회의 의식전환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실천과제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4) 평화교육과 평화문화의 확산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평화감수성 형성과 사회화를 통한 평화문화의 확산은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구조적 평화를 문화적 차원에서 보다 근원적으로 뿌리를 깊게 내리도록 한다. 나아가 갈등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비폭력 평화패러다임이 일상화되지 않은 한국시민사회와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과 경쟁 중심의 사회문화는 갈등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시민사회의 조정과 중재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비폭력 평화주의에 대한 인식전환과 그 확산이 요청된다. 본회의 갈등해결센터와 일

상평화센터는 갈등해결훈련의 다양한 영역(학교, 지역, 공공장등에서의 교육훈련)에로의 확산과 평화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평화심성, 평화감수성과 사회적 평화화의 소풍을 위한 다양한 방식개발 등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한다.

(5) 여성평화운동의 주체형성을 위한 인프라 확대

2006년 본회의 주요사업인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평화체제 형성은 여성평화운동의 역량강화를 통해 가능해진다. 평화운동의 사회적 행동과 의제개발, 정책대안제시, 여성평화운동의 담론생산은 평화여성회의의 다양한 회원들의 주체적 평화역량의 형성을 위한 일상적 교육, 훈련, 토론의 활성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월례포럼, 정책토론, 소모임 확대와 강화 등 여성평화운동의 주체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전개한다. 또한 여성평화역량 강화를 위해 물적 기반을 더욱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2) 주요사업

(1) 여성적관점의 평화체제 구축

- ①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 감행을 위한 활동-여성, 평화와 안보 관련하여 군축과 평화과정에 여성의 참여 증진
- ② 한반도평화체제와 여성 관련 토론회
- ③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북미관계 정세 전망 논의 및 대응 모색
- ④ 주한미군의 재편과 여성인권·평화문제 연구 및 대응
- ⑤ '반전평화여성행동'을 통한 사안별 공동행동 조직과 공동실천
- ⑥ 6.15 여성본부 활동 지속 및 정책논의 활성화
- ⑦ 남측 여성의 통일논의 활성화 및 행사

(2) 여성평화운동의 의제개발과 확산

- ① 주한미군의 재편과 여성인권·평화문제 연구 및 대응
- ② 평화체제 관련 여성의제 개발

(3) 여성평화운동 담론생산

- ① 여성과 평화 5호 발간
- ② 한국여성평화운동사 발간 마무리 (한국여성재단 프로젝트)
- ③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평화세미나 진행
- ④ 여성 평화통일 운동의 정책생산을 위한 연구 활동 전개
- ⑤ 한반도평화체제 관련 내부세미나

(4) 평화교육과 평화문화의 확산

- ① 교사대상 갈등해결 교육
- ② 지역 ngo 활동가 대상 갈등해결, 중재 훈련
- ③ 청소년 대상 갈등해결, 평화 교육
- ④ 대학생 갈등해결과 평화 캠프
- ⑤ 제4기 강사 트레이닝(회원 확보 및 갈등해결 교육 확대)
- ⑥ 제4차 평화심성훈련
- ⑦ 제9차 여성평화아카데미
- ⑧ 평화문화 확산 온라인 캠페인

(5) 여성평화운동의 주체형성을 위한 인프라 확대

- ① 현안대응 및 정세인식을 위한 월례포럼개최
- ② 여성평화테이블 구성 및 여성단체 정책 논의 활성화

(6) 조직역량강화

- ① 임원 및 실무자 정기적인 교육, MT
- ② 회원 분석 및 관리 강화
- ③ 회원비가운동건제
- ④ 전체회원이 참가하는 회원한마당 실시

(7) 국내외 연대활동

- 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형성을 위한 한국여성과 시민사회의 연대 지속 및 협력 틀 모색.
- ② '반전평화여성행동'을 통한 사안별 공동행동 조직과 공동실현
- ③ 무력감동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PAC) 동북아 지역네트워크와 연대.
 - 3월초 GPPAC동북아지역협의회 금강산에서 개최 지원
- ④ 5.24 세계여성 군축의 날 행사
- ⑤ SAFE (국제적응력 네트워크는 여성평화네트워크)

2. 사업계획안

2-1 한반도평화센터

● 소장 : 정경란

1. 사업방향

2006년은 2005년 6차회담에서 선택한 9.19 공동성명을 실현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위해, 남북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특히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북한인권문제의 제기 등 한반도에서 긴장과 전쟁 위험은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핵문제 해결과 한반도평화체제 형성 및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해 세가지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과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여성들의 정책논의와 조직을 강화한다. 둘째, 한반도 평화문제는 미국의 북한정책을 포함한 한반도 정책과 연결되어 있는 바, 한반도 정책을 포함한 미국의 정책에 대응한다. 셋째, 북한핵문제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평화체제 형성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형성을 위해 이 지역의 시민사회와 평화공존을 위한 협력을 추구한다.

2. 사업목표

- 1) 2005년 6차회담에서 선택한 9.19 공동성명을 실현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정책개발과 조직을 강화한다.
- 2) 남북여성교류사업을 지속, 강화하여 남북화해와 협력에 기여한다.
- 3) 미국의 한반도 정책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군축과 평화과정에서 여성들이 적극 참여할 수 방안을 모색한다.
- 4)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여성단체의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성전문가, 활동가 네트워크를 추구한다.
- 5)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실현을 위해 동북아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한다.

3. 사업내용

1) 여성의 한반도평화체제 형성 참여와 의제 개발

2005년 6차회담에서 선택한 9.19 공동성명을 실현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위해 정책논의와 조직을 강화한다.

- ①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 집행을 위한 활동-여성, 평화와 안보 관련하여 군축과 평화과정에 여성의 참여 증진
- ② 한반도평화체제 관련 내부세미나
- ③ 평화체제 관련 여성의제 개발
- ④ 여성평화태이블 구성 및 여성단체 정책 논의 활성화
- ⑤ 한반도평화체제와 여성 관련 토론회
- ⑥ 5.24 세계여성 군축의 날 행사

2) 남북여성과 화해 및 협력

- ① 6.15 여성분부 활동 지속 및 정책논의 활성화
- ② 남측 여성의 통일논의 활성화 및 행사

3) 미국의 한반도 정책 대응

- ①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북미관계 정세 전망 논의 및 대응 모색
- ② 주한미군의 재편과 여성인권·평화문제 연구 및 대응
- ③ '반전평화여성행동'을 통한 사안별 공동행동 조직과 공동실천

4)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실현을 위한 동북아 시민사회와 연대

Ⅰ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형성을 위한 한국여성과 시민사회의 연대 지속 및 협력플 모색.

Ⅱ 무력감동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PAC) 동북아 지역네트워크와 연대.

- 3월초 GPPAC동북아지역협의회 금강산에서 개최 지원

2-2 갈등해결센터

소장 : 박수선

1. 전체 사업목표

- 갈등의 평화적 해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한다.
- 학교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다양한 갈등해결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 갈등해결센터의 활동 강화를 위한 기반으로써 회원 확보에 힘쓴다.
- 사회갈등 예방과 평화적 해결을 위한 활동 기반을 넓힌다.
- 갈등해결의 적용 영역을 넓힐 수 있는, 특히 통일과정에서 갈등해결의 의미 및 실천의 영역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여 질적 내용적 확대에 힘쓴다.

2. 조직

- 1) 운영위원회/갈등해결센터 사업 전반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의사결정구조
당연직 운영위원(센터 장 박수선, 팀장 여혜숙(청소년교육팀), 박재근(사회갈등분석팀), 본부 사무처장 최선희)
일반 운영위원(김학묵, 박인혜, 이재영, 여혜숙, 조영희, 최안전경, 최정현진)
- 2) 연구원 모임/강사트레이닝, 사회갈등조정연구 등 논의 및 사업 진행
김학묵, 이재영, 최정현진
- 3) 청소년교육팀/청소년 교육 관련 사업 논의 및 진행
여혜숙(팀장), 김선희, 김영진, 김학묵, 박인혜, 박홍나미, 여혜숙, 이덕경, 이현주, 조영희, 최정현진 김보경, 유정은, 최안전경, 박경옥, 임선복
- 4) 사회갈등분석팀/사회갈등 분석 및 갈등해결 관련 학습 및 사업
김선희, 김영진, 김재근, 박재근, 박홍나미, 이덕경, 이항진, 이현주, 조영희, 박수선
- 5) 릴레이/센터 회원 모두 참여하는 소통의 장, 회원 스스로 진행하는 교육의 장
매월 1회(셋째주 화요일) 센터 전체 회원 참여 모임

3. 주요 사업

1) 대상별 주요 교육 사업

(1) 교사대상 갈등해결 교육

다양한 물로의 교사대상 갈등해결 교육을 기획, 진행한다.

(2) 지역 ngo 활동가 대상 갈등해결, 중재 훈련

-지역갈등, 사회갈등의 중심이 된 지역 중심으로 NGO활동가 및 여론주도층 대상으로 갈등의 평화적 해결, 조정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청소년 대상 갈등해결, 평화 교육

① 초중고생 대상 갈등해결교육을 확대한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대상, 기간, 내용, 방식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연간교육: 신목중학교 등

-움직이는 '갈등해결과 평화' 학교 운영

지속적 교육과 함께 갈등해결 교육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목적으로 단기, 장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학교, 학생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함.

-학교폭력 예방에 초점을 맞춘 교안 연구: 2006년에는 특히 학교폭력예방에 초점을 맞춘 전문교육을 개발하여 갈등해결과 평화교육의 확산을 도모한다.

② 청소년평화리더십캠프 운영: 연중 정기 캠프를 기본으로 수회의 1박2일 연속 캠프를 모색한다.

③ 학부모 교육

④ 기타: 간부수련회, 수련관, 학부모교육, 일반인 대상, 다양한 리더십 등을 모색한다

(4) 대학생 갈등해결과 평화 캠프

-청년회원 및 평화활동가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2006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5) 제4기 강사 트레이닝(회원 확보 및 갈등해결 교육 확대)

(1) 강좌 내용 및 방식

기초, 심화, 실습 3단계로 나누어 진행

○ 1단계: 기초-평화적 갈등해결의 이론 및 방법에 대한 기초적 이해(2박 3일 워크숍 진행) 3월 10-12일

전체 교육프로그램 소개, Community Building

갈등해결(Conflict Resolution)에 대한 기초적 개념, 필요성 등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프로그램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그림을 그려본다.(평화, 갈등해결교육의 의미 및 현재와 미래, 갈등해결의 여러 방법-중재, 창조적 문제풀기, 대화, 의사소통 등) 장소: 우이동 소재 봉도청소년수련원

○ 2단계: 심화-기초에서 전반적인 틀에 대해 이해한 것을 각 부분마다 심화 학습 및 훈련(주 2회 3시간씩 12강좌)

1차 갈등해결과 평화교육(3/20 일 오후 6시 30분)

평화교육의 필요성과 평화교육의 한 내용으로서의 갈등해결 교육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한다.

2차: 갈등해결의 법, 제도 이해(3/22 수)

갈등해결 관련 법과 제도의 외국 사례와 우리 사회의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법, 제도적 모색을 살펴본다.

3차 갈등의 원인 분석의 여러 방법(3/27 월)

*갈등해결의 첫 과정인 분석에 대해 심화한다. 사례를 가지고 분석과 전략제우기에 대해 실습한다.

4차 갈등해결의 방법-합리적 의사결정 방법(3/29 수)

*다양한 의사결정방법, 상황과 내용에 맞는 효과적 의사결정방법을 익힌다.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실습을 통해 창의적 대안능력을 키운다.

5차 기본적 기술인 의사소통기법1/듣기와 말하기(4/3 월)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효과적인 듣기와 말하기 방법을 훈련한다.

6차 기본적 기술인 의사소통기법2/문제를 해결하는 말하기 실습(4/5 수)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말하는 법'을 훈련한다.

7차 분노조절(4/10 월)

*화가 나는 이유, 화가 났을 때의 행동 등을 객관화하고,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에 대해 배우고, 모색해본다.

8차 편견 다루기(4/12 수)

*서로 다른 차이가 고정편견, 편견 등을 통해 차별화되는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편견과 강한 감정을 다루는 법을 훈련한다.

9차 갈등해결의 방법-협상의 원칙과 방법(4/17 월)

*실습을 통해 자신의 목표, 타인의 목표를 이해하고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협동적 협상을 배운다.

10차 갈등해결의 방법-조정(4/19 수)

*조정과정을 실습한다.

11차 관계의 회복/회해와 치유(4/24 월)

*문제해결뿐 아니라 관계의 회복과 근본적 치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비폭력적 사회 변화에 대한 전망을 해본다.

12차 중간평가(4/26 수)

○ 3단계: 적용-앞에서 이해하고 훈련한 것들을 실제 청소년 대상의 진행자로서 진행
실습 및 평가, 교안 만들기, 참관 실습(3시간씩 2강좌, 참관실습, 실습워크숍)

1차 갈등해결교육 진행 방법론(5/1 월)

*평화의 가치, 기술, 태도의 내용을 함양시키는 평화, 갈등해결 교육의 교육방법론에 대해 이해한다.

*2003-5년 진행된 학교 창의제량과 CA반 등에서 진행되었던 갈등해결 교육의 사례를 듣는다.

2차 어린이 청소년 대상 갈등해결교육 프로그램 디자인과 진행방법(5/3 월)

**“갈등해결과 평화” 수업의 전체 프로그램을 디자인해보고, 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의 원칙 등을 검토한다.

3차, 4차 참관 수업

5차 수업교안 만들기(5/13 토)

6차 수업교안 만들기(5/13 토)

7차 수업교안 만들기(5/20 토)

8차 수업교안 만들기(5/20 토)

9차 수업교안 만들기(5/27 토)

*그동안 배운 내용을 기초로 수업의 구체적 교안을 만들고, 프리젠테이션 실습을 통해 평가, 수업 진행능력을 높인다.

*참가자들이 교안 만들고, 시연 실습

10차 평가 및 전파 및 수료식(5/27 토)

*교육의 전과정과 상반기의 창의제량수업 진행을 평가하고 한국사회 갈등해결의 제도적 문화적 확산과 정착과 학교의 평화문화 증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본다.

○ 움직임이 ‘갈등해결과 평화학교’ 강사로 참여: 교육 이수 후 갈등해결 교육 강사로 출강하도록 한다.

○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갈등해결 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하도록 한다.

2) 평화적 갈등해결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선전활동

- (1) 각 프로그램별 자료 정리, 소책자 발간: 그간 진행되었던 교육사업 및 내용들을 자료화하여 소책자를 발간한다. 내용적인 홍보, 선전의 역할과 함께 재정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한다.(분야별 소책자 발간계획-사회갈등의 예방 및 해결, 청소년교육 매뉴얼, 갈등해결기초 등등)
- (2) 영상자료 개발: 효과적 교육을 위해 영상을 이용한 교육자료 개발 및 제작

3) 제도적 접근을 위한 사업

(1) 학교내 갈등해결 프로그램의 제도화 노력

청소년개발원의 토래 상담교육의 운영과 같이 토래중재반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교사연구과정에 의무화하는 방안들을 추진한다.

(2) 국내의 청소년 평화문화 소개 및 교류

다른 교육사례와 다른 프로그램의 제도화 과정을 조사하고, 학교폭력의 현황이나 토래중재 교육의 효율성을 논증하며, 공론화 방안으로 토론회를 조직하며, 법제화, 법안 등에 대한 방안을 강구한다.

(3) 학교 평화, 갈등해결교육의 필요성 및 공교육화를 위한 열린 대화(학교 폭력, 갈등해결과 평화교육으로 예방하자! 토론회) 개최

1월 24일(화) 오후 3시~6시, 인권위원회 배움터

(4) 갈등예방을 위한 공약 요구: 2006년 지방자치선거를 맞아 후보자들에게 선거공약 시 공약사업 이행방식과 과정까지 공약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하여 사회갈등 예방의 필요성과 평화적 갈등해결문화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인식을 확산한다.

4) 프로그램 연구, 개발

(1) 청소년교육 관련 교안 연구 : 토래중재, 통일교육, 소책자, 연명대법

-교구개발 : 워크북, 동영상, 교재교구

-프로그램 개발

-평가척도 연구

-내부교재 : 교육방법론, 시나리오, 워크시트 등

(2) 사회갈등사례 연구:

- 사회갈등 과정에 있는 지역공동체 현황 파악 및 공동체 복원 및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

- 평화적 사회변화의 관점에서 본 성공적인 갈등해결의 기준 등

(3) 대화 및 회의진행(Facilitation)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여러 회의 및 의사결정, 대화과정의 진행기술과 관점에 초점을 맞춘 진행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5) 조직 강화 및 확대

-그간 교육참가자들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노력

-회원 재교육/윌레피

월례회의 질적 강화, 외부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육 진행자들의 재교육과 훈련 확대 지원

-전문강사를 형성, 강화

청소년교육뿐 아니라 일반 주부 대상, 공무원 대상 등 다양한 층을 대상으로 교육 진행할 수 있도록 강사들을 형성하고, 각 대상별 교육 내용을 전문화할 수 있도록 함/재교육과 훈련, 내부 매뉴얼 작업 등

6) 국제연대

국제비폭력평화세력(Norviolent Peace Force International), Center for Nonviolent Communication(NVC) 등 갈등예방, 해결 관련 국제단체와의 연대

4. 년 계획표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회의	운영위원회(월1회), 청소년교육팀(월1회), 사회갈등분석팀(월2회), 월례회(월1회)	←	—	—	—	—	—	—	—	—	—	—	→
2. 홍보	학교 교육 홍보물 제작	←	→										
	분야별 소재자 발간 홍보 및 협의(연중, 각 학기 초에 집중)	←	→			←	→	—	—	→			
3. 교육 프로그램 선행	학교 인간교육			←	—	—	—	—	—	—	—	—	→
	움직이는 '갈등해결과 평화' 학교	←	—	—	—	—	—	—	—	—	—	—	→
	청소년 리더십 캠프							←	→				
	제4기 '갈등해결과 평화' 강사트레이닝			←	—	→							
4.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사업	NGO 활동가 대상 갈등조정훈련	←	—	—	—	—	—	—	—	—	—	—	→
	교사대상 갈등해결 교육	←	—	—	—	—	—	—	—	—	—	—	→
	대학생 캠프							←	→				
	청소년대상교안, 교구, 평가척도, 내부 교육 프로그램 개발	←	—	—	—	—	—	—	—	—	—	—	→
5. 제도적 정근을 위 한 사업	사회갈등사례 연구	←	—	—	—	—	—	—	—	—	—	—	→
	진행(Facilitation)관련 교육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	—	—	—	—	—	—	—	—	—	→
	학교 갈등해결과 평화교육의 필요성 토론회	←	—	—	—	—	—	—	—	—	—	—	→
6. 기타	갈등예방을 위한 음악 요구(연구 및 문제제기)	←	—	—	—	—	→						

2-3. 일상평화센터

소장 : 김정수

1. 2006년도 사업목표

2006년 일상의평화센터는 여성주의 평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 그리고 평화심성팀이 지난 해 새롭게 시도한 평화퍼포먼스의 발전 및 평화심성훈련 프로그램 실시 등을 진행하고자 한다. 더불어 소모임의 활성화를 통해 여성들의 일상의 평화심성 및 평화감수성을 개발하며 이를 전체 평화여성회의의 조직적 활성화와도 연관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키고자 한다.

2. 주요 사업 방향

- 1) 평화심성과 평화감수성 형성을 위한 문화적 표현양식 개발과 사회화 모색
- 2) 평화노래모임, 평화와 미디어모임 등 소모임 활성화
- 3) 여성평화아카데미를 통해 여성주의 평화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
- 4) 평화심성훈련프로그램 개발과 실시

3. 조직

1) 평화심성팀:

- 활동내용: 평화심성, 평화감수성개발과 사회적 평화와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식 개발 및 평화여성회 전체 프로그램에 참여 및 자원활동을 통해 조직의 친밀감과 구성원의 결속을 도모한다

팀장 : 문명너

- 팀원 : 이나호, 박예경, 황순영, 오상남, 김신희, 김현숙, 김현진, 장경화, 김현희, 김혜진, 김정수,

4. 회의 및 모임

1) 일상센터 월례모임

- ① 월 1회 정례회의
- ② 필요시 수시회의

2) 평화심성팀/왕언니들의 평화노래모임/평화미디어 모임 등 소모임

목적: 기존의 평화심성팀은 더욱 활성화시키고 새롭게 시도하는 소모임은 안정적

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 ① 월1회 정례회의
- ② 필요시 수시회의

5. 사업

1) 제4차 평화심성훈련

가. 일시 및 장소 : 미정

나. 내용: 비폭력 평화주의 내용을 평화심성과 평화감수성 차원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

다. 프로젝트 제출처:

2) 제9차 여성평화아카데미

가. 일시 및 장소 : 2006년 봄/가을 강좌 각 5회씩

나. 내용: 여성평화운동에 대한 전반적 내용 - 2006년 봄
여성과 군사주의/여성안보 담론 등의 주제 - 2006년 가을

3) 기타 사업

가. 내용: 평화심성팀 Peace Performance와 왕언니들이 평화노래 모임 등 시기별로 적절하게 공연

2-4 회원참여센터

(소장: 최선희)

1. 사업목표

- 1) 회원으로서의 정체성 및 자부심을 키워나간다.
- 2) 여성평화운동에 대한 이해의 장을 마련한다.
- 3) 평화운동의 소모임을 마련한다.
- 4) 회원화대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확대를 마련한다.
- 5) 평화여성회의 활동을 대내외적으로 알려나가고 회원들의 소식을 담아낸다.
- 6) 안정적인 재정마련을 위해 재정사업을 기획하고 마련한다.

2. 사업방향

회원에 대한 분석과 자료화를 통해 회원의 욕구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며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여타의 사업이 회원배가운 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도모하며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인다.

3. 사업내용

1) 회원사업팀(팀장: 문명녀 팀원: 정유진, 송소희, 김현희, 김선량)

- 월 1회 회의 정례회의와 사안에 따른 임시회의 개최
- 회원의 지속적인 참여와 확대를 위해 회원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한다.

- ① 회원소모임 활성화
- ② 회원 만남의 날
- ③ 회원 확대사업
- ④ 회원의 분석과 관리
- ⑤ 신입회원교육
- ⑥ 회원한마당

2) 회지발행팀(팀장:홍승희, 팀원: 장정화, 장성순, 박수선, 김현희 등)

평화이슈, 일상에서의 평화만들기, 국제평화운동 소식, 등을 담아 연 2회 회지를 발간하여 회원과 단체에 발송하도록한다.

회의: 발행기획과 평가를 위해 년 4회 정도 개최한다.

-자료와 정보로서의 가치

-회원상호간의 소식

3) 재정사업팀(팀장: 최선희, 팀원:)

-재정사업은 평화여성회 전체 사업으로 가계가되 주무부서를 회원참여센터로 한다.

-년 1회의 후원행사를 진행한다.

-재정확보를 위한 사업을 발굴 진행한다.

2-5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심영희)

1. 사업기조- 방향과 목표

국내 여성평화 운동을 주도하는 평화여성회의 Think-Tank로서 활동 정책개발과, 기초 이론 생산 활동에 주력 하며, 연구활동이 광범위한 영향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다. 특히 올해에는 평화여성회의 중요 이슈 관련 해당부서와 결합하여 실용적인 정책개발에 힘쓰도록 한다.

- 1) 여성 평화, 통일 운동의 이론 정립과 확산을 위한 연구 활동 전개
- 2) 평화여성회의 중요 이슈 관련, 해당부서와 결합하여 실용적인 정책개발에 노력 경주
- 3)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진행 (3월부터 격주로)
- 4) 여성 평화, 통일 전문 연구 인력 양성, 확보 인력 풀 구성

2. 사업계획

- 1) 여성과 평화 5호 발간
- 2) 한국여성평화운동사 발간 마무리 (한국여성재단 프로젝트)
- 3)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평화세미나 진행
- 4) 정기 이사회 개최
- 5) 여성 평화-통일 운동의 정책생산을 위한 연구 활동 전개

2-6 정보사업

1. 사업기조 - 방향과 목표

평화운동은 인터넷을 검색하는 작은 일부부터 시작하여, 현장에서의 감시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운동을 요구한다. 일상생활에서의 비폭력적인 생활문화 형성과 실천을 위하여 대중적인 생활지침들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평화문화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대중친화적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평화로운 실천을 생활화 하도록 한다.

따라서 사이버 시민사회의 확대에 따라 사이버 평화운동 역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이버 평화운동의 영역은 사이버 공간의 활동을 심화

함으로써 젊은 층의 관심을 확대시키고 회원활동을 촉진시킨다.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웹진(뉴스레터) 발행과 사이버 공간의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사이버 평화운동을 확산시킨다.

2. 사업계획

(1) 평화문화 확산 온라인 캠페인

온라인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일상 평화 센터의 평화문화 확산 캠페인, 한반도 센터의 반전 캠페인 등 오프라인 평화 활동을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의 온라인 캠페인으로 진행한다. 단순한 온라인 활동으로의 전환 뿐만 아니라, 온라인 평화운동의 영역을 개발, 구축하여 새로운 전형을 창출한다.

(2) 홈페이지 리뉴얼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홈페이지를 리뉴얼 하는 중이다.

예시) 자료 접근성 향상, 자료 분류 체계화(수록 기준 수립과 양식 체계화), 자료 검색 시스템 제공, 비디오 스트리밍 제공

(3) 홈페이지 방문자 확대를 위한 전략 수립과 시행

평화여성회 홈페이지 방문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체 접속자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증설한다.(회원 커뮤니티, 회원간 쪽지 주고 받기, 회원간 채팅 기능, 회원 사진 올리기 등)

(4) 자료 보존과 시스템 안정성 확보

평화여성회 영향력 확대에 따른, 온라인 공격에 대비 정기 데이터 백업(월 1회)을 실시하며,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운용한다.

2-7 특별사업 : 1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사업안

1. 조직: 평화여성회 1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 1) 자문위원: 평화여성회 이사장, 이사, 전 공동대표, 시민사회, 여성운동, 평화전문가 등 각계에서 위촉
- 2) 준비위원회: 심영화, 박정숙, 김숙임, 김정수, 최선희, 정경란, 박수선, 조영희, 김엘리
- 3) 준비소위원회: 김숙임, 김정수, 조영희, 최선희
- 4) 실무자:

2. 사업내용

1) 2006년: 10주년 준비를 위한 정책토론(월1회)

목적: 평화여성회 지난 10년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발전전망과 방향성 찾기

(1) 평화여성회 역대 공동대표와의 간담회

주제: 평화여성회의 역사에 대한 회고, 평가, 전망

(2) 여성연합과의 간담회

주제: 여성운동에서 평화운동의 위치, 역할, 확대방안, 여성연합이 보는 평화여성회 운동의 비전과 전망

(3) 평화운동진영과의 간담회

주제: 평화운동에서 평화여성회 위치, 의제 설정, 연대의 의미 등

(4) 통일운동 진영과의 간담회

주제: 통일운동단체와 활동가들이 보는 평화여성회, 제언과 향후 방향 등

(5) 여성평화운동과의 간담회

주제: 여성주의/젠더적 관점의 여성평화운동의 의미, 주제, 과제와 평화여성회의 고유한 역할 모색

(6) 전문가 집단과의 간담회

주제: 여성주의 평화운동의 담론형성을 위한 논의

(7) 회원들과의 토론회

주제: 초기부터 활동한 회원들과 함께 “우리/내가 바라는 평화여성회 운동(과거, 현재, 미래) - 2회 이상

(8) 언론인과의 간담회

(9) 평화운동가와의 간담회

주제: 평화운동의 장기적 비전 수립

우리가 바라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미래상 그려보기

(10) 10주년 위원회 내부 주제별 토론회

- 전망과 아젠다 발굴과 중장기적 전략수립
- 조직발전 전망
- 한반도 평화센터/ 갈등해결센터/ 일상평화센터/ 회원참여센터/ 연구원 / 국제연대 등

2) 2007년 10주년 기념사업

- 여성평화운동 국제심포지움
- 여성평화 축제(각 센터별 내용 반영)
- 10주년 기념출판: 평화여성회 10년과 향후 20년을 향한 Vision 수립
- 10주년 기념 영상자료

월별사업계획표

사업일	사업분야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한반도 문화 센터	515실천여성본부 활동	토론회				행사		행사	행사				
	토론회 및 평화기행	준비모임				행사		평가					
	평화재정립심 및 의제개발/ 및/ 세미나(군축과 센터)	사안별 토론회											
	미국의 한반도 정책대응	준비			행사		행사						
일상평화 센터	4차 평화심심훈련	필집 미집											
	여성평화아카데미	준비		행사		준비		행사					
	평화포럼연스 외	사 안 별											
활동배경 센터	교사대상교육	교육											
	지역NGO대상교육	일집 미집											
	청소년, 대학생 대상교육						청소년 캠프						
	사회활동 사례연구 외	연중											
	4기 길사르레이닝	준비		행사									
	홍보, 실천활동/토론회	연중											
	국제연대												
회원참여 센터	후원의 밤									행사			
	소식지발간	준비		발간		준비		발간					
	회원소모임	연중											
	회원편아달							행사					
	신입회원교육	연중											
	cms확대/재정사업	연중											
한국여성 평화 연구원	여성과평화 5호	준비								발간			
	평화세미나	분기별 세미나 및 준비 발간											
	한국여성평화운동사	발간											
국제위	국제여성평화운동연대	사안별											
	5.24 행사 국제연대	준비		행사									
정보사업	월간 발행, 온라인 평화 웹페이지	연중, 사안별											
연대	평화를위한연대, 기타	사안별											
10주년기념사업	간담회, 질책토론 외						연중						

부 록

- ■ 정관 및 운영규정
- ■ 조직구성표
- ■ 남북관계기본발전법 시민단체안
- ■ 성명서
- ■ 평화여성회 발간자료 목록
- ■ 신문기사 모음

정관 및 운영규정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① 이 단체는 사단법인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편의를 위해 '평화여성회'라는 약칭을 사용한다.

② 본회의 영문표기는 Women Making Peace로 하고 약칭은 W.M.P.로 한다.

제2조(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여성의 힘을 모아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자주적 통일을 이루고, 나아가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주의적 관점과 평화적 관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통일평화사업: 평화체제 구축과 민족통일을 위한 제반활동
2. 통일·평화교육사업: 통일·평화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홍보 사업
3. 통일·평화연구사업: 통일과 평화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4. 기타 본회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과 국내외 연대활동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국내외 개인으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가입)

1. 본회의 회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2. 본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본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본회의 활동상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정관을 준수한다.

2. 본회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 회비를 납부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본회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로 환급되지 않는다.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공동대표 3인 내외
2. 이사 5인 이상 11인 이하
3. 감사 2인
4. 사무총장 1인, 사무총장은 당연직 임원이 된다.

제12조(임원의 선출)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임원은 공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공천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 5인 내외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인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2. 임원은 임원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삼촌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위 1번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4. 선임된 임원은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지도위원은 전임대표들로 구성하고, 본 회 활동에 관한 지도 및 조언을 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1. 공동대표,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1. 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의장이 된다. 이 중 1인이 상임공동대표를 맡으며 본 회의 제반업무를 관장, 관할한다. 또한, 공동대표중 1인은 병설 한국

여성평화연구원의 원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5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제16조(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①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총회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할 때

④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17조(총회 개최 및 통지) 공동대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2. 단체(법인)의 해산 및 정관 채택과 개정

3. 재산의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증

4. 예산 및 결산 승인

5. 사업의 기본정책과 방향 결정,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주요한 사항 의결

제19조(총회의 의결)

1. 총회 구성 및 의결은 총회 참석자로 한다.

제20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21조(구성) 이사회는 본회의 집행기관으로서 공동대표와 이사들로 구성하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22조(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일년에 두 번하고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②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 ③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4.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이사회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6. 감사는 필요한 경우 이사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7. 이사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기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업무의 집행
2. 사업계획의 운영
3. 예산결산서의 작성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변경 발의
6. 재산관리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작성
9. 회원의 제명
10. 결원이 된 임원의 선임
11. 기타 대표가 부의 하는 사항

제 6 장 제 정 (재산 및 회계)

제24조(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이며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5조(재산의 관리)

1. 기본재산을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등으로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재정수입)

1. 본회의 재정수입은 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2. 회원의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2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28조(세입 세출예산) 본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2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하도록 한다.

제30조(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장 사 무 부 서

제31조(사무처) 본회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제32조(구성 등)

1. 사무처에는 총장 1인과 약간 명의 실무자를 두되, 사무처장은 대표단이 추천하여 이 사 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2. 실무자는 사무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실무자의 인사 및 복무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 8 장 보 칙

제33조(정관제정 및 개정)

1. 정관의 제정은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

2.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회의 결의에 따른 요구에 의하여 발의한다.
3. 발의된 정관 개정안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법인해산)

1.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본회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하도록 한다.

제35조(결산) 공동대표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산 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운영규정) 본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37조(기타) 본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통일부 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7. 3. 28 제정
 1998. 2. 10 1차 개정
 1999. 3. 4 2차 개정
 2000. 1. 25 3차 개정
 2001. 1. 28 4차 개정
 2002. 1. 25 5차 개정
 2003. 1. 28 6차 개정
 2004. 1. 9 7차 개정

운영규정

제1조(운영위원회) 이사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본회 상설의사결정기구로서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가 있다.

1. 구성 :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 각 센터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센터위원, 위원장, 서기, 회계, 사무처장으로 구성하고 사무처는 배석 가능하다. 병설기관인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의 원장도 운영위원이 된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총회에서 최종 승인한다.
2. 임기 :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3. 직무 :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결의된 주요사업과 일상적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한다.
4. 소집 :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갖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갖는다.
5.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조 (조직) 본회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반도평화센터, 일상평화센터, 관동해결센터, 회원참여센터, 국제협력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두며,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을 둔다.

1. 구성 : 센터에는 1명의 소장, 각 사업 팀장과 약간명의 위원을 둔다.
2. 직무 : 각 센터 소장과 팀장은 각 센터와 팀을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관장 및 집행을 한다.
3. 선출 : 각 센터소장과 팀 위원은 운영위원회 추천을 통해 대표가 위촉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4. 운영 : 각 센터(위원회)는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규칙을 둘 수 있다. 운영규칙은 전체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다.

제3조(자문위원회) 본회는 본회 활동에 관한 자문을 줄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공동대표가 위촉한다.

제4조(전문위원회) 본회는 본회의 활동에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공동대표가 위촉한다.

1999. 3. 4 1차 개정

2000. 1. 25 2차 개정

2002. 1. 25 3차 개정

2004. 1. 9 4차 개정

갈등해결센터 운영규칙

제1조(운영위원회) 본회 운영규정에 따라 갈등해결센터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갈등해결센터 운영위원회는 센터 상설직사결정기구로서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가 있다.

1. 구성 :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운영위원(센터의 장, 센터 내 팀장, 본회 사무처장)과 일반 운영위원 등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센터의 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일반 운영위원은 본회 갈등해결센터 사업에 관심과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운영위원 2인 추천과 재직위원 1/3 이상의 동의로 선출한다.

2. 임기 :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직무 : 운영위는 총회에서 결의된 센터의 주요사업과 일상적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한다.

센터 운영위원 중 2인은 본부 운영위원으로 본부 운영위원회에 참여한다.

운영위는 예산집행 재확을 수립하고 집행의 책임을 갖는다.

4. 소집 :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갖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갖는다.

5. 의결 :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조 (조직)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제에 따른 상설적인 팀과 임시 활동을 위한 팀을 둘 수 있다.

1. 구성 : 팀은 3인 이상의 회원의 구성 요구,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팀 구성 결의가 있을 때 구성할 수 있고, 팀장은 호선한다.

2. 직무 : 팀장은 팀원의 지향과 과제에 맞는 다양한 활동 및 회의를 관장, 주재하고 센터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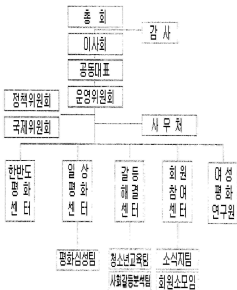
3. 운영 : 각 팀은 팀원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제3조(예산 집행) 갈등해결센터의 예산은 본회 교부예산과 센터 독자예산으로 구성된다. 예산의 집행은 교부되는 예산은 평화여성회에 따르고 독자적인 예산은 갈등해결센터 예산집행에 따른다.

제4조(기타) 본 운영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정관과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2004. 1. 9 제정

평화여성회 조직구성표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에 관한 시민단체 의견서

-올바른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며

남북관계가 크게 진전되고 있는 것에 반맞춰,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토대로서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제반 남북관계 법률들이 남북관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성격에 대한 법적 규정이나, 남북합의 사항의 법적 실효성을 확보해줄 법체계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남북당국이 남북관계의 기본 성격을 규정하고 남북사이의 교류협력과 불가침에 합의한 1992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 합의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남북기본합의서는 지금까지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기본성격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법률로서 법적 실효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는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열린우리당 임재경 대표발의)과 '남북관계기본법안'(한나라당 정문헌 대표발의)이 제출되었으며, 이에 참여연대는 '남북관계기본법입법의견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의원입법안으로 제출된 두 법안은 남북기본합의서의 기본 정신과 내용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 법안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임재경안은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 수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보다는 통일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편의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는데 그치고 있어 남북관계에 관한 기본법적 지위를 갖는 법률안으로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미흡한 법안을 보완, 발전시키기는 보다는 '기본법'대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여 법률 제정을 연내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애초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 취지에서 후퇴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을 서둘러 제정하려는 국회 통외통위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국회 움직임은 법 제정의 의미를 훼손시키는 것이며 애초 법제정 취지에도 벗어나는 것이다. 국회 통외통위가 진정으로 남북관계 관련 법제들을 정비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면, 일반 법률 제정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제반 법률들에 대한

기본법적 지위를 갖는 남북관계기본법을 충실하게 만드는데 노력해야 마땅하다. 국회는 국제 정세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온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기틀을 공고히 하는데 있어 중대한 역할을 국회 스스로 자임해야 한다. 우리는 올바른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이 바로 국회의 소임이라고 본다. 그리고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야야말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대북정책의 투명성 및 지속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대북정책을 둘러싼 시민사회 및 정치권의 소모적인 대립과 혼란은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올바른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을 통해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과 내용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고,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대북정책 수립과정의 민주성, 정책 추진의 합법성, 투명성, 그리고 일관성 등을 보장하는 법제도적 기본 틀로서 남북관계기본법이 제정되도록 힘써 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중차대한 남북관계기본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 국회가 폭넓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경청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다시 한번 국회 통의통위가 올바른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에 노력할 것을 제차 촉구하면서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에 관한 시민단체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명칭과 관련하여

- 예초 법률 제정의 취지는 남북관계의 기본적 성격을 규정하고,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의 합법성을 부여하는 한편 변화된 남북관계 현실을 반영하여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었음, 남북관계 관련 법제적 정비 차원에서라도 제반 남북관계 법률보다 우선 적용을 받는 상위법으로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법률의 기본법적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 '남북관계기본법'이라는 명칭이 합당할 것임.

2. '목적' 조항과 관련하여

- 입법정당 은 제1조 목적 조항에서 "이 법은 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권리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위 목적 조항만으로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취지와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1992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현행 남북관계를 총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전명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또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은 본격적인 남북화해와 교류의 새 장을 연 것과 동시에 정부 및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 활동의 기본 정신으로 자리 잡고 있음. 따라서 '기본

법'은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온전히 반영하여 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발전을 지향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목적 조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되어야 함.

- (2안) 제 1조(목적) 이 법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기틀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1992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승하며 이에 기반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기본 원칙'조항과 관련하여

- 국회 통일통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기본 원칙과 관련, 임재경 안은 남북관계발전 원칙으로 "자주·평화·민주"를, 한나라당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의 통일원칙을 준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통일의 기본원칙에 있어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되고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거듭 확인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을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음. 따라서 기본원칙 조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되어야 함.

(기본원칙) 남북관계의 발전은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며,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공동번영의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과 관련하여

- 임재정안은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에서 "① 이 법 중 남북회담대표, 대북특별사절 및 파견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이 법률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이것은 기존에 상충하고 있는 남북관계법령의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인적교류상의 편의를 위한 규정에 그치는 것임.

- '기본법'을 통해 남북관계의 성격 및 발전방향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기본법'이 재반 남북관계 법률보다 상위법이며 이에 따라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함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해야 함.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남북관계에 관한 기본 법률로서 남북관계 설정 및 발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5.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의 책무와 관련하여

· 임채정안은 제2장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의 책무와 관련하여 제6조에서 제11조까지 정부가 한반도 평화증진과 남북경협, 민족통일성 회복 그리고 인도적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한반도 평화증진이 ‘기본법’의 주요목적이기도 한 만큼 이에 관한 보다 분명한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동서독 기본조약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분단국의 평화공존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는 서로에 대한 침략의지를 배제하는 것임. 그 동안 남북이 서로에 대한 불가침 의지를 밝혀왔고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합의한 만큼 이 조항에는 불가침과 군비 감축 의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건전한 국민여론 형성 노력과 남남 갈등 해소 노력 등을 정부의 책무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정부의 책무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되어야 함.

(정부의 책무) (한반도평화증진) ① 정부는 남북 사이의 갈등과 충돌 예방에 노력하며, 남북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남북불가침 원칙 하에 한반도 비핵화와 군비감축을 위해 노력하며, 남한과 북한간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⑦ 정부는 남남갈등 해소를 통한 사회적 통합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건전한 국민여론 형성에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평화 및 통일교육 계획 등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대북지원) ⑩ 정부는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대북지원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성명등성확대) ①정부는 남북관계 발전 및 교류협력에 관한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명등의 원칙을 견지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 ‘재정상의 조치’와 관련하여

(1) 임채정안은 제12조(재정상의 조치)와 관련하여 “정부는 제6조 내지 제11조에 규정된 정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정부의 한반도평화증진 등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데에 반례 이를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 조치에 대해서는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그 동안 정부(국가)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해 대북 사업을 추진해왔고, 남북관계가 급진 전면에 따라 기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원활한 대북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 예산의 일정비율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출연하여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도록 해야 함. 이를 통해 기금 집행의 투명성,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재정상의 조치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되어야 함.

(재정상의 조치) 정부는 이 법에 규정된 정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정부 예산의 일정비율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출연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7.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의 필요성

- 임채정안은 제 13조에서 정부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통일부 장관이 이를 확정하며 제14조에서 통일부 산하에 (가칭)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등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통일부와 관계 부처가 함께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때, 통일부 산하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이러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위상 역시 통일부 정책에 대한 자문기구에 불과하여 정책적 의견을 반영하거나 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도 명시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음. 뿐만 아니라 임채정 안은 통일부 장관이 확정하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국회 보고 의무만 부여하고 있을 뿐 그 집행결과를 보고, 평가하는 어떤 조치도 담고 있지 않음. 결국 임채정안의 관련조항들은 통일부 위주로 다개년계획을 수립, 결정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임채정 안의 관련조항들은 남북관계 관련 정책수립 및 결정에 있어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배제한 채 권위적으로 통일부 차원의 정책결정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면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

- 남북관계 발전방향과 기본계획의 결정은 통일부 차원을 넘어 국가적으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안임. 이를 위해 국민 여론이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남북관계발전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하는 등 위원회의 강화된 위상과 중요한 역할을 기본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 대한 최소요건으로 다음을 제안함.

[의의] 소모적인 정쟁을 떠나 남북관계에 대한 일관된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제정당을 비롯한 각계의 사회적 행위자들이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필요하다

[위상] 사회적 합의기구(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통일부 산하에 두어서는 안되며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어야 한다.

[성격 및 기능]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남북관계·통일정책에 대해 제정당, 관련 경제주체 및 경제전문가, 각 부문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적 행위자들이 함께 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통일원칙과 방안을 공고화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된 중장기 방향을 심의·의결하며, 필요할 경우 최근 중요해지고 있는 민간외교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재인의 전문성이 아니라 사회적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 성이 7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위원의 구성은 관련 부처 장관 등 정부 관계자 외 국회 및 대통령이 각자 정당과 시민사회 인사들을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추천하여 국회동의를 얻은 인사로 임명하고, 통일부장관이 간사위원을 맡는다.

[사무처와 소위원회] '위원회'는 각부의 충실한 수행을 위해 사무처와 각종 소위원회(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각종 소위원회(전문위원회)는 관련부처 공무원과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심의·의결] '위원회'는 통일부가 제출하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는 한편, 이 기본계획의 기초가 되는 통일원칙과 한반도 평화체제 방안 등 남북관계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수립하여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통일부를 비롯한 해당 정부 부처의 계획에 반영토록하며,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의결사항을 존중하고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위원회는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부처, 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8. '남북회담대표'와 관련하여

- 임세정안은 제3장은 제15조에서 제20조에 이르기까지 남북회담대표의 임명과 수석남북회담대표, 회담관련 지휘, 감독 등에 대해 자세히 명시하고 있음. 이것은 남북회담의 법적 성격과

대표성을 부여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동안 남북관계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그러나 ‘기본법’의 성격상 남북회담 대표의 임명근거와 활동범위에 대한 기본사항만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남북회담대표를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임무와 지휘 감독을 일일이 명시하는 것은 시행령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9. ‘경과규정’과 관련하여

- ‘기본법’의 목적에 해당하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아직 국회에서 정식으로 비준되지 않은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 부칙에 기존 남북합의서 등의 효력을 법률에 의해 소급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부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경과규정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되어야 함.

(경과규정)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이 법 시행 전에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남북합의서는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한다.

2006. 10. 18

KYC(한국청년연합회), 서울 YMCA,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통일교육문화원,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포럼, 한국여성단체연합, 홍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2005년 성명서 모음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

여성본부 발족선언문

오늘은 우리 민족의 통일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역사적인 날이다.

2000년 615공동선언 합의 후 지난 4년은 남북 민간교류활동의 획기적인 성과를 이루어냈으며, 각계각층의 절절한 통일열망을 담아내는 민족의 화려한 통일대장정이었다. 이제 지난 4년간의 남북 민간교류협력의 성과를 기반으로 각계각층이 폭넓게 참여하는 통일운동의 물꼬 보다 발전적이고 새로운 차원의 통일과정을 열기 위해 남북해외는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이하, 공준위)>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남북여성교류와 통일운동을 전개해왔던 우리 여성들은 새롭게 전개될 남북 민간교류와 통일과정에 여성주의 입장을 견지하며 한반도 통일이 국제적 연대와 바람직한 평화과정 가운데 전개될 수 있도록 <공준위 여성본부>를 발족하고자 한다.

615공동선언 5주년과 광복 60년이 되는 뜻 깊은 해를 맞이하여 이 땅의 절반인 우리 여성들은 한반도의 평화 실현과 통일운동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위치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이미 남북해외여성들은 지난 '2002남북여성통일대회'의 경험을 통해 여성들의 단결과 노력이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에 무엇보다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서로가 확인하였다.

오늘 우리 여성들은 남북해외 여성 자매들의 힘을 모아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하고 여성의 눈으로 통일시대를 만들어가며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해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 여성본부>를 발족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우리 여성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엄혹한 정세 속에서 어떠한 전쟁도 반대하여 외부로부터의 전쟁위협을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여성들의 힘을 모을 것이다.

둘째, 우리 여성들은 민족공동체의 통일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해 여성 각계각층에서 광범위한 통일대중운동을 전개하여 자주와 평화, 민족대단결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힘껏 노력할 것이다.

셋째, 우리 여성들은 성평등한 통일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넷째, 우리 여성들은 한반도 통일이 평화적 수단과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모든 평화를 위한 협상과 결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역할을 전개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 여성들은 지난 남북여성교류의 역사적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보다 진전된 역할을 모색하며 한반도 평화의 기운이 온 겨레와 누리에 가득 미칠 수 있도록 남북해외여성의 상설협의체를 강화하고 연대를 갈 것이다.

2005년 1월 31일(월)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 여성본부

남북여성 통일 공동결의문

오늘 우리는 통일여국의 뜨거운 마음을 안고 광양에서 6.15공동선언실천과 반전평화를 위한 북남여성통일연단을 가지었다.

분열사상 가장 큰 북남여성화합으로 되는 이번 모임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발표 5周年과 조국해방 60周年을 민족 공동의 대축전으로 빛나게 장식한 기쁨 속에 가진 것으로 하여 더더욱 의의 깊고 뜻 깊은 것으로 되었다.

이번 연단에서 우리는 여성들도 조국통일운동의 당당한 주체임을 다시금 확인하였으며 북과 남의 여성들이 힘을 합쳐 조국통일에 큰 기여를 할 의지를 다짐 굳게 다짐하였다.

북과 남의 전체 여성들은 지난 6.15 평양민족통일대축전에서 선포된 <민족통일선언>과 8.15 서울민족대축전에서 채택된 <천만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제시된 민족 공동의 과업을 앞다퉀 통일운동에 더 힘차게 밀쳐나서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여성통일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 것이다.

6.15공동선언은 여성통일운동의 이정표이다.

우리는 조국통일운동에서 6.15공동선언을 귀중한 여기고 우리 민족의피와 이념으로 맺은 힘, 지혜를 합쳐 민족자주의 길, 통일여국의 길로 힘차게 나가겠다.

둘째, 우리는 여성들의 단합된 힘으로 전쟁을 반대하고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녕을 수호해 나가겠다.

평화는 여성들의 것이다.

우리 여성들은 삼천리조국땅에서 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내고 이 땅을 평화의 터전으로 바꾸어나가겠다.

셋째, 우리는 통일여국의 길에 열정을 바치는 6.15시대의 참된 통일여국여성이 되겠다.

통일은 애국이며 애국은 우리여성들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우리는 항일선열들의 애국의 넓과 정신을 이어 통일운동에 헌신할 것이며 힘 있는 여성은 힘으로, 지식 있는 여성은 지식으로, 돈 있는 여성은 돈으로 나라의 통일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에 적극 이바지 하겠다.

넷째, 통일의 길에서 북남 여성들 사이의 공동보조를 더욱 긴밀히 가지고 연대연합을 일층 강화하며 다방면적인 협조를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우리 여성들은 통일의 한쪽 수레바퀴를 책임지고나가는 조국통일의 주역이다.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여성들의 슬기와 애국의 뜨거운 마음을 바쳐나가자!

우리 여성들의 손으로 이 땅위에 아름답고 부강 번영하는 통일조국을 세우자!

6.15공동선언선언!

2005년 9월 12일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의 공동행사 남북준비위원회 여성분과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의 공동행사 북측준비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광복 60주년을 맞이하는 평화·통일 염원 815 여성선언

1. 오늘 광복 60년은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이룬 국민 모두에게 크나큰 자부심을 안겨준과 동시에 민족분단 60년이라는 단절의 세월로도 기억되고 있다. 이제는 통일 시대로 가야한다. 통일시대는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하면서, 민족공동 번영을 일구어 가는 협력체제다. 우리는 광복 60년이 되는 오늘을 계기로 남과 북의 달 국이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의 모든 부문에서 더 높은 신뢰를 쌓아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것을 기대한다.

2. 민족의 번영과 균형발전은 평화하에서 흐르는 열매와 같은 것이다. 평화를 만드는 기반은 한반도 비핵화이며, 그 열매가 북-미 관계의 정상화일도 분명하다. 우리는 북핵이 종결, 폐기되고 안전보장이 이루어지며 우리 정부의 200만 kw 전력을 포함한 에너지 지원 등, 일련의 조치들이 관련국들의 신뢰 속에서 동시적으로 실행되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3. 우리는 일본이 우리 민족과 동아시아 민중에게 준 고통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과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 일본이 침략전쟁을 패망전쟁으로 미화하는 역사교과서 왜곡행위를 계속한다면, 전범 묘역 야스쿠니신사를 성역화한다면, '집단지 자위권'을 제한한 평화헌법 개정을 시도한다면, 일본과 우리 민족 사이의 우호적 관계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4. 6.15남북공동선언은 화해, 협력, 평화, 발전 등 남북 관계의 새로운 역사를 연 중대 선언으로 우리 민족의 지지를 받고 있다. 우리는 6.15공동선언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5. 생명 존중, 살생 발전은 여성의 본성이며, 고된 식민 세월과 대립으로 정결된 분단 시대를 이겨온 힘이 다. 우리 여성은 모든 자녀를 품는 모성으로 통일문제를 대하여 권력의 힘이 지배하는 남북관계를 바꾸어 갈 것이다.

2015년 8월 15일

평화통일 염원 815 여성선언 참가자 일동

반세기 성차별의 상징, 호주제 폐지 환영한다!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대안적 가족공동체를 만들자

국회는 3월 2일 본회의를 열어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3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는 50여년 성차별·반인권적 상징이던 호주제의 폐지에 대해 대단히 환영하는 바이다.

남성우선적 호주승계 및 부가(父家·夫家)입적, 부성강제 조항을 뼈대로 우리 사회의 가부장 문화를 강화·온존시켜온 호주제가 드디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헌법개정안은 호주제 폐지 및 친양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어, 마침내 헌법이 정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게 되었으며, 호주제로 인해 한숨짓고 눈을 흘리던 수많은 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호주제 폐지의 의미는 호주제로 인한 피해 당사자들의 불만을 없앤다는 차원을 넘어, 민주성과 성평등, 개인의 존엄이라는 향후 우리 가족공동체와 사회가 나아가야 할 가치와 방향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이번에 통과된 헌법개정안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구성원의 신분변동사항을 기재하던 현행 호적은, 국면 개개인마다 신분등록부를 갖는 방식으로 변화될 것이다.

변화하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보호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있는 새로운 신분등록부가 태어날 수 있도록 온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2005년 3월 2일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정실연, 축적연합, 대한YWCA연합회,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대한여한의사회, 민족예술인총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여성환경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천리안 여성학동호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국YMCA 전국연맹, 한국가정법률상담소(30 지부), 한국질스카우트연맹,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6지부 28회원단체), 한국여성단체협의회(36회원단체 16월동회원단체), 온정운동연합, 호주제폐지불허한시민의모임 (총 137단체)성위원회

2005 세계여성행진 빈곤·폭력추방과 평화실현을 위한 한국여성 선언문

2005 세계여성행진을 맞이하여 한국여성행진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여성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확산으로 인해 심화되는, 국가 간의 빈부격차, 사회적 양극화, 특히 빈곤의 여성화와 여성폭력, 성적착취의 구조화 등 인류 공동체의 평화공존에 대한 위협을 종식시키기 위해 모였다.

2005년 3월8일 브라질에서 출발하여 오는 10월 17일 아프리카의 부르키나 파소에서 마무리 될 세계여성행진은 오늘 한국여성들과의 연대를 위해 이 자리에 참여한 일본, 필리핀 여성들과 함께 아시아 여성들의 목소리로 “빈곤·폭력 추방과 평화실현을 위한 한국여성행진”을 선언한다.

세계여성행진에 참여한 전 세계의 여성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세계여성인권헌장’은 평등, 자유, 연대, 정의, 평화를 기본정신으로 삼고 있으며, 평등 없는 자유, 정의 없는 평화는 불가능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울러 헌장은 인간 공동체를 넘어선 환경과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모든 인간의 책임과 함께 대제과 차별 없는 연대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세계여성인권헌장’은 여성에게만 일방적으로 전가되고 있는 돌봄과 보살핌 노동에 대한 가치 인정, 빈곤의 제거와 부의 공정한 분배, 가부장적 자본주의가 양산하고 있는 성폭력, 성매매와 인신매매 등과 같은 여성폭력의 범죄화, 그리고 인종과 장애,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 없이는, 평등, 자유, 연대, 정의, 평화 그 어느 것도 실현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평등한 노동·여성폭력 근절·성매매 금지·한민도 평화를 향한 여성들의 행진이 시작되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8%에 불과하며, 기존여성의 65%가 자녀양육으로 인해 직장을 중단하는 현실에서 여성의 노동권은 위협받고 있다. 출산과 가사일 전담으로 인해 직장생활을 가질 수 없는 구조 하에서 여성노동자의 73%가 노동시장에서 차별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결과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남성에 비해 56%에 불과하여 성별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빈곤의 여성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 세상을 유지하고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서 여성노동권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 차별 없는 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현실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법 집행을 전담하는 사법당국의 남성중심주의는 폭력의 피해자이자 보호되어야 할 여성들의 인권 보호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 변화를 거부하는 남성들의 가부장적 의식으로 인해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의 상품화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빈곤의 여성화는 이주여성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폭력범죄와 인권보호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모든 여성에 대한 폭력이 종식되고 여성인권이 실현되는 정의사회 실현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

특히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사법당국의 불충전한 법 집행과 직무유기는 여성들을 착취하면서 불법이익을 위해 왔던 앞선범죄자들을 단호히 처벌하지 못한 채, 성매매가 아닌 삶을 살고자 하는 여성들을 투쟁을 벌이고 있는 여성들의 존엄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산물금과 빚의 굴레를 통해 성매매 여성들을 착취해 오던 포주들은 착취대상으로 자신들이 억압했던 여성들의 ‘성존권과 노동권’을 주장하며, ‘성매매 합법화’와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의 구조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반여성적이며 반인권적인 포주들의 불법적인 주장을 성매매 여성들의 목소리로 단감시키고 있는 무분별한 언론의 형태 역시 성매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의 힘겨운 노력에 관공을 끼얹고 있다. 이에 우리는 공동체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착취를 구조

화하면서, 자신들의 사적 이윤만을 추구하고 있는 불법적 이익집단의 만연권적 주장을 단호히 거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식민지와 전쟁의 역사 속에서 60년 동안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해 온 남북분단은 폭력적 군사문화의 일일치 위협 속에서 여성들의 삶을 불안 속으로 내몰아 왔다. 최근 연발하고 있는 군대 내 사고는 국가안보를 위해 존재하는 군대가 얼마나 심각하게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침해하며, 일상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었다. 이에 우리는 군사주의 문화·폭력 없는 일상의 평화 실현, 그리고 군인의 인권보장을 통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빈곤·폭력추방과 평화실현을 위해 우리여성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 한다 !

1. 우리 여성들은, 사회·직장·가정에서 행해지는 모든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그리고 빈곤에 맞서 여성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가 실현되는 정통사회를 위해 힘써나갈 것이다.
2. 우리 여성들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인신매매·이주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 등 모든 여성에 대한 폭력이 사라지고 인권이 보장되는 정의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결연할 것이다.
3. 우리 여성들은,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전쟁반대·무력분쟁·발자군대폭력·재선과 군인 인권 향상 등 일상의 평화가 실현되는 평화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힘을 동원할 것이다.

2005년 7월 4일

2005 세계여성행전에 참가하는 한국어성행진 참가자 일동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663차 정기수요시위 설명서

1992년에 시작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오늘로 663차를 맞이하게 되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0년에서 20년에 이르는 한국 일본군 위안부들이 '원한이 내린 하사품'으로서 일본국들에게 성적학취를 강요당한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든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잔학한 범죄이다.

오랜 세월동안 침묵으로 강요당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더 이상 흘려가기는 세월 속에 망치 할 수 없다. 유엔인권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국제법률가협회,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는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사죄하고 법적책임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루속히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서도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국제기구의 권고대로 이행해야만 한다.

우리는 일본의 침략전쟁으로 끌려갔던 군위안부 할머니의 절규를 지금까지도 듣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가장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한국정부는 얼마 전 진행한 한일 정상회담에서조차 이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여전히 굴욕적인 사대외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며 우리 여성들은 상당한 실망감을 금치 못했다.

우리 여성들은 전쟁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과 파괴적인 자원낭비에 대한 여성들의 비극적 경험을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최근의 전쟁에서는 전쟁에 가담하지 않은 여성들과 어린이들 중에서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과 여자 어린이들은 그들의 낮은 사회적 지위와 성 때문에 무력감에서 무차별적인 성폭력의 희생자가 된다. 강간, 강제임신, 강제불임, 강제매춘, 성적 노예제(위안부), 온갖 형태의 성적 고문과 성적 모욕으로 여성들은 인권을 유린당하거나 공격을 받는 것은 우리는 미국의 이라크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통해서도 보아왔다.

그런데 일본의 코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신념이라고 주장하며 드러내놓고 왜곡된 역사관을 늘어놓고 전쟁 포기를 선언하고 있는 일본 헌법 9조를 폐기하려는 움직임에도 심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전쟁 포기를 명문화한 헌법 9조마저 개정되어 없어진다면 사대는 풀이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는 일본이 군비 확충에 이어 또 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아온 우리로서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의 움직임을 우리 여성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이 역사 앞에 더 큰 심판을 초래하기 전에 하루속히 그들이 저지른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여성들은 보편적 인류의 가치인 정의와 평화가 끝내 승리할 것을 믿으며 지속적으로 진상규명, 범죄 인정, 사죄, 국가배상, 후생을 위한 역사교육실시,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운동을 국내외 여성, 평화단체들과 함께 끊임없이 연대하여 싸울 것이다.

우리의 요구

- 한국정부는 적극적이고 자주적인 자세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앞장서라!
- 일본정부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법적배상, 책임자처벌 등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
- 일본정부는 역사왜곡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하라!
- 헌법 9조 폐기하려는 움직임 즉각 중단하라!

2005. 6. 29.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663차 정기수요시위 참가자 일동

대항리 폭음피해 손해배상 민사 소송 승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환영 성명서

서울 민사법원에서 내려진 주민 승소 판결을 환영하며, 대항리 갯벌 생태계의 복구 및 조속히 주민들의 경제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서울 민사법원 총 100억원 ~ 130억원의 배상 판결 결정 -

오늘 서울 민사법원 29부(재판장 강재철)은 2009년 8월 14일 대항리 일대 주민들(강대북 외 189명)이 제기한 미군군 폭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하고 대항리 주민 1899명에게 2003년 대법원 판결(1인당 550만원 ~ 670만원)에 준하는 배상(총 100억원 ~130억원 추정)을 판결 하였다. 2003년 3월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이어 미군에 의한 대항리 주민 전원에 대하여 생존권 침해와 환경피해를 사법부가 판결로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일단 환영한다. 이번 판결은 지난 50년 동안 정부와 국회가 외면으로 일관해온 주민들의 생존권 요구를 합당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며, 그 피해를 정부보상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번 판결은 미군의 군사훈련에 따른 소음피해에 대한 대규모 배상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군당국은 작년 3월 대항리 1차 소송 대법원 판결결과에 대해 자신들은 배상책임이 없다고 하였다. SOFA의 불분명한 규정을 악용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미군당국은 결국 군산, 춘천, 평해 등지의 연이은 소음피해 소송에 따른 엄청난 규모의 배상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한미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별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다시 한번 미군당국의 배상 책임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이번 판결은 정부차원의 보상의 시작이다. 50년간 주민들에 대한 목적의 공로와 피해에 대하여 법적으로 인정된 만큼 정부는 그에 상응하여, 그간 빼앗겨 온 주민들의 경제적 권익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신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우선적으로 주민들과 시민 사회단체들은 용도가 폐기된 사적용 부지를 주민들에게 신속히 되돌려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후 토지의 이용에 대해서 철저히 비밀로 부치고 있는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주민들과 대화할 것을 촉구하며 신속히 공식적인 통로를 개설할 것을 요구한다.

대항리 주민들은 사적용 부지가 반환되면, 그 토지를 활용하여 "평화 생태공원"과 농산물 생산 공학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곳은 대항리의 아픈 역사를 평화 교육의 공간으로 전환시키는 평화박물관 등이 건립될 것이다. 이 공간은 일본과 미국, 독일의 전분기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적인 평화연대의 공간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적으로 올해 3월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정식으로 발족하여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들어갈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대항리 문제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아직도 바닷가 농성에서는 폭력 연습이 지속되고 있으며, 해안가 어민과 농민들에게 대단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오늘에의 판결과 병행하여 농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군 폭력 연습을 즉각, 완전의 중단하고 폭력연습으로 접근이 제한된 바다 어장 또한 조속히 주민들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또한 주민전세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피해 조사 추진과 농성을 비롯한 대항리 갯벌 생태계의 복구 대책 수립 및 환경 영향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시급함을 촉구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태항리 바다에 남아있는 미공군 폭격장이 조속히 완전 철거되어 대항리에서 미날 때까지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하여 지난 50년 동안 파괴된 지역 경제와 공동체, 그리고 폐적한 환경을 회복하여 옛날의 평화로운 마을로 되돌아 갈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지난 50년의 세월이면 충분하다. 미군은 조속히 완전히 대항리에서 떠나야 한다.

2005년 1월 13일

녹색연합, 민주노총, 한국여성연합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중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초록정치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환경운동연합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한미양국은 지난해 한미연세안보회의(SCM)의 결정에 따라 내일(2월 3일) '한미동맹 안보정책구상(SCP)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미양국은 향후 1-2년간 계획으로 진행되는 SCP 회의와 차관급 '고위전략대화'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한미동맹의 성격변화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작년 울산까지 이전과 한미연합토지계획(LPT) 개정협상을 마무리 처음으로써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역할 확대의 물리적 조건을 마련하게 된 미국은, SCP 회의를 통하여 주한미군의 역할을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한미동맹을 지역동맹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여러 강도를 통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에는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불명확하고 수직적인 현재의 종속적 한미관계에 비추어 볼 때, 주한미군의 역할확대를 수용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이에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내일부터 한미양국이 벌이게 될 주한미군 및 한미동맹의 성격 전환 논의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첫째, 우리는 주한미군의 역할확대와 한미동맹의 포괄적 전환이 우리 사회의 자주·평화·통일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미 국군의 전략면으로도 대북 억제력을 확보한지 오래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냉전체제가 해체되면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명분을 상실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새로운 잠재적 적대지역을 상징하고, 주한미군의 역할변경과 한미동맹의 성격을 변화시켜 광기 주둔의 명분을 확고히 하는 것이 미국의 최대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에 대한 포위와 봉쇄를 핵심적 목표로 하여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대하면 중국도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및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은 고조될 수밖에 없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의 불안정성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협력해야 할 중국은 2004년부터 우리나라의 최대고역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남한지역이 대중국 포위의 전초기지가 된다면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우리 민족의 절제정명의 과제도 더욱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한반도의 평화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협상이 국민의 뜻과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미양국은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회의와 마찬가지로 이번 회의도 그 진행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은밀하게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협상이 어떤

참답한 결과를 가져오는 지는 용산여군기지 이전합상을 통해 너무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기업이라는 미명아래 국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배제한 채 추진되는 한미양국 의 비밀회의를 강력히 반대하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 협상이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어떤 목적과 내용으로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예상되는 결과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힘으로써 국회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DMZ 협상은 반드시 국회와 국민의 공의를 전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회의가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관철시켜주는 회의가 아니라,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과 성격을 대한민국에 대한 방어로 한정짓는 회의, 나아가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궁극적으로 한미연합지휘체제를 해체함으로써 군사적 자주권을 확보하는 회의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향후 협상의 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주한미군 역할 확대와 한미동맹의 퇴행적 전환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국내외를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주한미군 역할 확대와 한미동맹의 퇴행적 전환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일러나가고,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2005년 2월 2일

민주노동당/평화야동일우어는사람들/평화네트워크/평화를만드는여성회/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미국 부시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즈음한 평화여성회의 입장

부시 정부의 '전 세계 자유 확산'은 대북적대정책 포기과 이라크의 미군철수부터 시작되어야

1.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지난 3일 국정연설에서 '전세계 자유확산'을 강조하며 북한, 이란의 핵문제 해결 및 5백만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SFPI)을 통한 '테러지원국' 대응, 이라크 보안군 확충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리 여성들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며 국제사회를 힘으로 지리하려는 부시대통령의 국정연설의 방향을 우려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2. 부시정부는 북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다. 대북적대정책을 유지하면서 북미간의 대화와 협상은 불가능하다. 부시 정부는 "우리는 북한이 핵야당을 포기하도록 아시아정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미국의 대북압박구상에 다른 국가들의 개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SFPI)은 사실상 북의 해상활동 통제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핵문제 해결에 대한 평화적 해결의지는 온데 간데 없다. 올바른 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미국의 일방적인 SFPI구상과 대북압박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3. 부시행정부는 아시아와 중동지역에 대한 지배 강화로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부시정부는 이란과 시리아에 대한 강한 비난과 함께 핵프로그램 포기 및 테러지원 중단활동을 위해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을 결집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부시정부는 이라크의 침공에 대한 국제적 비판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란, 시리아 등으로 확대하여 중동지역에 대한 지배적 야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마치 미국이 중동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것처럼 강조하였지만 미국이야말로 중동국가들에게 여러 가지 위협적인 용어와 압박을 통해 중동지역에서의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부시정권 1기 연설에서 북한, 이란, 시리아를 '악의 축'으로 규정한데 비해 다소 완화된 표현을 썼지만 이는 부시정권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국제적 비판여론을 의식한 데 대한 표현에 지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연장선에서 국제사회를 위한 건방진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의지를 담고 있다.

3. 부시정부는 이라크 내 미군주둔을 장기화시키면서 이라크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지금 이라크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있는가? 부시 정부는 이라크침공에 대한 참회는 고사하고, 이번 국정연설에서 이라크에 있는 미군을 철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더욱이 이라크출신 이후 "숙련된 간부와 효율적 지휘체계를 갖춘 역량있는 보안군을 확충하도록 돕겠다"며 이라크에 대한 지배력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부시정부의 이라크 주둔비를 예산은 매 월 45억 달러에 이른다. 국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이제는 숙련된 간부 육성과 효율적 지휘체제까지 구체적으로 지출하면서 노골적인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4. 이처럼 미국 부시정부의 이라크를 비롯한 대중동정책과 대한반도 정책은 군사패권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세계 민중들은 전쟁에 대한 공포와 생사존망의 기로에서

고통 받고 있다. 부시정부가 해기한 자유의 힘은 전쟁 무엇인가. 평화로운 삶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으며 국가와 민족의 인권과 생존권이 곧 자유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미국의 패권정책을 반대하는 우리 여성들은 부시대통령의 국정연설 방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미국이 진정으로 자유를 전 세계에 확산하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고, 이라크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 미군철수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2005년 2월 4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미국과 북한의 상호신뢰 조성이 북한핵무기 폐기의 길이다.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여성들의 목소리-

1. 한반도가 전쟁과 무기가 없는 평화의 땅이 되기를 열망하며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 온 여성들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성명'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 60년인 올해, 원폭피해자의 절규를 기억하는 우리는 생명과 평화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어떠한 핵무기도 인정할 수 없다.
2.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국의 핵무기 폐기를 주장한 우리는 북의 핵무기 보유가 현재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주변 국가들의 핵도미노 사태를 가져오고, 일본의 재군사화 등 동북아시아에서 군비경쟁과 긴장을 가져올 수 있다. 북한의 주장대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
3.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의 실제적 해결을 위해 북한이 핵무기 보유 선언을 하게 된 배경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북서정부의 대북정책을 '고립압살정책'이라고 보고 정권교체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자위수단으로 보고, 핵무기 보유를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안보불안에서 비롯된 방어적 조치로서 취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외무성 성명에서 대화와 협상의 원칙적 입장과 한반도의 비핵화를 최우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4.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의 핵보유 발언이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 경제제재로 이어지는 것에 반대한다. 이 방식들은 한반도의 긴장과 불안 더 나아가 전쟁의 위험을 높이는 것이다. 핵문제 해결은 반드시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핵문제 해결의 핵심요소는 핵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환경과 상호신뢰를 조성하는 데 있다.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이며, 신뢰가 조성되지 않는 한 '완전한 검증'이란 불가능하고, 따라서 해결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또한 핵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될 때에 비로소 핵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5. 미국은 북한의 안보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하루 빨리 북한과 직접 대화해야 한다. '목정의 전초기지'로서 북한규정, 북한인권법,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규정 등을 통한 북한 압박을 멈추어야 한다. 북미사이에 신뢰를 회복하기위해서 북핵폐기와 보상이 동시에적으로 진행되는 포괄적이고 일괄적인 접근법을 수용해야한다.
6. 한반도 운명공동체로서 한국정부는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 요청된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는 북한의 안전보장을 위한 조건 형성과 경제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자로서 그 임무를 다해야 한다.
7. 여성들은 해방 60년, 분단 60년인 올해, 남북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내외 여성, 평화 세력과 연대할 것이다. 여성들의 평화노력이 전쟁의 역사를 딛고, 남전의 어두운 유산을 넘어, 평화와 화해의 한반도를 만드는 길임을 확신한다.

2008. 2. 14

자이퉁 부대 공격받지 않은 이라크 전쟁

이라크 현지 시각 5월 29일 23시 네 밤의 폭탄이 자이퉁 부대를 공격했다. 다행히 자이퉁 부대원들이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자이퉁 부대가 이라크인들의 분노의 표적이 될 것이라는 반전운동의 경고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는 설득한 소식이었다.

자이퉁 부대가 이라크인들의 표적이 되는 이유는 부식의 점령을 지지해 세 번째 규모의 군대를 파병했다는 근본적인 이유뿐 아니라 이라크내의 점령을 지지하는 정치세력과 협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이퉁 부대의 주둔지인 아르빌은 쿠르드 자치정부가 관할하고 있다.

자이퉁 부대는 쿠르드 자치정부와 매우 밀접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쿠르드 자치정부(KRG)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과 점령을 지지하는 부패하고 억압적인 쿠르드 정치 지도자들이 구성하고 있다.

쿠르드민주당의 총재인 마수드 바르자니의 조카인 리체르만 바르자니가 쿠르드 자치정부(KRG)의 총리를 맡고 있다. 쿠르드 민주당은 쿠르드 애국동맹과 막대한 이득이 걸린 터키를 상대로 한 밀수를 둘러싸고 비열한 싸움을 벌였다. 1994년부터 시작된 전투로 3천 명 이상이 죽었다. 결국 두 정치세력은 쿠르드족 지역을 양분해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두 정치세력은 미국의 이라크 침략을 지원했다.

자이퉁 부대에 대한 폭탄 공격 직전에 자이퉁 부대가 쿠르드 자치정부가 운영하는 아르빌 주 방위군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쿠르드 군대는 작년 4월 칼루자 학살에 가담했고, 11월 칼루자 학살 때에는 미국의 작전을 도와 이라크 폭부의 경계를 달달한 바 있다.

자이퉁 부대의 쿠르드 군대 훈련은 '평화와 재건'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라크인 학살을 돕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자이퉁 부대는 아르빌에 들어설 유엔 이라크원조기구(UNAMI) 청사 경계와 요원들에 대한 경고 임무를 요청받았다. 유엔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감정은 좋지 않다. 전쟁 전 10년 동안 미국이 주도한 유엔의 경제제재로 50만 명의 어린이들을 포함해 2백만 명이 넘는 이라크인들이 사망했다. 그래서 2003년 8월 바그다드에 있는 유엔 건물에 이라크인들에게 공격당했다. 한국 정부가 유엔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더 큰 공격에 직면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1월 30일 총선 후에도 점령이 끝나지 않았다. 미국은 5월 30일부터 '변개작전'이라는 바그다드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인 '변개작전'을 시작했다. 그래서 이라크인들의 저항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공격은 전쟁광들과 언론이 퍼뜨린 '이라크 전쟁은 끝났다'는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보여 줬다. 그리고 자이퉁 부대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반감이 드러났다.

노무현 정부는 반전운동의 경고를 무시해 왔다. 그러나 2003년 오무전기 노동자 김민수, 파견해 서의 죽음과 작년 6월 김선일 씨의 죽음은 파병의 결과를 비극적으로 보여 줬다. 자이퉁 부대는 당장 철수해야 한다. 이것만이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5월 31일 과병반대국민행동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

한미정상회담이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 문제를 주 의제로 하여 11일 새벽(한국시간),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번 정상회담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주요 의제로 하여 한반도 정세가 매우 위험하고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된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향후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저자의 자주·평화·통일을 위해 각계에서 힘써 온 우리는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 속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하여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한반도 핵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는 대북제재와 무력사용에 단호히 반대한다.

최근의 핵 갈등을 둘러싸고 한편에서는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점쳐지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위기감이 한층 높아지는 상황에 전개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북미 뉴욕접촉을 통해 '북한은 주변 국가이고' 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북측에 전달하고 답신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대북경제압박과 공격적인 군사조치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정부의 진퇴에 대한 내외의 불신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부시정부는 최근 핵무기 사용용선이 포함된 '작전계획(CONPLAN) 8022'라는 대북 정밀 공격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한편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북한의 급변사태를 빌미로 대북 침공이 가능하도록 '작전계획 5029'를 발전시킬 것을 강요해왔다. 부시정부는 또한 B-2 B-52 전투기 등을 함으로 편입 배치하고 한반도 유사시 북 경관 수어부 등 전략기함에 대한 타격을 임무로 하는 F-117 스텔스기를 대거 군산공군기지에 배치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한미 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부시대통령과 제니 부통령 등 최고위 당국자들이 직접 나서 북을 자극하고 위협하기까지 하였다.

부시 행정부가 전정으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온 핵실험금지계획을 포함한 대북 적대정책을 중단하고, 북한과의 실질적인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북한 역시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대화의 틀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자신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막중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대통령에 대하여 대북 추가제재조치를 반대한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혀야 한다. 또 공격적 작전계획의 수립이나 대북 선제공격 무기의 한반도 내 배치 및 훈련에 대해서도 반대해야 한다. 노 대통령은 최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걸린 이 시안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미국의 적대적 대북정책에 반대하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을 미국 측에 명확히 전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이 오랜만에 재개전 '남북 당국자 회담'이나 '6.15공동선언 5주년행사' 등 남북관계 문제물마저 이른바 '균형'을 빌미로 거둬들이 우리 정부에 대북압박과 제재대열에 동참할 것을 강요할 것이라는 예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을 주목한다. 우리는 만에 하나 부시행정부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한물을 끼얹으려 한다면 온 겨레의 강력한 저

함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이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며, 미국이 간섭할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에 단호히 반대한다.

부시 행정부는 대북 선제공격과 대중국 봉쇄를 핵심적 목표로 하는 주한미군의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위해 용산 및 미2사단 재배치, 대북 방어임무의 한국 이양, 군 구조 변환과 110억 달러에 이르는 첨단 전력 증강, 작전계획 5029 등 작전계획의 공격성 강화와 그에 따른 전쟁연습 등 전쟁위험인 재편을 추구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또한 동북아 분쟁 개입에 반대하는 한국정부의 입장에 대해 이는 '미국의 주권 침해'일 뿐 아니라 주한미군 이해기공군화는 한국 방위에도 도움이 된다'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이에 따른 공격적 군사적 강화는 북한-중국과의 군사적 갈등을 유발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전쟁 위험을 높일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따라서 이를 반대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고 당연한 것이다. 또한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동북아 분쟁 등에 대한 주한미군의 책임추궁을 막는 것은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이고, 이는 주한미군의 작전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당연한 조치이기도 하다. 우리 국민이 주한미군에게 매년 수 천 억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하고 각종 기지 및 그 이전비용을 제공하는 것은 미국의 지역 패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부시 행정부는 자국의 패권전략에 따라 추진 중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를 한국정부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태롭게 할 중대한 문제로서 노무현 정부가 동북아 분쟁에 절대로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동맹에 대한 지역의 의미규정,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재해석 또는 한미안보선언 제정, 방위협력지침 제정 및 해외출동 사전동의(협의)제 도입 등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하는 어떤 합의도 해서는 안 된다. 이같이 중요한 문제는 미국 대통령이 아닌 국민들과 먼저 상의해야 할 일이다.

한미정상회담은 자주적 평화외교정책의 시험대이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과 정족적 차이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앞당기고 동북아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할 우리 민족의 요구와 태리와의 전쟁과 대량살상 무기 확산 방지, '인권'을 명지하여 동북아 군사적 패권을 추구하는 미국의 정책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온 이른바 '실용외교'의 성과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라크 파병 문제, 용산기지 이전 협상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 주장과 정책을 무조건 현실로 여기고 여기에 피동적으로 이끌리거나 문제의 핵심을 놓쳐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잦았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몇 차례에 걸쳐 밝힌 전략적 발언들이 과연 정책적 일관성과 의지를 갖는 평화외교정책으로 구현될 것인지 이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점검할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한반도 평화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이번 정상회담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하여 한반도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주한미군에 '전략적 유연성' 및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를 막는 자주적인 평화외교의 경기를 마련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05. 6. 8

참가단체 및 참가인사 일동

참가단체(가나다순)

경가여성연대(최미정), 교회개혁실천연대(박복종), 녹색연합(박영선), 다함께 두레방(유영남), 문화연대(김정현), 민간협양심수후원회(권오현),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김용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석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명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오종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조순덕), 반미여성회(이덕혜), 부산여성회(박영미), 불교인권위원회(지원스님), 불교평화연대(진관스님), (사)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강민조), (사)백범정신실천거레연합(한영수), (사)여성문화예술기회(이혜정), (사)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김경남), 사월혁명회(노중선), 수원여성회(이기린), 울산여성회(이은미),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김대선), 원불교인권위원회(이경우), 6.15남북공동선언실천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한상일), 21C코리아연구소(조다원), 전국농민회총연맹(문경식),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현협의회(김병균, 박덕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수호), 전국민중연대(정종호), 전국변민연합(김홍현, 이필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윤금순), 전국여성단체연합(김은경), 정의평화를위한기독인연대(김동현, 이영자, 최영숙),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이규재), 조국평화통일실현협의회(법다), 천주교인권위원회(변연식),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문규원), 참여연대(박상훈, 이신중), 초록정치연대, 코리아평화연대(김영민), 통일광장(권낙기, 임방규), 통일여성회(이정미), 평화네트워크(정옥식), 평화를만드는여성회(김숙임), 평화박물관(이해동), 평화와통일을어는사람들(문규현, 홍근수), 평화통일시민연대(이창희), 한국기독교장로회생명선교연대(최희림), 한국기독교장로회평화통일위원회(나재길), 한국기독교교수협의회(김용목), 한국기독교청년회협의회(윤석민), 한국기독교학생연맹(박민성),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동욱),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송희원),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최상일), 한국여성단체연합(남민순), 한국여성전화를(박민혜), 한국성폭력상담소(이미경), 한국여성학자협의회(박분미), 한국YMCA전국연합(이학영),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신서수), 한국청년단체협의회(전상봉), 함께하는시민행동(이희상), 환경운동연합(윤준하, 신안영) (이상 65개 단체)

개별인사 (가나다순)

김경호, 김홍수, 리영희, 문정현, 박용일, 박형규, 배종열, 이병일, 이재호, 권병철, 조현길, 표명택(이상 12인)

“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의 북 영유아 지원예산 300억 원 책정을 환영한다”

1. 기획예산처는 7월 5일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 요구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북한의 대표적 취약계층인 5살 이하 어린이(230만명)와 산모·수유부(98만명)의 건강과 영양 상태를 좋게 하는 5개년 사업인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에 300억 원을 책정하고 2010년까지 5500억 원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2.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 공동행사 남북준비위원회 여성본부'(총54개 여성단체/이하 남측준비위 여성본부)는 기획예산처가 7월 5일 발표한 정부의 북 영유아 지원예산 300억 원 책정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며 '북한영유아 지원사업'의 지속적이고 성실한 수행을 촉구하는 바이다.
3.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남북여성의 인권 보호 및 생명존중을 위해 노력해온 여성단체들은 정부에 북한 아동과 여성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정부의 이번 예산 책정은 여성들의 지속적인 요구의 결과이며, 현 정부의 남북화해협력 노력의 소산이라고 본다.
4. 북한의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밝힌 것과 같이 통일 이후 우리사의 저출산·고령화 경찰과 관련된 인구정책 차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매, 형제와 동포의 생존에 대한 당연한 지원이다.
5. '남측준비위원회 여성본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 예산이 더욱 증액되기를 바라며, 더불어 정부의 예산 집행과정에서 우리의 의견이 수렴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국회심의과정과 정부 집행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다. 더 나아가 통일논의와 통일관련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폭넓은 참여가 보장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생명존중, 남북 여성의 상호이해, 화해,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6. 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남북준비위 여성본부

저태하나합동단/경기여성단체연합/고양여성회(준)/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녹색여성나눔중앙회/대한불교조계종불교여성계발원/대한YWCA연합회/미래가족문화연합/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주노동당여성위원회/민주노동여성위원회/반미여성회/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여성회/부산여성회/새마을운동중앙회/세계평화여성연합/수원여성회/수원일하는여성회/양산여성회/여성사회교육원/여성환경연대/울진여성회/울산여성회/원불교여성회/인천여성회/자유여성회/전국공무원노동조합여성위원회/전국여성대표자협의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전주여성회/전도교여성회/통일문화예술인협회/통일여성안보중앙회/통일여성회/통일연대여성위원회/평택여성회(준)/평화올바른다는여성회/작남여성회/한국교회여성연합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단체협의회/한국여성연우회/한국여성의전화연합/한국여성정치연구소/한국여성학자협의회/한국전주교이자수도회장상연합회/한민족통일여성교육원회/NCC여성위원회

2005. 7. 6

6자회담에 대한 시민 사회의 요구

평화적으로 위기를 해결하라.

동북아시아를 비핵무기금지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

서명자인 우리는 한반도의 핵 위기에 깊이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예정된 6자회담 재개를 환영한다. 6자회담은 관련국가들이 즉각적이고, 평화적이며 되돌릴 수 없는 해결을 이루기 위한 공동의 토대(platform)를 제공해야만 한다. 어떠한 위기태결도 관련당사국의 동시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져야한다. 즉 한편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와 NPT 재가입. 다른 한편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안전보장을 포함하고 미국의 적대정책의 완전한 철폐가 있어야 한다. 6자회담 참여 정부들은 상생적인 해결책을 위해 상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대화와 협력을 촉진해야 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여 관련 당사자 사이에 생산적인 조건을 약화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삼가야 한다.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관련당사국의 무력위협이나 무력사용 선택권을 부정한다. 1992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한반도비핵지대를 발판삼기 위한 합의를 이룬 토대이다. 우리는 동북아시아 비핵무기금지대를 향해 우리의 노력을 강화하는 데 헌신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동북아 비핵무기금지대와 창설을 위한 필수요소이다.

현재 한반도의 핵위기는 동북아에 잔존하는 방전구조에서 나온 증상으로써 이해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의 관계정상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그리고 이 지역 모든 국가들이 상호신뢰에 기반한 협력을 통해 이 방전구조를 넘어서는 데 필수적이다. 이 지역에서 핵위협과 군사적 위협을 낳는 모든 요인들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며 조율된 군축과 비군사화 행동을 통해서 이 요인들을 대체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의 군사화를 막고 일본 헌법 9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6자회담 관련국의 시민인 우리는 6자회담과 발행해서 시민사회포럼을 개최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밝힌다. 이 시민사회포럼에서 동북아시아 비핵무기금지대화와 실현을 위해 필요하고 혁신적이며 탄력적인 접근법을 추구할 것이다. 이 난국을 벗어나고 동북아에서 실제적인 진보를 만드는 것은 다른 지역-중동과 남아시아에서 군축과 안보 촉진을 위한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이 불안한 지역을 비핵무기금지대로 개발하는 것은 세계적인 핵비확산 체계의 현재 난국을 벗어나기 위해 틀과구름을 제공할 것이다.

2005년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무하 60년으로, 핵무기 고유의 비인간성을 기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핵무기를 불법화하고, 무차별적인 대량살상무기에 의존하는 어떠한 정책도 비도덕적이며 무책임하며, 비현실적이며, 불법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데 헌신할 것이다.

2005년 7월 20일

4차 6자회담 논평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한반도와 동북아평화체계의 문을 연 6자회담 다발을 환영한다.

6자 회담의 다발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는 추색명절을 감정으로 풍성하게 만든 선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의 평화를 열원해는 여성이 이름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모은이와 함께 기뻐하며 6자회담을 성공으로 이끈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한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의 전환과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끊임없이 촉구해온 우리 여성들은 6차 회담의 다발이 가지는 의미를 매우 소중하게 평가하며 이후에도 합의문의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한다.

2년여 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북의 230 핵무기 보유선언과 함께 휘몰아친 한반도의 위기설로 가슴 졸이며 밤잠을 설치던 지난 일들을 되돌아 볼 때 금번 4차 6자회담 다발의 성취는 온 겨러와 애국시민들에게 크나큰 희망을 준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1.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이 합의의 단점을 높이 평가한다. 합의문을 통해 북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한 핵계획을 포기하기로 했으며 핵무기비확산조약(NPT)재가입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속복귀하기로 하였다. 미국의 대북 공격 전략 의사없음을 확인하고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존중하여 적절한 시점에서 경수로 제공문제 논의하기로 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합의된 만큼 이는 세계의 비핵화를 향한 평화의 원칙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

2.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 조치를 미국과 일본은 성실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북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핵무기 비확산 문제였고 그 밑바닥에는 냉전에서 비롯된 격대적 불신의 문제로 보다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신뢰 회복을 통한 북미관계의 정상화라고 분수 있다. 따라서 북이 대북 양보를 통한 협상에 합의한 만큼 미국의 국고정상화를 위한 성실한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3.북핵 폐기로 한반도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고 북미, 북일관계가 정상화된다면, 한반도 평화 정착은 물론 동북아의 지역안보를 실질적으로 만들어 가는데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다. 평화체제의 기본핵심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한 별도의 포섭 구성은 크나큰 진전으로 평가 할 수 있겠다.

4. 우리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의 당사자로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정부가 마련한 '중대제안'이 지켰다 구실을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이번 '레이징성명'이 가지는 크나큰 의의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불완전한 합의라는바에 우리는 인식을 함께 한다. 합의 이끌어내기 위해 만들어진 모호성을 가진 내용들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룩해 가는바는 매우 어려운 난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후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가는바 있어에서도 치밀하고 절교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5. 금번 회담을 통해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제기였고 평화를 원하는 세계의 많은 이들이 함께 기뻐하며 공감할 수 있는 평화적인 방법을 택했던 것은 도다른 정치적 제약을 마련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앞으로 험난한 파세들이 많이 있었지만 금번에 보여준 인내와 지혜를 근거로 삼아 더욱더 진전된 신뢰와 성실성을 보여 줄 것을 당부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냉전의 산물이 모두 태소되어 영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기를 우리 여성들은 온국민과 함께 기대한다.

2005. 9. 20.

평화플랜트는여성회

자이툰 부대는 즉각 철수하라 !

1. 이라크 현지 시각 5월 29일 23시 네 밤의 폭탄이 자이툰 부대를 공격했다. 다행히 자이툰 부대원들이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인들의 분노의 표적이 될 것이라는 반전운동의 경고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는 섬뜩한 소식이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이 정부가 말하는 평화와 재건의 허구성, 자이툰 부대에 대한 저항세력의 공격위험 현실화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판단한다. 이에 우리는 모든 점령군과 자이툰 부대의 즉각적인 철수가 이라크를 이라크인에게 돌려주는 출발점이라고 다시 한번 주장하며 노무현 정부에 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인들의 표적이 되는 이유는 부시의 명령을 지지해서 세계 3위 규모의 군대를 파병했다는 근본적인 이유뿐 아니라 이라크내의 점령을 지지하는 쿠르드 자치정부와 매우 밀접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이툰 부대에 대한 폭탄 공격 직전에 자이툰 부대가 쿠르드 자치정부가 운영하는 아르빌 방위군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자이툰 부대의 쿠르드 군대 훈련은 '평화와 재건'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라크인 학살을 돕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이라크의 14개 미군기지를 4개로 통제할하려고 하는데 그중 한군대가 아르빌이다. 게다가 자이툰 부대는 아르빌에 끌어들인 유엔 이라크원조기구(LNAM) 창시 관계와 요원들에 대한 경호 임무를 요청받았다. 유엔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감정은 좋지 않다. 전쟁 전 10년 동안 미국이 주도한 유엔의 경제제재로 50만 명의 어린이들을 포함해 2백만 명이 넘는 이라크인들이 사망했다. 그래서 2003년 8월 바그다드에 있는 유엔 건물에 이라크인들에서 공격당했다. 한국 정부가 유엔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더 큰 공격에 직면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위군 훈련과 유엔창시 관계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3. 대부분이 전투병인 3,600명의 자이툰 부대가 내전 명목인 '평화와 재건'은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는다. 쿠르드 지역은 전쟁을 겪지도 않아서 파괴로 인한 재건 소요가 별로 없거니와 이라크 전체적으로 점령군에 대해 이라크인들이 저속적으로 저항에 나서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후복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던 것이다. 1월 30일 휴전 후에도 점령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라크정부와 미군은 저항세력 토벌을 빙미로 5월 30일부터 바그다드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인 '변재작전'을 시작했다. 그래서 이라크인들의 저항도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과 점령을 반대하는 이라크인들은 한국군도 미국과 같은 점령군인 것이다.

4. 노무현 정부는 반전운동의 경고를 무시해 왔다. 그러나 2003년 오무전기 노동자 김민수, 파병해 서의 죽음과 작년 6월 김산일 씨의 죽음은 파병의 결과를 비극적으로 보여 줬다. 더욱이 지금은 새로운 희생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정부는 끝없는 수렁에 빠지는 것이 자명한데도 파병을 더 이상 고집해 서는 안된다.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는 파병시한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는 자이툰 부대를 당장 철수시켜야 한다. 이것만이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 미국은 이라크 점령 중단하고 당장 떠나라 !
- 노무현정부는 자이툰 부대를 즉각 철수시켜라 !

2006년 6월 2일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9.24 이라크 점령 종식을 위한 3대 파병국 공동행동 결의문

2년 넘치 계속되고 있는 이라크의 이라크 점령은 재건은 고사하고 이라크를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 넣고 있다. 여전히 학살은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 점령군은 탈 이라크를 공격했다. 점령군은 통치의 용이함을 위해 종파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오직 점령이 종식될 때만이 이라크 상황은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다.

자이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쿠르드 지역은 진후 복구가 필요한 지역이 아니다. 사실상 자이툰 부대는 이라크 재건이 아니라 이라크 점령의 보조자로서 이라크 북단의 쿠르드 지역에 머무르고 있다. 지금 자이툰 부대가 쿠르드 지역에서 하는 일의 대부분은 민간인들이나 자국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최근 정부가 자이툰 부대 중 1000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건지원을 내세운 이라크 파병 자체가 잘못된 결정이었는데 이제 와서 철회가 아닌 '1000명' 감축 운운하는 것 자체는 또 다른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2,200여명의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을 밀어붙이기 위한 술책이다.

이미 노무현 정부는 파병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내년 국방예산안에 '이라크 파병 관련 자이툰 부대 유지운영비용' 1천4백억 원을 포함했다. 그리고 국방부는 12월을 목표로 자이툰 부대 3진 3차 고도 배치 모집을 추진하고 있다. 자이툰 부대는 즉각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

국방부와 외교통상부는 이른바 유엔안보회의 요청 시 일정 규모 이하의 병력을 국외동의 없이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상설 PKO 부대 창설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유엔이 미국의 패권적 군사행동을 추진하는 추세로 볼 때 PKO 상비부대는 미국의 요청에 따른 상비 파병군으로 귀착될 우려가 크다. 우리는 상설 PKO 부대 창설을 반대한다.

테러방지법 제정도 추진되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제2의 국가보안법이며, 반평화반민주 악법이다. 재외국민 보호국민안전보장이라는 이유로 평화의 견제인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통제법안을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불법 점령을 중단하는 것이나 국민을 보호하는 일경이다.

오늘 행동을 시작으로 우리는 하반기 파병연장을 좌절시키기 위한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다. 우리 운동의 중요한 결집점은 바로 전쟁광 조지 부시의 방한에 반대하는 11월 18일 투쟁이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한 전쟁광의 방한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조지 부시와 노무현은 2003년 태국 방콕 아세프에서 그랬듯이 이번에도 파병연장과 임무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전평화운동에게 11월 18일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호소한다. 정의와 평화를 바라는 이들에게 11월 18일 부산으로 집결하자! 부시의 전쟁범죄를 멈추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와 힘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부시방한 반대시위의 결집을 연방 파병연장 반대운동으로 연결시킬 것이다. 그리하여 12월 17일에 파병연장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의 집결을 이뤄낼 것이다.

이라크 점령 중단하라! 자이툰 부대 철수하라! 파병 연장 반대한다! 부시방한 반대한다!

지난 9월 2일 김정희의원들을 비롯한 여야의원 총 34명의 발의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파견에 관한 법률안(이하 PKO 법안)'이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됐다. 우리는 국회동의를 성료한 이른바 상설적 '해외파병법'인 PKO(평화유지활동)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외통하에 상정된 PKO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PKO법은 '택시수표 파병법', 군의 해외파병은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쳐야

PKO 법안은 첫째 유엔의 파병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둘째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력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며, 셋째 우리의 재정부담 없이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법안 제정의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위의 이유들은 국회의 동의조차 성략하고 상설적으로 파병해야 할 근거로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PKO 법안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 동의를 제한하였다는 것으로서 위헌적인 법안이다.

PKO를 포함하여 군을 해외에 파견할 경우 '국회는 천천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는 헌법 제6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국회의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파견규모 및 파견식기를 명시해야 하고, 이미 파견된 부대를 증원하거나 파견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별도로 국회 동의를 별도로 하고 있다. 한국군이 1993년 소말리아 제2차 평화유지군 참여를 시작으로 평화유지활동에 모두 10여 차례, 연인원 5,089명을 파견한 경우가 있었으나 그때마다 국회의동의 절차를 거쳤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번 PKO 법안의 핵심 요지는 '300명 이하의 규모'는 국회의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통보만으로 파병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파병연장의 경우 "파견부대의 규모가 300명 이하인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300명 이하의 파병에는 국회 동의, 통보 등의 모든 절차가 생략되어 있다. 이는 해외파병에 대해 행정부가 '백지수표'를 주는 것이다. 따라서 PKO 법안은 헌법상의 국회 동의를 제한하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다.

유엔 PKO는 금과옥조가 아니다. 남용 오용 사례가 적지 않다.

더욱이 유엔의 결정이 항상 정당하지 않고 유엔안보리가 결의한 PKO 활동이라 해서 모두 선은 아니다.

UN PKO 활동 사례를 보면 1차 걸프전처럼 미국 등 강대국의 강압에 의해 UN 결정이 이뤄진 사례가 있는가 하면, 부당한 침략 등 무장 갈등의 원인 해결은 포기한 채, 해법 없는 무력적 다툼속에 유엔 PKO가 동원되는 일도 적지 않다. 또한 평화정착에 기여하기보다 지역 경제와 문화의 교란요인이 되거나, 성매매, 성폭력 범죄 등에 조직적으로 연루되면서 지역사회에 도리어 해악을 끼친 분할전도의 사례에 대한 보고도 늘어나면서 UN PKO 자체에 대한 회의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라크 전 이후 유엔은 미국의 이른바 '대테러전쟁'의 뒷수습에 동원되어 유엔 회원국들이 반대한 이라크 침공 후 절정을 정당화하는 결의안을 두 차례에 걸쳐 통과시킴으로서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시킨 바 있다.

분쟁지역은 보통 민족, 인종, 종교, 정치, 경제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굳이 파병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며 어떤 조건에서 무엇을 위해 파견되어야 하는지도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 이를 굳이나 정부에게만 맡겨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대로 시안이 경미하고 일상적인 것이라면 국회의동의 절차를 생략하면서까지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이 PKO 활동의 성과를 보장하려면 PKO 참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사례별로 검토한 뒤 국회의 국민의 동의를 받는 것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자동 파병법인 PKO 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PKO에서 일탈할 가능성을 통제할 엄격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

유엔 PKO는 분쟁지역의 평화유지 혹은 회복을 돕기 위해 유엔에 의해 행해지는, 군사요원을 수반하나 강제력을 갖지 않은 활동, 다시 말해 분쟁 당사자간의 정전이 이루어 진 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진정한 의미의 PKO가 아니냐하는 구분은 PKO 5원칙인 분쟁당사자의 정전 합의,

당사자 등의 중립성, 5대국 및 이해관계국 배제, 무력불사용의 준수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온전히 지켜지는 사례는 많지 않다.

유엔 PKO의 활동이 획기적으로 확대된 발췌점 이후 PKO의 활동에서 얻은 교훈은 PKO 활동 5원칙을 명확히 견지하는 경우 성공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중립성과 무력 불사용 원칙을 훼손함으로써 신뢰한 PKO의 전황적 사례로 평가되는 소말리아 평화유지군 활동사례가 이를 입증해 준다.

PKO법안 제안 이유에 따르면 “평화유지활동의 성격상 다국적군의 파견과는 구분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PKO와 다국적군의 구분은 사실상 모호하며, 최근 미국의 대테러전쟁 선포 이후에는 유엔의 중립적 위치가 크게 흔들리면서 그 경계가 더욱 모호해지고 있다.

제다가 제출된 PKO 법안 제2조는 다국적군의 평화유지 활동과 전형적인 PKO 활동의 개념을 모호하게 혼합하고 있다. 법안 2조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이라 함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한 국제연합의 요청에 의거, 분쟁지역에 파견된 부대가 수행하는 평화의 조성·유지, 시설의 복구 및 인도적 구호 등을 위한 각국의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중 ▲분쟁지역 내 무력분쟁 발생 및 확대방지 ▲차관 및 질서 유지 ▲무장 세력의 분리, 무장해체 등을 통한 경제적 평화유지활동 등의 내용은 ‘정전 및 평화협정의 유지’ 혹은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된 약속의 이행 지원’ 등과 같은 명확한 단서조항이 포함되지 않는 한 UN의 PKO의 5원칙을 넘어설 우려가 있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정들이다.

또한 ▲희포자된 생필품자금 등 구호활동 ▲난민의 정착·귀환 등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규정한 내용은 실사 ‘분쟁 지역 내에서 유엔 안보리가 요청한 PKO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일이 반드시 굳이 수행해야 할 임무인지 의문이다.

이따리 파병도 유엔 요청? 정부 스스로 유엔요청을 오남용한 사례가 많다.

무엇보다도 지난 시기 PKO와 다국적군 파병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자체가 원칙을 잃어 왔기에 PKO 법안의 남용에 대한 우려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분쟁 당사자 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말리아, 르완다, 아이티, 보스니아 등에 대한 유엔, 미국 등의 파병요청을 거절한 바 있다. 그러나 제2차 소말리아 평화유지군 참여과 동등으로 다국적군 파병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포기하고 미국의 요청에 따라 파병하였다. 심지어 정부는 불법적 침략 전쟁인 이라크 다국적군 파병조치도 유엔의 요청이라며 파병을 추진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무원칙한 파병사례에서도 보듯이 앞으로 PKO 파병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 자주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대테러 전쟁 등 유엔에 영향력을 갖는 강대국의 군사전략에 국외의 전제도 없이 휘둘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PKO부대가 주한미군의 역외 활동에 대한 지원부대로 전락할 것을 우려한다.

우리는 정부가 PKO상설부대의 임무 중 하나로 태의 긴급 재난 구호를 내세우고 있는 것과 더불어 미래 한미동맹의 역할로 태의 긴급 재난구호 임무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2002년 한미당국이 공동으로 작성한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공동협약’ 결과 보고서는 북한 위협 소멸 시 아태지역에서의 한미동맹의 임무를 평화유지, 해상수송로 보호, 위기대응 및 긴급 재난 구호로 제시하고 있다. 2003년 7월의 ‘주한미군 지역역할 수행대비책’에서도 저강도 투입시나리오에 ‘역내 재난구호’가 첫번째목으로 들어가 있으며 평화유지 활동은 중강도 투입시나리오로 분류되어 있다.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FOTA)의 후속회의인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T)의 의제 중의 하나로도 “쓰나

미'와 같은 긴급제난 구호와 관련한 한미동맹 강화 방안이다.

한미당국이 평화유지활동, 긴급제난구호, 해상수송로 보호 등을 한미동맹의 새로운 임무로 합의한 다는 것은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즉 전략적 유연성의 확대를 뒷받침하고 한미동맹의 지역포괄동맹으 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지하듯이 일본은 주한미군의 역외작전을 지원하고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정당화하기 위해 PKO 협력법, 주연사법, 테러특조법, 이라크 특별법, 유사입법 등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제 정비의 최종목표가 전수방위를 규정한 평화헌법의 개정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는 PKO 법안 이 일본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의 역외작전과 한미 공동작전의 범위 확장 등 지역동맹을 지원하기 위 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입법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밀쳐 버릴 수 없다.

평화국가답게 군대 외의 방법으로 국제평화에 기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국군 부대는 "한반도에서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항하여 국가의 안위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 키기 위한 자위적 군사 활동에 자신을 역할을 제한하는 것이 최선이다. 군대의 해외 파견은 최소화돼 야 하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통제권이 손상되어서는 안된다.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려면 파견적인 PKO법 제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ODA 등 국제사회에 대한 경제적 인적 지원을 확대하고, 평화확진을 위한 평화적 수단을 발전시키는 것을 선행해야 한다.

군대의 파견은 마지막 수단이며 이 경우에도 유연이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PKO에 한하되, 그것이 분쟁당사자의 정전 합의, 당사자 동의, 중립성, 5대국 및 이해관계국 태제, 무력불사용 등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저 선법에서 엄격하게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감증할 헌법적 기구인 국회의 동의권과 예산심의권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원칙과 조건에 위배되는 본말 이 전도된 PKO 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한다.

2005년 10월 13일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1. 열린우리당이 파병재연장안을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파병연장동의안은 변변한 토론이나 정부의 계획에 대한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여야 정당간 경략적 힘겨루기의 보조수단이자 종속변수로서만 취급되고 있다. 열우당과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2. 파병을 둘러싼 국회의 눈치보기 경쟁은 우리 국회의 원수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파병을 지속할 의지가 없다'거나 심지어 '철군을 준비하고 있다'는 식의 상이한 정치공세를 피무으면서도 파병에 따른 정치적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게 전가하려는 정략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태도 역시 마찬가지다. 열린우리당은 파병문제를 제기되면 저수기로 전락하곤 한다. 단 한명의 완성 토론도 없는 국회 표결이 열여섯 번에인가? 오로지 '정부재출안에 손을 든다'는 수동적 방침의 승인만이 있을 뿐이었다.
3. 이라크 파병 재연장 동의안은 중대한 사안이다. 국회는 왜, 얼마나 더, 우리 군대가 이라크에 주둔해야 하는지, 이를 위해 감수해야 할 여러 문제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낱알이 밝혀야 할 책무가 있다. 국제사회와 모든 파병국들 내부에서 가장 첨예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라크 참전지인 연장의 정당성', '현존하는 국민안전의 위협' 문제가 유독 우리 정부와 우리 국회에서만 문제가 되지 않는 이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 대해서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
4.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이같은 무책임한 정치적 선택의 근거로 한결같이 '한미동맹'을 내세운다. 그러나 우리가 눈과 주상했듯이 파병군을 이라크로부터 철수하는 문제로 동맹관계에 굳이 간다면, 지금 세계의 모든 파병국들과 미국 간의 동맹관계에 굳이 가야 미명하다. 모든 나라들이 철수를 논의하고 철군계획을 미국에 통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한술 더 퍼서 미국이 요청한 유엔경호 경비임무까지 추가로 맡겠다고 나서고 있고 국회는 이에 대해 철군일정을 밝히려거나, 추가임무는 안된다는 소리로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5.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12월 14일 14일 연설을 통해 "많은 정보들이 오류로 드러났으며 개전을 결정할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인 내게 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또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21일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한 연설 기자회견을 통해, 이라크 전쟁을 막지 못한 것이 제임스카인의 가장 유감스런 일이었다고 말한바 있다. 이라크의 대통령과 이라크 NSC는 이라크 18개 주 중 14개 주에서는 다국적군의 철군이 가능하며, 아르빌은 그러한 조건이 가장 성숙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와 국회는 '유엔'과 '이라크 정부'의 요청으로 '이라크 민주주의'를 위해 더 주둔해야 한다고 우기고 있다.
6. 만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비판하는 대신 "라이스 미국무장관에게 한국은 이라크에 진정된 민주주의가 수립될 때까지 이라크에서 계속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지난 12월 19일 말했다. 그러나 이는 외세 점령의 경험을 가진 나라의 외교관이라고 할 말이 아니다. 반 정권은 무당파 점령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이 뿌리내릴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가? 실제로 불법점령에 항의하는 격렬한 투쟁자들의 희생에 강행된 이라크 출신 결과를 두고 선거부정 논란과 불복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점령국인 미국이 추진하는 이른바 '이라크 민주화 일장'은 이라크의 본연과 질질, 정파적 이해집산을 심화시켜 이라크 민중들을 더욱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7. 미영 점령군과 운명공동체가 되어 이라크에 장기주둔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부대방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파병기회를 몇 시간 남기지 않고 연장 동의를 계속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국회는 정부의 저수기가 되기를 거부해야 한다. 파병 재연장 동의안의 처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재이론 부대는 즉각 철수해야 한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파병 연장을 또 다시 통과시킨다면 노무현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국민적 비난과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03년 12월 30일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주한미군의 대규모 추가 감축 가능성에 기초하여 평택미군기지 확장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 (진금성명서)

지난 10월 10일 일본 <재팬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은 미8군 사령부의 화웨이 이전과 주한미군의 대규모 철수 가능성, (전세)작전통제권을 한국에 이양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시아와 태평양에 있는 미군의 전면적인 재배치 작업의 일환으로 "미 태평양사령부가 가장 선속적인 해외 파견군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미 대규모의 군사변환을 시작했다"고 미태평양사령부 존 브라운 군단장의 말을 인용해 전하고 있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대규모 추가 감축 가능성에 주목하며, 정부당국에 평택미군기지 확장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미 주한미군은 올 해까지 8천여 명을, 2008년까지 총 12,500명의 병력을 감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는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군사변환, 전 세계 미군재배치에 따른 것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에 더해 "미8군사령부의 화웨이 이전과 주한미군의 대규모 추가 감축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이 주한 미 공군을 제외한 사실상의 지상군의 완전철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사실에 기초할 때 평택에 349만명이 넘는 엄청난 농민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아 새로운 미군기지를 만들겠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설득력이 없는 행위이다.

기존의 병력 감축 계획에 의해서도 평택미군기지 확장이 문제인데, 대부분의 지상군의 철수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 마당에 기지 확장을 계속하는 것은 농민들의 피담으로 이루어진 소중한 농토를 미군에게 파주는 것으로 미국의 이해와 요구에 철저히 국민들을 희생시키는 자발적 공종주의에 다른 아니다.

한미당국은 지금이라도 대규모 감축계획에 따라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당장 중단하라! 이것이 민심 이요, 천심이다.

또한 "(대규모 철수 가능성에) 미 태평양사령부는 이에 대비하고 있다"며 논의가 어제 오늘지 이야기기가 아닌 이전부터 논의되고 준비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데도 한미당국은 이해당사자인 평택농민들은 물론 전세 국민들의 일체의 의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오는 것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당국은 주한미군 대규모 추가 감축 가능성과 평택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 평택농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작전계획5027 합의 강요 등 남북대결과 한반도 전쟁을 부추기는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서도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상병력이 해외로 이전하는 마당에 미군기지의 확대는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한미당국은 폭폭히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농민들의 소중한 농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특히 평택농민들도 대한민국을 주인인 국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저지

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일방적인 강제토지수용을 통해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계속 추진한다면 더욱 강력한 국민들의 저항이 일어날 것이며, 평택법대위는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투쟁을 전 국민적 투쟁으로 만들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두는 바이다.

2005. 10. 13.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우리는 평택 평성 주민들의 미군기지 확장 반대투쟁을 적극 지지·연대하고 평택 시민들에게 이 투쟁에 연대해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 평성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평성 주민들은 죽어도 그들의 땅에서 나갈 수 없다며 500일이 가압도록 촛불을 밝히며 저항하고 있다. 그 연대도 최근 정부는 수용예정을 의결해 이들에게 행정대집행, 즉 강제추방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용저울 수백가구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생명의지와 같은 땅을 빼앗기고 정든 고향을 떠날 위기에 처해 있다. 마을과 가족은 산산이 찢어지고 땅에 대한 농민들의 권리는 철저히 짓밟히게 될 것이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은 군사패권을 추구하는 미국이 한반도의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그 결과, 화해와 평화로 나아가야 할 한반도가 대결과 전쟁의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미군의 평택기지 확장은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불러오는 동시에 동북아의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켜 줄 것이다.

과거에도 자신의 땅을 빼앗긴 경험이 있는 대우려, 도부리 주민들은 “내가 살던 이 땅에서 이대로 살다가 죽고 일다”는 소박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평성 농민들의 그와 같은 요구는 생존권과 노동권에 대한 절박하고 정당한 요구이다. 60년간, 미군기지로 인한 한과 설움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평성 주민들에게 더 이상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평택 미군기지 확장과 엄청난 가격의 원단 푸기 수입은 가난한 도시생활자들의 생활 또한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요구사항>

1.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계획을 철회하라.
2.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기업의 이해에 부응하여 농민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는 법적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3. 1952년에 강제로 빼앗은 평성 주민들의 땅을 당장 반환하라.

<활동계획>

1. 농민 공동체와 이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국제적인 ‘평택 지키기 운동’을 펼친다. 이러한 운동의 일환으로 2006년 1월 14일(토)을 국제공동행동의 날로 정해 한국, 일본, 브라질, 프랑스 등 각국의 한·미 대사관 앞에서 평택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다.
2. 국경과 시도 유연을 넘어 평성 농민들의 땅을 지키기 위한 ‘평택 지킴이’를 조직한다. ‘평택 지킴이’ 활동은 농민들의 땅과 집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현지 행동들을 포함한다.
3. 미국과 한국 정부의 평택 미군기지 확장 시도에 대한 ‘감시단’을 조직해 활동한다. 이를 위해 공동행동을 위한 상시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한다.
4. 세계적인 차원에서 농년의 토지에 대한 경제수용에 맞서는 공동투쟁을 지향한다. 그 밖의 방법을 통해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반드시 막아낸다.

2005. 12. 11.

평택평화대행진 국제참가단 일동

(오키나와-헤노코 행동, 프랑스농민연맹, 브라질MST)

국제연대 성명서

Statement by the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Regarding the Resolution of Japanese Distortion of History

The year 2005 marks the 60th anniversary of Korean independence from Japanese occupation. In this symbolically significant year, the entire region is trying to work together to open a new era dedicated to overcoming the suffering in the past and historical wounds of the region. However, the recent conflict over Japanese history textbooks has created unnecessary tension in Northeast Asia. It is well known that peace cannot be achieved by one side alone. It can only be possible when neighboring countries cooperate with each other. Obviously, making peace in Northeast Asia is a difficult but not an impossible task and this is why we are greatly concerned over the history textbook issue.

In 2001, the work of Japanese and Korean civic organizations brought positive results when the historically distorted textbook created by the Japanese Society for History Textbook Reform (JSHTR) was rarely chosen by schools in spite of persistent promotional efforts by JSHTR and other right wing groups. However, these positive results are now being threatened by the attempts of the JSHTR to create a new textbook in 2005. In the new textbook JSHTR intentionally omits the negative aspects of the Japanese colonization of Korea (1910-1945), especially issues related to "comfort women" and forced laborers. Furthermore, the textbook glorifies and justifies the colonial war as liberating Asia from Western powers.

It is well known that the distortion of history by Japanese right wing groups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deployment of troops overseas and to the future revision of Japan's pacifist constitution. The unqualified glorification of a brutal history cannot bring honor to Japan without a sincere confession and apology for past wrongs. If Japan ignores the damage it caused to neighboring countries it is only burying its head in the sand.

We, Northeast Asian civic organizations, are working for peace and human rights in the region and hope that Japan can be reborn as a country of peace. It is our hope that the current textbook conflict does not create broader confrontation and tension in the region. On the 60th anniversary of the end of the Pacific War, it is our strong request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work to resolve the history textbook issue and the broader distortion of history issue as quickly as possible.

Therefore:

- We oppose the inclusion of the distorted JSHTR textbook in the textbook selection process.
- We oppose the admittance of Japan to the UN Security Council without prior resolution of its historical wrong doings.
- We request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humbly confess its past wrong doings and ensure accurate portrayal of historic facts.
- We request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ensure peace and human rights education that is acceptabl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We support the realization of historical justice through the cooperation of civic organizations in

Northeast Asia.

- We support the building of peace in Northeast Asia by expanding common understandings of history in the region.

2005. 4. 5

GPPAC Seoul Focal Point, GPPAC Northeast Asia

일본역사왜곡 해결을 위한 동아시아 시민단체 국제연대 성명서

동아시아 평화 가로막는 일본의 역사왜곡, 동아시아 시민연대로 막아내자

올해는 한국을 비롯하여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일본의 억압적 지배로부터 해방된 해방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처럼 중요한 6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날 우리 동북아 지역을 옥죄었던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딛고 새로운 시대로 나가려는 이때, 최근 불어닥친 일본의 역사왜곡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평화는 우리 존자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웃나라와 함께 손잡고 나갈 때에만 이룰 수 있다. 동북아의 평화는 이루기 힘든 꿈이지만 포기할 수는 꿈이다. 우리가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에 이토록 큰 관심을 갖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2001년 우리는 한줄기 희망을 보았다. 일본의 우익교과서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의 역사교과서가 일본 우익의 엄청난 공세에도 불구하고 한일시민단체의 연대활동으로 거의 체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본의 양심세력의 거력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올해 4월 일본 문부과학성에 의해 검정통과를 앞두고 있는 새역모 교과서는 이런 희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새역모 교과서는 일제 식민지 피해에 대해 눈감아 버려 동아시아에서 끌려간 수많은 일본군 '위안부'의 피해와 강제동원 사실을 그 흔적조차 지워 버렸다. 또한 일제 식민지전쟁을 해방전쟁이라고 미화하며, 전쟁을 합리화하기까지 한다.

더구나 일본 우익에 의한 역사왜곡이 자위대의 해외파병, 평화헌법 개정 등과 맞물리면 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위한 치밀한 사전준비라는 점은 이미 잘 아는 바이다. 일본 우익 세력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진정한 사회와 민성 없이 일본 역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양이 결코 일본을 자랑스럽게 하는 길이 깨달아야 한다. 일본이 아시아 여러 나라에게 준 그 엄청난 피해에 대해 눈 감는다면, 일본 스스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결과가 될 것이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을 지향하는 동아시아의 시민사회는 일본이 평화세력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동아시아 역사분쟁으로 또 다시 동아시아가 갈등과 대립으로 이어지길 원치 않는다. 해방 60주년, 해방 60주년을 맞이하여, 일본정부는 일본 역사왜곡을 비롯한 대일과거사 문제를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이웃나라가 강력히 문제제기의 결과로 1982년에 정부한 근원제국조항에 입각하여 조속하게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 침략전쟁 왜곡하는 일본 우익교과서의 검정통과를 반대한다.
- 새역모의 역사교과서의 일본의 공립과 사립학교에서 사용되는 것을 반대한다.
- 과거청산 없는 일본의 유연안보로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한다.
- 일본정부는 침략사실을 경계하게 반성하고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하라.
- 일본정부는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평화와 인권교육을 실시하라.
- 동북아의 무장 갈등예방을 위해 일본의 평화 헌법 9조가 유지되기를 요구한다.
- 동아시아 시민연대를 역사정의 실현하고 역사인식 공유하여 동아시아평화 만들어가자.

2006년 4월 5일

GPPAC 한국위원회 · 동북아위원회

* 다음은 7월 19일-21일 사이에 유엔 뉴욕본부에서 열린 “무장갈등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국제회의 기간 중 6개국(미, 중, 러, 일, 한, 몽고)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발표한 공동성명서입니다. 이 성명서는 유엔 주재 6자회담 당사국 대표부와 언론사에 배포되었습니다.

2005년 7월 20일

국제 연합, 뉴욕

6자회담에 대한 시민 사회의 요구

평화적으로 위기를 해결하라.

동북아시아를 비핵무기지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

서명자인 우리는 한반도의 핵 위기에 깊이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예정된 6자회담 제개를 환영한다. 6자회담은 관련국가들이 즉각적이고, 평화적이며 피할 수 없는 해결을 이루기 위한 공동의 토대(platform)를 제공해야만 한다.

어떠한 위기해결도 관련당사국의 동시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져야한다. 즉 한편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와 NPT 재가입 복귀, 다른 한편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안전보장을 포함하고 미국의 적대정책의 완전한 철회가 있어야 한다. 6자회담 참여 정부들은 상생적인 해결책을 위해 상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대화와 협력을 촉진해야 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며 관련 당사자 사이에 생산적인 조건을 악화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삼가야 한다.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관련당사국의 무력위협이나 무력사용 선택권을 부정한다. 1992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한반도비핵지대를 발전시키기 위한 합의를 이룬 토대이다. 우리는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를 향해 우리의 노력을 강화하는 데 헌신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동북아 비핵무기지대화 창선을 위한 필수요소이다.

현재 한반도의 핵위기는 동북아에 강요하는 냉전구조에서 나온 증상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의 관계정상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그리고 이 지역 모든 국가들이 상호신뢰에 기반한 협력을 통해 이 냉전구조를 넘어서는 게 필수적이다. 이 지역에서 핵위협과 군사적 위협을 낳는 모든 요인들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며 조율된 군축과 비군사화 행동을 통해서 이 요인들을 대체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의 군사화를 막고 일본 헌법 9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6자회담 관련국의 시민인 우리는 6자회담과 병행해서 시민사회포럼을 개최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밝힌다. 이 시민사회포럼에서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화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고 혁신적이며 탄력적인 접근법을 추구할 것이다. 이 난국을 벗어나고 동북아에서 실체적인 진보를 만드는 것은 다른 지역-중동과 남아시아에서 군축과 안보 촉진을 위한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이 불안한 지역을 비핵무기지대로 개발하는 것은 세계적인 핵비확산 레짐의 현재 난국을 벗어나기 위해 돌파구를 제공할 것이다.

2006년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투하 60년으로, 핵무기 고유의 비인간성을 기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핵무기를 불법화하고, 무차별적인 대량살상무기에 의존하는 어떠한 정책도 비도덕적이며, 무책임하며, 비현실적이며, 불법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데 헌신할 것이다.

서명자(2005년 7월 20일 현재)

미국

Jacqueline CABASSO (Western States Legal Foundation / Abolition 2000 / United for Peace and Justice, USA)

Amy FINNEGAN (NGO Committee on Disarmament, USA)

Valerie KAO (NGO Committee on Disarmament, USA)

한국

심영희(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경란(평화를만드는여성회)

양미강(아시아의 평화와 역사교과서연대)

정주진(평화활동가)

이현숙(대한적십자사 부총재)

장점들(일본군“위안부”생존자)

최기자(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전쟁과 여성인권센터 연구원)

몽고

ENKHSAINKHAN Jargalsaikhan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of Mongolia, Mongolia)

러시아

Vadim GAPONENKO (International Research Centre, Maritime State University, Russia)

중국

NIU Qiang (Chinese People's Association for Peace and Disarmament, China)

SHEN Dingli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Fudan University, China)

일본

YOSHIOKA Tatsuya (Peace Boat, Japan)

KAWASAKI Akira (Peace Boat, Japan)

KIMIJIMA Akihiko (Nonviolent Peaceforce / Ritsumeikan University, Japan)

KODAMA Katsuya (Mie University, Japan)

Kathy MATSUI (Global Campaign for Peace Education, Japan)

July 20, 2005

United Nations, New York

Civil Society's Call on the Six-Party Talks:

Solve the Crisis Peacefully,

Work towards a Nuclear-Weapon-Free Zone in Northeast Asia

We, the undersigned, are deeply concerned about the nuclear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We welcome the planned resumption of the Six-Party Talks, which should provide a common platform for the States concerned to realize an immediate, peaceful and irreversible resolution to the crisis.

Any solution to the crisis should be brought about through simultaneous actions of the parties, namely the DPRK's complete dismantlement of it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its return to the NPT regime on the one hand, and the abandonment by the United States of its hostile policy against the DPRK, including a security assurance. Governments engaged in the Six-Party Talks should promote dialogue and cooperation by providing mutual incentives to achieve a win-win solution, and should refrain from any actions which would harm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would undermine the conditions for a productive negotiation among the parties.

Peaceful resolution through dialogue should be the fundamental principle in solving this crisis. We denounce any threat or exercise of military options by States concerned. The 1992 Joint Declaration for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rovides an agreed basis for developing a nuclear-weapon-free Korean Peninsula. We are committed to strengthen our efforts to work towards a nuclear-weapon-free zone in Northeast Asia.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an essential element for creation of such a zone in Northeast Asia.

The current nuclear crisis on the Peninsula should also be understood as a symptom of the Cold War structures that remain in Northeast Asia. It is thus essential to evolve beyond these structures by normalization of the relations between the DPRK and the US and between the DPRK and Japan, and by developing cooperation among all States in the region based on mutual trust. All those factors which pose nuclear and military threats in the region, including the United States' nuclear and military strategies and the nuclear weapon dependent security policies, should be seriously addressed and replaced by coordinated disarmament and demilitarization actions throughout the region. In this context, steps must be taken to curb Japanese militarization and to protect Article 9 of Japan's Constitution.

We, the concerned citizens, hereby declare our intention to launch a Civil Society Forum in parallel to the Six-Party Talks where we will pursue innovative and flexible approaches that are needed for the realization of a nuclear-weapon-free zone in

Northeast Asia. Making substantial progress in Northeast Asia to disengage the deadlock would provide momentum for disarmament and promotion of security in other regions in the world, namely the Middle East and South Asia.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 free zones in these troubled regions would provide a breakthrough for the current impasse of the worldwid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As 2005 marks the 60th anniversary since the atomic bombings of Hiroshima and Nagasaki, it is essential to remember the inherently inhumane nature of nuclear weapons. We must de-legitimize nuclear weapons, and recognize that any policies dependent on such weapons of non-discriminatory mass massacre are immoral, irresponsible, impractical and illegal.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take the lea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wards achieving that goal.

Signatories (As of July 20, 2005)

* Affiliation appears for identification purposes only.

Jacqueline CABASSO (Western States Legal Foundation / Abolition 2000 / United for Peace and Justice, USA)

CHOI Ki-Ja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ROK)

CHUNG Ju-Jin (World Vision Asia Pacific, ROK)

ENKHSAIKHAN Jargalsaikhan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of Mongolia, Mongolia)

Amy FINNEGAN (NGO Committee on Disarmament, USA)

Vadim GAPONENKO (International Research Centre, Maritime State University, Russia)

JANG Jeom-dol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ROK)

JUNG Gyung-Lan (Women Making Peace, ROK)

Valerie KAO (NGO Committee on Disarmament, USA)

KAWASAKI Akira (Peace Boat, Japan)

KIMIJIMA Akihiko (Nonviolent Peaceforce / Ritsumeikan University, Japan)

KODAMA Katsuya (Mie University, Japan)

LEE Hyun-Sook (Korean Red Cross, ROK)

Kathy MATSUI (Global Campaign for Peace Education, Japan)

NIU Qiang (Chinese People's Association for Peace and Disarmament, China)

SHEN Dingli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Fudan University, China)

SHIM Young-Hee (Women Making Peace, ROK)

YANG Mi-Kang (Asia Peace and History Education Network, ROK)

YOSHIOKA Tatsuya (Peace Boat, Japan)

일본 헌법9조 개악에 반대하는 한일 시민단체 공동 성명

지난 4월말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의 헌법조사회 발표를 계기로 일본 내에서 헌법 개정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개헌을 주도하고 있는 자민당은 역시 올해 11월까지 독자적인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과 연립내각에 참여하고 있는 공명당도 사실상 개헌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이미 개헌을 주도하고 있는 자민당은 이미 여러 차례 자위대의 군대화와 집단적 자위권과 해외에서의 무력사용 허용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지난 8월 1일 자민당 신헌법기초위원회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 '권력보유 금지'를 규정한 9조 2항의 삭제, 자위대를 자위'군'(自衛隊)으로 명기, 해외에서의 무력행사 허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여지도 남겨두고 있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한일 양국의 시민단체들은 일본 헌법 9조 평화조항의 폐지와 무력화에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일본 헌법 제9조 개악은 아시아민중에 대한 약속위반이다. 일본 헌법의 제9조의 전쟁포기와 권력보유 금지 조항은 폐전의 결과 일본에 부과된 조항이기도 하지만, 일본이'다시는 전쟁을 하는 국가가 되지 않겠다'는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역사적 약속이기도 하다. 이러한 헌법 제9조를 개악하는 것은 아시아 민중에 대한 약속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둘째, 일본 헌법 제9조 개악은 동북아에 있어서의 신뢰와 평화를 해트린다. 일본 헌법의 평화조항은 전후 일본과 동북아 국가들이 불안정하다 최소한의 신뢰관계를 유지해 올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일본 헌법 9조의 개악은 일본사회의 보수우경화를 부추기고, 미일동맹의 군사화를 공고히 할 것이며,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셋째, 일본 헌법 제9조 개악은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는 세력과 손잡고 있다.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로서 보듯,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고 왜곡하려는 과자회귀적인 우경화의 흐름이 개헌을 추동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국가들이 일본의 개헌 움직임에 우려와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넷째, 일본 헌법 제9조는 동북아 평화공동체 건설을 위한 자산이다. 일본 헌법 제9조의 비무장 평화주의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향하는 동북아 평화공동체 건설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또한 동맹의 정치가 초래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극복하고 군축을 통한 새로운 평화의 전서를 창출하기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평가되고 확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정치권과 개헌세력들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수의 평화지향의 일본민중들과 아시아민중이 자위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던 침략전쟁의 역사를 직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헌법 제9조를 지키고 평화국가로 남는 것이 아시아민중이 일본에 대하여 요구하는 국제공헌임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동아시아 시민들과 일본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열망을 모아 헌법 9조

수호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연대를 광범위하게 펼쳐 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 두는 바이다.

2005. 8. 18

한국

2005 갈등분쟁예방국제회의 한국위원회(GPPAC Korea), (사)개척자들, 녹색연합, 동북아평화연대, 비폭력평화물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민족문화학자회의,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평화나눔센터,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박물관추진위, 평화시민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포럼, 한국아나티스트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희생자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일본

GPPAC Japan, Peace Boat, 일본국제법률가협회, Peace & Green Boat

11.3. 일본 헌법 공포일 한일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성명서

11월3일은 일본 헌법 공포 59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59년간 전후 일본 헌법은 끊임없이 시련을 겪어 왔다. 해석개헌이라는 논리로 헌법 9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었고, 최근에는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재헌세력들이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고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허용하기 위한 9조 개정제 박자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11일 중의원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자민당은 창당 50주년이 되는 11월22일을 기해 헌법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중의원 선거에 패배한 민주당이 신임 대표를 중심으로 개헌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헌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오늘 서울과 도쿄에 모인 한일 양국의 시민단체들은 현재 일본의 헌법 개정 움직임은 '전쟁포기와' '전력보유 금지'를 규정한 9조의 무력화와 폐지를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또한, 헌법9조의 폐지와 무력화에 단호히 반대한다.

첫째, 일본의 헌법 9조는 반성과 화해에 기반 한 아시아 민중들과의 약속이다. 일본의 헌법 9조는 무모한 침략전쟁을 일으켜 아시아 민중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군국주의에 대한 책임 추궁이며, 또한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일본은 다시는 전쟁하는 국가가 되지 않겠다'는 아시아 민중들과의 화해를 위한 약속이다. 따라서, 헌법 9조를 개악하는 것은 아시아 민중들과의 약속을 깨는 것이며 화해의 역사를 거스르는 행위이다.

둘째, 일본 헌법 9조는 그동안 일본과 동아시아 국가들이 최소한의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기반이었다. 그러나, 일본 헌법 9조 개악은 미일동맹에 관승한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역사교과서 왜곡, 총리와 정치인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는 과거회귀적 우경화와 함께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결국, 일본 헌법 9조의 개악은 아시아 국가들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불복과 군비경쟁을 가속화하는 불신의 악순환을 낳게 될 것이다.

셋째, 일본 헌법 9조는 미일동맹, 한미동맹의 군사적 일체화로 초래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긴장을 극복하고 군비축소와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평화질서를 창출하는데 있어 소중한 자산이다. 또한,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항구적인 평화주의 원칙에 기반해 전쟁포기와 전력보유 금지를 명시한 일본의 평화헌법은 소중한 자산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동아시아와 전세계로 확산되어야 한다.

일본의 집권자민당과 재헌세력은 헌법9조를 지키고 실천하는 '평화국가 일본'이 아시아 민중들이 일본에게 전쟁으로 바라는 모습이며, 그것이 일본의 진정한 국제공헌이라는 점을 적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 9조를 개악하는 것은 아시아 민중들과 평화를 사랑하는 대다수의 일본 국민들을 배신하는 것이며,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행위를 명심해야 한다.

일본 국민들과 아시아 민중들은 인류의 역사와 일본의 역사 속에서 '자위'(自衛)와 '국익'(國益)이라는 명분으로 행해졌던 침략전쟁의 역사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한 평화헌법 재약 움직임을 지지하고 단호히 대처해 갈 것이다.

오늘 서울과 도쿄에서 평화헌법 재약을 저지하고 평화헌법의 소중한 원칙을 살려가기 위해 모인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향후에도 일본의 헌법9조를 수호하고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연대를 지속해 갈 것임을 밝혀 두는 바이다.

한국: 일본평화헌법개정저지를 위한 한일공동행동 한국위원회

{사)재처자들, 동북아평화연대, 비폭력평화물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박물관추진위, 평화시민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포럼, 한국아나벨티스트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외교화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민중연대, 통일연대, 여성환경연대, 민족화합운동연합, Asian Wide Campaign Korea

일본: 11.3 헌법 철폐 실행 위원회

가독고 신자 평화 네트워크, 헌법을 사랑하는 여성 네트워크, 헌법을 살리는 모임, 고교생 안전 행동 네트워크, GPPAC Japan, VAWW-NET Japan, 종교자 평화 네트워크, 전국노동 조합 연합협의회, 피스포드, 페민 부인 민주 클럽, 평화 헌법 21세기 모임, 메이타이슨다이문화회, 용서할라! 헌법재약 시민 연학회

평화여성회 발간자료 목록

1. 청소년평화리더십캠프 자료집 / 2005년 1월
2. 청소년평화리더십캠프 영상자료 / 2005년 1월
3. 여성, 통일을 말한다. / 2005년 5월10일
4. 회지 : 평화를만드는여성들 통권 21호 / 2005년 5월31일
5. 제3기 '갈등해결과 평화' 강사트레이닝 자료집 / 2005년 6월
6. 금강산에서 우리는 여성통일꾼들 / 발간일 : 2005년 11월10일
7. 한국여성평화운동사 심포지움 “새롭게 읽는 한국여성평화운동, 흐름과 과제”
/ 2005년 12월27일(화)
8.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여성 / 2005년 12월13일
9. 청소년을 위한 갈등해결 교안집/ 2005년 12월15일
10. 2005 갈등·분쟁예방국제회의 한국위원회 활동보고서 / 2005년 12월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갈등해결워크숍 자료집/ 2005년 12월

언론보도 모음

1. 언론보도 리스트

기사제목	매체	날짜
여성의 이름으로 부시 취임을 규탄한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성명서 발표...이라크 철군 촉구	뉴스엔조이	1월24일
이라크 침공 2주년 반전행사 개최 과병반대국민행동, 3.20 국제반전공동행동 개최	프레시안	3월14일
학교폭력 근절 대책 갑론을박	문화일보	3월15일
미군 침공 2년, 우리는 팔루와 학살극을 기억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3월20일
북한은 적대정책에 관한 한 금예달 감	오마이뉴스	4월6일
지속가능여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 토론	연합뉴스	5월6일
'여성통일을 말하다' 심포지엄 10일 열려	KBS	5월7일
615 남북 '통일대축전' 여성 참가 축소	여성신문	6월11일
북과 함께할 '여성특화'사업 필요	여성신문	6월11일
<세계여성학대회> '한국 여성운동과의 대화' 행사	연합뉴스	6월22일
김선일에 대한 망각, 반가워할 이들은 미국 - 고 김선일 사망 1주기 추모 및 자이툰 철수 문화제	프레시안	6월27일
한국 여성 5명 노벨평화상 공동추천후보에 포함	연합뉴스	6월30일
이라크 평화와 자이툰 철수를 위한 평화 퍼포먼스 '무지개 등불로 밝히는 평화'	뉴스와이어	11월24일
한미동맹 지키려 주민 짓밟지 말라	CNNNEWS	12월23일
"향후 남북한 여성교류 일반여성 참여 늘려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여성을 주체로 전문가 포럼개최	여성신문	12월17일
한국여성평화운동사 심포지엄 개최	통일뉴스	12월27일
"여성주의 평화운동으로 거듭나야" -새롭게 읽는 한국여성평화운동, 흐름과 과제' 심포지엄을개최	여성신문	12월31일

2. 언론보도 내용

여성의 이름으로 부시 취임을 규탄한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성명서 발표...이라크 철군 촉구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이사장 이갑현숙)가 지난 1월 20일 열린 부시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성회는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광 부시의 대통령 취임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미국의 이라크 침략으로 인해 무고한 이라크의 여성, 아이, 민중이 죽어가고 있다"며 "미국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제국주의 탈을 쓴 것에 다름 아니며 민주주의도 이미 훼손됐다"고 강력 비판했다.

미국의 이라크 철군을 촉구한 여성회는 "부시 재선 이후 더욱 강화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정권봉쇄를 목표로 한 북한인권법 제정 등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라크 침공 2주년' 반전행사 개최

-파병반대국민행동, 3.20 국제반전공동행동 개최

프레스인 2005년3월14일

파병반대국민행동, 3.20 국제반전공동행동 개최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은 미국의 이라크 침략 2주년을 맞아 '3.20 국제반전운동' 및 '이라크 반전평화주간'을 14일 선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평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반전운동과 이라크 반전평화 주간 선포의 취지와 함께 토론회, 문화제 등 다채로운 행사 계획도 소개했다.

이날 공개된 '반전평화주간' 행사계획안을 보면, 문화행사와 토론회를 비롯 국내 시민단체가 초청한 이라크인 방한 활동들이 있을 예정이며,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평화박물관'에서는 이라크 전쟁 관련 책 할인판매, 평화단체 자료 및 엽서 등이 전시 관대된다.

----- 이하 생략 -----

이런 행사 마련에 참여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최선희 사무처장은 "지난해에 비해 미국의 이라크 침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줄어들었다"며 "반전평화주간과 3.20 반전공동행동에서 반전과 평화를 위한 작은 목소리들이 분출돼 다시 한 번 반전에 대한 생각을 되새기고 행동화될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3.20 국제반전공동행동은 미국, 이라크, 일본, 영국 등 35개 국가들에서 동시에 개최된다. 김정일 국민행동 운영위원회는 "지난 포르투갈레그레 반전평화 비상총회에서 결정한 대로 반전평화에 동의하는 국제 시민단체들이 공동행동을 준비해 오는 20일에는 전 지구적으로 반전평화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 갑론을박

문화일보 2005년3월15일

"학교폭력 신고 실적이 우수한 학교, 학교장, 교사에게 표창 등인센티브를 주겠다." 교육인적자원부가 3, 4월 두 달을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했음에도 접수건수 부진으로 신고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문화일보 3월 14일자 8면 참조)에 따라 15일이같은 다재책을 내놨다.

이는 전날 열린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교육부 등 관련 8개부처참여) 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학교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할경우에 해당학교가 사·도교육청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현 제도가 자진신고를 꺼리게 한다는 판단때문이다. 김영운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학교폭력 신고를 통해 실태를 공개하고, 이에 적합한 대책을 세우려는 노력을 한 학교와 교장, 교사들에 대한 학교 평가에서 가점을 주고, 교육부가 이를 표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용섭 학교정책실장은 "신고기간을 설정한 것은 학교폭력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고하기 쉬운 폭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정표 교육부총리는 이날 국민들과 교육계 인사들에게 보내는 e메일 서한을 통해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위해 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겠으나, 교육적으로 해결이 어려운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폭력 조작을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자진 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어떤 경우에도 없을것임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번 주내에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교직원단체, 가·피해학생 및 학부모 등으로 실태조사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인사처 기판에 위탁해 정확한 실태를 이달말까지 파악한 후, 내달초에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영운 과장은 "학교폭력 신고의무를 정한 현행 법규(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8조) 학교폭력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학교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해당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 학생 보호자나 학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가 실효성이 없다는지적을 많이 들어왔다"며 "국회가 이를 개정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장재선기자 jejei@munhwa.com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결성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자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면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물 플리스제도는 부작용만 큼니다.

----- 이하 생략 -----

평화를만드는 여성회 관동해결센터 조영희 청소년교육팀장은 "청소년대안문화가 자리잡지 못해 '일진놀이'가 성행하고 있는 것인테스를 플리스제도는 폭력을 더 큰 폭력으로 재압하겠다는 것이므로 반대한다"면서 "인권교육,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치관과기술 습득을 위한 평화교육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군 철공 2년, 우리는 팔루자 학살극을 기억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2005년3월20일

"이라크 침략 2년은 학살의 날들이었다. 우리는 작년 4월과 11월 부시가 저지른 팔루자 학살극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학살은 팔루자 뿐 아니라 이라크 전역에서 벌어졌다.

영국의 의학 전문지 '랜셋'에 따르면 2년 동안 최소 10만 명의 이라크인들이 학살당했다." 이라크 전쟁을 반대해온 시민단체들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 2년에 따른 비극을 이렇게 지적했다. 그리고 '미군의 이라크 철수'와 '파병된 한국군 철수'를 함께 요구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20일 오후 3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3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3.20 이라크 침략 2년 규탄 국제반전행동' 집회를 열었다. 1부 행사는 방송인 홍석천씨의 사회로 반전콘서트, 2부 행사는 **최신회 평화여성회 사무처장의 사회로 국내외 각계 인사들의 반전 연설로 각각 진행됐다.**

정광훈 국민행동 공동대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 김장일 다함께 운영위원 등이 연설을 통해 미국을 규탄하고 전쟁을 반대했다. 또한 파두옥 사다 이스마엘 이라크 남부석유산업노조 국제국장, 카라하라 히카루 APA 일본운영위원이 연대사를 했다.

국민행동은 결의문에서 "(미군의) 점령 2년 동안 실업률은 70~80%에 달하고 수도와 전기 시설의 부족 때문에 이라크인들의 고통이 커져가고 있으며 점령군은 유전을 다국적 기업들에게 팔아넘기고 있다"며 "이라크인들은 점령에 맞서 저항하고 있으며 점령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고 미군에 대한 이라크의 저항을 지지했다.

국민행동은 또한 "노무현 정부가 파병한 3600명 한국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한다"며 "부시의 위기가 심화될수록 핵심 동맹세력인 노무현 정부의 점령 지원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만약 노 정부가 추가 파병을 추진한다면 반전평화운동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반전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마로니에 공원에서 평화문화까지 반전평화 대행진을 마친 뒤 자진 해산했다.

어린이들 평화노래 "전쟁 무기 싫어 (당근) 전쟁 없는 평화 세상 (당근)"

"전쟁 싫어 무기 싫어 (당근)

전쟁 무기 싫어요 (당근 당근 당근)

우리 모두 (당근) 힘을 모아 (당근)

평화를 지켜요 (당근 당근 당근)

전쟁 없는 (당근) 평화세상 (당근 당근)" ("당근송"을 개작한 '평화송' 일부)

----- 이하 생략 -----

북한은 적대정책에 관한 한 금매단 감

오마이뉴스 2005년4월6일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공직 취임을 앞둔 크리스토퍼 힐 주한미국대사는 한국에서 마지막 공식인정으로 진보적 평화단체가 주관한 한 토론회에 참석해 북핵문제 해결과 6자회담 재개 조건을 놓고 열띤 공방전을 치렀다.

크리스토퍼 힐 대사는 6일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평화네트워크(대표 정옥식) 주최의 토론회에서 ▲북한의 6자회담 불참은 ▲6불화우라늄(UP6) 리비아 판매 설 등에 대한 폐널들의 질문에 호드라질 없이 적극적으로 답변하고 반문했다.

"북한정권 본질 명확히 복소리 높일 것"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이기도 한 힐 대사는 기조발제를 통해 "미국은 정말로 6자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알맞은 포맷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북한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를 들어 이 회담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힐 대사는 "최근 북한이 양자회담을 피력하고 있지만 이것은 북미 양자간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다른 국가들도 관련된 문제"라고 못박았다. 특히 한국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6자회담에 적극 참여하는 중요 국가"라고 말했다.

기조발제와 패널 질의응답 식으로 진행된 토론에서 가장 처음 마이크를 쥔 패널은 정경환 평화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정 소장은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북경의 천조기지'라고 표할 만큼 제1기 행정부와 비교할 때 대북정책의 변화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힐 대사는 "1, 2기 부시행정부의 일관성"을 강조하면서 "북경의 천조기지 발언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북한정권의 본전에 대해 명확히 목소리를 높여갈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1, 2기 부시행정부의 차이점보다는 '일관성'에 무게를 두면서 북한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바꿀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또 힐 대사는 "사실(fact)은 불연할 수도 있지만 이런 사실(북핵위기의 현실)을 명확하게 그대로 말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이 협상(6자회담)은 중국에 북한 주민들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이라고 북한정권의 지도부를 겨냥했다.

북한의 6자회담 불참에 숨은 뜻...정말 모르나?

북한의 6자회담 불참설에 대해 이유를 모르겠다고 항변한 것과 관련, 정대면 전국민총연대 정책위원장은 "부시정부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라며 "미국이 선택제기를 고집하고 다른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6자회담은 계속 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힐 대사는 이에 대해서도 "북한과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의견의 불일치가 있다"며 "북한이 적대정책 노선을 고집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옳지 않다"고 충고했다.

이어 힐 대사는 "적대정책에 관한 한 북한은 금배달 감"이라며 약간의 비아냥을 섞기도 했다. 특히 힐 대사는 "북한의 핵은 북한주민들을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만들고 보편적 가치를 누리게 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인권과 핵문제를 동시에 문제삼았다.

그러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힐 대사의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여기 있는 누구 하나 북한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며 "한국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과 의료지원을 해왔으나 최근 이에 대해 한미간 이견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 이하 생략 -----

지속가능위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 토론회

연합뉴스 2005-05-06 11:07:52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공관람과 참여적 의사결정'을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공공기관 활동관리에 관한 기본법'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법안의 핵심사인 인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개념과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는 자리로 대학과 연구소,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민대 김환희 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참여적 의사결정이란 공공정책에 시민사회를 참여시킴으로써 국가 전체의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는 것"이라면서 "오늘날 공공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종종 불신을 받고, 사회적으로 큰 갈등을 초래하는 공공적 원인은 시민사회의 적절한 참여기회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의적 민주주의는 집단적 정책결정 과정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들이

주인행세를 하는 이른바 '주인-대리인' 문제를 노정한다"면서 "이는 공직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제한돼 있는 등 여러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시민사회의 참여"라고 피력했다.

김 교수는 전문가 토론에 앞서 공청회, 국민투표, 규제합상, 라운드테이블, 속의적 여론조사, 시나리오 워크숍, 시민대심원, 자문위원회, 조정, 포커스그룹, 합의회의 등 시민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화여대 김유환 교수는 발제문에서 시화호 간척지 개발지회 등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참여적 의사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참여적 의사결정의 핵심은 국민의 참여, 그리고 참여자의 속의 및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시도되고 있는 참여적 의사결정은 방법론적으로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함께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관공이 표면화된 이후에 참여적 의사결정이 시도되며 ▲지방의회 의원 등 정치성 짙은 인사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에대한 개선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다만 현장실사나 현장견학을 중시하는 풍토를 우리나라와 참여적 의사결정 과정의 주요 특징중 하나라고 소개한 뒤 앞으로도 이러한 점을 적극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평화불만도여성회 공동해결센터 박수선 소장, 허승수 변호사, 윤순철 경실련 갈등해소센터 운영위원 등 토론회 참석자들은 각기 참여적 의사결정의 의의를 전단한 뒤 ▲공직자 의사결정을 위한 교육·홍보 ▲공공의사결정 파트너로서의 시민단체 역할 재인식 ▲조정·중재·협상 담당 전문가 양성 ▲사회·문화·제도·교육제 인프라 구축 등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여성,통일을 말한다’ 심포지엄 10일 열려

KBS 2005년 5월 7일

6.15 공동 선언 5주년을 앞두고 여성의 시각에서 보는 통일의 과제와 통일 운동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오는 10일 정현백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와 김숙영 평화여성회 상임대표 등 여성계 인사가 대거 참석하는 심포지엄을 열어 여성이 바라는 통일과 남북 여성 교류의 의미에 대한 논의를 펼칠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남북 여성 간의 이질감과 격차를 해소하고 상호 공동의 관심사를 찾기 위해 남북 여성들이 어떻게 교류해야 하는지와 남북 여성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 등에 대한 토론도 진행됩니다.

615 남북 ‘통일대추전’ 여성 참가 축소

여성신문 2005년 6월 11일

남북은 지난 4월 ‘6·15 공동준비위’ 남북해외실무회담을 통해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6·15행사를 치르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통일 행사에 참가할 남북 민간대표단 규모가 당초 합의안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300명 정도로 합의문에 따라 참가 여성 수도 축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성대표단은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기념 '통일대추전' 행사에 참가. 오는 7월 남북여성통일대회를 본격 논의할 방침이다. 지난 2002년 남북여성통일행사 개최 이후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중단됐던 행사를 재개함으로써 여성 독자적 통일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장경란 평화로만드는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소장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남북 여성 교류는 중단 없이 지속돼야 한다"며 "교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평화NGO의 역할 확대, 남북 여성 교류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소장은 "향후 남북 여성 교류는 여성주의와 평화주의 원칙에 입각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여성단체뿐 아니라 각 여성 개인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북과 함께한 '여성특화'사업 필요

여성신문 2005년 06월 11일

6·15 공동선언 5주년을 맞아 남북 여성 교류의 활성화 방안과 전환점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은 인적 교류의 급보 확대와 경제협력사업의 다각적 전개로 남북 여성 교류협력에도 많은 변화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현재, 남북 여성 교류는 기대만큼 활발한 성과를 얻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남북여성실무회담과 2002 남북여성통일대회 개최 등의 성과를 얻었으나 남북 정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여성 교류는 중단되거나 난관에 부딪혀 왔다. 이는 남북 여성 교류가 다른 민간교류와 마찬가지로 제한된 범위에서 진행돼 왔으며 또 남북 정치적 관계에 의해 때로 중단되는, 불안정한 구조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숙임 평화로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는 "민간 교류만으로 한반도의 미묘한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여성주의적 협력을 위한 남북 여성 교류의 법제화 및 인프라 구축, 통일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 확대 등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덕희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 여성 간의 사회문화 교류는 독자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양국의 정치관계, '북력분제'를 둘러싼 국제적 환경에 좌우돼 왔다"며 "그동안 마련됐던 행사 또한 이변대상, 재정적 교류에 국한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남북 여성 교류의 전환을 위해 아동복지, 여성 전문인력 교류 등 여성 경제성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1월 구상된 남측의 여성분부와 4월 개최된 '6·15 공동위원회 북측위원회' 내 여성위원회가 남북 여성 교류의 조직적 장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01년부터 민족공동행사 중 상동모임을 마련한 여성들은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여성의 역할' '향후 남북 여성 교류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 등의 논의와 토론을 전개했으며 2002년 10월 북측 금강산에서의 '남북 여성 통일대회' 개최를 성사시켰다. 그러나 2003년 남북 여성 실무협상을 통해 합의된 '2003 남북여성평화행진' 행사는 북측의 사정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2004년 통일행사 또한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무산됐다. 또 2004년 인천에서 '남북여성통일한마당'을 추진키로 합의했으나 전체 민족공동행사 일정에 밀려 실행되지 못했다. 한편 지난해 '통일등기여성행동'을 조직하고 캠페인을 펼친 것과 지난 3월 주부들의 후원금을 모아 북한 공장에 기계·계료를 지원하는 '북남여민이영양방공방'을 설립한 것 등은 남북 여성 교류 중 실질적 성과로 평가 받고 있다.

<세계여성학대회> '한국 여성운동과의 대화' 행사

연합뉴스 2005년 06월 22일

제9차 세계여성학대회 참가자 대상의 특별 초청행사가 22일 오후 7시 '한국 여성운동과의 대화:한국 여성운동에서의 최근 이슈들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서대문구 한국여성단체연합 마당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여성의전화연합, 이주여성인권센터, 평화여성회, 성폭력상담소, 여성노동자회의회, 서울여성위원회 등 8개 여성단체가 세계여성학대회 참가자들에게 국내 여성운동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참가자들에게 여성운동의 전개과정과 현재 제기되고 있는 관련 이슈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 교류를 확대해보자는 뜻도 담겨있다.

8개 여성단체는 행사에 참가한 해외 학자와 여성운동가,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등 70여 명에게 각자 활동을 소개했고, 국내 여성단체 관계자 50여명도 자리를 함께 했다.

행사에서는 비정규직 차별, 가정폭력과 성매매, 이주여성의 인권 등 최근 국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고, NGO의 역할과 기능, 각국의주요 이슈 등에 대한 참가자들의 토론도 있었다.

이날 오전 세계여성학대회 총회에서 '지구화 시대, 여성의 권리 확보에 대한 여성주의적 연구'에 대해 주제 발표한 필리핀의 조세과 지지 S. 프란시스코 교수는 "여성운동을 하는 활동가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말했다.

마당에서 온 여성운동가 남 라오 리앙 윈 씨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폭력 문제들에 직면하는데, 다같이 만나 토론하면 함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NGO가 매우 활동적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이렇게 모여 의논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부럽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여성단체연합 회원단체가 준비한 김치, 김밥, 돼지고기 배비류 등 한국 음식으로 저녁을 함께 했다.

김선일에 대한 평가, 반가워할 이들은 미국

- 고 김선일 사망 1주기 추모 및 자이툰 철수 문화제

프레시안 2005년 6월 27일

26일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이라크에서 희생된 고 김선일씨 사망 1주기를 기념해 과평반대국민행동이 주최한 추모식에 시민단체, 민주노동당, 학생 등 5백여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후임지근한 날씨에 시작된 이날 행사는 여름 장마를 예고하는 빗줄기 속에 마무리됐다.

----- 이하 생략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김정수 공동대표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김선일씨 부모님의 얼굴도 1주기를 기억하는 집회 포스터를 통해 다시 봤다"며 저널리에 비해 반전과 평화의 목소리가 시들해진 스스로부터 질책했다.

김 대표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픈 모습은 여전하다. 김선원씨 아버지 모습은 대부분 우리가 잊고 있던 수많은 이라크인들의 모습"이라며 "하지만 지구 저편에서 매일 들려오는 죽음의 소식에 우리는 벌써 무감각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체념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연민과 분노의 감성 무감각해져...정부와 미국이 개입할 것"

그는 이어 "이라크에 대한 연민과 분노의 감성이 무감각해지는 바로 이런 모습을 이라크 파병을 한 정부 당국이나 미국 정부가 가장 기뻐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한다"며 "실제로 우리가 아무런 저항의 목소리를 내지 않은 틈을 타 정부는 파병연장등의안이나 자이툰 부대의 역할 변경을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국내에서 열린 세계여성학대회에 참석한 페미니스트 국제정치학자 '신시아 인로' 교수(미국 클라크대)의 말을 인용, "권력있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라며 "감수성이 살아 있어야 냉소가 아닌 연대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함께' 김광일 운영위원은 "올해 하반기를 파병연장 반대와 자이툰 부대 철수 운동으로 가득채우자"고 촉구했고,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파병의 댓가로 양심과 진실, 민주주의를 내놓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 이라 생략 -----

한국 여성 5명 노벨평화상 공동추천후보에 포함

연합뉴스 2005년6월30일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 한국의 여성운동가 5명이 스위스의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올해의 노벨평화상 공동후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의 민간단체인 '노벨평화상 2005재단'이 29일(현지시간) 발표한 여성 공동추천후보 1천명 가운데 한국의 경우 윤금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회장을 포함한 5명이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여성으로는 이밖에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이현숙, 김숙임 대표, 정유진 주한미 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 이철순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대표, 신혜수 한국정신대대대책위원회 대표 등이 올라 있다.

재단측은 1천명의 공동추천후보 명단을 이미 노벨상위원회에 제출했다면서 곧 이들의 신상 정보와 활동상을 수록한 책자를 만들어 올 연말 전세계에 배포하고 사진과 출판물을 소개하는 순회전시회도 가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벨평화상 2005재단'은 노벨상위원회로부터 수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받고 있지 않다면서 확실한 것은 이미 추천이 확정된 다른 197여명의 개인,단체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사실 뿐이라고 말했다.

재단 관계자는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해당 여성들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것이며 여성운동에 대한 관심을 고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수상에 실패하더라도 결코 실망하지는 않

졌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역대 노벨평화상 수상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을 극복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03년 8월 베르모드 탄폴트 스위스 연방상위원을 포함한 14개국 여성대표들의 주도로 결성됐다.

재단은 지난해 3월 인도의 뉴델리에서 첫 모임을 갖고 각 지역별 후보 지역 권터를 책정했다. 이와 함께 후보는 반드시 인권 증진과 어린이 보호, 빈곤추방, 기타 평화증진 활동에 기여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는 기준을 정했다.

재단은 이후 모두 150여개국에서 모두 2천여명의 여성 후보를 추천받았으며 수개월간의 심사 끝에 지난해 10월 1천명으로 압축했고 올해 1월달 노벨평화상 위원회에 명단을 제출했다는 것.

추천과정에서 상당수의 여성들이 신변상의 위협을 이유로 이름을 공개하지 말라거나 지명을 사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측은 1천명의 후보 가운데 약 45%는 일선에서 활동한 여성들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최종 리스트에 오른 여성을 보면 지역 안배가 고려된 듯, 인도가 91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이 81명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브라질과 러시아, 미국 등도 제법 많은 후보를 제출한 국가에 속한다. 일본은 6명이었으며 북한은 단 1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재단을 이끌고 있는 탄폴트 의원은 공동추천의 배경에 대해 "평화란 일상적인 바탕에서 이뤄지는 중단 없는 노력이며 하나의 문화이자 삶의 방식이다. 평화란 한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일회성의 극적인 이벤트도 아니다"고 설명한다.

또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 위험한 여건에서 복구와 평화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 고문과 살인, 납치를 한 목소리로 규탄하는 사람은 주로 여성"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구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수많은 여성들이 평화를 위해 헌신중인에도 여럿몇 노벨평화상은 대부분 남성들에게 돌아갔는데 분노했다는 것이 탄폴트 의원의 변이다. 실제로 역대 노벨평화상은 80명의 남성과 20개의 단체에 돌아갔고 여성 수상자는 10명에 지나지 않는다.

2005년은 노벨평화상의 첫 여성수상자(테르타 폰 쾨트너)가 탄생한 지 100주 년이 되는 해. 1901년 노벨평화상이 제정된 이후의 여성 수상자로는 테레사 수녀(1979년), 아웅산 수지 여사(1991년), 조디 윌리엄스(1997년) 등이 잘 알려져 있다.

"향후 남북한 여성교류 일반여성 참여 늘려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여성을 주제로 전문가 포럼 개최

여성신문 2005년12월17일

지난 9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개국 합의를 바탕으로 담은 공동성명이 다결된 뒤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여성들이 말아야 할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평화물만드는여성회는 12월 13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여성"을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열어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를 분석하고 여성들의 평화운동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석희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선 남북 당국 간 회담의 정례화, 남북 정상회담 개최 추진, 북핵문제 해결 노력, 남북교류 협력의 제도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해한 뒤 "남북한 여성 교류가 이벤트성, 여성 지도자 중심의 대규모 교류가 아닌 일반 여성 중심으로 모성보호, 어린이 영양, 탁아 등 구체적인 분야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교류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국방-통일-외교 분야에서 여성들의 참여 확대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지역 여성들의 평화 교류와 연대 강화 ▲군축, 평화교육 실시로 평화문화 형성 등을 여성적 과제로 제안했다.

김숙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과정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은 평화 통일 과정에서 여성 지분 확보라는 의미를 가진다"며 "여성적 시각에서 본 평화와 통일체제의 과제, 여성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요구함으로써 여성들이 평화체제 구축의 주체로서 위상과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형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연구위원은 "기존에 북한은 북-미 간 대화만을 고집했으나 요즘은 남-북-미 평화체제 구축을 추구하고 있어 남한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남한 정부의 주요 과제는 북한과 미국을 선곡해 로드맵을 작성하고 중-일-러 등 주변국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 못지않게 국내 반대파들의 비판과 저항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선 고려대 북한학과 겸임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 경희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남문희 시사저널 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국여성평화운동사 심포지엄 개최

통일뉴스 2005년12월27일

"여성통일운동은 여전히 우리에게 낯설다. 이 낯선 주제를 어떻게 여성대중에게 친숙한 그 무엇으로 다가가도록 하고, 통일운동이 왜 여성의 삶과 지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가를 이해시키는 것이 여성통일운동의 과제이다."

27일 '새롭게 읽는 한국여성평화운동, 흐름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평화여성회, 상임대표 김숙임)가 주최한 '한국여성평화운동사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정현희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는 이날이 지적하며 "여성통일운동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통일운동을 재검토하는 여성주의 통일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1987년 이후 통일운동이 대중화되면서 대두된 여성통일운동의 역사를 같은 해 '한국여성단체연합', 1997년 '평화여성회', 1998년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회, 2001년 통일연대 여성위원회, 2005년 '6.15공동위원회' 여성분부 결성 등 시간 순으로 나열하며 '여성통일운동'의 향후 과제를 '여성주의 통일운동'으로 설정했다.

그는 '여성주의 통일운동'의 대두와 관련해, 1990년 초 여성운동은 "그간의 통일운동이 민족공조나 민족적 동질성에 토대를 둔 통일국가의 이상을 넘어서는 어떤 전망을 갖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했다"면서 "통일운동을 포괄하는 좀더 확장된 범주로서 평화운동의 중요성을 제기했다"고 말했다.요컨대, "여성운동은 '통일을 통한 평화로'에서 '평화를 통한 통일로' 운동 슬로건을 바꾸어가고 있다"는 것.

이 같은 배경에서 그는 향후 '여성주의 통일운동'에 대해 "그간의 정치 일변도의 통일운동에 평화주의적 시각을 첨가하고, 전쟁을 정당화하는 이론에 맞서서 '불평'과 '배려'의 시각에서 그간의 남북관계를 돌아보고, 대안적인 화해,협력 체제의 모색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주의 통일운동’을 실현하기 위해 그는 ‘여성통일교육’의 실시를 강조하면서 “먼저 여성들에게 ‘북한 바로 알기’와 ‘북녘동포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교수는 통일운동에 있어 여성들의 참여가 “기존의 남성 중심의 통일운동에 일정 역할을 가세해 주거나 혹은 남성에 격대해서 통일운동을 통해 ‘여성의 새 물결기’를 시도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여성통일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간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지닌 편견, 즉 통일운동은 민족주의와 연결되고 동시에 이는 가부장제를 옹고희 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통일운동을 배반시키는 태도 역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운동 내에서 실제로 여성 참여가 있었나”

이어 토론에 나선 ‘여성주의저널 있다’ 윤경은 기자는 “통일운동 내에서 실제로 여성 참여가 있었나”, “여성주의 통일운동을 재검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가”, “여성통일운동이 통일운동사적 기록될 만한가”라고 물으며 여성통일운동에 대해 전반적인 회의감을 표명했다.

남북여성들의 교류에 있어서도 윤 기자는 “북한에서는 정부 측에서 여성 대표들이 나오는 반면 남한의 경우 순수한 민간여성이 나와 세로의 입지 차이가 크다”며 “탈북여성들을 통해서 여성운동이든 여성통일운동이든 북한 여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정보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윤 기자는 통일운동에 대해 기존의 견해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주장을 펼치 청중들을 의아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는 북한통로돕기운동이 통일운동의 대중화에 확산했다는 경 교수의 발표문에 “공정할 수 없다”면서 “통일운동이 민족주의와 반제국주의와 연관이 있다면 북한통로돕기운동은 통일 운동의 지향보다는 인도주의적 접근으로 시작돼서 않았나 싶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어 북한통로돕기운동이 대두된 1997년의 상황을 두고 “통일운동 진영은 북한통로돕기운동에 철저히 침묵했다”고 주장했으나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통일운동 진영은 어떤 입장 표명도 없었다”면서 “통일운동이 민족주의적 관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중국 내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도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탈북자들의 인권문제에 통일운동 진영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심영희 평화여성회 공동대표의 사회로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층 교육관에서 오후 3시부터 열렸다. 심포지엄은 1부 통일, 군사, 여성인권, 2부 정책, 교육, 국제연대를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정 교수를 포함해 8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여성주의 평화운동으로 거듭나야”

-새롭게 읽는 한국여성평화운동, 흐름과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

여성신문 2005년 12월 31일

평화를만드는여성회(공동대표 김숙임, 심영희, 김정수)는 지난 12월 27일 ‘새롭게 읽는 한국여성평화운동, 흐름과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통일·군사·인권, 정책·교육·국제연대를 각각 1, 2부로 나누어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는 여성통일운동사(정현백), 남북여성교류(김숙임), 여성들이 하는 군속·반전운동(김영리), 여성연대와 평화운동(최윤정·조영주), 법·제도·정책 개선을 위한 여성평화운동(안정애), 여성평화교육과 평화문화운동(김정수), 국제연대

활동(정경란·고유경), 여성평화운동의 흐름과 쟁점(심영희) 등 8가지 주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평화와 안보의 개념이 관념적으로 남성의 영역으로 치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반전, 인권, 국제연대활동 등 다양한 부문에서 여성들에 의한 평화운동이 진행·발전해온 과정을 되짚었다. 또 향후 여성들의 평화운동에서 여성주의 평화운동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평화와 안보 영역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는 "통일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적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각 교류협력기구 및 통일 과정에 여성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영희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는 평화운동과 정책의 차원에서 여성의 역할을 확장하기 위해 ▲여성의 참여를 확보하는 법적·정책적 개선 ▲젠더 관점에 입각한 평화문화 및 교육 ▲여성운동, 여성평화운동의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심영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는 차인순 국회의원 심의관, 이대훈 성공회대 평화학 강사, 오갑숙이 여성학자, 윤정은 일다 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평화물만드는여성회(공동대표 김숙임, 심영희, 김정수)는 지난 12월 27일 '새롭게 읽는 한국여성평화운동, 흐름과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통일·군사·인권, 정책·교육·국제연대를 각각 1, 2부로 나누어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는 여성통일운동사(정현백), 남북여성교류(김숙임), 여성들이 하는 군축·반전운동(김영리), 여성인권과 평화운동(최운정·조명주), 법·제도·정책 개선을 위한 여성평화운동(안정애), 여성평화교육과 평화문화운동(김정수), 국제연대활동(정경란·고유경), 여성평화운동의 흐름과 쟁점(심영희) 등 8가지 주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평화와 안보의 개념이 관념적으로 남성의 영역으로 치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반전, 인권, 국제연대활동 등 다양한 부문에서 여성들에 의한 평화운동이 진행·발전해온 과정을 되짚었다. 또 향후 여성들의 평화운동에서 여성주의 평화운동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평화와 안보 영역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는 "통일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적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각 교류협력기구 및 통일 과정에 여성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영희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는 평화운동과 정책의 차원에서 여성의 역할을 확장하기 위해 ▲여성의 참여를 확보하는 법적·정책적 개선 ▲젠더 관점에 입각한 평화문화 및 교육 ▲여성운동, 여성평화운동의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심영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는 차인순 국회의원 심의관, 이대훈 성공회대 평화학 강사, 오갑숙이 여성학자, 윤정은 일다 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시 민 인 권 상 장

사단법인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김숙임, 김정수, 심영희

귀 단체는 1997년 3월 28일 발족한 이래, 분단·분쟁 지역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식량난에 처한 북한 임산모와 어린이 돕기 운동, 탈북여성생활 실태조사, 남북여성교류 활동 등 북한 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활동을 통하여 남북화해와 평화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앞장 섰으며, 평화통일 교육운동, 전쟁반대 평화운동을 전개하여 민족통일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본회 시민인권상 사업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회 시민인권상을 드립니다.

2005년 9월 23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 장 이 준 범

■ 심 사 강 평 ■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시민인권상을 수여하기 시작한 지 어언 13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우리 나라의 인권 분야에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시민인권상을 수상한 수상자의 활동 내용은 바로 우리 나라의 인권 발달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이름 없이 인권과 정의의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들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인권의 중요성과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한 지향점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시민인권상의 중요한 기능이었습니다. 시민인권상의 수상자는 각계의 추천을 기원 후보자들의 활동과 업적에 대하여 심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평가를 거쳐 결정되는 것이므로 시대적 인권 상황이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고 역사적 정당성도 담보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나라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어 가고, 국민의 인권의식이 고양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는 감소하였으나, 그 동안 소외되었던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권상황 개선에 관한 요구가 분출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때 국가가 아니라 법률전문가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시민적 입장에서 인권과 사회정의에 관한 실정을 평가하고 시민인권상을 수여하는 것은 시대적 인권 목표의 정립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심사위원들은, 앞으로는 수상후보자를 종전처럼 추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회 자체에서도 꾸준히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인권상황의 전개에 있어 의미있는 역할을 한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수상후보자의 활동이나 업적이 현대계에서 현저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활동이 인권신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상을 수여함으로써 인권옹호사업의 질적, 상징적 중요성에도 무게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때면 그렇지만 금년에 있어서도 수상후보자 모두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하여 그 우열을 가리기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내용은 모두 훌륭한 것이었고, 이 분들의 활동으로 해당 분야의 인권과 정의가 신장될 수 있었다는 점에 아무런 의의가 없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여러 수상후보자 중 폭한 식량난문제, 북한인권 신장을 위하여 오랫동안 노력하고

있는 「사단법인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활동에 주목하였습니다. 1997년 3월 28일 발족한 이래 분단분쟁 지역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처해 있으면서 식량난에 처한 북한 임산모와 어린이 돕기 운동, 남북여성성평 실태조사, 남북여성고류 활동 등 북한 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활동을 통하여 남북화해와 평화적 기반을 세우는 데 앞장섰으며, 평화통일 교육운동, 전쟁반대 평화운동을 전개하여 민족통일과 한반도평화 형성에 기여하는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에 앞장 선 「사단법인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를 제13회 시민인권상수상자로 함께 합당하다는 심사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이 단체는 여성의 힘을 모아 민족의 평화적 통일과 아시아 지역의 평화,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해 실천을 목적으로 설립된 여성단체로, 평화통일사업, 평화통일교육, 평화통일연구 및 국내외 연대활동을 담당하고, 민족통일과 평화실현의 방법을 연구해 평화정책을 제시하는 동시에 다양한 여성평화운동을 전개하여 평화실현 노력이 성평등과 결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평화통일사업에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확대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한 여성들이 일론 여성들과 함께 1991년부터 1994년 사이에 동경, 서울, 평양, 동경에서 4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남북여성고류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습니다. 이는 통일 과정에서 남북한 여성들이 만나는 것은 여성의 힘으로 한반도 통일과 평화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임과 동시에 남북한 여성들간의 차이를 확인하고 인정하면서도 향후 남녀평등의 사회를 일구어가기 위한 연대를 모색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북한 식량난 해결을 위해 '밥나누기 사랑나누기'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심각한 영양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 임산모와 어린이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돕기 위해 여성계 차원의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안정과 현실과 관련 이슈 등의 해결에 참여하고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정책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한반도의 복잡한 경제 속에서 북한 인권 및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활동을 하였던 점을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북한 인권 및 남북한 통일문제는 아직까지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접근하여 다루기 어려운 상황이고 많은 난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올해 시민인권상 수상자로 “사

단법인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를 선정된 것은 그래서 더욱 뜻깊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데에 모두가 공감하시리라 믿고 내년에는 더욱 더 많은 수상후보자가 추천되어 명실상부한 시민인권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심사강령을 이만 줄입니다.

2005년 9월 23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시민인권상사업회
운 영 위 원 장 박 연 철

평화세상을 위한 아름다운 참여 -----

- 문화행사, 토론회, 연구활동, 캠페인 등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정기회비 납부로 평화여성회 활동을 후원합니다.
- 소식지와 자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마다 따라 자원활동 및 다양한 회원모임에 참여합니다.
- 평화여성회 웹사이트 <http://www.peacewomen.or.kr>와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회원들끼리 생각과 정보를 나눌 수 있습니다.

❶ 회원가입서 ❶

기본사항	이름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남 ☐ 여 ☐ 이동전화
연락처(집)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연락처(직장)	주소 직장명 전화번호	우편물받을곳 자택 ☐ 직장 ☐
회비구분	일반회원 월1만원 ☐ 월2만원 ☐ 월3만원 ☐ 기타 ☐ 학생회원(초·중·고생) 월3천원 ☐ 연2만원 ☐ 연3만원 ☐ 기타 ☐	
회비납부방식	CMS자동이체	
CMS신청서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가입동기		
관심분야	정세대응 ☐ 통일과제 ☐ 국방과제 ☐ 평화교육문화 ☐ 갈등해결 ☐ 평화심성 ☐ 소식지발행 ☐ 스터디모임 ☐ 평화축제 ☐ 기타 ☐	
가입일	200 년 월 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136-035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54번지, 2층

전화 02-929-4846 전송 02-929-4843

이메일 wmp@peacewomen.or.kr / www.peacewomen.or.kr

후원계좌 3888-810005-03104(하나은행) 예금주: 평화로만드는여성회



